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2018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8 KNMM International Symposium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SEA, the Foundation of GORYEO

- 일시: 2018. 9. 7(금) ~ 9. 8(토)
- 장소: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9.7 국제학술대회)
부경대학교 실습선 나라호(9.8 선상토론회)
- 주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중세사학회,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한국중세고고학회

일 정

1일차 9월 7일(금)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
등록 및 개회		진행 :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09:00 ~ 09:20	등록	
09:20 ~ 09:40	개회사 김기섭(한국중세사학회 회장)	
	환영사 주강현(국립해양박물관장)	
	축사 김영섭(부경대학교 총장)	
	축사 전호환(부산대학교 총장)	
참가자 기념촬영		
제1부 발표 및 토론		진행 : 홍영의(국민대)
9:40 ~ 10:10	[기조강연 1] 고려의 건국과 통일 그리고 바다	이정신 (한남대학교)
10:10 ~ 10:35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강봉룡 (목포대학교)
10:35 ~ 11:00	바다를 건너온 감귤, 들판을 달리는 말	야마우치 신지 (고베여자대학)
11:00 ~ 11:25	몽골시대 한중 해상교통과 그 향로	모리히라 마사히코 (규슈대학)
11:25 ~ 12:10	1부 토론	좌장: 홍영의 (국민대학교)
12:10 ~ 13:10	점 심	
제2부 발표 및 토론		진행 : 조명제(신라대)
13:10 ~ 13:40	[기조강연 2] 고려 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의 바다, 그리고 정국의 추이	김기섭 (부산대학교)
13:40 ~ 14:05	고려-송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문화 교류	웨이즈장 (中山대학)
14:05 ~ 14:30	고려전기 송상왕래와 동북아 지역 교역망	이진한 (고려대학교)
14:30 ~ 14:55	고려·중·일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 교섭	박용진 (농인대학원대학교)
14:55 ~ 15:40	2부 토론	좌장: 조명제 (신라대학교)
15:40 ~ 15:50	휴 식	

제3부 발표 및 토론		진행 : 한성옥(민족문화유산연구원)
15:50 ~ 16:15	고고자료로 본 고려의 해상활동	정의도 (한국문화유산연구원)
16:15 ~ 16:40	일본 출토 고려 청자	후루야 테즈오 (교토국립박물관)
16:40 ~ 17:05	중국 출토 고려 청자의 지역적 분포와 시대적 특징	동치엔리 (杭州박물관)
17:05 ~ 17:50	3부 토론	좌장: 한성옥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폐 회		진행: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17:50 ~ 18:10	폐회사(총평)	박종기 (국민대학교)

2일차 9월 8일(토)		부경대학교 실습선 나라호
08:30 ~ 09:00	승선 및 대회 준비	
09:00 ~ 09:30	전체 간담회 및 출항	
09:30 ~ 12:00	선상토론회 좌장 : 김광철(동아대)	9월 7일 발표자/토론자 전원 1부 주제토론 이종봉(부산대학교) 2부 주제토론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3부 주제토론 배상현(신라대학교)
12:00 ~ 12:30	점심 및 하선	

목 차

개회사	1
김기섭(한국중세사학회 회장)	
환영사	2
주강현(국립해양박물관장)	
축 사	4
김영섭(부경대학교 총장)	

【1부】

[기조강연 1] 고려의 건국과 통일 그리고 바다	7
이정신(한남대)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19
강봉룡(목포대)	
바다를 건너온 감귤, 들판을 달리는 말	40
야마우치 신지(고베여대)	
몽골시대 한중 해상교통과 그 항로	69
모리히라 마사히코(규슈대)	
1부 토론	106
좌장: 홍영의(국민대)	

【2부】

[기조강연 2] 고려 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의 바다, 그리고 정국의 추이	115
김기섭(부산대)	
고려-송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문화 교류	130
웨이즈장(中山대)	
고려전기 송상왕래와 동북아 지역 교역망	156
이진한(고려대)	
고려·중·일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 교섭	173
박용진(능인대학원대)	
2부 토론	190
좌장: 조명제(신라대)	

【3부】

고고자료로 본 고려의 해상활동	197
정의도(한국문화연구원)	
일본 출토 고려 청자	220
후루야 데쓰오(교토국립박물관)	
중국 출토 고려 청자의 지역적 분포와 시대적 특징	235
동치엔리(杭州박물관)	
3부 토론	281
좌장: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개 회 사

올해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중세사학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고려 건국의 의미와 고려 문화의 특질을 밝혀내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립해양박물관과 함께 개최하는 본 학술회의는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라는 주제로 고려를 둘러싼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의 바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고려의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 교역과 문화교류의 내용과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고려의 해양국가적 의미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각 주제들은 해상세력으로 성장한 고려 건국 주체 세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바다를 통한 교역의 실태, 한중일의 문화교류와 고고 자료를 통해본 해상활동 및 중국과 일본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에 관한 분석 등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바다를 둘러싼 한중일의 교역과 문화의 상호 교류, 그 의의에 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적극적인 지원,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후원, 한국중세고고학회의 도움에 힘입어 개최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경대학교는 실습탐사선 ‘나라호’에서 선상토론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고려의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폭넓은 이해가 있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한국중세사학회 회장 김 기 섭

환영사

올해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중세사학회,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중세고고학회와 함께 국제학술대회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는 한국사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과는 또 다른 의미의 통일을 완성한 국가입니다. 신라의 축소 이후 웅거한 호족세력을 통합하고 갈라졌던 후삼국을 통일하였으며 발해를 잃고 내려온 유민들을 포용하며 탄생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이 갈라진 이후 70년이 넘는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민족적 비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방과 포용에 기반을 둔 국가적 노력으로 한반도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삼국은 물론 발해를 포용하여 실질적인 민족통일을 완성한 고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시점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한 나라는 본디 개방적입니다. 바다 너머에서 온 기이한 것, 낯선 것들을 포용할 줄 압니다. 두려움 없고 담대합니다. 새로운 통일과 평화, 번영을 누렸던 고려의 저력은 그들의 해양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해상세력 출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이름은 바다를 통해 뻗어나가 세계에 각인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어 명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는 해상을 통한 무역으로 그 당시 이미 세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고려가 빚어낸 작품들이 바다를 통해 먼 나라로 진출했고, 또 그곳의 물산들이 고려로 들어 왔습니다.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문화까지도 바다를 통하지 않았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고려의 터전이자 원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고려가 누렸던 통일과 평화, 번영을 이 시대에 다시 창조하려면, 우리는 고려와 같이 개방과 포용을 통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고려를 탄생

시킨 해양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고려의 세계 확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중세사학회,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한국중세고고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과 발표, 토론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여러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장 주 강 현

축 사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2018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고려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해양 개척정신을 돌아보고 배우면서 이 시간이 바다로 열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통일 시대를 열어 민족중흥과 인류공영이라는 시대의 열망을 실현해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신해양 무한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의 무대가 바로 해양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명운은 단연코 바다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해양영토를 지키고 넓히기 위한 면밀한 준비와 선도적인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천혜의 반도국가’입니다. 육상자원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위기 극복의 유일한 답도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우리 미래의 오랜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21세기 신해양정책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중세사학회가 해양을 주름잡던 우리 고려의 진취적 정신을 돌아보고 통일시대를 전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해양강국의 일념으로 전문가들과 일반이 서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해주신 국립해양박물관 주강현 관장님, 한국중세사학회장 김기섭 부산대 전총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중세사학회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총장 김 영 섭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SEA, the Foundation of GORYEO

제1부 발표

- [기조강연 1]
고려의 건국과 통일 그리고 바다
/ 이정신(한남대)
 -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 강봉룡(목포대)
 - 바다를 건너온 감귤, 들판을 달리는 말
/ 야마우치 신지(고베여대)
 - 몽골시대 한중 해상교통과 그 항로
/ 모리히라 마사히코(규슈대)
 - 제1부 토론
/ 좌장: 홍영의(국민대)
-

기조강연1

고려의 건국과 통일 그리고 바다

이정신(한남대)

1. 고려왕조의 건국과 이념적 기반
2. 태조의 통일된 고려 만들기
3. 고려왕조와 바다 그리고 광종의 개혁정책
4. 동아시아에서의 중심국으로서의 고려

1. 고려왕조의 건국과 이념적 기반

고려왕조는 지금부터 1100년 전인 918년 음력 6월 병진일(25일, 양력 7월 25일)에 태조 왕건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어서 그는 신라 경순왕을 귀부케하고 후백제를 멸망시켜 고려로 편입시킴으로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하였다.

고려는 지배층이 바뀌어 단시일에 나라를 세운 조선과 달리 후삼국이라는 40여년간의 통일전쟁과 여러 호족들의 이합집산이라는 혼돈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같이 태조는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워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왕건을 위시한 고려왕조 건국의 주체세력은 고려사회를 신라의 연장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선 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를 없애고 정치 참여층을 확대시킴으로서 고려민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와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태조는 호족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각지에 건재한 토호세력과 함께 나라를 운영함을 표방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려는 중앙 관리층에 전국의 토호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켰다. 우선 고려건국에 공이 있는 호족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다음은 강력한 호족의 딸들을 비로 맞이하는 결혼정책을 실시하여 무려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두었다. 셋째는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하여 출신지역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한 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관직을 하사하는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어 그들의 반감을 지우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으로 지방세력을 무마하는 한편 후삼국 통일 후에는 고려사회를 이끌어어나가는 이념적 기반으로 불교를 국교로 삼고 또한 북진정책을 내세워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단일 민족체, 단일 국가였다고 하나 이는 고려 이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다. 고려 이전에는 남북국이, 그 이전에는 삼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고려 태조 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후삼국을 통합한 이후에도 고려사회는 후백제나 신라민들과의 갈등과 분열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후백제의 경우, 전쟁을 통해 강압적으로 통합했던 만큼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분열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북방에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조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 발해유민을 우대하고 평양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하여 거란이 보내온 거란사신 30명을 유배 보내고 낙타 50필을 굶겨 죽였다¹⁾. 태조는 그 이유를 형제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라 했다. 이는 발해를 우리 민족국가로 받아들임으로서, 삼국시대, 그 이후 발해 신라의 남북국시대를 계승한 유일한 나라로 고려의 정통성과 최초의 통일국가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그는 고려의 북진정책과 거란의 남진정책은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부딪쳐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시기에 거란과 교류하게 되면 고려와 거란의 경계를 확정짓는 것이 우선적인 외교적 현안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지만 고구려 영토의 상당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발해가 멸망함으로써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이 거란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북진정책을 써서 북방경계선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태조의 목표였다. 그러므로 북방의 영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란과의 외교는 고려의 地界가 태조대의 영역으로 확정될 우려가 있었다. 태조가 거란과의 외교를 거부한 것은 영토문제도 중요한 작용을 했으리라 판단된다.

고려의 거란에 대한 강경 대응은 대외적으로는 만주의 발해유민과 여진 등 거란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사』에 의하면 942년까지 여진이 거란에 조공한 기록이 연평균 1.8회 증가했는데 비해 943년부터 급감하여 976년까지 34년간 6회에 불과했다고 한다.²⁾ 이들은 고려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는데³⁾ 이것이 후일 발해인과 여진족이 고려에 지속적으로 귀부하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태조는 <訓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고려사절요』1 태조 25년 10월

2)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64쪽

3) 최규성, 1981, 「고려전기의 여진관계와 북방정책」 『동국사학』 15`16합

가. 우리 동방이 옛날에는 당의 풍습을 모방하여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면 사람의 성품도 다르니 구태여 같게할 필요는 없다.(『高麗史』 권1, 太祖 26年 4月)

태조는 고려만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이나 거란과는 지역이 달라 人性도 달라졌으므로 그들의 풍습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하여 스스로의 독자성과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전통적으로 계승된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여 고려가 단일 민족체 국가임을⁴⁾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태조는 우선 중국의 문물과 거란의 의관 풍속과 구별되는 고려만의 것을 확립시키고자 했다. 이미 진덕여왕 이래 당의 복식과 여러 문물의 전래가 신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경덕왕 때에는 신라 고유의 지명을 한문식으로 바꾸어 신라의 풍습이 당의 그것을 본받아 고유한 특성이 많이 없어졌다.

이에 반해 태조는 고유한 전통을 부각시키고 이어가려 했으며 이것이 고려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큰 구실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태조가 의도했던 고려문화의 특징적인 모습은 팔관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⁵⁾ 팔관회는 天靈 및 五嶽, 名山大川, 龍神 그리고 조상신에 제사지내는 것으로, 그는 여기에서 불교를 비롯하여 전통적으로 전래되던 민간신앙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 독자적인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교를 우대함으로써 40여년간 분열되어 있던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했는데, <훈요>를 통해 그가 지향하는 고려사회를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님의 호위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교종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게 함으로써 각자 왕업의 지속을 기원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모든 사원은 모두 道誥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天靈, 五岳, 名山, 大川, 龍神을 섬기는 것이다.⁶⁾

4) 민족, 민족체의 개념에 관해서는 박한용, 1994 「한국 근현대의 민족이론과 민족주의론」 『한국사』24 (한길사) 283~286. 민족은 신분제가 무너진 근대사회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신분제가 공고한 전근대 사회의 민족의식을 민족체로 명기하고 있다.

5) 『高麗史』권69, 志 23,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참조

6) 『高麗史』2, 世家 太祖 26年 4月

<훈요10조> 에서 태조의 고려 만들기는 불교를 정통사상으로 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신라, 발해에 이르기까지 주요 신앙이었다. 그 또한 불교를 중심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사찰의 창건과 통제였다. 고려는 제도적으로 전국의 사찰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던 시기의 지방통제의 일환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즉 태조는 禪師를 우대하고 禪宗을 추종하였지만, 그의 목표는 불교를 통해 민심을 회유하며, 사원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었다.

태조가 서울과 지방에 500개의 선종사찰을 건립했다는 것은⁷⁾ 창건이라기보다는 고려왕조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찰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해 준 것을 의미한다. 태조는 사찰을 공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승과시험을 국가 차원에서 치르고, 사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주어 사찰을 국가의 통제권 내에 들어 있도록 하였으며, 2년에 한번씩 담선법회를 개경에서 열어 지방세력을 통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족세력이 득세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조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강화시켜 사원이 개인의 구복보다 국가를 위한 공공물로 존재⁸⁾하도록 시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海會⁹⁾와 叢林은 불교계를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경을 중심으로 많은 사원을 창건하여 각 종파를 안착시키고 많은 불교행사를 통해 민심을 통합하였으며 지방세력도 사원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제어하였다.

이 중 그가 가장 중시한 것은 불교를 통해 후백제 영역의 주민들과 화합하는 일이었다. 특히 후삼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와 후백제는 통일의 명분하에 서로 싸워온 것이 무려 40여년 이었다. 전쟁은 인명의 살상, 생산력 저하, 지역경제의 붕괴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특히 전쟁에서 패배한 후백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컸으리라 생각된다. 통일을 이룬 후에도 서로를 적대시하여 싸운 감정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훈요 8조의 車峴以南과 公州江 밖의 인물을 중용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언어로 표명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국가적인 제도적인 차별이 아닌 후대의 국왕에게 전래되는 왕실차원의 제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된다.¹⁰⁾

7) 李奎報, 「龍潭寺 叢林會榜」『東國李相國集』25 우리 태조대왕이 국가의 토대를 닦고 선법을 독실히 숭상하여 이에 五百禪宇를 서울과 지방에 창건하여 승려들을 거처하게 하고 2년에 한 번씩 담선대회를 서울에서 열었던 것은 北兵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8) 許興植, 1976 「高麗의 僧科制度和 그 機能」『歷史教育』19: 1986 『高麗佛敎史研究』(一潮閣) 361~362

9)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歷代高僧碑文』고려편 3 (李智冠 譯註) 태조는 921년 海會를 설치하여 승려들을 선발하였다.

10) 노명호, 2009,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53쪽

2. 태조의 통일된 고려 만들기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태조의 첫 번째 목표는 경제적인 안정이었다. 태조는 즉위한 후부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전 임금은 “갑자기 송악을 버리고 부양(斧壤)으로 되돌아가 궁궐을 세우니 백성은 토목공사에 시달려 농사철을 놓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거듭되고 돌림병이 뒤이어 일어나니 가족들은 흩어져 유랑하다가 굶어죽는 자가 속출했다. 細布 한 필을 팔아야 쌀 5되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자기 몸과 자식을 팔아 남의 노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집의 마음이 매우 괴롭고 답답하다. 그 소재를 파악해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라.” 이에 노비로 전락한 1천여 명을 찾아내어 內庫의 布帛으로 몸값을 치르고 원래 신분을 되찾게 했다¹¹⁾.

2) 백성에게 3년 동안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사방으로 떠돌아 다니는 자는 전리로 돌아가게 하며, 곧 크게 사면령을 내려 함께 휴식하게 하라.” 하였다.¹²⁾

3) 왕이 예산진에 행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봉록을 받는 너희 공경장상들은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 자신들의 녹읍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내린 훈시를 준수하고 내가 내리는 상벌 규정을 따르도록 하라. 죄 있는 자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며 공이 많고 죄가 적은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상벌을 시행할 것이다. 만일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녹봉을 추징하고 죄질에 따라 1년이나 2~3년 혹은 5~6년에서 죽을 때까지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¹³⁾

태조는 전 임금 때 요역과 부세가 번거롭고 과중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농토는 텅 비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전국 농민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부채노비들을 내고의 포백으로 속환시켰으며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십일조를 택하게 했다. 태조 17년에는 예산진에서 백성들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공경장상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권력층을 제압하겠다는 그의 말은 고려 농민층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며 이는 후백제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금유 조장 전문사 등 일시적인

11) 『고려사』 권 1, 태조 원년 8월 신해

12) 『고려사절요』 권 1, 태조 원년 8월

13) 『고려사』1, 태조 17년 5월 을사

지방관 만을 파견하여 지역에서의 호족들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은 점 또한 호족들이 왕건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견훤이 나주로 투항하고 경순왕이 귀부했다. 견훤의 귀부는 아들 신검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왕건에게 투항하면 자신을 잘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으며 이는 경순왕도 마찬가지였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후삼국 통일 후 주민들을 위무하기 위해 불상, 탑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찰 건립도 고려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려정부는 사찰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후삼국 통일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개태사의 경우를 보면, 태조는 발원문에서 후백제의 정복을 군사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지않고 여러 부처의 도움으로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태사 부처는 어깨가 두텁고 손이 커서 인자한 부처님 모습보다는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를 연상케 한다. 이는 위협적이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큰 손과 장대한 체구를 가진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백제지역 주민에게 위엄을 과시하며, 한편으로는 복종시키려는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태조 때 뿐만 아니라 광종 때 만들었다는 논산 관촉사의 은진미륵이나 부여 대조사의 미륵불 등 백제지역의 부처들도 상당히 두터운 체구를 자랑한다.¹⁴⁾ 그러나 이들 부처는 신라 때의 부처와는 달리 백제 지방적 양식을 보유한 점에서 지역민에게는 매우 친밀한 부처의 모습이었다.

이는 고려시대 백제지방의 탑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은 관촉사 석탑, 익산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석탑 등인데 신라 통일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옛 백제지역에 백제의 특성이 담긴 석탑이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논산 관촉사 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서천군 비인 오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석탑조성은 그 곳에 살고있는 지역민도 함께 참여한 지방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태조는 불교를 당시의 분산되고 서로 적대감에 쌓여있던 후삼국 주민들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용하였던 것이다. 불교와 더불어 고려민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태조가 생각해낸 것이 동족의식이라는 고려시대 나름의 민족개념이었다. 여기에 적합한 나라가 발해였던 것이다. 이에 태조는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과 발해의 동족의식을 창출하여 한민족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용하였다.

넷째, 거란은 禽獸의 나라이므로 풍속이 같지않고 언어도 역시 다르니 삼가 衣冠 제도를 본받지 마라.(『高麗史』2, 世家 太祖 26年 4月)

14) 개태사의 3부처는 대개 4m 내외이며, 은진미륵은 18.2m, 대조사 미륵불은 10m로서 상당히 크고 건장하다.

다섯째, 내가 삼한 산천의 도움을 받아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水德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地脈의 근본이며 萬代 王業의 기지이다. 마땅히 四時의 仲月에는 그 곳에 행차하여 1백일 이상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라.(위의 책)

아홉째, 또 강하고 악한 나라를 이웃하고 있으니 어찌 위태로움을 잊어버릴 것인가. 군사는 마땅히 보호하고 구휼하며 요역을 헤아려 면제해줄 것이며, 매년 가을에 사열하여 무예가 특출한 자들은 마땅히 벼슬을 더하여 주도록 하라.(위의 책)

태조의 거란정책은 후삼국 통일이후에 구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후삼국 통일 이전까지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친선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¹⁵⁾ 그는 거란의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 것, 서경에 자주 행차할 것, 그리고 거란을 강하고 악한 짐승같은 나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이민족임을 명시하고, 이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잘 진무할 것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와 사는 곳이 달라 관습도 다르므로 구태여 같게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고려와 거란 뿐 아니라 중국과도 일정한 선을 그어 고려의 독자성을 표명하고자 했다.

태조의 북방정책은 거란의 대두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의 생전에 설치한 鎭은 모두 청천강 이남에 그쳤다.¹⁶⁾ 이에 태조는 옛고구려 땅을 수복하기 위한 1차적 작업으로서 병사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백성들이 고려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러기 위해 고려의 독자성을 강조하였고 불교를 중심사상으로 내세워 고려민을 하나로 만들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후백제 신라의 영역 뿐 아니라 발해를 흡수시킴으로서 옛고구려 주민들을 완전하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다.

발해인을 후대했다는 기록은 『高麗史』태조 17년 7월에 발해세자 大光顯이 수만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오자 태조는 그에게 王繼란 이름을 내리고 宗籍에 올리는 동시에 특별히 元甫의 관품을 주어 白州를 지키며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다.

태조 대에 국왕과 혈족처럼 친밀함을 나타내는 방증으로 호족이나 관료들에게 왕씨성을 하사하는 경우는 있었다. 이는 집안이 크게 내세울만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무한한 영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광현의 경우, 대씨 성을 버리고 왕씨 성을 받는 것이 과연 자랑스러웠을 것인지 의문이지만, 나라를 잃은 유망민 처

15) 한규철, 1994 「발해멸망기의 교섭」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147~152

16) 『高麗史』 地理3, 그리고 兵2 城堡와 『高麗史節要』 권1, 太祖條 참조. ; 姜大良, 고려시대의 대거란관계, 사해 창간호 28~30쪽 태조2년-용강현, 3년-함종현, 8년-成州, 11년-안북부, 통덕진(肅州), 安定鎭(順安)

지로서는 어쩔 수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예컨대 신라는 문무왕 10년(670), 안승을 金馬渚(益山)에 머물게 하고 고구려 왕으로 봉하였다가¹⁷⁾ 14년에는 報德王으로 개칭하였다. 이어 동왕 20년에는 안승을 문무왕 동생과 결혼시켜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당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된 신문왕대에 가서는 안승을 蘇判으로 삼고 김씨성을 하사하고 서울에 머물게 했다.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 왕에서 신라귀족으로 만듦으로서, 영역적으로는 고구려를 통합하지 못하였지만 왕통을 통합했다는¹⁸⁾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고려도 발해세자 대광현에게 왕씨성을 하사함으로써 발해의 왕족을 고려의 왕족으로 만들어 왕통의 계승이라는 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태조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고려만들기의 일환으로 발해의 왕자와 유민을 환영하고 복진정책을 표방했던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여 고려에 유망한 대다수 발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연관성이 강조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로서 고려에 통합되는데 대해 크게 불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불교가 정신적인 구심축임을 표방하기 위해 사찰을 세우고¹⁹⁾ 연등회 팔관회를 성대하게 베풀었다면 복진정책은 밖으로 고구려를 계승할 것을 표방하고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아야 하는 고려가 추진해야 할 미래의 꿈으로서 자리잡게 했다. 이에 그는 서경을 중시하여 국왕이 1년에 100일 이상 서경에 머물도록 하여(훈요 제5조) 서경이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개경과 서경에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다.

(㉠) 동신사는 宣仁門 안에 있다. 땅이 좀 평평하고 넓은데 전각이 누추하며 행랑 30간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正殿에는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여왕의 부인이며 河伯神의 딸이라고 한다. 그녀가 주몽을 낳아 고려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²⁰⁾

(㉡) 東明王墓는 府의 동남쪽 中和지역인 용산에 있으며, 민간에서 진주묘(珍珠墓)라고 부른다. 또 仁里坊에 동명왕 사당이 있는데 고려는 계절따라 어압(御押)을 내려

1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6 文武王 10年 7月

18) 古煎撤, 1998 「後期新羅.渤海의統合意識と境域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36

19) 919년 3월에 태조는 法王 王輪 등 10개의 사찰을 개경에 세웠으며 그 외에 지방에는 936년 후삼국의 통일 이후에 연산에 개태사, 청도에 운문사, 炭峴門內에 現聖寺 등을 설치하여 사찰을 통해 그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韓基汶, 1998 「高麗太祖時의 寺院創建」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참조

20) 『高麗圖經』 권17, 東神祠

주어 제사를 지내게 했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도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지금까지도 고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다. 세상에 전하기를 東明聖帝의 사당이라고 한다²¹⁾

개경 동신사에는 유화의 사당이 있으며, 또한 서경에는 동명왕의 묘와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소로서, 특히 주몽사당에 대한 배향은 현종, 숙종, 예종 뿐 아니라 고려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²²⁾. 이것은 역대 국왕들이 주몽의 사당에 계속 배향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충렬왕의 경우는 당시 고려가 원간섭기에 들어서 있었고 또한 평양에 원 직속지로서 동녕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동명왕 사당에 제사지낸 것은²³⁾ 고구려를 계승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광종대에 만들어진 왕건 동상의 나체상 양식은 불교나 유교조각 양식이 아닌 토속제례 조각상 양식으로²⁴⁾ 모든 신앙과 토속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포용하는 고려사회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고려는 전쟁을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한 성과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고려라는 구심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의식, 민족의식이 성립될 수 있었다. 고려시대야 말로 실질적인 최초의 통일국가였으므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고려왕조와 바다 그리고 광종의 개혁정책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비해, 고려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을 끼고 있는 개경이 수도라는 것도 앞으로 나아갈 고려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려왕조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회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1,100년전 고려의 모습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지렛대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21) 『高麗史』권58, 地理 3, 西京留守官 평양부 東明王墓

22) 『高麗史』4, 世家 顯宗 2年 5月 丁亥 평양의 木覓, 橋淵, 道知巖, 동명왕 등의 신에게 勳호를 붙였다 ; 『高麗史』 권63, 吉禮小祀 雜祀 肅宗 10年 8月 甲申에 사신을 보내 東明聖帝 사당에 옷과 폐백을 드렸다 ; 『高麗史』권13, 世家 睿宗 4年 4月 乙酉에 동지 추밀원사 許慶을 시켜 평양, 木覓, 東明 등 신사에 제사를 지냈다 ; 『高麗史』권63, 吉禮小祀 雜祀 睿宗 11年 4月 丁卯 사신을 보내 上京川의 상류인 松岳, 東神의 여러 신 묘와 朴淵 및 서경의 목덕, 東明祠와 道哲, 岳梯淵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23) 『高麗史』권30, 忠烈王 19年 10月 戊申

24) 노명호, 위의 책, 55쪽

고려왕조의 개방성은 왕건을 위시한 해상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왕건 집안은 대대로 예성강 유역에서 해상무역을 통해 큰 부자가 된 집안이다. 장보고의 몰락이후 해상의 주도세력이 청해진에서 예성강 유역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의 첫째 부인 신혜왕후 유씨는 貞州(개성직할시 개풍군) 토호 유천궁의 딸이다. 왕건은 궁예에게 귀부한 후 신라 효공왕 13년(909)과 신덕왕 3년(914) 두 차례에 걸쳐 군함을 건조하고 정비하기 위해 머물렀다. 따라서 정주 유씨 집안도 해상호족으로 판단된다. 둘째부인 장화왕후 오씨는 나주사람이며, 그 집안은 대대로 목포에 살았다고 전하므로 이 또한 해상세력으로 판단된다. 그의 측근 박술희 또한 서해안 면천호족 출신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초기에는 해상세력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세력을 키워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해상전투 능력은 궁예의 휘하에 있을 때 견훤의 영역이었던 나주를 빼앗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정주로부터 남하하여 서해안 일대를 장악하면서 영산강 하구 나주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는데, 특히 나주 전투에서의 승리는 왕건의 능력을 과시한 주요한 성과가 되었다. 또한 그는 영산강 하구에서 가까운 압해도에 근거를 갖고있던 능창 등을 비롯한 다도해 해적소탕에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나주 橐城(당진) 영암 진도 등 서해안 일대의 해상세력을 자신의 휘하에 집결시켜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이 기반이 되어 왕건은 궁예를 제치고 고려왕조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여러 나라와 교역하기 위해 서해와 남해가 중시되었다. 또한 개경이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고려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조운제도를 정비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를 보면 서해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려의 건국은 해양문화를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이었다. 신라 하대부터 중국으로부터 선종과 도자기가 들어왔으며 이같은 해상무역을 통해 축적된 자본으로 고려왕조를 건국했던 것이다. 고려왕조는 성립 후에도 활발한 무역활동으로 개방적인 사회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고려사회의 개방을 통한 활발한 대외교류는 외국의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고려는 초기부터 여러 개혁정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고려왕조 운영의 기틀이 된 제도로서 과거제도가 있다. 광종대에 실시된 과거제도는 신라의 전통적인 신분제인 골품제를 벗어나 각자의 실력에 의해 공정하게 우수한 관원을 뽑게 하는 정책으로서 지배 엘리트층을 교체할 만한 획기적인 제도였다. 이에 따라 혈연이나 호족과는 다른 지공거-좌주 문생이라는 과거를 통한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태조 대의 공신이나 관원들을 위한 음서가 있기는 했으나 과거제는 이후 1000여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인재를 뽑는 기준이 되었으며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외국인 관원도 채용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광종은 쌍기라는 외국인을 元甫翰林學士에 임명하였으며 그의 건의로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하였으며, 959년에는 쌍기의 아버지 쌍철도 고려에 와서 佐丞을 지냈다. 또한 천주사람 최인범은 고려에서 예빈성낭중을 지내는 등 고려시대에 외국인으로서 재상을 지낸 인물이 10여명나 되었다. 또한 『고려도경』에 의하면 비단이나 모직물 옷을 만드는 외국인 기술자도 많았다고 한다.²⁵⁾

세째 전시과 제도의 시행이다. 신라에서 공직에 복무하는 댓가로 관원들은 녹읍이라는 마을단위로 수취했다면 고려사회는 토지 결수로 구분하고 1/10세를 수취하게 하여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점이다.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경종대이지만 그 이전인 태조 23년에 역분전이 이미 설치하였다. 신라 말에는 정부와 토호 지방관들의 이중적인 수탈로,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다. 태조는 이를 경험삼아 ‘백성들로부터 수취하는데 법도가 있어야 한다(取民有度)’고 하여, 수취를 완화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4. 동아시아에서의 중심국으로서의 고려

대내외적으로 고려는 천자국을 표명하면서 태묘와 사직을 설치했다. 태조의 묘실에는 邊豆(제기 놓는 그릇)의 수, 폐백, 재계하는 일수 등에도 당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천자만이 지내는 원구제사와 방택제사를 고려에서도 지냈다.

고려에서 천자라는 휘호와 함께 천자국으로서의 제도를 사용한 것은 태조 대부터였다. 우선 경순왕은 귀부하여 올린 글에 고려국왕을 天子라 부르고 있다.²⁶⁾ 또한 태조를 부르는 호칭은 전하가 아닌 폐하였으며, 국왕의 政令을 詔, 制로 칭하였으며 봉어 최원이 후백제 평정을 축하하며 올린 글이 황제에게 드리는 表라고 하였다.

그리고 태조는 연호를 정해 천수라 하였으며, 광종도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광종은 수도 개경을 황도라고 명명하였고, 만년에는 ‘황제’ 호칭까지 사용하였다. 이는 고려 중기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윤관은 여진에게 고려 조정을 天庭이라 하였으며, 이규보 이인으로 임춘, 최자 등의 문집에도 천자와 황제 휘호가 구분없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 출토된 고려태조 왕건의 동상이 쓰고 있는 관은 천자가 쓰는 통천관이였다.

고려가 황제국임을 상징하는 주요한 행사로서 팔관회가 있다. 팔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거행되던 고려시대 최고의 국가 행사로서 불교의례와 우리 민족 고유의

25) 『고려도경』23, 특산물(土産)

26) 『보한집』권상, 고려사2 태조18년 기미

전통습속의례가 결합된 종교 제전이자 축제였으므로 여러 토속신에 대한 제사와 歌舞도 아울러 겸하고 있었다.

또한 팔관회는 고려 황제를 중심으로 한 질서 확립이 그 목적 중에 하나였고 조공무역과 국제 사신과 상인들의 조하를 받음으로써 고려의 독립성과 황제국으로써 위엄을 선포하는 행사였다. 팔관회에 참석하여 고려 황제에게 조하하는 외국인들은 고려가 중심이 되는 천하의 일원으로 고려에 내조하면서 고려의 덕화를 받는 조공국의 사자로서 예우를 받았다. 고려가 중심이 되어 중국과 병존하는 또 하나의 세계질서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즉 고려는 고려의 직 간접적인 지배아래 놓여 있던 여진추장 탐라왕족 등의 사신을 팔관회에 참석시켜 고려가 동아시아의 중심국임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려가 원 간섭기에 들어설 때까지 지속되었다.

요컨대 고려왕조는 분열시대를 끝내고 통일신라기 진골귀족에게 소외된 지방세력이 세운 최초의 실질적인 통일왕조이며 외세가 개입되지 않고 자체내의 동력에 의해 통일된 국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고려는 골품제라는 혈족중심 체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의 인적 문화적 자원 흡수하여 정신적으로도 하나라는 통합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끊임없이 지방세력을 중앙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인물이 충원되는 개방적인 사회였으며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다원적인 사회였다.

태조의 노력에 의해 고려는 하나가 되었으며 천자국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그가 전쟁을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한 성과를 넘어 정신적으로 고려라는 구심체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의식 민족의식이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거란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서 동아시아 강국의 패자임을 드러내어 발해유민과 여진족들을 고려 편으로 끌어들이었다.

태조의 통일된 고려만들기가 기본 바탕이 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계속 내려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강봉룡(목포대)

1. 머리말
2. 왕건의 서남해지역 장악과 고려 건국
 - 1)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동향
 - 2) ‘西南海防戍軍’과 견훤
 - 3) 왕건의 서남해지역 장악
 - 4) 고려 태조 왕건의 나주에 대한 보은과 迥微
3. 연안 제해권을 둘러싼 공방전과 후삼국 통일
 - 1) 강주(진주)와 운주(홍성)를 둘러싼 제해권 공방
 - 2) 왕건의 제해권 재장악과 후삼국 통일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와는 고려시대까지 섬과 바다는 활기차게 작동하였다. 9세기 전반 장보고가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무역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가장 저명한 사례이다. 장보고는 나주를 중심으로 영산강과 ‘羅州群島’의 다도해가 펼쳐져 있어 국내외 해상교통의 요지이며 도서해양의 재부가 집결되는 서남해지역의 잇점을 충분히 활용하였고, 그 결과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동아시아 해상교통시스템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청자생산단지의 소재지로 만든 것이 장보고의 유산이었다.

예성강유역 해양세력의 후예인 왕건은 궁예의 해군장군으로서 서남해지역 선점에 나섰다. 그는 서해안 해상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최대의 라이벌인 견훤과 서남해지역 섬을 근거로 세력을 결집해온 작은 라이벌 능창을 극복하고 서남해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마침내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 고려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왕건의 고려는 서해와 서남해와 남해의 해양거점을 둘러싸고 견훤의 후백제와 주도권 경쟁을 벌여나갔다. 서남해안의 나주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운주(홍성)와 남해안의 강주(진주)가 3대 해양 거점을 이루는 가운데, 고려와 후백제는 이들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을 치열하게 전개해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 왕건은

3대 해양 거점을 장악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하는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왕건의 해양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918년 고려 건국과 936년 후삼국 통일의 해양사적 배경과 과정과 결과를 추적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장보고-왕건-해양강국 고려’의 구도를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해양강국’ 고려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근래의 추세에 부응하려 한다.

2. 서남해지역 장악과 고려 건국

1)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동향

청해진을 거점 삼아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장보고가 841년 암살당하고 그 10년 후인 851년에 청해진마저 해체되고 말았지만, 장보고가 서남해지역에 남긴 유산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남해지역은 장보고가 닦아놓은 국내외 해상교통로의 요지로서의 위상이 건재하였고, 장보고가 강진과 해남 일대에 조성한 대규모의 청자생산단지는 여전히 국가적인 재부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¹⁾

그런데 9세기 후말기에 이르러, 장보고 사후에 구심체를 잃고 분산되어 있던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²⁾ 그 해양세력은 편의상 섬을 중심으로 결집한 ‘도서해양세력’과 영산강유역과 연안을 중심으로 결집한 ‘연안해양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 수 있다.

먼저 ‘도서해양세력’의 중심에는 압해도의 능창이 있었다. 그는 크고 작은 도서세력을 결집하여 큰 세력을 이루었고 ‘수달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水戰에도 능했기 때문에 경쟁 상대에게는 심대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후에 고려 측에서 능창을 일러 ‘도적의 우두머리’니 ‘해적의 괴수’니 비하하기도 하였으니,³⁾ 이는 역설적으로 그의 막강한 힘을 자인한 셈이다.

1) 강봉룡, 2003, 「해남 화원·산이면 일대 靑瓷窯群의 계통과 조성 주체세력」, 『전남사학』 19 참조.

2) 장보고 사후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동향에 대하여 두 견해가 제기되었다. 장보고의 암살하에 가위눌려 있던 해양세력이 폭발적인 해양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본 견해(이기동, 1999, 「후삼국 고려초기 한중 해상교역의 개황」, 『장보고와 21세기』, 해안, 158쪽)와 장보고라는 구심체를 상실하여 해양세력의 활동이 분산·위축된 것으로 본 견해(강봉룡, 2004, 「장보고 암살과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동향」, 『장보고 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67~168쪽)가 그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관점에서 장보고 사후 분산되어 있던 해양세력이 약 반세기 이후에 압해도의 능창 등을 중심으로 재결집의 기운이 일어난 것으로 보려 한다.

3) 주 27) 참조.

다음에 ‘연안해양세력’의 대표주자로는 나주의 다련군 오씨와 영암의 최지몽 등을 들 수 있다. 多隣君 오씨는⁴⁾ 나주의 국제항으로 명성을 떨치던 회진항을 배경으로 성장한 해양세력으로 보인다. 오다련의 父의 이름은 富侖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돈이란 큰 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그는 沙干 連位의 딸 德交와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간이란 원래 신라의 17개 중앙 관등 중에서 제8위에 해당하는 사찬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신라 말기 중앙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에서 지방 유력세력의 명칭으로 자칭하곤 했던 것이다.⁵⁾ 이를 감안한다면 오다련의 장인 역시 나주지역의 유력호족이었음에 분명하다. 오다련은 후에 왕건에게 포섭되었고 그의 딸이 왕건과 혼인하여 고려 태조의 제2비인 장화왕후가 되었다.⁶⁾ 崔知夢은 영암 구림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聰進이었다. 월출산 서쪽에 위치한 구림은 신라 말기에 국제항으로 저명한 상대포라는 포구가 있어, 최지몽은 상대포를 배경으로 성장한 해양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그 역시 후에 왕건에 포섭되어 왕건으로부터 ‘지몽’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고려 왕조 6대의 왕을 모시는 원로 중신이 되었다.⁷⁾ 이밖에 역시 후에 왕건에게 귀부하여 삼한공신이 된 羅聰禮를⁸⁾ 나주의 유력 세력으로 꼽기도 한다.⁹⁾

2) ‘西南海防戍軍’과 견훤

이러한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대두는 신라 중앙정부를 아연 긴장시켰을 것이다. 이들로 인해 자칫 국내외 해상교통로가 차단당하고 청자생산단지로부터 충당되어 온 국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라의 진성여왕은 889년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을 제압하여 이러한 장보고 유산을 사수하기 위해 ‘서남해방수군’이라는 특별군단을 결성하여 파병하기로 하였다. 889년 당시는 전국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해방수군’을 결성하여 파견했다는 것은 신라에게 서남해지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했던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서남해방수군’은 진성여왕의 의도와는 달리 결국은 견훤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야망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견훤은 오늘날 경북 문경지역의 중소 호

4) 다련군은 이름이러기 보다는 후에 왕건이 책봉한 작호로 생각되지만, 여기에선 편의상 ‘오다련’이라 칭하기로 한다.

5) 김광수, 1979, 「나말여초의 호족과 관반」, 『한국사연구』23, 126쪽.

6) 『고려사』 권88, 열전1, 태조후비 장화왕후 오씨.

7) 『고려사』 권92, 열전5, 최지몽.

8) 『고려사』 권104, 열전17, 羅裕.

9) 김명진, 2008, 「태조왕건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32, 287~288쪽.

10)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여왕 3년.

족인 아자개란 인물의 아들로서 출중한 완력과 무예를 내세워 난세를 틈타 중앙군의 일원으로 진출해 있었는데, 889년 ‘서남해방수군’이 결성되면서 일약 비장(裨將)으로 발탁되어 지휘관의 신분으로 파견되었다.¹¹⁾

진군 과정에서 견훤은 세력기반을 급속하게 확대해 갔다.¹²⁾ 견훤의 군대는 맞닥뜨린 호족들을 번번이 제압하여 그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워가더니, 진주(당시 강주)에 이르러서는 따르는 무리가 5,000여명을 헤아리게 되자, 견훤은 마침내 叛心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의 위세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여 가는 곳마다 호족들이 적대하기는커녕 앞 다투어 성문을 개방하며 스스로 투항하였다. 만만치 않은 위세를 떨치고 있던 순천의 해양세력 박영규와 김총도¹³⁾ 예외없이 스스로 견훤에게 투항하였다.

견훤은 순천에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원래의 목적지인 서남해지역을 향해 서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보류하고 문득 방향을 바꾸어 북상하였다. 그리하여 구례, 곡성 등을 거쳐 무주(지금의 광주)에 당도하자, 무주의 호족 지원도 견훤에게 투항하였다. 견훤이 무주를 접수한 건 경주를 출발한 지 3년 만인 892년의 일이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견훤은 왜 순천에서 원래의 목적지인 서남해지역을 향해서 직진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북상하였을까? 이는 아마도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위세가 만만치 않아 일단 그 예봉을 피하고 무주를 확보한 연후에 도모하기 위함이었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추정에 대하여 두 가지의 정황 전거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견훤은 892년 무주에 당도하자마자 전주를 도읍으로 하는 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892년 무주에 입성한 견훤은 은밀히 국왕임을 자부하면서 ‘술훈공 3주의 도독’과 ‘전주자사’를 자임하였다. ‘전무공’이란 전주(지금의 전북)와 무주(지금의 전남)와 공주(지금의 충청도)를 이르는 것으로, 그 3주의 도독을 자임했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전라도와 충청도를 아우르는 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설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무공 3주에서 전주를 맨 앞에 내세웠고 전주자사를 자임했다는 것은 전주를 중시하여 신국가의 도읍지로 내정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그는 무주에 입성한 지 8년이거나 지난 900년에 이르러서야 전주로 옮겨 도읍을 정하고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백제’의 건국을 선언했다. 견훤이 무주에서 8년간이나 지체한 이유는 아마도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을 제압하여 확보하려던 계획이 뜻대로

11)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견훤.

12) 경주에서 출발한 견훤이 진군 과정에서 세력기반을 확대해 간 자세한 내력에 대해서는 강봉룡, 2001, 「견훤의 세력기반 확대와 전주 정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84~88쪽 참조.

13) 박영규와 김총이 순천지역의 해양세력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청주, 1997, 「신라말 고려초 순천의 지방세력」, 『順天市史-정치사회편』, 173~183쪽 ; 변동명, 2002, 「順天海龍山城의 歷史」 『順天 海龍山城』, 순천대 박물관 ; 강봉룡, 2002, 「후백제 견훤과 해양세력-왕건과의 해양쟁패를 중심으로-」, 『역사교육』83, 118~121쪽.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당시 武州 동남쪽의 군현들이 견훤에게 모두 降屬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¹⁴⁾ 역시 나주 이남의 서남해지역이 아직 견훤에게 복속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견훤이 건국 이듬해인 901년에 신라 대야성의 공략에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금성(錦城, 지금의 나주)¹⁵⁾ 연변을 노략했다는¹⁶⁾ 점이다. 대야성 공격은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한 건국의 명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신라를 공격한 ‘정치쇼’에 가깝다고 한다면, 금성 연변의 부락을 노략질했다는 것은 아직 까지도 나주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¹⁷⁾ 지기의 영역을 노략할 리는 만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견훤은 무주에서 8년간 나주 이남의 서남해지역에 대한 공략에 나섰지만 여의치 못했고, 후백제를 건국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공략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이 하나로 힘을 결집하여 견훤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 싸우며 버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여 더욱 강성해져 감에 따라 그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어 갔을 것이 당연하다. 바로 그 과정에서 그간 합심 협력해오던 서남해지역 해양세력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던 것 같다. 즉 섬을 배경으로 성장한 도서해양세력은 비타협적 결사 항전을 굽히지 않았던 데 반해, 영산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연안해양세력은 뭔가 타협적 출구전략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자의 비타협적 항전은 능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후자가 선택한 출구전략은 왕건과 제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 같다. 이제 절을 바꾸어 그러한 정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왕건의 서남해지역 장악

왕건의 가문은 개성을 중심으로, 예성강과 임진강, 그리고 강화군의 여러 섬들을 배경으로 하여 국내외 해상무역을 통해 성장한 해양세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예종 대(1146~1170)에 金寬毅가 저술한 『편년통록』에 소개된 왕건 先代에 대한 설화적인 기록에 의해 설득력 있게 유추될 수 있다.¹⁸⁾ 누대를 거쳐 유력한 해양세력으로 성장한 왕건 가문이 본격적으로 큰 꿈을 품기 시작한 것은 그의 부친 龍建 때부터였다.

용건은 먼저 당시 풍수지리계의 전설적인 대가였던 道詵이 삼한을 통일할 인물

14)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6년(892).

15) 신라 경덕왕 대에 백제시대의 발라군을 錦山郡으로 개명하였는데, 혹은 금성군이라고도 했다. 고려 태조 때 금성군을 나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16)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효공왕 5년 8월.

17) 정청주, 1991, 「신라말·고려초의 나주호족」, 『전북사학』14, 149~150쪽.

18) 하현강, 1988, 「『편년통록』과 고려왕실세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참조.

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집터에 저택을 짓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제왕이 될 인물임을 뜻하는 ‘왕건’이라 명명하여 큰 꿈의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896년에 아들 왕건과 함께 철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호족으로 성장한 궁예의 휘하에 들어가 후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왕건은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자 후백제에 맞서 경기·충청지역에 대한 공략에 나서 전공을 세우며 능력을 인정받았다.¹⁹⁾ 그리고 곧이어 장보고의 유산이 깃든 서남해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는 만만치 않았다. 서남해지역은 이미 9세기 후말기부터 유력한 해양세력이 일어나 결집해 가고 있었고, 신라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서남해방수군’을 결성하여 파견했던 터였다. 그리고 ‘서남해방수군’의 비장으로 파견된 견훤 역시 자신의 국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서남해지역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후고구려에서 육로로 서남해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어 건너 뛰어야 할 후백제라는 험난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대대로 해양세력으로 잔뼈가 굵은 왕건에게는 서해안의 해로를 잘 이용하면 후백제를 우회하여 서남해지역에 이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해안 해양세력의 포섭에 나섰다.

왕건이 가장 먼저 포섭에 나선 이는 眞州의 柳天弓이었다. 정주는 지금의 개풍군 풍덕에 비정되는 곳으로,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가 만나고 강화도가 마주 보이는 해안가에 접해 있어, 해양의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유천궁은 큰 부자였고 정주 사람들이 그를 長者라 칭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주 지역의 유력한 해양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주는 왕건의 출신지인 개성과 인접해 있어, 왕건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유력 세력을 확실한 협력자로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건은 유천궁의 딸을 첫 부인으로 맞이하는 정략결혼을 결행함으로써 유천궁을 포섭하는데 성공하였다. 유천궁의 딸은 후에 태조의 첫째 왕비 神惠王后가 된다.²⁰⁾

다음의 포섭 대상은 혜성군의 유력한 해양세력인 卜智謙과 朴述熙였다. 혜성군은 백제시대에는 樞郡으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는 혜성군으로,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면천군으로 칭해지다가, 일제강점기에 면천면으로 강등되어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연혁 때문에 혜성군을 오늘날의 면천면에 한정하여 보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혜성군은 당진현(지금의 당진시), 여읍현(지금의 서산시 해미읍), 신평현(지금의 홍성군 장곡면) 등을 거느리는,²¹⁾ 오늘날 내포지역을 망라한 서해안의 중심 고을이었다. 혜성군은 신라시대 이

19) 900년에 왕건은 궁예의 명을 받들어 광주, 충주, 청주, 당성군(경기 화성), 괴양군(충북 괴산) 등의 군현을 평정하였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년 기사).

20) 『고려사』 권88, 열전1, 태조후비 신혜왕후 유씨.

래 대당교통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한 곳으로서,²²⁾ 오랫동안 郡格을 당당히 유지해오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면천군(혜성군)의 주요 인물로 복지겸과 박술희 등을 들고 있다.²³⁾ 먼저 복지겸은 당에서 건너와 해적을 소탕하고 주민들을 보호하여 큰 신망을 얻었다는 卜學士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어, 상당한 해양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에 복지겸은 홍유, 신송겸, 배현경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는데 앞장섰으며, 환선길과 임춘길의 모반을 적발하여 진압하는 등 왕건의 심복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²⁴⁾

박술희 역시 왕건의 심복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일찍이 궁예의 호위무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왕건의 천거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에 태조 왕건이 자신의 후계자로 나주 출신 장화왕후 소생의 武를 지목하고 박술희로 하여금 그의 후견인이 되도록 부탁했던 것으로 보아, 박술희는 왕건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왕무는 왕건의 뜻에 따라 고려의 2대 혜종으로 즉위하였으니, 그의 왕위계승은 왕건과 혜성군세력과 나주세력의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에 의해 성사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왕건의 마지막 포섭 대상은 최종 목적지인 서남해지역의 유력 해양세력 오다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듯이, 오다련의 딸과 두 번째 정략결혼을 통해 포섭과 연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준비를 완료한 왕건은 903년 3월에 궁예의 ‘수군장군’이 되어 정주에서 수군을 이끌고 서남해지역을 향한 첫 출정을 단행하였다.²⁵⁾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 아마도 혜성군의 해양세력과 합류하면서 내려와 光州 경계의 해안으로 상륙하여 錦城郡(지금의 나주) 등 10여 개의 군현을 점령하고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돌아갔다. 나주 이하의 해양세력은 그간 견훤의 집요한 공략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점을 염두에 둘 때, 멀리서 서해안을 따라 내려온 왕건이 단 한 차례의 공격으로 이를 점령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는 오다련 등 서남해지역의 ‘연안 해양세력’과의 우호적 교감 속에서 이끌어낸 ‘평화적 점령’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겠다.

왕건은 909년에 서남해지역 두 번째 공략에 나섰다. 궁예로부터 ‘해군대장군’의

21) 『삼국사기』 권36, 잡지5, 지리3, 熊州 樞城郡.

22) 唐津은 그 이름 자체 ‘당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고, 당진군에는 ‘당으로 가는 큰 나루’라는 의미의 ‘大津’이라는 포구도 있다.

2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면천 인물.

24) 김갑동, 2001, 「나말여초의 면천과 복지겸」,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참조.

25) 이하 왕건의 서남해지역 진출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전 기사 참조.

직함을 받은 왕건은 다시 정주에서 수군을 이끌고 서해를 따라 남하하여 鹽海縣(지금의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에 상륙하였다. 이곳에서 중국 吳越로 향해 가고 있던 후백제의 사신선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는 서남해지역이 국내외 해상 교통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왕건의 세 번째 공략은 912년에²⁶⁾ 이루어졌다. 먼저 서남해지역 최대의 중심 섬인 진도군과 압해도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 고이도를 위복시켜 능창의 거점 섬인 압해도를 고립시키는 한편으로 견훤과의 대결을 준비하였다. 당시 견훤은 후백제의 함대를 직접 진두지휘하여 목포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영산강 하구에 총집결시켰으니, 이는 왕건의 수군과 나주세력이 연대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난관에 봉착한 왕건의 수군은 고심 끝에 바람을 이용한 화공책을 써서 견훤의 전함들을 불태우고 후백제군 500여급을 목베는 대승을 거두었다. 견훤은 작은 배에 갈아타고 홀로 목숨을 건져 달아나는데 급급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제갈공명이 양자강에서 화공을 써서 조조의 수군을 대파했다는 유명한 적벽대전을 연상케 하는 바로서, 흔히 ‘덕진포대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영산강대전’이라 부르는 것으로 한다.

『고려사』에서는 왕건의 ‘영산강대전’ 승리에 대하여 “이로써 궁예가 삼한 땅의 절반 넘게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하였는데,²⁷⁾ 이는 서남해지역이 ‘삼한의 태반’에 비견될 정도로 전략적 중요성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남해지역의 이러한 중요성은 장보고의 유산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영산강대전의 승리로 왕건의 서남해지역에 대한 주도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서남해지역에서 왕건의 적대세력은 ‘도서해양세력’의 수장격인 압해도의 능창만이 남게 되었다. 왕건이 마지막으로 능창을 제압한 장면은 『고려사』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왕건은) 드디어 광주 西南界 潘南縣 포구에 이르러 첩자를 적의 경계에 놓았더니 壓海縣의 賊首 능창이 海島 출신으로 水戰을 잘하여 水獺이라고도 하였는데 도망친 자들을 불러모으고 드디어 葛草島의 小賊들과 결탁하여 태조(왕건)가 이르기를 가다려 그를 맞아 해치고자 하였다.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능창이 이미 내가 올 것을 알고서 반드시 도적과 함께 변란을 꾀할 것이니 賊徒가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힘을 아우르고 세력을 합하여 앞을 막고 뒤를 끊으면 승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니 해엄을 잘 치는 자 십 여인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작은 배로 밤중에 갈초도 나룻가에 나아가 왕래하며 일을 꾸미는 자를

26) 『고려사』에는 909년 기사의 연속으로 되어 있으나, 세 번째 공략은 912년에 일어난 일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강봉룡, 2002, 앞 논문, 126~127 참조)

2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전 기사.

사로잡아서 그 꾀하는 일을 막아야 될 것이다”라 하니 諸將이 다 이 말을 따랐다. 과연 조그마한 배 한 척을 잡아보니 바로 능창이었다. 궁예에게 잡아 보내었더니 궁예가 크게 기뻐하여 능창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말하기를 “海賊들은 모두가 너를 추대하여 괴수라고 하였으나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 어찌 나의 신묘한 계책이 아니겠느냐” 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목을 베었다.²⁸⁾

왕건은 수달이라 별칭될 정도로 수전에 능한 능창과 해상에서 맞대결을 할 경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밤중에 10여인의 병사를 압해도에 은밀히 침투시켜 능창 생포작전에 나섰는데, 요행스럽게도 그들이 능창을 생포해오는 바람에 우려했던 해상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모든 상황은 예상 밖으로 싱겁게 종료되고 말았다.²⁹⁾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주의 유천궁, 혜성군의 복지겸과 박술희, 그리고 나주의 오다련과 최지몽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해양세력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서해안 해양세력의 연대는, 왕건 가문이 대대로 서해안의 주요 해양세력과 교류하면서 쌓아온 교분이 있었고, 여기에 왕건 개인의 헌신적 노력이 보태져서 맺어진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건은 자신이 점령한 서남해지역을 주군으로 모신 궁예에게 바치지 않고 자신의 사적 세력기반으로 삼았다.³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이는 결국 왕건이 서남해지역에 남겨진 장보고의 유산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왕건은 장보고의 계승자라 할 수 있겠다.³¹⁾

4) 고려 태조 왕건의 나주에 대한 보은과 迥微

이상에서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장보고의 후예라 할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지지와 성원이 유력하게 작용했을 것임을 살폈

2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전 기사.

29) 능창에 대하여 친견훤세력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신호철, 1983,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32쪽) 이는 능창이 왕건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사실에다가, ‘왕건의 적은 곧 견훤의 우군’이라는 공식을 적용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능창은 왕건과 견훤 모두를 서남해지역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보고 적극 저항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0) 914년경에 왕건은 3,000여인을 인솔하여 군량을 싣고 나주로 가서, 가뭄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구휼했다고 하는데, 이는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자기 세력화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31) 과연 고려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서남해지역의 장보고 유산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장보고가 건설한 청자 생산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강진의 대구면 일대가 ‘고려청자’ 생산의 중심기지로 안착·발전하였고, 장보고가 닦아놓은 해로와 포구를 계승하여 영암의 상대포와 나주의 회진포 등은 저명한 국제무역항으로 떠올랐다.

다. 그렇다면 왕건은 고려 건국 이후에 이들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은의 조치를 취했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해명에 응하고자 한다.

먼저 왕건은 고려 건국 직후에 나주(당시는 ‘금성군’이었음)에 ‘羅州道大行臺’를 설치하고 이전 광평성 시중이었던 具鎭이라는 인물을 나주도대행대의 시중으로 임명했는데,³²⁾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³³⁾ 먼저 ‘羅州’라는 지명이 이 때 처음으로 거명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郡格에 머물러 있던 금성군을 州格의 ‘나주’로 승격시킨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나주도대행대’라는 특별행정구역으로 편제하고, 그 지방관의 직함을 시중으로 정하여 전 시중 구진을 임명했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시중이란 원래 국왕 아래에 한 사람만 존재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직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앙의 시중과 함께 나주지역(‘나주도대행대’)에도 시중을 병치했다는 것은 나주에 최고의 위상을 부여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는 나주에 대한 보은 차원의 조치였음에 분명하다.

다음에 나주 출신 오다련의 딸인 장화왕후 소생 武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왕건은 즉위하던 해(918)에 7세에 불과한 장남 무를 正胤, 즉 태자로 책봉하려 하였지만 주위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3년 후인 921년 4월 12월에 이르러 마침내 태자 책봉을 실행할 수 있었다.³⁴⁾ 이러한 태자 책봉의 우여곡절에 대하여 박술희 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혜종(무)이 7세 되던 때에 태조는 그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의 모친 오씨가 側微한 까닭에 세우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오래된 상자에 柘黃袍를 넣어서 오씨에게 주었다. 오씨가 이것을 박술희에게 보여주었더니 박술희는 태조의 뜻을 알고 혜종을 정윤으로 세울 것을 청하였다. 정윤이란 즉 태자를 이르는 말이다. 태조가 임종할 때 그에게 軍國 대사를 부탁하며 유언하기를 “그대가 태자를 부축하여 세웠으니 잘 보좌하라”고 하였다. 박술희는 한결같이 유언대로 하였다.³⁵⁾

여기에서 무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태조 왕건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오씨, 즉 장화왕후가 ‘즉미’하다는 것은 신분이 미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왕비의 배후에 있는 호족에 비해 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처음 무의 태자 책봉이 좌절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태조는 국왕의 상징인 자황포를 통해서 박술희에게 은근히 밀지를 전달했던 것이고, 박술희는 태조의 뜻을 받들어 태자 책봉을 건의하여 실현시켰으며, 무는 마침내 고려의

3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9월 계사.

33) 나주도대행대에 대해서는 박한설, 1985, 「나주도대행대고」, 『강원사학』1 참조.

3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12월.

35) 『고려사』 권92, 열전5, 박술희.

2대왕 혜종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혜종의 즉위 과정에서 박술희를 후견인으로 삼았던 것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서 이전에 왕건이 서남해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주의 유천궁-혜성군의 박술희와 복지겸-나주의 오다련’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해양세력의 포섭과 연대에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즉 왕건은 이러한 서해안 해양세력을 다음 세대의 정권 승계와 유지의 중심세력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주의 해양세력을 서해안 해양세력의 중핵으로 간주했음을 알 것이다. 이 역시 왕건에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에게 진 부채를 보상하는 보은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고려의 정치 상황은 왕건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혜종의 기반 호족이 ‘즉미’하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혜종은 몇 차례의 정변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재위 2년 만에 급서하고 말았다. 혜종의 뒤를 이은 이는 충주 유씨 소생의 이복동생 요와 소가 잇따라 왕위를 이었다. 정종과 광종이었다. 이들은 막강한 패서호족과 연계하여 혜종을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왕위에 올랐으니, 혜종의 독살설이 회자되는 이유이다.

혜종의 죽음과 정종의 즉위는 고려의 건국 기반인 서남해지역의 민심 이반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였다. 정종은 이에 이들을 무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니, 그의 즉위 원년(946)에 강진 무위사에 「先覺大師遍光靈塔碑」를 건립한 것이 그 일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각대사는 왕건의 서남해지역 진출과 고려 건국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형미 스님을 말한다. 선각대사비에 의하면 864년에 武州의 바닷가에서 태어난 형미는 15세에 보림사에서 迦智山門을 개창한 體澄을 찾아가 출가하고 882년에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891년에는 사신선 편으로 유학을 떠났다. 10년 후인 905년에 영산강 변의 국제항구인 會津을 통해 귀국한 그는 知州蘇判 王池本의 권유에 따라 월출산 남록에 위치한 無爲寺에 주석하였다. 왕건이 형미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왕건은 903년부터 서남해지역 공략에 나서 이 지역의 해양세력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형미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형미는 왕건이 서남해지역 공략을 마무리 지은 912년경에 왕건과 함께 철원에 이르러 궁예를 섬기다가, 고려를 건국하기 1년 전인 917년에 입적(入寂)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형미의 죽음에 대하여 선각대사비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왕건을 비호하다가 궁예에게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 건국 이후에 태조 왕건은 형미에 대한 극진한 존숭의 예우를 올렸다. 고려 건국 이듬해인 919년 3월에 형미의 제자를 불러 개성의 五冠山에 山寺를 수리하게 하고 부도탑을 만들어 그의 사리를 모시도록 하였다. 921년에는 형미의 시호를 先覺大師, 부도탑의 이름을 遍光靈塔, 절이름을 太安寺라 칭하도록 하였다. 형미에

대한 왕건의 이러한 예우는 서남해지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호하다가 궁예에게 살해당한 형미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탐비는 부도탑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그런 선각대사 형미의 탐비는 그가 입적한 지 29년 만인 946년에, 그것도 그의 부도탑(편광령탑)이 세워진 개경 오관산에서 수 천리나 떨어진 강진 무위사에 세워졌다. 뭔가 사연이 있음직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추측컨대 이는 정종이 결국 서남해지역의 세력이 존숭해마지 않던 형미 스님의 탐비를 서남해지역의 중심 사찰인 무위사에 세우는 입비의 의례를 대대적으로 거행함으로써 미심쩍은 혜종의 죽음에 이반해 가고 있던 서남해지역의 민심을 되돌리고자 했던 정치적 포석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왕건은 나주에 대한 정치적 보은에 나섰을 뿐 아니라 나주를 고려왕조의 차세대 정권기반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지역의 세력은 비록 ‘측미’하였지만 고려왕조에게 무시못할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는 이후 내내 지속되었다.

3. 연안 제해권을 둘러싼 攻防戰과 후삼국 통일

1) 강주(진주)와 운주(홍성)를 둘러싼 제해권 공방

순천 이동의 남해안은 견훤의 독무대였다. 889년에 경주를 출발한 견훤이 진군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호족들을 제압하여 강주(진주)에 이르렀을 때 5,0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단하였고, 이어 순천에 이르러 박영규와 김충이라는 유력한 해양세력을 복속시켰음을 앞에서 살폈다. 이후 순천에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반해, 강주에서는 920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4년(920년) 봄 정월에 왕(신라 경명왕-필자주)과 태조가 서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닦았다. 2월에 康州 장군 閔雄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겨울 10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보병·기병 1만을 이끌고 大耶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進禮에까지 진군하자, 왕이 아찬 金律을 보내 태조에게 원군을 구하였다. 태조가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그를 구원하게 하니, 견훤이 듣고 물러났다.³⁶⁾

920년 1월에 고려와 신라가 우의를 다지고 4월에 강주 장군 閔雄이 고려에 귀

36)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복해 오자 위기를 느낀 후백제가 10월에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고 진례(지금의 김해)에까지 진군하기에 이르렀으며, 왕건이 구원군을 보내자 견훤이 물러났다는 것이다. 이후 많은 호족들이 잇따라 고려에 귀부하였으니,³⁷⁾ 신라와의 우호관계 강화와 특히 강주 장군 윤웅의 귀부가 신호탄이었던 셈이다.³⁸⁾

그런데 924년 이후에 강주와 그 인근에서 독자적인 세력의 대두 움직임이 중국 측 기록에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윤웅의 귀복으로 인해 강주가 고려의 지배 하에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冊府元龜』에 의하면 “신라와 金朴英과 본국 泉州節度使 王逢規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쳐왔다”는 924년의 기사가³⁹⁾ 보인다. 김박영은 신라 경문왕이고 천주는 오늘날 의령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⁴⁰⁾ 강주 관내의 의령 출신인 왕봉규가 지방의 독자세력을 상징하는 ‘절도사’를 칭하면서 신라 국왕과 함께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강주 인근에 만만찮은 신세력이 대두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冊府元龜』에 “신라국 權知康州使 王逢規를 懷化將軍으로 삼았다”는 기사가⁴¹⁾ 나오는데, 이번에는 강주의 권지사로서 후당으로부터 회화장군의 장군호를 받은 것으로 보아, 왕봉규는 927년 3월에 강주 일대를 지배하는 유력 해상세력으로 떠올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봉규는 당시 전국을 삼분하고 있던 신라와 고려와 후백제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당분간 그 3국과는 별개의 세력을 형성하고 군림하면서 후당 등과 해양을 통한 대외적 교섭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왕봉규가 927년 3월 기사 이후에는 더 이상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문헌의 불비일까 아니면 왕봉규 세력이 타도되어 소멸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927년 4월에 왕건이 강주를 공격한 사건을 주목하고자 한다.

여름 4월 임술 海軍將軍 英昌과 能式 등을 보내어 수군을 거느리고 康州를 치게 하니, 轉伊山, 老浦, 平西山, 突山 등 4鄉을 함락시키고 사람과 물자를 노획하여

37) 921년에 백제의 官昌과 明權이 귀순하였고, 922년에는 하지성 장군 元逢과 명주 장군 順式과 진보성주 洪述이 고려에 투항하였으며, 923년에는 명지성 장군 城達이 그의 아우 伊達 端林과 함께, 그리고 벽진군 장군 良文이 생질 圭奭을 보내 고려에 항복하였다.

38) 당시 왕건이 강주 윤웅 장군의 귀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은 윤웅이 인질로 보낸 아들 일강을 아찬에 임명하고 재상 行誨의 누이동생을 일강의 아내로 삼게 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3년)

39) 『冊府元龜』 권972, 外臣部17, 朝貢5 後唐莊宗同光 2년. 한편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8년과 『新五代史』 권5, 唐本紀 장종 동광 2년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40) 김상기, 1960, 「나말 지방군웅의 대중국통교-특히 왕봉규를 주로-」,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 출판부, 61쪽.

41) 『冊府元龜』 권976, 외신부20, 褒異3, 後唐 明宗 天成 2년 3월 을미.

돌아왔다.⁴²⁾

여기에서 전이산과 노포와 평서산은 오늘날 남해도에, 돌산은 돌산도에 비정되는 곳으로, 이 때 왕건이 오늘날의 강주와 남해도, 그리고 돌산도 등의 남해안 해양 거점들을 석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때 왕건의 강주 공격이 잘 나가던 강주의 왕봉규 세력을 붕괴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해 8월에 태조 왕건이 강주를 순시하자 高思曷伊城 城主 興達이 歸附하였고 이와 함께 후백제의 여러 성주가 귀부했다는⁴³⁾ 것에서 알 수 있다. 앞서 920년에 강주 장군 윤웅이 귀부하자 이후 많은 호족들이 잇따라 고려에 귀복했던 바와 같이,⁴⁴⁾ 927년에 고려가 강주를 제압하여 왕건이 이곳을 순시하자 역시 많은 호족들이 귀부하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강주 지역이 차지하는 위력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주 공격 직전인 927년 3월 10일에 왕건이 직접 漚州를 공격하여 성주 兢俊을 격파한 사건도 함께 주목할 일이다. 운주는 오늘날 충남 홍성으로 비정되는 곳으로 해륙의 요지에 해당한다. 운주는 육로를 통해 공주와 부여를 거쳐 후백제로 직격할 수 있는 육상의 요새지였을 뿐 아니라, 홍성천과 삽교천이 합류하며 북쪽으로 예산과 아산을 통해 아산만에 이르고 서쪽으로 천수만에 이르는 서해안 해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곳은 고려 건국 과정에서 왕건의 서해안 3대 거점(정주, 혜성, 나주) 중의 하나였던 혜성군과도 직결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⁴⁵⁾

이렇듯 927년에 각각 남해안과 서해안의 주요 해양 거점인 강주와 운주가 고려의 수중에 떨어지자, 후백제의 위기감은 당연히 컸을 것이다. 그해 9월에 견훤은 그 충격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왔다. 먼저 이제까지 친고려적 성향을 분명히 해오던 신라를 몰아쳤다. 近品城(지금의 문경시 산양면 일대)을 공격하여 불태운 후에 高鬱府(지금의 영천군 임고면 일대)를 기습하고 경주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려의 군대가 채 당도하기도 전에 경주로 진입하여 경애왕을 살해하고 왕의 외사촌 동생 金傳를 대신 왕으로 세웠으니, 이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다. 고려의 구원병마저 공산(지금의 대구) 전투에서 신승겸과 김락 장군 등이 전사할 정도로 대파 당하였다.

이에 따라 강주에 대한 주도권이 점차 후백제로 넘어간 듯하다. 928년 1월 고려

4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4월.

4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0년 8월.

44) 주 37), 38) 참조.

45) 운주(홍성)의 역사지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명진, 2015,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兢俊의 역할」, 『군사』96, 175~181쪽 참조.

는 金相과 直良 등을 보내 강주를 구원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김상과 직량 등은 草八城(지금의 합천군 초계면)을 지나다가 후백제 측 성주 興宗에게 대패당하여 전사하였고, 5월에는 강주마저 견훤의 습격을 받아 대패 당하였다.⁴⁶⁾ 이후 견훤은 둘째 아들 양검을 강주도독으로 삼는 등 강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이렇듯 강주가 무너지자 고려는 곧 운주 사수에 나섰다. 928년 4월에 태조가 탕정군(지금의 아산)에 행차하였고,⁴⁷⁾ 운주의 옥산에 성을 쌓도록 하였으며,⁴⁸⁾ 7월에는 유금필로 하여금 탕정군에 성을 쌓도록 하였다.⁴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934년 9월에 왕건이 친히 운주 정벌에 나선 것으로 보아,⁵⁰⁾ 928년과 934년 사이에 운주 지역마저 후백제에게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 왕건의 제해권 재장악과 후삼국 통일

929년 12월부터 930년 정월 21일 사이에 벌어진 고창(지금의 안동) 전투에서 고려는 후백제에 대승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내륙의 다수 호족들이 고려에 귀복하는 추세가 이어졌다.⁵¹⁾ 이로써 그간 고려의 수세적 분위기가 적어도 내륙에서는 일신되는 듯했다. 그러나 제해권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이미 후백제는 남해안의 거점인 순천과 함께 강주, 그리고 서해안의 거점인 운주를 손에 넣었으며, 후술하듯이 930년경에는 고려의 최후의 보루라 할 나주 중심의 서남해지역까지 장악하였다.⁵²⁾

고려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930년부터 반격에 나섰다. 먼저 그해 8월에 천안으로 진출하여 天安府를 설치한 것이 그 첫 시도였다.⁵³⁾ 이는 충청도 내륙으로 통하는 천안을 대후백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함이었다.⁵⁴⁾ 이를 거점 삼아 고려는 932년 6월 15일에 昧谷城(지금의 보은군 회인면)을 쳐서 성주 龔直을 귀복시켰고,⁵⁵⁾ 7월 11일에 一牟山城(지금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으로 비정)을 공격하여 함락시킴으로써 충청 내륙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확대해 갔다. 그럼에도 후백제의

4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1년 1월·5월.

4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1년 4월.

48)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4월.

49)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7월.

5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9월.

51) 고창 전투 승리 직후인 1월 25일에 영남의 30여 군현이 대거 투항해왔다.(『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3년 정월 경인)

52) 주 59) 참조.

5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3년 8월.

54) 천안부 설치와 그 의의에 대해서는 김갑동, 2002, 「나말여초 천안부의 성립과 그 동향」, 『한국사연구』117 ; 김명진, 2007, 「태조왕건의 천안부 설치와 그 운영」, 『한국중세사연구』22 참조.

5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5년 6월 ; 『고려사』 권92, 열전5, 공직.

제해권은 위축시키지 못했다.

9월 견훤은 一吉粲 相貴를 보내 수군으로 禮成江에 침입하여, 鹽州, 白州, 貞州 세 고을의 배 100척을 불사르고 猪山島에서 기르던 말 300필을 취하여 돌아갔다.⁵⁶⁾

겨울 10월 견훤의 海軍將軍 尙哀 등이 大牛島를 공격하여 약탈하자, 大匡 萬歲 등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⁵⁷⁾

이에 의하면 견훤은 932년 9월과 10월에 고려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예성강 일대까지 침략하였다. 예성강을 통해 황해남도의 연안군, 배천군, 개풍군 일대를 노략하고 저산도(지금의 황해남도 은천군 대행면의 저도로 추정)에서 말 300필을 약취해 갔으며, 10월에는 대우도(지금의 황해남도 강령군 부근 섬으로 추정)를 약탈하였다. 그럼에도 고려는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로서는 제해권 탈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마침내 그 조치는 934년에 가서야 감행되었다. 먼저 그해 5월 6일에 왕건은 예산진(지금의 예산군)에 행차하여 민심을 독려하는 조서를 반포하였고,⁵⁸⁾ 이를 이어 다음 기사에 보듯이 9월 20일에 마침내 운주를 격파하기에 이르렀다.

왕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運州를 공격하여 견훤과 싸워 크게 이기자 熊津 이북의 30여 성이 풍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⁵⁹⁾

왕건이 고려군을 친솔하여 역시 견훤이 진두지휘한 후백제군을 운주 전투에서 대파한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운주는 해양과 내륙의 양면으로 통하는 요새지였던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다. 웅진 이북의 30여성이 대거 투항해 온 것이다.⁶⁰⁾ 서해안의 한 축을 이루던 운주를 차지함으로써 고려는 절대적 열세에 처해있는 제해권을 만회하고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서남해지역의 제해권 탈환에 나설 차례였다.

여름 4월에 왕이 여러 장수에게 이르기를, “나주의 40여 군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

5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5년 9월.

5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5년 10월.

5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7년 5월 을사.

59)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7년 9월 정사.

60) 932년 9월 20일 운주를 격파하자 웅진 이북의 30여성이 투항해 온 것은, 918년 8월 23일에 웅주와 운주 등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에 투항한 사건(『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원년 계해)을 연상케 하는 바로서, 운주의 변함없는 위상을 엿보게 한다.

어 오랫동안 풍화에 복종하고 있었는데, 요사이 백제로부터 劫掠당하여 6년 동안이나 해로가 통하지 않았으니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이곳을 진무하겠는가” 하니, 공경들이 庾黔弼을 천거하였다. 왕은 이르기를, “나 역시 그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요사이 신라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을 黔弼이 가서 이를 통하게 하였으니 그의 노고를 생각하면 다시 명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黔弼이 아뢰기를, “신이 비록 나이 들어 이미 노쇠하나 이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르기를, “경이 만약 명을 받든다면 어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소” 하고, 黔弼을 都統大將軍으로 삼아 예성강까지 전송하고 御船을 주어 보내었다. 黔弼이 나주에 가서 經略하고 돌아오니, 왕이 또 예성강까지 행차하여 맞아 위로하였다.⁶¹⁾

이에 의하면 935년 4월에 왕건은 자신의 울타리였던 서남해지역(나주의 40여 군)이 6년 동안이나 백제에게 겁탈당하여 해로가 경색된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남해지역이 견훤에게 처음 겁탈당한 때는 언제였을까? 흔히 935년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니 929년으로 추산하곤 했으나 햇수로 헤아리는 관행을 염두에 둔다면 930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⁶²⁾ 929년 12월에서 930년 1월에 걸친 고창 전투에서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후백제에게 서남해지역 제해권을 상실하는 일대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그러던 고려가 935년 4월에 이르러 해결사 유금필 장군을 내세워 서해와 남해를 잇는 서남해지역의 제해권을 6년 만에 탈환한 것이다. 왕건은 예성강까지 나와 유금필의 출정을 전송하였고 개선해 돌아오는 유금필을 역시 예성강까지 행차하여 맞이하였으니, 서남해지역에 걸었던 왕건의 기대가 얼마나 지대했었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서남해지역의 제해권 탈환은 확실히 고려에게 역전의 전기가 되었지만, 그 결정적 계기는 적(후백제)의 분열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가 서남해지역을 탈환하기 1개월 전인 935년 3월에 후백제에서는 심각한 적전분열의 사건이 일어났으니, 견훤이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자, 장남 신검이 아우 양검 및 용검과 공모하여 난을 일으켜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킨 사건이 그것이다.⁶³⁾ 결국 이러한 후백제의 분열사태가 고려에게 서남해지역 탈환이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서남해지역은 후백제 분열의 종착점이 되었다.

견훤은 막내아들 能乂와 딸 哀福, 嬖妾 姑比 등과 더불어 羅州로 달아나 入朝를 요청하였다. 장군 庾黔弼과 大匡 萬歲, 元甫 喬乂·吳淡·能宣·忠質 등을 보내 軍船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8년 4월.

62) 김명진, 2008, 앞 논문, 314~317쪽.

63)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3월.

40여 척을 거느리고 해로로 맞이하게 하였다. 견훤이 도착하자 그를 다시 일컬어 尙父라 하고 南宮을 客館으로 주었다. 지위를 백관의 위에 두고 楊州를 내려 食邑으로 삼았으며, 금과 비단 및 노비 각 40구과 內廐馬 10필을 내려주고 앞서 투항한 信康을 衛官으로 삼았다.⁶⁴⁾

935년 6월에 견훤은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나주를 통해서 고려에 입조를 요청하였으니, 이는 2개월 전에 고려가 서남해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견훤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주에 이른 경로는 아마도 해로였을 것이고,⁶⁵⁾ 유금필 등이 40여척의 군선을 거느리고 견훤을 개경으로 안내했던 것도 서해안의 해로였을 것이다. 견훤의 투항으로 이제 대세는 완전히 고려로 기울었다. 결국 그해 10월에 신라는 고려에 내투할 것을 알려왔고, 936년 2월에는 순천의 해양세력으로서 견훤의 사위가 된 박영규가 고려에 투항하였으며,⁶⁶⁾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는 이듬해인 936년 9월 8일에 일리천(지금의 선산군)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대패당하고 신검 등이 황산(지금의 논산)에서 항복함으로써⁶⁷⁾ 마침내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은 완료되었다.

4. 맺음말

왕건의 성공적인 해양활동은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그 자신 대대로 해양세력으로 성장한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누구보다 해양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았다. 그 중에서 특히 서남해지역은 왕건의 해양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거점이자 지지기반이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고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는 서남해지역은 국내외 해상교통로의 인후부였을 뿐 아니라 도서해양 산물의 보고였다. 9세기 전반기에 이러한 해양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가 남겨놓은 해양유산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효율적인 국내외 해상교통체계와 당시 최고의 무역품으로 각광받던 도자기의 대규모 생산단지가 장보고시대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64)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6월.

65) 그 해로는 아마도 851년 청해진이 해체된 직후에 청해진 사람들이 벽골군(지금의 김제군)으로 이주해간 경로의 역순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그때 청해진 사람들은 완도에서 출항하여 서남해를 거슬러 올라가 김제군 죽산면의 해창 포구로 입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견훤 일행은 그 해창에서 출항하여 영산강 하구에 이르고, 여기에서 영산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66)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9년 2월.

6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9년 9월 갑오.

그런 만큼 신라가 저물어갈 무렵인 9세기 말부터 서남해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차기 대권주자들의 쟁패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압해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의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큰 세력을 형성해가고 있던 능창과 중앙군 출신으로 서남해 지역의 해양세력 제압이라는 임무를 띠고 ‘서남해방수군’의 비장으로 파견된 견훤, 그리고 철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호족 궁예의 부하로서 서남해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출정한 왕건이 삼파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해안의 정주(황해남도 풍덕) 및 혜성군(충남 당진) 등의 해양세력과 서남해지역(나주)의 연안해양세력 및 고승 등을 성공적으로 포섭하고 지지를 이끌어낸 왕건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왕건은 서남해지역 장보고의 유산을 고스란히 챙기고 자기 세력화하여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궁예의 부하로서 왕건이 견훤과 능창을 극복하고 서남해지역을 확보한 것에 대하여 『고려사』는 “궁예가 삼한 전체의 태반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⁶⁸⁾ 또한 고려 말 조준은 時務 상서 중에서 “우리 神聖(왕건)께서는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지 못하였을 때에 먼저 수군을 조련하여 친히 樓船을 타고 錦城을 항복 받아 점령하니, 여러 섬의 이익이 모두 국가에 속하였고, 그 재력에 의하여 드디어 삼한을 통일하였습니다”라고 개진하였다.⁶⁹⁾ 결국 왕건이 해양활동을 통해 확보한 서남해지역의 도서해양의 이익과 재력에 대하여 ‘삼한의 태반’, ‘삼한 통일의 원동력’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 건국 이후에 제해권을 둘러싼 쟁패전은 요동쳤다. 왕건의 최대 라이벌인 견훤은 남해안의 주요 해양거점지인 순천을 중심으로 제해권을 확대해 가고 있었고, 역시 남해안의 주요 해양거점지인 강주(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해양교역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망가로 성장한 왕봉규와 같은 이가 대두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왕건의 지지기반인 혜성군을 포괄하는 운주(충남 홍성) 지역이 아산만 및 천수만의 해양과 충청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륙연계 거점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제해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던 와중에서, 고려는 927년 3월에 운주를 확보하고, 4월에는 강주마저 손에 넣어 한때 고려가 ‘서해안의 운주-서남해지역의 나주-남해안의 강주’를 잇는 제해권을 장악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후백제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후백제는 남해안의 순천과 강주, 서해안의 운주는 물론 고려의 ‘울타리’ 역할을 해오던 나주 중심의 서남해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써 이번에는 제해권의 대세가 후백제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어 932년에는 후백제가 고려의 심장부인 예상강 연안을 침략하는 상황에

6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즉위전 기사.

69) 『고려사절요』 권33, 신우4, 무진 우왕 14년 8월.

까지 이르렀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고려는 제해권 탈환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분투하였다. 934년 5월에 태조 왕건은 아산만으로 통하는 예산진에 직접 행차하여 백성들의 민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대민 위무 공약을 발표하고, 이어 9월에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그 운주를 쳐서 격파하여 성주 競俊의 귀부를 이끌어 냈다. 운주 확보의 파급효과는 30여성이 함께 귀부해올 정도로 컸다. 이에 자신감을 확보한 왕건은 935년 4월에 서남해지역 공략에 나서 유금필 장군을 파견하여 이를 탈환하기에 이르렀다. 서남해지역의 탈환은 그 한 달 전에 장남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함으로써 촉발된 후백제의 대분열에 편승한 측면도 있었다.

그해 6월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해로를 통해 나주로 나아가 고려에 귀부하기에 이르렀다. 견훤의 귀부는 사실상 후백제의 멸망을 의미하는 바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후백제의 최후는 서남해지역의 나주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서남해지역은 918년 고려 건국의 배경이자, 936년 후삼국 통일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세를 직감한 신라가 10월 고려에 내투할 것을 알려왔고,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도 936년 9월 일리천 전투에서 고려에 대파당하고 곧 이어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후삼국의 실질적 통일이 완성되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冊府元龜』
- 강봉룡, 2001, 「견훤의 세력기반 확대와 전주 정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 강봉룡, 2002, 「후백제 견훤과 해양세력-왕건과의 해양쟁패를 중심으로-」, 『역사교육』83.
- 강봉룡, 2003, 「해남 화원·산이면 일대 靑瓷窯群의 계통과 조성 주체세력」, 『전남사학』19.
- 강봉룡, 2004, 「장보고 암살과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의 동향」, 『장보고 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 해군애양연구소.
- 김갑동, 2001, 「나말여초의 면천과 복지검」,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 김갑동, 2002, 「나말여초 천안부의 성립과 그 동향」, 『한국사연구』117 ; 김명진, 2007, 「태조왕건의 천안부 설치와 그 운영」, 『한국중세사연구』22
- 김광수, 1979, 「나말여초의 호족과 관반」, 『한국사연구』23.
- 김명진, 2008, 「태조왕건의 나주 공략과 압해도 능창 제압」, 『도서문화』32.
- 김명진, 2015,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兢俊의 역할」, 『군사』96.
- 김상기, 1960, 「나말 지방군웅의 대중국통교-특히 왕봉규를 주로-」, 『海園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 출판부
- 박한설, 1985, 「나주도대행대고」, 『강원사학』1.
- 변동명, 2002, 「順天 海龍山城의 歷史」, 『順天 海龍山城』, 순천대 박물관.
- 신호철, 1983,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 이기동, 1999, 「후삼국 고려초기 한중 해상교역의 개황」, 『장보고와 21세기』, 혜안.
- 정청주, 1991, 「신라말·고려초의 나주호족」, 『전북사학』14.
- 정청주, 1997, 「신라말 고려초 순천의 지방세력」, 『順天市史-정치사회편』, 순천시 사편찬위원회.
- 하현강, 1988, 「『편년통록』과 고려왕실세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발표문

海を渡るミカン、野を過る馬

山内晋次(神戸女子大学)

はじめに

- 1 10世紀～13世紀前半の日麗貿易の概観
- 2 海を渡るミカン
- 3 野を過る馬
- 4 高麗王権の中華意識とミカン・馬

おわりに

はじめに

9世紀の日本には、新羅や唐の海商たちがしばしば来航するようになり、彼らとの貿易が発展していった。この貿易の拠点となったのは、九州北部に位置する博多の港であった。日本の貴族・官人・富豪たちは、大陸からもたらされるさまざまな珍奇な品物を「唐物(からもの)」と呼び、政府が規定した貿易ルールを逸脱してまでも、その入手に奔走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9世紀における新羅・唐海商との貿易の発展を基盤として、10世紀末以降、宋海商の来航による「日宋貿易」がさらに大きく発展していった。この日宋貿易において拠点となった港もまた博多であった。日宋貿易の発展を通じて、博多は日本の貿易センター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11世紀後半頃には、「唐坊(房)」と呼ばれる、貿易関係者を中心に中国の人びとが居留する区域も形成された[山内2003b・2017、大庭2009、榎本2010]。

このように日宋貿易が活発に展開された時期には、韓半島の高麗との貿易も並行しておこなわれおり、この貿易は「日麗貿易」と呼ばれている。ただ、現在残されている日麗貿易に関する文献史料が日本側・韓国側ともにきわめて少ないことや、この貿易でも日本側の貿易センターとなっていた博多の遺跡において高麗陶磁の出土量が中国陶磁に比べて微々たるものであること[佐藤2008]などから、日麗貿易は日宋貿易と比べてはるかに規模の小さい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ように関連するデータがきわめて限られているため、日麗貿易の実態を具体的に解明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とはいえ、乏しいながらも日麗貿易にかかわる史料を注意深く検討してい

くと、その断片的な史料から、具体的な貿易の状況や、さらにはそれを含めたより大きな歴史の動きがみえてくる場合もある。

本報告では、わずか10文字ほどの断片的な日麗貿易関係史料を出発点として、その史料の背後に広がる貿易の動向や、それと深く関わる高麗王権の国際秩序観などの問題に迫ってみたい。

1 10世紀～13世紀前半の日麗貿易の概観

918年に建国され、936年に韓半島を統一した高麗は、ほどなく日本に文書や使者を送って国交を求めてきた。しかし、日本の政府はその要求をすべて拒否した。こののちも、高麗側からはときに政治・外交的な働きかけがあったが、日本側の対応はほぼ一貫して消極的であり、結局両国の中央政府間で恒常的な国交が結ばれることはなかった。とはいえ、両国のあいだでの交流がまったく途絶えていたわけではない。本稿が主題とする日麗貿易はまさに、そのほそぼそと維持されていた交流の中軸であった。そこで、まず本章で、高麗が建国された10世紀初頭から13世紀前半頃までの時期の日麗貿易の動向を概観しておきたい[山内2003a、森平2008・2010、近藤2010、榎本2010、石井2017]。

まず、10世紀初頭～11世紀前半頃の時期については、997年に高麗から日本に送られてきた牒状への対応や、1019年に起こった「刀伊の入寇」をめぐる政治・外交的な接触などに関して、日本側に若干の史料が残されているが、貿易関連の史料は日本側・韓国側ともにほとんど残されていない。この点からみて、この時期に頻繁な貿易がおこなわれていたとは考えがたい。

つづく11世紀後半～12世紀前半頃の時期に関しては、『高麗史』のなかにしばしば、「日本国使」「日本国人」「壱岐島勾当官」「日本国船頭」「日本商人」「日本人」「日本商」「日本国僧俗」「日本商客」「日本国薩摩州」「日本国対馬島」「日本国筑前州商客」「対馬島勾当官」「日本国大宰府商客」などと呼ばれる人びとの来航記録がみえる。これらの事例のほとんどは、九州地域の官庁の官人やそれと関わりをもつ地域有力者・商人による貿易の記録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多くの記録が集中してみられることから、この時期には比較的頻繁に日麗貿易がおこなわれ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なお、それらの貿易者から高麗国王や高麗政府関係者に献上された品物として、『高麗史』には工芸品・刀剣・弓箭・真珠・水銀・螺甲・法螺などが記されている。

こののち、12世紀後半以降になると、ふたたび貿易関連の記録が日本側・韓国側双方の史料にほとんどみえなくなる。ただ、日本側の歴史書『百鍊抄』の永暦元(1160)年12月17条に、高麗国が対馬島の商人を抑留した、という記事がみえることなどからすれば、貿易関係自体はほそぼそと維持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の時

期の日本の貴族である藤原伊通は、著書『大槐秘抄』のなかで、宋海商の対日貿易の規模とはまったく違って、わずかな品物をもって貿易のために高麗に渡っていく対馬の人びとの姿に言及しているが、この記述はまさに当時の零細な日麗貿易の実態を裏づけるものであろう。

さらにくださった12世紀末～13世紀前半頃の時期についても、日麗貿易の具体的な状況を物語る史料は日本側・韓国側ともにほとんどみあたらない。ただ、そのようなきびしい史料的制約のなかにあっても、当時の貿易状況をかいまみさせてくれる記録がわずかに残されている。それは、日本から高麗への「進奉」に関する記録である。

13世紀の日本の貴族である平経高の日記『平戸記』の延応2(1240)年4月17日条には、「高麗国金州防禦使」が「日本国対馬島」に送った、泰和(金の年号)6(1206)年2月付の牒状に関する情報が記録されている。その記事によれば、この牒状には、「貴国」の使者が「進奉」と称して高麗にもたらした牒状が無礼であり、「進奉之礼」に違反するので、その牒状と「進奉方物」をもち帰らせる、という内容が記されていた。そして、この牒状の内容に関する記事につづけて平経高は、この「進奉船」については、「対馬島文牒」が無礼であったために「進奉物」を返却されたのであるから、古くからそのような「進奉」という呼称があるのか、あるいは「彼島(対馬島)人」が高麗側とどのような約定をしているのかなどの点についてさらに尋ねてみ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なお、この「進奉」の事例はほかにも、『吾妻鏡』安貞元(1227)年5月14日条や『高麗史』巻25・元宗4(1263)年4月甲寅条などの日本側・韓国側双方の史料にみえている。

この「進奉」の実態に関しては、これまでもいくつかの説が提示されているが、いずれにしても関連史料がきわめて少ないうえに、それぞれの史料が孤立して残されているために、いまだ確定的な結論には至っていない。とりあえず、現時点での私の理解としては、この問題を解く最大のカギは、史料のなかにみえる「対馬島」およびその島の人びとが日本と高麗というふたつの国家のあいだで果たした特殊な歴史的役割にあると考えている。つまり、この「進奉」という行為は、日本列島と韓半島の結節点の位置にある対馬島の官庁およびそれとかかわりをもつ在地の有力者たちが、12世紀頃までの日麗貿易の展開の過程で高麗政府ととり結んだ約定であり、対馬島から高麗国王への疑似的な朝貢とその恩恵としての貿易が一体となった特殊な関係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のである。

なお、上述のように、12世紀後半～13世紀の時期には、日麗貿易関連の史料が日本側・韓国側ともにほとんどみられなくなる。この史料の減少の背景として、対馬島と高麗との間で進奉関係が形成されるいっぽうで全体的には貿易が縮小していったという状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興味深い仮説も提示されている。また、13世紀前半の日本側史料には、北部九州の一部の人びとが高麗に渡って闘争・略奪など

をおこなった記録がみえるが、おそらくはのちの倭寇につながっていくこのような紛争も、日麗貿易関連の史料が減少する背景のひとつとして、あらため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2 海を渡るミカン

前章では、10世紀～13世紀前半頃の日麗貿易の動向を概観し、最後に「進奉」という素材を通じて、日本国内の他地域の人びとにはみられない、その貿易における対馬島の人びとの特殊な立場を指摘した。本章では、別の新たな素材を通じて、またちがった角度から、対馬島の人びとが日本・高麗関係のなかで演じた歴史的な役割を考えてみたい。その新たな素材とは、「ミカン」(本報告では柑橘類の総称として用いる)である。

(1) 対馬島からのミカンの貢上

前章でみたように、11世紀後半～12世紀前半頃の時期には、日麗貿易関連の史料が集中的に残されているが、そのなかのひとつに、『高麗史』巻10・宣宗2(1085)年2月丁丑条の

対馬島勾当官、遣使進柑橘。

という記事がある。ここには、対馬島の官人が使者を派遣して、高麗国王にミカン(柑橘)を進上し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同様な記事は、同書・巻14・睿宗11(1116)年2月丙寅条にも、

日本国、進柑子。

とみえる。ここでは「日本国」が高麗国王にミカン(柑子)を進上し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が、前者の1085年の記事から考えて、この「日本国」もやはり対馬島の官人たちを主体と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であろう。

さてここで、これらふたつのミカン進上記事が含まれる9～12世紀頃の日本におけるミカンの生産状況を同時代の日本側史料から概観すると、現在の九州・四国・山陰・近畿・東海地域などの比較的広い範囲でミカンが生産さ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ものの、対馬島でのその生産を記録した史料はみあたらない[山内2003a:94-95]。ただ、かなりののちの、しかも朝鮮王朝期の史料ではあるが、『朝鮮王朝実録』世祖実録・巻2・元(1455)年12月丙寅条に、

柑子初摘、便擇皮厚體堅者藏儲、則雖至四五月、色味不變、宜擇取盛頓堅封重襲、別進試之。又種乳柑為柑者、體小皮軟烈（裂？）、其味品倍常、封進之際、因柔軟易致毀爛

とあり、本来柔らかい果体の柑子については、皮が厚く実が固いものを選んで貯蔵して貢納することや、柑子の一種と考えられる「乳柑」に関して、やはり柑の一種であるので、味はたいへん良いが小型で皮がやわらかく裂けやすいため、国王への進上にあたっては、つぶれたり腐ったりしやすい、というような状況が述べられている。この史料なども参考にすれば、『高麗史』にみえる「対馬島」および「日本国」から高麗国王に進上されたミカンも、日本国内の遠隔地で生産されたものはるばる対馬島まで運ばれてきたというよりは、やはりその島あるいは遠くても九州あたりの土産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であろう。ちなみに、この『朝鮮王朝実録』の記事とほぼ同じ時期に成立した申叔舟『海東諸国紀』（1471成書）の日本国紀・対馬島の項では、その島での「柑橘」の生産が明記されている。

以上のような日本におけるミカンの生産状況からみる限り、『高麗史』に「対馬島」「日本国」からのミカンの貢上が記録されている11世紀末～12世紀初頭の日本において、ミカンという果物は、現代日本のわれわれの感覚ほどにありふれたもの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かといってきわめて希少でめったに眼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の珍果でも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では、なぜ、対馬島の官人たちは、当時の日本において珍果とはいいがたいミカンをもってわざわざ海を渡り、それを「外国」の君主である高麗国王に貢上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そこで次節では、当時の高麗におけるミカンに対する認識を検討してみたい。

（2）済州島からのミカンの貢上

『高麗史』のなかにミカン関連の記事を検索していくと、巻7・文宗6（1052）年3月壬申条に、

三司奏、耽羅国歳貢橘子改定一百包子、永為定例。從之。

という記事が見つかる。ここでは、「耽羅国」から高麗国王に毎年貢上されるミカン（橘子）の量を毎年100包に改定し、今後これを定例としたい、という三司の提案に対して、国王がそれを許可した、という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この「耽羅国」とはもちろん現在の済州島であり、この島は1105（肅宗10）年に高麗の郡県制に組み込まれる（『高麗史』巻57・志11・地理・2耽羅県）まで、百濟・新羅・高麗などに従属し

つつも形式的には独立国の体裁を保持していた。つまり、この記事の1052年の時点では、耽羅国 = 済州島は高麗にとって「外国」であり、この記事は、その外国から毎年、高麗国王へミカンが貢上されてい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のである。そうすると、この済州島の事例に関しても、先述の対馬島の場合と同じように、なぜその島からわざわざミカンをもって海を渡り、それを「外国」の君主である高麗国王に貢上しな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という疑問がわいてくる。

この疑問を解くためにとりあえず、前節の対馬島の場合と同じく、この記事がみえる11世紀前後の高麗におけるミカンの生産状況を探ろうとすると、同時代の韓国側史料のなかには、管見の限りその状況を物語る記録がみあたらない。そこで、朝鮮王朝期にまで時代をくだって、韓半島全域を対象とする地理志の『新增東国輿地勝覧』（1530成書）や韓半島各地で産出される食材を集成した許筠の『屠門大嚼』（1611成書）、および『朝鮮王朝実録』世宗実録・巻148-155・地理志などを検索してみると、その当時の韓半島において、橘子・柚子を除くほとんどの種類のミカンは済州島でしか産出されなかったことがわかる[山内晋次2003a：95]。本来熱帯から亜熱帯にかけての暖かい地域に生育する樹木であり、耐寒性に乏しい種類のミカンの諸種は、前近代の韓半島本土ではとくに冬の寒冷な気候のためにその栽培が困難であり、海洋性の比較的暖かい気候条件を備えた済州島でしかほぼ生産されなかったわけである。このような生産状況はおそらく、高麗王朝期の韓半島においても同様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栽培・生産状況を考慮すると、高麗王朝期の韓半島においてミカンは、同時代の日本とは異なり、局所的にしか生産されない希少な南国の珍果であり、だからこそ国王への貢納品ともなりうる価値を有していたのである。

（3）朝鮮王朝におけるミカンの貢上

これまで2節にわたって、「外国」である対馬島と済州島から高麗国王にミカンが貢上されていたという事実を指摘し、そのような行為がおこなわれた背景のひとつとして、前近代の韓半島においてミカンが希少な南方の珍果であったためではないかという仮説を述べた。しかし、高麗にとって「外国」である島じまからわざわざ海を渡ってミカンが貢上された理由としては、その仮説だけではなにかもの足りない。ただ、その理由をさらに深く探ろうとしても、すくなくとも韓国側の『高麗史』や『高麗史節用』および同時期の日本側史料には、それを明確に述べた記録はみあたらない。そこでさらに時代をくだって、とりあえず『朝鮮王朝実録』を基本史料としながら、ミカンという果物が国王に貢上される理由・意味を考えてみたい。

まず、対馬島から朝鮮国王へのミカンの貢上記録を検索すると、王朝の初期の以下のような事例を拾いだすことができる。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a) 定宗実録・卷5・2 (1400) 年8月癸巳条
日本からの使者が方物・柑子・梅花を献上

(b) 太宗実録・卷35・18 (1418) 年3月乙丑条
対馬島の左衛門大(太)郎が黄柑を献上、また大(太)郎は平道全を通じて柑子320
個を献上

(c) 世宗実録・卷19・5 (1423)年正月1月朔条
九州總管の源義俊の使者が礼曹に太宗の死を悼む書状を提出、その記事の末尾に記
されたさまざまな進上品(小礼)のひとつに「温州橘」1000個あり

(d) 世宗実録・卷25・6 (1424) 年7月乙亥条
対馬の左衛門大(太)郎の使人が「柑橘」の苗木50本を献上

これらの史料から、高麗王朝に替わって新たに成立した朝鮮王朝の国王に対しても、「外国」である対馬島・九州の有力者たちがひきつづきミカンやその苗木を貢上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こののち、上記の事例のような献上者の名前およびミカンやその苗木の数量を具体的に記した記録はみられなくなる。しかし、

(e) 成宗実録・卷281・24 (1493) 年8月癸未条
司憲府大司憲許琛等の啓で、倭人の「橘木」献上に言及

(f) 純祖実録・卷2・元 (1801) 年正月乙巳条
王が下した教のなかで、薬房に納入される薬剤のひとつとして「倭柑子」に言及、規
定上それは釜山の訓導が調達

などの記事からすれば、日本(対馬・九州)からのミカンの貢上は続けられていたと
考えられる。ただ、以上の日本関連の諸記録には、貢上品がミカンでなければなら
ない理由についての記述はとくにみられない。

つぎに、濟州島に関しては、1702年に濟州牧使兼濟州兵馬水軍節制使の李衡祥が
濟州島各地を巡歴した際に作成された『耽羅巡歴図』にもその様子が克明に描かれて
いるように、その島のミカンが土貢として朝鮮国王に貢納されていたことは、よく知
られた事実である。『朝鮮王朝実録』成宗実録・卷14・3 (1472) 年正月丁卯条の「濟
州点馬別監事目」には、濟州島産の橘・柚・柑子を「珍異之物」とする認識が示されて
おり、すでに「外国」ではなくなっている濟州島のミカンが依然として国王に貢上され
る理由の一斑はやはり、この点に求められるであろう。

しかし、この「珍異之物」という理由に満足することなく、さらに『朝鮮王朝実録』を検索していくと、まず、世祖実録・巻2・元(1455)年12月丙寅条にみえる、王が濟州都按撫使にあてた諭旨のなかで、濟州島から貢上されてくる柑橘は、宗廟に献上したり、外国(明)からの使者に提供したりするものであり、その果たす役割はとても重要である、と述べ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この言葉からは、ミカンは国内的にも対外的にも自己の支配秩序と深くかかわる重要な貢物である、という認識を朝鮮王権がもっていたことがわかる。なお、このようなミカンに対する認識は、南宋期の『尚書』研究の代表作とされ、のちの経学研究に多大な影響を与えた蔡沈『書集伝』の巻3・夏書・禹貢にみえる「張氏曰、必錫命乃貢者、供祭祀燕賓客、則詔之」という注釈を典拠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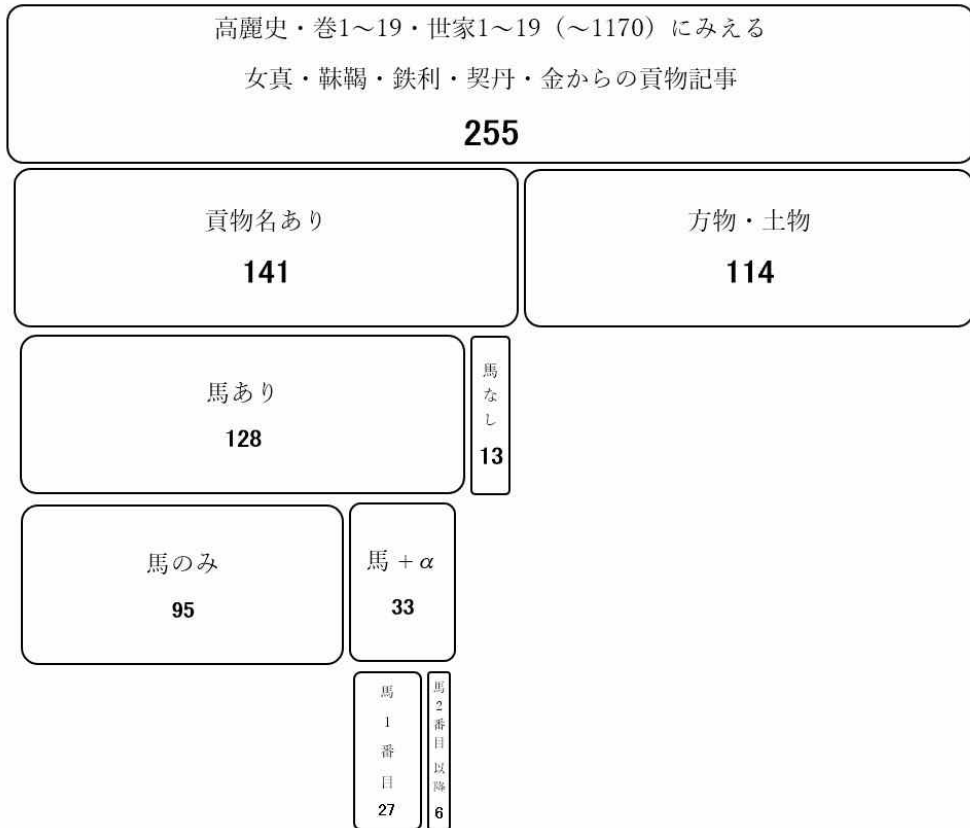
上記の史料から抽出することができた、王権の支配秩序とミカンとのかかわり、という視角にもとづいてさらに検索を進めていくと、正祖実録・巻11・5(1781)年6月丁酉条に記録されている、王が濟州島の三邑にくだした綸音のなかで、濟州島は海外1000里にあり、その貢物としての橘・柚は夏王朝のときに揚(揚)州から貢上された例に類する、と述べ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ここにみえる夏王朝の例とは、上文で注釈書を紹介した『尚書』夏書・禹貢篇の、南方の「揚州」の地は蕃夷の一種である「島夷」の世界にあり、そこから中原の夏王朝にもたらされるべき貢物(包)のひとつが「柚橘」である、とする記述が典拠となっている。つまり、この世祖の言葉からは、濟州島は朝鮮王朝を中心とする中華世界の南辺の海域世界=「島夷」世界に位置しているので、その地からは当然貢物としてミカンがもたら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王権の支配秩序認識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また、正祖実録・巻52・23(1799)年12月甲辰条では、知中枢府事洪良浩が『興王肇乘』を献上した際の上書のなかで、兀良哈や源了浚の属が国家の命に従い、南方からは橘柚が、北方からは貂や豹の毛皮がそれぞれ貢物としてもたらされる、述べている。ここからもやはり、韓半島南方の蕃夷の世界から貢上されるべきはミカンである、という朝鮮王権の秩序意識=中華意識とミカンとのかかわりを看取することができる。

以上のように、『朝鮮王朝実録』のいくつかの記録からは、日本や濟州島から朝鮮国王に対してなぜミカンが貢上されてくるのか、という問題を解くための重要な手がかりが得られたように思う。すなわち、ミカンが貢上されてくるのは、それがたんに「珍異之物」というだけではなく、むしろそれ以上に朝鮮王権の中華意識とのかかわりこそが重要な理由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この仮説については、のちの第4章において、高麗王朝期の状況ともかかわらせながら、あらためて触れてみたい。

3 野を過る馬

これまで、高麗王朝および朝鮮王朝の南辺から国王に貢上されてくるミカンについて検討してきたが、本章では視点を180度転じて、高麗王朝の北辺から国王に貢上されてくる馬の問題を考えてみたい。

『高麗史』巻1～19・世家1～19に収載されている、太祖元年から武臣政権が始まる毅宗末年（1170）までの期間の女真・靺鞨・鉄利・契丹・金からの朝貢記事に関して、その貢上品が記録されている記事を検索すると、255条を拾い出すことができる（女真236・靺鞨9・鉄利2・契丹2・金6）。この255条の内訳を図式化したのが下の図である。



全255条のうち、114条（44.7%）は「方物」（13条）・「土物」（101条）とだけ表記されており、具体的な物品名は不明である。そして、残りの141条（55.3%）についてはなんらかの貢物名が記されている。

つぎに、後者の貢物名が記されている141条の内訳をみると、128条（90.8%）に馬がみえ、残る13条（9.2%）にはその記載がない。

さらに、「馬」の記載がみえる前者の128条の内訳をみると、95条(74.2%)が貢物名として馬のみが記されており(馬・駿馬・名馬・良馬・土馬)、それ以外の33条(25.8%)には馬と並んでその他の貢物が記載されている。

そして最後に、後者の馬以外の貢物も記載されている33条について、それらの貢物が記載されている順番をみてみると、27条(81.8%)で馬が1番目に記載されており、残る6条(18.2%)では馬が2番目以降に記されている。

以上のような貢物名の分析にもとづけば、高麗北方の内陸世界に居住する女真を中心とする異民族から高麗国王への貢上品としては、まず第1に「馬」が想定されていたといつてよいであろう。北方の内陸世界からの貢物としての馬が続々と野を過り、高麗国王のもとにもたらされたのである。ただ、女真から貢上されてきた馬が高麗王朝において具体的などのような用途(軍馬・儀礼・賜与・贈答など)に利用されていた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は、現時点で報告者にはそれを論じる準備も能力もないので、今後の検討課題として残しておきたい。ちなみに、馬以外の北方からの貢納品としては、駱駝、氈、貂鼠・青鼠皮、軍需物資(甲冑・旗幟・皮鉄甲・兵器・器杖・甲冑・丙杖・弓矢・弓弩・楛矢・鉄甲・戈船)、蕃米、人口、黄毛、羊、良金などが記載されている。

4 高麗王権の中華意識とミカン・馬

以上、2章および3章での考察を通して、高麗王権は自身の支配領域の南方に広がる対馬島や済州島を含む海域世界に対してはミカンの貢上を期待し、北方に広がる女真を中心とする内陸世界に対しては馬の貢上を望んだ、という仮説が導かれる。これを言い換えれば、「北方内陸世界-高麗-南方海域世界」という、自己を中心とするサンドイッチ構造の支配秩序観といえるであろう。そして、このような韓半島の南辺と北辺をセットでとらえる観念は、『高麗史』のなかにも確認できるのである。

たとえば、巻9・世家9・文宗3の末尾に付された李齊賢の文宗朝に対する賛には、

宋朝每錫褒賞之命、遼氏歲講慶寿之礼、東倭浮海而獻琛、北貊扣關而受塵

というように、宋・遼との通交と並んで、東(南)方(海域世界)の倭からは珍宝が貢献され、北方(内陸世界)の貊(中国東北部のツングース系民族)は関をたたいて通過を要求し、宅地を与えられて帰順する、ということが誇らしげに述べられている。ここにはまさに、韓半島の南の海域世界と北の陸域世界をセットとしてとらえ、それぞれから中華たる「高麗」が貢納・帰化を受ける、という支配秩序=中華秩序の観念が表明されていると考えてまちがいないであろう。また、巻19・毅宗24(1170)年

正月壬子朔条には、

王受賀於大觀殿、親製臣僚賀表、宣示群臣、表曰（中略）自北使上寿而致辭、日域
獻宝而称帝

とある。ここでは、毅宗が朝賀を受けた際に、王みずから臣下の賀表の見本を作成し、それを群臣に示したが、そのなかに、北（金）からの使いは祝福の言葉を述べて文書を送り届け、日本は宝物を献上して（毅宗を）帝と呼ぶ、という文言があっ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ここにもやはり、北方の内陸世界と南方の海域世界をセットでとらえ、それらの世界を従属させている自己を中華として誇る意識がみえているといえよう。

とすれば、このような高麗王権の中華秩序意識のなかで、自己の南方の海域世界に広がる蕃夷＝「島夷」を構成するのが対馬島と濟州島の人びとであり、その人びとからは先述のように中国の經書で規定されているミカンが貢上されね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南方の蕃夷の世界と対になっている北方の内陸世界の蕃夷を代表するのが女真の人びとであり、その世界の特産物の主軸として高麗王権に貢上されねばならなかったのが馬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つまり、南方の海域世界のシンボルであるミカンと北方の内陸世界のシンボルである馬を貢上させることにより、高麗がそのふたつの世界を従属させる中華であることを可視化・実体化しようとしたわけである。さきほど2章の最後で検討した、朝鮮王権の秩序意識＝中華意識とミカンとのかかわりという問題はまさに、このような高麗王権の中華意識と歴史的に接続するものといえるであろう。高麗王権の中華意識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研究においても、八閩会儀礼へのさまざまな「外国」人の参加や遼の使節に対する接待儀礼および宋から来航する海商たちのとりあつかい方式などを素材として論じられてきたが[奥村1979・1982、山内2003b]、本報告が主題とするミカンと馬という素材もまた、その問題をさらに深く解明していくにあたって十分に有効な素材といえるであろう。

さらに付言すれば、高麗王権からミカンの貢納を期待された対馬島・濟州島の人びとも、馬の貢上を期待された女真の人びとも、それを一方的に強制された負担とは認識していなかった可能性が高い。対馬島や濟州島および女真の側においても、それらを貢納することにより、高麗との間での安定的な貿易関係や政治関係を期待していたはずであり、いわばギブ・アンド・テイクの関係として考えるべきであろう。

ところで、じつは、南方の蕃夷の世界のシンボルをミカンとし、北方の蕃夷の世界のシンボルを馬とする中華意識は、高麗王権の独自の発明ではなさそうである。というのも、そのような意識はすでに南北朝期の中国において看取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中華意識にいち早く注目したのが堀内淳一である[堀内2018]。以

下に堀内説の概要を紹介してみたい。

5～6世紀頃の中国では、並立していた南朝と北朝のあいだで、それぞれの皇帝の使者を介した物品の贈答がおこなわれていたが、その形態は朝貢と回賜というようなどちらか一方の王朝が主導権を握る関係ではなく、相手の要求する物品をふまえた「交易」に近いものであった。その具体的な贈答物としては、北朝から南朝へは「動物（馬・駱駝・騾）」「毛皮や毛織物（貂裘・氈）」「飲食物（塩・胡豉・葡萄酒など）」が贈られ、逆に南朝から北朝へは「加工品（螺杯・蠟燭）」「衣類（皮袴褶・錦）」「飲食物（甘蔗・黄甘・酒）」「動物（孔雀・象）」が贈られた。堀内はこれらの贈答品のなかでもとくに、北朝から南朝に贈られた馬と、南朝から北朝に贈られた黄甘に注目する。

堀内によれば、南朝が北朝に対してとくに馬を求めたのは、軍需物資として戦争に使用するためであった。南朝の支配領域である江南の湿潤な気候は馬の飼育には適しておらず、馬の主要な産地は必然的に北方にあったためである。いっぽう、北朝が南朝に対して執拗に黄甘を求めている理由としてはもちろん、ミカンの一種である黄甘が温暖な南朝の支配領域でしか採れない珍果であったという事情があるが、それ以上に北朝にとって重要なのは、自己を中心とする世界秩序を確認するうえで黄甘が重要な意味をもっていたからである、と堀内は説明する。

当時、北朝は南朝のことを「島夷」と呼び、これに対して南朝は北朝のことを「索虜」呼ぶことで、おたがいに相手をさげすんでいた。ここで、北朝が南朝をそのような蔑称で呼ぶ根拠は『尚書』夏書・禹貢篇にあり、北朝側はその書物で南方の蕃夷の地域とされている「揚州」や「荊州」を南朝の支配領域と認識していた。またその書物では、南方地域に居住する蕃夷である「島夷」は中華（中原）に対していくつかの物品を貢上することが規定されており、そのなかのひとつに橘・柚＝ミカンがある。つまり、北朝にとって「島夷」である南朝からはミカンの一種である黄甘が「中華」としての北朝に貢上「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たしかに北朝は、南朝に対して軍事的に優位に立っていた。しかし、北朝国内の多くの漢人や周辺諸国は南朝を正統な「中華」とみなしていた。そこで北朝は、自分こそが「中華」であり、南朝は辺境の「島夷」＝蕃夷にしかすぎないという認識を国内外に広め、自身の「中華」としての正統性を宣揚する必要があり、そのためにも南朝に対して、「島夷」のシンボルである黄甘＝ミカンの贈答を執拗に求めたのである。そして、最後に堀内は、南北両王朝のあいだでおこなわれた馬とミカンの贈答は、たんなる物品の交換ではなく、「中華」としての正統性と武力の交換であったと結論づけている。

また、先述のように、高麗を中華に措定し、その南北の辺境に蕃夷の海域世界と陸域世界を設定するという中華意識は、高麗王朝の後継者である朝鮮王朝にもひきつがれた。じつは、朝鮮王朝期におけるこのような中華意識の存在は、また別の素材

からも判明するのである。その素材とは、すでに鄭多函によって興味深い考察がおこなわれている、「敬差官」の制度である[鄭2012]。

朝鮮王朝によって創設された敬差官とは、特定の事案に関する王命を受けて、朝廷から地方行政区域に随時派遣された官員である。この敬差官は、15世紀を中心に、国内だけでなく「外国」である女眞の居住地域と対馬島にも派遣されていた。

このように敬差官が朝鮮王朝の直接的な支配領域外にまで派遣されていた理由を、鄭は、女眞の酋長や対馬島主を朝鮮王朝内部の臣下と同じく自身の「人臣」として把握する想像上の位階秩序を前提しながら、朝鮮国王が下した命令を女眞や対馬島に伝達し、その命令を「恭しく」受け入れて従うよう慫慂するためであったと説明する。そしてさらに、女眞居住地および対馬島という直接的な支配領域外への敬差官の派遣を可能とした歴史的な条件としては、まずその両者に対する朝鮮王朝初期の軍事力の行使とその成功という経験があり、さらにその事実を基盤としつつ、のちの歴史編纂の過程を通じて、儒教的名分秩序のなかで女眞と対馬島を朝鮮の臣下として観念的に規定する作業が進行し、最終的に太宗・世宗ころに両者を朝鮮の「藩籬」「藩屏」とする観念が普遍化したと推定する。

いっぽう女眞と対馬島の側でも、朝鮮による軍事力の行使という歴史的経験を前提として、朝鮮を上位とする垂直的位階秩序を理解し、その秩序を象徴する敬差官の派遣を受け入れていたとする。また、敬差官の派遣による女眞・対馬島の「人臣」化は、明の「藩籬」「藩屏」という立場にある朝鮮にとって、明の秩序のなかでの「人臣無外交」という原則に反する危険があったが、明皇帝が派遣する官員の「欽差」という呼称ではなく、皇帝より低い朝鮮王の地位にみあう「敬差」と称して官員を女眞や対馬島に送ることでその危険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た、とも推測している。以上のような考察の最後に鄭は、朝鮮王朝初期の女眞と対馬島への敬差官の派遣は、朝鮮による「小中華」の創出という文脈で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通しを述べている。

以上のような堀内淳一および鄭多函の研究をふまえると、本報告で考察を加えた高麗王権の中華意識の問題は、さらに広い時空のなかで検討を深めていかね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る。

おわりに

本報告では、「ミカン」と「馬」を素材として、高麗王権の中華意識に迫ってみた。そして、その暫定的な結論は、「中華」としての高麗王権は、南方の海域世界の蕃夷（対馬島・済州島）にはミカンの貢上を求め、北方の内陸世界の蕃夷（女眞）に対しては馬の貢上を求めた、というも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な本報告の結論を、今回の国際学術大会の「高麗建国と統一の源泉“

海”という主題にからめると、あるいは以下のような「空想」も許されるかもしれない。すなわち、高麗王権はその南方の海域世界を自己の中華秩序に包含する過程で、直接的な政治支配領域の範囲外にある対馬島や済州島にミカンという蕃夷世界のシンボルを貢上させるといういわば裏技を使った。これはすくなくとも前代の統一新羅期の王権・王朝が思いつかなかった裏技なのではなかろうか。この点に注目すると、韓半島の歴代王朝のなかで高麗は、海域世界を強く意識したやや特異な王朝・王権といえるのかもしれない。

【参考文献】

- 石井正敏 2017 「高麗との交流」川越泰博他編『石井正敏著作集3 高麗・宋元と日本』勉誠出版
- 榎本 涉 2010 「東シナ海の宋海商」荒野泰典他編『日本の対外関係3 通交・通商圏の拡大』吉川弘文館
- 大庭康時 2009 『シリーズ「遺跡を学ぶ」061 中世日本最大の貿易都市 博多遺跡群』新泉社
-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関会的秩序と国際環境」『朝鮮史研究会論文集』16
- 奥村周司 1982 「高麗の外交姿勢と国家意識―「仲冬八関会儀」および「迎北朝詔使儀」を中心として―」『歴史学研究』（別冊特集1982年度歴史学研究会大会報告 民衆の生活・文化と変革主体）
- 近藤 剛 2010 「『平戸記』所載「泰和六年二月付高麗国金州防禦使牒状について」『古文書研究』70
- 佐藤一郎 2008 「朝鮮半島陶磁器」大庭康時ほか編『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
- 鄭 多函 2012 「「小中華」の創出 15世紀朝鮮の女真・対馬に向けた「敬差官」派遣を中心に」『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6 周縁と中心の概念で読み解く東アジアの「越・韓・琉」―歴史学・考古学研究からの視座―』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
- 堀内淳一 2018 「南北朝間の外交使節と経済交流―馬と柑橘―」『北朝社会における南朝文化の受容―外交使節と亡命者の影響』東方書店
- 森平雅彦 2008 「日麗貿易」大庭康時ほか編『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
- 森平雅彦 2010 「10世紀～13世紀前半における日麗関係史の諸問題―日本語による研究成果を中心に―」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編『第2期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会篇』同委員会
- 山内晋次 2003a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 山内晋次 2003b 「東アジア・東南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商と国家」『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 山内晋次 2017 「東アジア海域世界と日本」鈴木靖民他編『日本古代交流史入門』勉誠出版

번역문

바다를 건너온 감귤, 들판을 달리는 말

야마우치 신지(고베여자대학)

머리말

1. 10세기~13세기 전반의 일러관계의 개관
2. 바다를 건너온 감귤
3. 들판을 달리는 말
4. 고려 왕권의 중화의식과 감귤·말
맺음말

머리말

9세기의 일본에는 신라나 당의 海商들이 종종 내항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무역이 발전해갔다. 이 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것은 九州 북부에 위치한 博多의 항구였다. 일본의 귀족·관인·부호들은 대륙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하고 진귀한 물품을 ‘唐物(からもの)’이라고 부르고, 정부가 규정한 무역 물을 일탈해서라도 그것을 입수하는데 분주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9세기의 신라·당 海商의 내항에 의한 ‘日宋貿易’이 더욱 크게 발전해갔다. 이 일송무역에서 거점이 되었던 항구도 또한 博多였다. 일송무역의 전재를 통하여 博多是 일본의 무역센터로서 지위를 확립하여, 11세기 후반 무렵에는 ‘唐坊(房)’이라고 불리는 무역관계자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거류하는 지역도 형성되었다.[山内2003b·2017、大庭2009、榎本2010]

이와 같이 일송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에는 한반도의 고려와의 무역도 병행하여 행해지고 있었고, 이 무역은 ‘日麗貿易’이라고 불리고 있다. 다만 현재 남겨져 있는 일러무역에 관한 문헌사료가 일본측·한국측 모두 극히 적었던 것이나, 이 무역에서도 일본측의 무역센터가 되어 있던 博多의 유적에서 고려 도자의 출토량이 중국 도자에 비해 미미하였던 것[佐藤2008] 등으로 미루어 일러무역은 일송무역에 비해 현격히 규모가 작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되는 데이터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러무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다고는 해도, 적으나마 일러무역에 관한 사료를 주의 깊게 검토해가면 그 단편적인 사료에서 구체적인 무역의 상황이나 나아가서는 그것을 포함한 보다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본 보고에서는 고작 10글자 정도의 단편적인 일려 무역 관계 사료를 출발점으로
서 그 사료의 배후에서 넓어지는 무역의 동향이나 그와 깊이 관련되는 고려 왕권
의 국제질서관 등의 문제를 쫓아가 보고자 한다.

1. 10세기~13세기 전반의 일려관계의 개관

918년에 건국되어 936년에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는 머지않아 일본에 문서나 使
者를 보내어 국교를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 이후 고려측으로부터는 수시로 정치·외교적인 작용이 있었으나, 일본측의 대응
은 거의 일관되게 소극적이었고, 결국 양국의 중앙정부 사이에서 항상적인 국교가
맺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양국 사이에서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다. 본고가 주제로 삼은 일려무역은 바로 그렇게 겨우 유지되어갔던 교류
의 중축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이번 장에서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두에서 13세
기 전반 무렵까지 시기의 일려무역의 동향을 개관해두고자 한다.[山内2003a, 森平
2008·2010, 近藤2010, 榎本2010, 石井2017]

먼저 10세기 초두~11세기 전반 무렵의 시기에 대해서는 997년에 고려에서 일본
으로 보낸 칙장에의 대응이나, 1019년에 일어난 ‘刀伊의 入寇’을 둘러싼 정치·외교
적인 접촉 등에 관하여 일본측에 약간의 사료가 남아 있는데, 무역관계의 사료는
일본측·한국측 모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보아, 이 시기에 빈번한 무역
이 행해졌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어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무렵의 시기에 관해서는 『高麗史』 속에 종종 ‘日
本國使’, ‘日本國人’, ‘壹岐島勾当官’, ‘日本國船頭’, ‘日本商人’, ‘日本人’, ‘日本商’,
‘日本國僧俗’, ‘日本商客’, ‘日本國薩摩州’, ‘日本國對馬島’, ‘日本國筑前州商客’,
‘對馬島勾当官’, ‘日本國大宰府商客’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내항기록이 보인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九州 지역 관청의 관리나 그와 관련을 가지는 지역 유력자·
상인에 의한 무역의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많은 기록이 집중되어 보이는
점에서, 이 시기에는 비교적 빈번하게 일려무역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그들 무역자로부터 고려국왕이나 고려정부 관계자에게 헌상된 물품으
로서 『高麗史』에는 공예품·도검·弓箭·진주·수은·法螺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후, 12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다시 무역관계의 기록이 일본측·한국측 양쪽
의 사료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다만 일본측의 역사서 『百鍊抄』의 永曆 원년
(1160) 12월 17조에 고려국이 對馬島의 상인을 억류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는 등
에서 생각하면, 무역관계 자체는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일본의
귀족인 藤原伊通는 저서 『大槐秘抄』 속에서 송 海商의 대일무역의 규모와는 전혀
달리, 소수의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위해 고려로 건너가고 있는 對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실로 당시의 영세한 일러무역의 실태를 뒷받침할 것이다.

더 내려와서 12세기 말~13세기 전반 무렵의 시기에 대해서도, 일러무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료는 일본측·한국측 모두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엄격한 사료적 제약 속에서도 당시의 무역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기록이 소수 남아 있다. 그것은 일본에서 고려로의 '進奉'에 관한 기록이다.

13세기의 일본 귀족인 平經高의 일기 『平戶記』의 延應 2년(1240) 4월 17일조에는, '高麗國 金州防禦使'가 '日本國 對馬島'에 보낸 泰和(금의 연호) 6年(1206) 2월 부의 첩장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이 첩장은 '貴國'의 사자가 '進奉'이라 칭하고 고려에 가져온 첩장이 무례하여 '進奉之禮'에 위반되므로, 그 첩장과 '進奉方物'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첩장의 내용에 관한 시가에 이어 平經高는 이 '진봉선'에 대해서는 '對馬島文牒'이 무례하였기 때문에 '進奉物'이 반환되었으므로, 예부터 그와 같은 '進奉'이라는 호칭이 있었는지, 혹은 '그 섬(對馬島) 사람'이 고려측와 어떠한 약정을 하고 있었는지 등의 점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진봉'의 사례는 이외에도 『吾妻鏡』 安貞 원년(1227) 5월 14일조나 『高麗史』 卷25 元宗 4년(1263) 4월 갑인조 등의 일본측·한국측 쌍방의 사료에 보이고 있다.

이 '進奉'의 실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몇 개의 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관련 사료가 극히 적는데다가 각자의 사료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장 현시점에서의 내 이해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대의 열쇠는 사료 속에서 보이는 '對馬島' 및 그 섬의 사람들이 일본과 고려라는 2개의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낸 특수한 역사적 역할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進奉'이라는 행위는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결정점의 위치에 있는 對馬島의 관청 및 그와 관련을 가지는 재지 유력자들이 12세기 무렵까지의 일러무역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고려정부와 맺은 약정이며, 對馬島에서 고려국왕으로의 의사적인 조공과 그 은혜로서의 무역이 일체가 된 특수한 관계는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것이다.

다만 상술한 대로 12세기 후반~13세기의 시기에는 일러무역 관계의 사료가 일본측·한국측 모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사료의 감소를 배경으로 하여, 對馬島와 고려 사이에서 진봉관계가 형성되는 한편으로 전체적으로는 무역이 축소되어 갔다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가설도 제시되어 있다. 또 13세기 전반의 일본측 사료에는 북부 九州의 일부 사람들이 고려로 건너가 투쟁·약탈 등을 행한 기록이 보이는데, 아마도 후의 왜구로 연결되어가는 이러한 분쟁도 일러무역 관련 사료가 감수하는 배경의 하나로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바다를 건너온 감귤

앞 장에서는 10세기~13세기 전반 무렵의 일러무역의 동향을 개관하고, 마지막으로 ‘진봉’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일본 국내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역에 대한 對馬島 사람들의 특수한 입장을 지적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소재를 통하여 전혀 다른 각도에서 對馬島 사람들이 일본·고려 관계 속에서 이루어낸 역사적인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 새로운 소재라는 것은, ‘감귤(ミカン)’(본 보고에서는 감귤류의 총칭으로 쓰고 있다)이다.

(1) 對馬島에서의 감귤 貢上

앞 장에서 본 대로,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무렵의 시기에는 일러무역 관계의 사료가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로 『高麗史』 권10 宣宗 2년(1085) 2월 정축조의

對馬島勾当官, 遣使進柑橘.

라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는 對馬島의 관인이 사자를 파견하여 고려국왕에게 감귤[柑橘]을 진상하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의 기사는 권14 睿宗 11년(1116) 2월 병인조에도

日本國, 進柑子.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日本國’이 고려국왕에게 감귤[柑子]을 진상하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자인 1085년의 기사에서 생각하면, 이 ‘日本國’도 역시 의 관인들을 주체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 2개의 감귤 진상 기사가 포함된 9~12세기 무렵 일본의 감귤 생산 상황을 동시대의 일본측 사료에서 개관하면, 현재의 九州·四國·山陰·近畿·東海 지역 등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감귤이 생산되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對馬島에서의 그 생산을 기록한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山内2003a : 94-95] 다만 오랜 후에, 더구나 조선왕조 시기의 사료에서는 있는데, 『世祖實錄』 권2 원년(1455) 12월 병인조에

柑子初摘, 便擇皮厚體堅者藏儲, 則雖至四五月, 色味不變, 宜擇取盛頓堅封重囊, 別進試之. 又種乳柑為柑者, 体小皮軟烈(裂?), 其味品倍常, 封進之際, 因柔軟易致毀爛

라고 하여, 본래 무른 과실인 柑子에 대해서는 껍질이 두껍고 열매가 단단한 것을 골라 저장하여 공납해야 한다거나, 柑子의 일종이라고 생각되는 ‘乳柑’에 관하여 역시 柑의 일종이므로 맛은 대체로 좋으나 작고 껍질이 물러 찢어지기 쉬우므로 국왕에게 진상되어도 뭉개지거나 썩기 쉽다는 등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사료 등에서도 참고하면, 『高麗史』에 보이는 ‘對馬島’ 및 ‘日本國’에서 고려국왕에게 진상되었던 감귤도 일본 국내의 원격지에서 생산된 것이 머나먼 對馬島까지 운반되어 왔다고 하기 보다는, 역시 그 섬 혹은 멀어도 규슈 근처에서의 토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구나 이 『朝鮮王朝實錄』의 기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된 申叔舟의 『海東諸國紀』(1471)의 日本國紀·對馬島의 항목에서는 그 섬에서의 ‘柑橘’ 생산이 명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에서의 감귤 생산 상황에서 보는 한, 『高麗史』에 ‘對馬島’, ‘日本國’에서 감귤의 진상이 기록되어 있는 11세기 말~12세기 초두의 일본에서는 감귤이라는 과일은 현대 일본의 우리들이 느끼는 정도로 지천에 널린 것은 아니었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히 희소하여 좀처럼 볼 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과일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對馬島의 관인들은 당시의 일본에서 珍果라고 하기는 힘든 감귤을 가지고 일부러 바다를 건너 그것을 ‘외국’의 군주인 고려국왕에게 진상해야만 하였을까.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당시의 고려에 있어서 감귤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제주도에서의 감귤 貢上

『고려사』 중에 감귤 관계 기사를 검색해가면, 권7 문종 6년(1052) 3월 임신조에

三司奏, 耽羅國歲貢橘子改定一百包子, 永為定例, 從之.

라는 기사가 발견된다. 여기서는 ‘耽羅國’에서 고려왕국으로 매년 貢上되는 감귤 [橘子]의 양을 매년 100包로 개정하고, 금후 이를 정례로 하고자 한다는 三司의 제안에 대하여 국왕이 그를 허가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탐라국’은 물론 현재의 제주도이고, 이 섬은 1105년(숙종 10)에 고려의 군현제에 편입될 때(『高麗史』 권57 지11 지리2 탐라현)까지, 백제·신라·고려 등에 계속 종속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결국, 이 시기 1052년의 시점에서는 탐라국=제주도는 고려에 있어 ‘외국’이었고, 이 기사는 그 외국에서 매년 고려국왕에게 감귤이 貢上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주도의 사례에 관해서도 전술한 對馬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 그 섬에서 일부러 감귤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그것을 ‘외국’의 군주인 고려국왕에게 貢上해야만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일단 전술한 對馬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가 보이는 11세기 전후의 고려의 감귤 생산 상황을 찾아보려고 해도, 동시대의 한국측 사료 중에는 管見하는 한 그 상황을 말해주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에 조선왕국기까지 시대를 내려가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나 한반도 각지에서 생산된 食材를 집성한 許筠의 『屠門大嚼』(1611) 및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권148-155 지리지 등을 검색해보면, 그 당시의 한반도에서 橘子·柚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류의 감귤은 제주도밖에는 생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山内晋次2003a : 95] 본래 열대에서 아열대에 걸친 따뜻한 지역에서 생육하는 수목으로 내한성이 부족한 종류도 많은 감귤의 여러 품종은, 전근대의 한반도 본토에서는 특히 겨울의 한랭한 기후 때문에 그 재배가 곤란하고 해양성의 비교적 따뜻한 기후 조건을 갖춘 제주도에서만 대개 생산되었을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 상황은 아마도 고려왕조기의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재배·생산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왕조기의 한반도에서 감귤은 동시기의 일본과는 달리 국소적으로밖에 생산되지 않는 희소한 남국의 珍果이고, 그러므로 국왕으로의 공납품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3) 조선왕조에 있어서 감귤의 貢上

여기까지 2절로 나누어 ‘외국’인 對馬島와 제주도로부터 고려왕국으로 감귤이 貢上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한 행위가 행해진 배경의 하나로서 전근대의 한반도에서 일감이 희소한 남방의 珍果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서술하였다. 하지만 고려에 있어서 ‘외국’인 섬들에서 일부러 바다를 건너 감귤이 貢上되었던 이유로서는 그 가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다만 그 이유를 더 깊숙이 찾아들어보려고 해도, 적어도 한국측의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및 같은 시기의 일본측 사료에는 그것을 명확히 풀어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 시대를 내려와서, 일단 『조선왕조실록』을 기본사료로 하면서 감귤이라는 과일이 국왕에게 貢上되는 이유·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對馬島에서 조선국왕으로의 감귤 貢上 기록을 검토하면, 왕국 초기의 이하와 같은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a) 정종실록 권5 2년(1400) 8월 기사조
일본에서 온 사자가 方物·柑子·梅花를 헌상.

(b) 태종실록 권35 18년(1418) 3월 을축조
對馬島의 左衛門大(太)郎이 黃柑을 獻上하고, 또 大(太)郎은 平道全을 통하여 柑子 320개를 헌상.

(c)세종실록 권19 5년(1423) 정월 삭조

九州總管 源義俊의 사자가 예조에 태종의 죽음을 애도하는 서장을 제출하고, 그 기사의 말미에 기록된 다양한 진상품[小禮]의 하나로 '温州橘' 1000개가 있음.

(d)세종실록 권25 6년(1424) 7월 을해조

對馬의 左衛門大(太)郎의 使人이 '柑橘'의 묘목 50그루를 헌상

이들 사료에서 고려왕조를 교체하고 새로이 성립된 조선왕조의 국왕에 대해서도 '외국'인 對馬島·九州의 유력자들이 계속적으로 감귤이나 그 묘목을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후 위의 사례와 같은 헌상자의 미름 및 감귤이나 그 묘목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록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e)성종실록 권281 24년(1493) 8월 계미조

司憲府大司憲 許琛 등이 계를 올려 왜인의 '橘木' 헌상을 언급.

(f)순조실록 권2 원년(1801) 정월 을사조

왕이 내린 전교 속에, 藥房에 납입된 약제의 하나로서 '倭柑子'를 언급. 규정상 그것을 부반의 훈도가 조달.

등의 기사에서 보면, 일본(對馬·九州)에서의 감귤 貢上은 이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상의 일본 관련 여러 기록에는 貢上品이 감귤이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주도에 관해서는 1702년에 濟州牧使 겸 濟州兵馬水軍節制使인 李衡祥가 제주도 각지를 巡歷할 때에 작성한 『耽羅巡歷圖』에도 그 모습이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듯이, 그 섬의 감귤이 土貢으로서 조선국왕에게 공납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朝鮮王朝實錄』성종실록 권14 3년(1472) 정월 정묘조의 「濟州点馬別監事目」에는 제주도산의 橘·柚·柑子를 '珍異之物'이라는 인식이 보이고 있고, 이미 '外國'은 아니기 된 제주도의 감귤이 여전히 국왕에게 貢上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이 점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珍異之物'이라는 이유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먼저, 세조실록 권2 원년(1455) 12월 병인조에 보이는, 왕이 濟州都按撫使에게 보낸 諭旨 중에 제주도로부터 貢上되어 온 감귤은 종묘에 헌상하거나, 외국[明]에서 온 사자에게 제공하거나 하는 것으로, 그 말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말에서는 감귤이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자기의

지배질서와 깊이 관련되는 중요한 공물이라는 인식을 조선왕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감굴에 대한 인식은 남송시기의 『尚書』 연구의 대표작이 되어 후의 경학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蔡沈의 『書集傳』의 卷3 夏書 禹貢에 보이는 「張氏曰、必錫命乃貢者、供祭祀燕賓客、則詔之」이라는 주석을 전거로 삼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기한 사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왕권의 지배질서와 감굴과의 관계라는 시각에 근거해서 한층 더 검토를 해나가면, 정조실록 권11 5년(1781) 6월 정유조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 제주도의 三邑에 내린 綸音 중에, 제주도는 해외 1,000리이고 그 공물인 橘·柚는 하왕조 시절 楊(揚)州에서 貢上되었던 예와 흡사하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보이는 하왕조의 예라는 것은, 위 단락에서 주석서를 소개한 『尚書』 夏書 禹貢篇의 남방의 ‘揚州’의 땅은 蕃夷의 일종인 ‘島夷’의 세계이고, 거기에서 중원의 하왕조로 가져와야 하는 공물[包]의 하나가 ‘柚橘’이라고 하는 기술이 전거가 되고 있다. 결국, 이 세조의 말에서는 제주도는 조선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세계의 남쪽 변두리의 해역세계=‘島夷’세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땅에서는 당연히 공물로서 감굴이 보내져야 한다는 왕권이 지배질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조실록 권52 23년(1799) 12월 갑진조에서는 知中樞府事 洪良浩가 『興王肇乘』을 헌상하였을 때의 상서 중에서, 오랑개[兀良哈]나 源了浚의 무리가 국가의 명에 따르고, 남방에서는 橘柚이, 북방에서는 담비[貂]나 표범[豹]의 모피가 각각 공물로서 보내어온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한반도 남방의 蕃夷의 세계에서 貢上되어야 하는 것은 감굴이라는 조선왕권의 질서의식=중화의식과 감굴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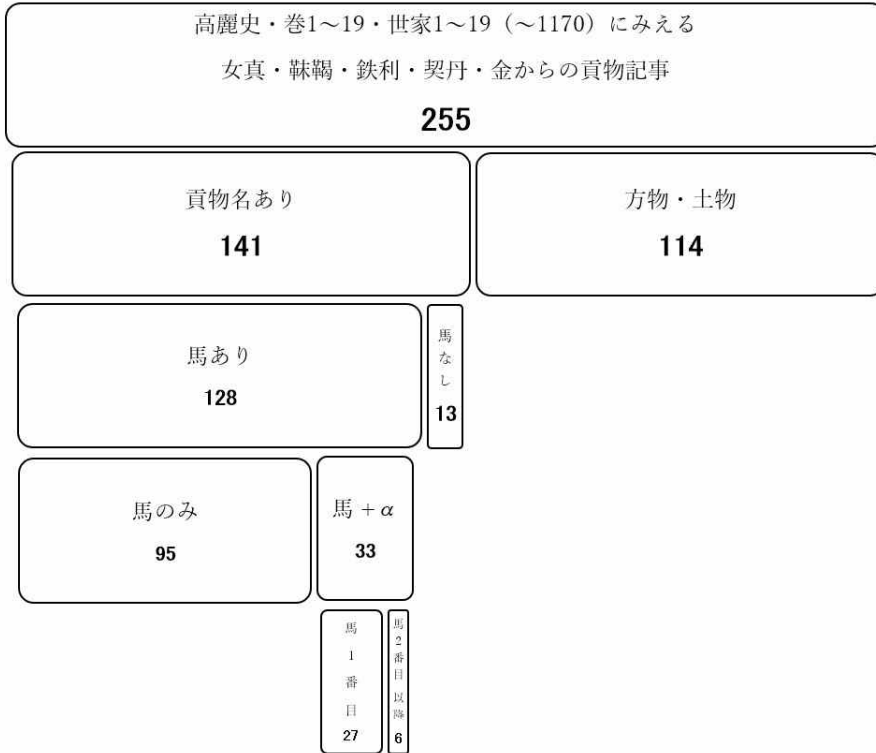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朝鮮王朝實錄』의 몇 개의 기록에서는 일본과 제주도에서 조선국왕에 대하여 왜 감굴이 貢上되어왔는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즉, 감굴이 貢上되어 왔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珍異之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조선왕권의 중화의식과의 관련이야말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후의 제4장에서 고려왕조의 상황과도 관련지으면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3. 들판을 달리는 말

지금까지 고려왕조 및 조선왕조의 남쪽 변두리에서 국왕에게 貢上되어온 감굴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시점을 180도 돌려서 고려왕조의 북쪽 변두리에서 국왕에게 貢上되어온 말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高麗史』 권1~19 세가1~19에 수록되어 있는 태조 원년부터 무신정권이 시작되는 의종 말년(1170)까지 기간의 女眞·靺鞨·鉄利·契丹·金에서의 조공 기록에

관하여, 그 貢上品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검토하면, 255조를 모을 수 있다.(女眞 236・靺鞨9・鉄利2・契丹2・金6) 이 255조의 내역을 도식화한 것이 아래의 그림이다.



모두 255조 중에 114조(44.7%)는 ‘方物’(13조)·‘土物’(101조)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구체적인 물품명은 불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141조(55.3%)에 대해서는 무어라는 공물명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공물명이 기록되어 있는 141조의 내역을 살펴보면, 128조(90.8%)에 말이 보이고, 나머지 13조(9.2%)에는 그런 기재가 없다.

더욱이, ‘馬’의 기재가 보이는 전자의 128조의 내역을 보면, 95조(74.2%)가 공물명으로서 馬만이 기록되어 있고(馬・駿馬・名馬・良馬・土馬), 그 이외의 33조(25.8%)에는 말과 함께 다른 공물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자의 馬 이외의 공물도 기재되어 있는 33조에 대하여, 그들의 공물이 기재되어 있는 순번을 보면, 27조(81.8%)에서 말이 1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6조에는 말이 2번째 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공물명 분석에 근거하면, 고려 북방의 내륙세계에 거주하는 여진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족에게서 고려왕국으로의 貢上品으로는 우선 첫 번째로 말이 상정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 내륙세계로부터의 공물인 말이 계속 들판을 지나 고려국왕이 있는 곳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다만 여진으로부터 貢上되어 온 말이 고려왕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軍用·儀禮·賜與·贈答 등)로 이용되었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보고자로서는 그것을 논할 준비도 능력도 없으므로 금후의 검토 과제로서 남겨두고자 한다. 덧붙여서, 말 이외의 북방으로부터의 공납품으로서는 駱駝、氈、貂鼠·青鼠皮、군수물자(甲鏊·旗幟·皮鉄甲·兵器·器杖·甲冑·丙杖·弓矢·弓弩·楛矢·鉄甲·戈船), 蕃米·人口·黄毛·羊, 良金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고려 왕권의 중화의식과 감굴·말

이상 2장 및 3장에서의 고찰을 통하여 고려 왕권은 자신의 지배영역의 남방으로 펼쳐진 對馬島와 제주도를 포함한 해역세계에 대하여 감굴의 貢上을 기대하고, 북방으로 펼쳐진 女眞을 중심으로 말의 貢上을 바랐다는 기설이 도출되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북방내륙세계 - 고려 - 남방해역세계’라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샌드위치 구조의 지배질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반도의 남쪽 변두리와 북쪽 변두리를 세트로 간주하는 관념은 『高麗史』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권9 세가9 문종3의 말미에 달린 李齊賢의 문종조에 대한 예찬에는,

宋朝每錫褒賞之命、遼氏歲講慶壽之禮、東倭浮海而獻琛、北貊扣關而受廩

이라고 하듯이 송·요와의 통교와 나란히 동(남)방(해역세계)의 왜로부터는 珍寶가 공헌되고, 북방(내륙세계)의 貊(중국 동북부의 통구스계 민족)은 관문을 두드리며 통과를 요구하고 宅地를 부여받아 귀순한다는 것이 자랑스레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실로 한반도의 남쪽 해역세계와 북쪽 육역세계를 세트로 간주하여, 각자로부터 중화로서의 ‘고려’가 공헌·귀화를 받는다는 지배질서=중화질서의 관념이 표명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 권19 의종 24년(1170) 정월 임자삭조에는

王受賀於大觀殿、親製臣僚賀表、宣示群臣、表曰(中略)自北使上壽而致辭、日域獻寶而稱帝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의종이 朝賀를 받을 때에, 왕 스스로 신하의 賀表의 견본을 작성하고, 그것을 群臣에게 보여주는데, 그 속에 북(金)으로부터의 사신은 축

북의 말을 하면서 문서를 전달하고, 일본은 보물을 헌상하며 황제라고 외친다는 文言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도 역시 북방의 내륙세계와 남방의 해역세계를 세트로 간주하고, 그들의 세계를 종속시키고 있는 자기를 중화로서 과시하는 의식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려 왕권의 중화질서 의식 속에서 자기 남쪽의 해역세계로 펼쳐진 蕃夷 = '島夷'를 구성하는 것이 對馬島와 제주도의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에게서는 전술한 대로 중국의 經書로 규정되어 있는 감귤 貢上이어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남방 蕃夷의 세계와 상대가 되고 있는 내륙세계의 蕃夷를 대표하는 것이 女眞 사람들이며, 그 세계의 특산품의 주축으로서 고려 왕권에 貢上이어야만 하였던 것은 말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남방의 해역세계의 심벌인 감귤과 북방세계의 심벌인 말을 貢上시키는 것에 의해, 고려가 그 둘의 세계를 종속시키는 중화임을 가시화·실체화 하고자 하였던 셈이다. 이전 2장의 말미에서 검토하였던 조선왕권의 질서의식=중화의식과 감귤과의 관계라는 문제는 실로 이와 같은 고려 왕권의 중화의식과 역사적으로 접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왕권의 중화의식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八關會儀禮에서의 다양한 '외국' 사람의 참가나 요의 사절에 대한 접대의례 및 송으로부터 내항하는 해상들의 대우 방식 등을 소재로 하여 논하여졌으나[奥村1979·1982, 山内2003b], 본 보고가 주제로 하는 감귤이나 말이라는 소재도 또한 그 문제를 다시금 깊이 해명해나가는 데 있어 충분히 유효한 소재라 할 만 하다.

또한 덧붙이자면 고려 왕권으로부터 감귤의 공납이 기대된 對馬島·제주도 사람들도, 말의 貢上이 기대된 女眞 사람들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제 받은 부담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對馬島나 제주도 및 女眞측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공납하는 것에 의해 고려와의 사이에서의 안정적인 무역관계나 정치관계를 기대하고 있었을 터이니,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은 남쪽 蕃夷의 세계의 심벌을 감귤이라고 하고, 북쪽의 蕃夷의 심벌을 말이라고 하는 중화의식은 고려 왕권의 독자적인 발명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의식은 이미 남북조기의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화의식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堀内淳一이다.[堀内2018] 아래에 堀内 說의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5~6세기 무렵의 중국에서는 병립하고 있는 남조와 북조 사이에서 각각의 황제가 사자를 매개로 하여 물품의 증답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 형태는 조공과 회사라는 것처럼 어느 한 편의 왕조가 주도권을 쥐는 관계가 아니고, 상대가 요구하는 물품을 근거로 한 '교역'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증답물로서는 북조에서 남조로는 '동물(말·낙타·노새)'·'모피나 모직물(貂裘·氈)', '음식물(소금·胡豉·葡萄酒 등)'이 증명되었고, 역으로 남조에서 북조로는 '가공품(螺杯·蠟燭)', '의류(皮袴褶·錦)', '음식물

(甘蔗·黃甘·酒), ‘동물(공작·코끼리)’이 증명되었다. 堀内는 이들 증답품 승에서도 특히 북조에서 남조로 증명된 말과 남조에서 북조로 증명된 黃甘에 주목한다.

堀内에 의하면, 남조가 북조에 대하여 특히 말을 요구한 것은, 군수물자로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남조의 지배영역인 강남의 습윤한 기후는 말의 사육에 적당하지 않고, 말의 주요한 산지는 필연적으로 북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북조가 남조에 대하여 집요하게 黃甘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유로서도 물론 감귤의 일종인 黃甘이 온난한 남조의 지배영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었던 珍果였다는 사정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북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黃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堀内는 설명한다.

당시 북조는 남조에 대해 ‘島夷’라고 부르고 이에 대항 남조는 북조에 대해 ‘索虜’라고 부르는 등, 서로를 업신여기고 있었다. 여기서 북조가 남조를 그와 같이 멸칭하여 부르는 근거는 『尚書』 夏書 禹貢篇에 있고, 북조측이 그 책에서 남쪽의 蕃夷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던 ‘揚州’나 ‘荊州’를 남조의 지배영역으로 인식하였다. 또 그 책은 남방 지역에 거주하는 蕃夷인 ‘島夷’는 中華[中原]에 대하여 얼마간의 물품을 貢上할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靉·유자=감귤이 있다. 결국 북조에 있어 ‘島夷’인 남조로부터는 감귤의 일종인 黃甘이 ‘中華’로서의 북조에 貢上 ‘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확실히 북조는 남조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우위에 섰다. 하지만 북조 국내의 많은 한인이나 주변제국은 남조를 정통 ‘中華’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북조는 자신이야말로 ‘中華’이며 남조는 변경의 ‘島夷’=蕃夷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퍼뜨리고 자신의 ‘中華’로서의 정통성을 선양할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라도 남조에 대하여 ‘島夷’의 심벌인 黃甘 = 감귤의 贈答을 집요하게 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堀内는 남북 두 왕조 사이에서 행해진 말과 말감의 증답은 단순한 물품의 교역이 아니라, ‘중화’로서의 정통성과 무력의 교환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 전술한 대로 고려를 중화로 상정하고, 그 남북의 변경에 蕃夷의 해역세계와 육역세계를 설정한다는 중화의식은 고려왕조의 후계자인 조선왕조에서도 이어졌다. 실은 조선왕조기에서 이와 같은 중화의식의 존재는 또 다른 소재에서 판명되는 것이다. 그 소재는 이미 鄭多暉에 의해 흥미롭게 고찰이 행해져 있는 ‘敬差官’의 제도이다.[鄭2012]

조선왕조에 의해 창설된 경차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왕명을 받아 조정에서 지방행정구역으로 수시로 파견되었던 관원이다. 이 경차관은 15세기를 중심으로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인 女眞의 거주구역과 對馬島에도 파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경차관이 조선왕조의 직접적인 지배영역 밖으로까지 파견되었던 이유를 鄭은 女眞의 주장이나 對馬島主를 조선왕조 내부의 신하와 같이 자신의 ‘人臣’으로서 파악하는 상상 상의 위계질서를 전제하면서, 조선국왕이 내린 명령을 女眞

이나 對馬島에게 전달하고, 그 명령을 ‘공손하게’ 받아들여 따르도록 종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또한 女眞 거주지 및 對馬島라는 직접적인 지배영역 밖으로 경차관을 파견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조건으로서는 먼저 그 양자에 대한 조성 왕조 초기의 군사력 행사와 그 성공이라는 경험이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후의 역사편찬 과정을 통하여 유교적 명분질서 속에서 女眞과 對馬島를 조선의 신하로서 관념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태종·세종 무렵에 양자를 조선의 ‘藩籬’, ‘藩屏’으로 여기는 관념이 보편화되었다고 추측한다.

한편 女眞과 對馬島 측에서도 조선에 의한 군사력의 행사라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조선을 상위로 보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를 상징하는 경차관의 파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또 경차관의 파견에 의한 女眞·對馬島의 ‘人臣’化는 명의 ‘藩籬’ ‘藩屏’라는 입장에 있는 조선에 있어서 명의 질서 속에서의 ‘人臣無外交’라는 원칙에 반하는 위험이 있는데, 명황제가 파견하는 관원의 ‘欽差’라는 호칭이 아니라, 황제보다 낮은 조선왕의 지위에 걸맞은 ‘敬差’라고 칭하여 관원을 女眞이나 對馬島로 보낸 것으로 그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었다고도 추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의 말미에 鄭은 조선왕조 초기 女眞과 對馬島로의 경차관 파견은 조선에 의한 ‘小中華’의 창출이라는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堀内淳一 및 鄭多函의 연구를 근거로 삼고 본 보고에서 고찰을 더하여 고려 왕권의 중화의식 문제는 더욱 넓은 시공 속에서 검토를 심화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맺음말

본 보고에서는 ‘감굴’과 ‘말’을 소재로 하여 고려 왕권의 중화의식에 접근해 보았다. 그리고 그 잠정적인 결론은 ‘중화’로서의 고려 왕권은 남방의 해역세계의 (對馬島·濟州島)에는 감굴의 貢上을 요구하고, 북방의 내륙세계의 蕃夷(女眞)에 대하여 말의 貢上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보고의 결론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高麗建國과 통일의 원천 “바다”」라는 주제에서 보면, 혹은 아래와 같은 ‘空想’도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고려 왕권 그 남쪽의 해역세계를 자기의 중화질서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정치지배영역의 범위 밖에 있는 對馬島나 제주도에 감굴이라는 蕃夷世界の 심벌을 貢上시킨다는 이른바 변칙기술[裏技]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적어도 전대의 통일신라기의 왕권·왕조가 떠올리지 못하였던 변칙기술인 것은 아닐까. 이 점에 주목하면, 한반도의 역대왕조 중에 고려는 해역세계를 강하게 의식한 조금 특이한 왕조·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参考文献]

- 石井正敏, 2017, 「高麗との交流」川越泰博他編『石井正敏著作集3 高麗・宋元と日本』勉誠出版
- 榎本 涉, 2010, 「東シナ海の宋海商」荒野泰典他編『日本の對外関係3 通交・通商圏の拡大』吉川弘文館
- 大庭康時, 2009, 『シリーズ「遺跡を学ぶ」061 中世日本最大の貿易都市 博多遺跡群』新泉社
-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関会的秩序と國際環境」『朝鮮史研究会論文集』16
- 奥村周司, 1982, 「高麗の外交姿勢と國家意識—「仲冬八関会儀」および「迎北朝詔使儀」を中心として—」『歴史学研究』(別冊特集1982年度歴史学研究会大会報告 民衆の生活・文化と変革主体)
- 近藤 剛, 2010, 「『平戸記』所載「泰和六年二月付高麗國金州防禦使牒状について」『古文書研究』70
- 佐藤一郎, 2008, 「朝鮮半島陶磁器」大庭康時ほか編『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
- 鄭 多函, 2012, 「「小中華」の創出 15世紀朝鮮の女真・對馬に向けた「敬差官」派遣を中心に」『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6 周縁と中心の概念で読み解く東アジアの「越・韓・琉」—歴史学・考古学研究からの視座—』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
- 堀内淳一, 2018, 「南北朝間の外交使節と經濟交流—馬と柑橘—」『北朝社会における南朝文化の受容—外交使節と亡命者の影響』東方書店
- 森平雅彦, 2008, 「日麗貿易」大庭康時ほか編『中世都市・博多を掘る』海鳥社
- 森平雅彦, 2010, 「10世紀～13世紀前半における日麗関係史の諸問題—日本語による研究成果を中心に—」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編『第2期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会篇』同委員会
- 山内晋次, 2003a, 「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る」『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 山内晋次, 2003b, 「東アジア・東南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商と國家」『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吉川弘文館
- 山内晋次, 2017, 「東アジア海域世界と日本」鈴木靖民他編『日本古代交流史入門』勉誠出版

발표문

モンゴル時代の朝中間海上交流と航路

森平雅彦(九州大学)

1. はじめに
2. モンゴルの朝鮮半島沿海進出
3. 公的物流の連結
4. 海上貿易の新展開
5. 航路の様相
6. おわりに

1. はじめに

外交・戦争・貿易・文化交流などの国際関係は、ヒト・モノ・情報が地域間を移動した結果として成立し、交通はその移動の様相を示す。交通は、主体、目的、技術、自然環境、政治・社会・経済条件などに規定されるが、交通ルートはこれらの諸条件の複合的作用の結果として出現するその象徴であり、翻ってそれら諸条件を解明する鍵となる。

高麗時代は、朝鮮史上でも国際的な海上交流が活発な時代だったとされるが、その中軸は朝中間の通交である。これについて従来は、10世紀後半～12世紀初めの対北宋通交が主な研究対象とされてきたが、モンゴル時代――本稿では特に元が東アジアの海に関与した1260年代～1360年代を対象とする――の様相については、内藤1961と陳2005bに代表される先行研究があるものの、未利用の史料、未言及の事例が残され、ルート（航路）の分析も不十分である。

モンゴルと高麗の間で海を舞台に発生した状況は大きく3つの局面にわけられる。第一に朝鮮半島沿海へのモンゴル勢力の進出、第二に公的物流の展開、第三に貿易である。第一・第二の点は、大陸の王朝と朝鮮半島の王朝が政治の一体性を高めたことによるこの時代特有の現象である。第三の点は現象的には前時代から継続するものだが、内容変化に対する評価が争点となる。以下、2～4節で3局面を概観し、5節で航路の様相を論じる。

2. モンゴルの朝鮮半島沿海進出

1260年に高麗が元に臣属した後、66年には日本への朝貢勸告問題が浮上し、朝鮮半島からは67年に2回（初度には渡海せず）、69年に2回、71年、72年、75年、92年に1回ずつ、高麗または元が主体となって対日遣使が実施された。当初これは元の南宋経略とも連動しており、1268年には南宋との航路を確認すべく元使が黒山島を視察した¹⁾。

高麗では対モンゴル戦を主導した武臣執権勢力が1269年に倒れる。しかし三別抄が珍島を拠点に抵抗を開始したため、元・高麗連合軍が南岸地域に進出、71年に珍島を陥落させ、残存勢力がたてこもる濟州島も73年に平定した。こうして高麗から抵抗勢力を一掃したうえで、交渉に応じない日本に対し1274・81年の二度にわたり遠征が実行された。

三別抄鎮圧後、元は濟州島を直轄し、長官として達魯花赤を派遣した。その後1294年に施政権が高麗に返還されるまで、元の統治機関は招討司、都達魯花赤総管府、安撫司と変遷し、また元・高麗両軍の守備隊が駐留した。元帝室の御用牧場も置かれ、牧民が派遣された。この牧民集団は施政権返還後も残留し、1356年以降高麗と元の関係が冷却化すると、高麗の濟州島統治の妨げとなり、最終的に74年に崔瑩率いる高麗軍によって討滅された。

濟州島以外にも1270年代には珍島等の島嶼が牧馬場として元に利用されたが²⁾、流配地としての活用も注目される。濟州島と大青島が双璧をなすが、人物島（徳積島）、祖月島（紫月島）、白翎島、靈興島、高鸞島、苜益島（現在地未詳だが朝鮮時代には洪城郡管内³⁾）、宝城の乃老島（羅老島？）、靈巖の披絃島、烏也島、与音島、烏安島などがみえる（森平2013c）。所在地が判明する例から判断すると、中西部から南西部にかけての沿岸島嶼が選ばれたようだ。これらには一般犯罪者というより、政争に敗れたモンゴル支配層が流されている。

3. 公的物流の連結

3.1 遼東との往来

遼東地方との間で食糧を相互に提供する事業が実施された。1274年、元は東京

1) 『高麗史』巻26・元宗世家・9年10月己亥；『高麗史節要』（以下『節要』）巻18・元宗9年10月；『元高麗紀事』至元5年8月。

2) 『高麗史』巻28・忠烈王世家・2年10月甲子；同巻29・忠烈王世家・5年10月己亥；『節要』20・忠烈王5年10月。

3) 『新增東国輿地勝覧』巻19・忠清道・洪城郡・山川。

(現遼寧省遼陽市)の「米」2万石を高麗に漕運し、日本遠征準備のために不足した軍糧を補填した⁴⁾。89年には逆に遼東の食糧不足を救済すべく、「米」10万石の蓋州(現遼寧省営口市蓋州市)への輸送が高麗に命じられた。高麗は海難被害を出しつつも二度にわたり海上輸送を実施した⁵⁾。1294年には日本遠征用(実際には飢饉救済用か)に江華島に備蓄してあった中国江南の「米」のうち5万石(のち3万石に減額)を遼陽・瀋陽地方の飢饉救済に転用することになり⁶⁾、翌年高麗は三度にわたり遼陽へ海上輸送を実施した⁷⁾。1293年に元は濟州島から鴨緑江口にいたる西岸一帯に水站(水上駅伝)を設置させている(詳細は次項)。これは時期的に、上記の遼東への食糧輸送にも関係するとみられる(정2007)。

3.2 北中国との往来

北中国との間では元の要求物資や元滞在中の高麗王への盤纏(旅費)の輸送が実施された。1272年、元中書省は遣使して宮殿建材30~50株を要求、これを船10艘に積載して輸送した⁸⁾。1309年にも高麗は、白頭山から鴨緑江を流下させた寺院建材を海上輸送すべく、船100艘と「米」3000石の抛出を命じられた⁹⁾。これは当時元皇室が大都(現北京市)や山西の五台山で盛んに寺院造営を進めていたことに関係し¹⁰⁾、輸送先は北中国とみられる。

忠宣王は1298年の即位後半年余りで退位させられ、その後10年間を元で過ごした。しかし王は1308年の復位後も元に留まって本国を統治したため、一部の従臣が権勢をふるった。1313年、これに不満をもつ金深らが元に対して王の帰国を求めたが、その際彼らは盤纏を本国から海上輸送する負担について、「本国は毎年布10万匹・米400斛を輸送し、その他の物品も記しきれないほど」であり、「国人による漕運の弊害がいよいよ甚だしい」と指摘した¹¹⁾。当然、大都方面にむけて漕運されたのであろう。

1321年には忠肅王が元に抑留され、再び盤纏問題が発生する。1313年の忠肅王即位後も、上王となった忠宣王とその寵臣が実権を握り続けた。1320年に元で仁宗が

4) 『高麗史』巻27・元宗世家・15年4月己酉。

5) 『高麗史』巻30・忠烈王世家・15年2月丙寅；3月辛卯；5月乙酉；同巻79・食貨志・科斂・忠烈王15年2月；『節要』巻21・忠烈王15年2月；3月；5月。

6) 『高麗史』巻31・忠烈王世家・20年12月庚寅；『節要』巻21・忠烈王20年12月。

7) 『高麗史』巻31・忠烈王世家・21年2月癸巳；3月丁巳；4月己卯；癸卯；閏4月癸酉；『節要』巻21・忠烈王21年2月；3月；4月；閏4月。

8) 『節要』巻19・元宗13年3月。

9) 『高麗史』巻33・忠宣王世家・元年2月甲辰；元年4月甲子；『節要』巻23・忠宣王元年3月；4月。

10) 『元史』巻22・武宗本紀・至大2年(1309)2月甲辰；3月戊寅；同巻23・武宗本紀・至大3年正月戊子；12月甲辰。

11) 『節要』巻23・忠宣王5年正月。cf. 『高麗史』巻104・金周鼎伝附 金深伝。

死去すると、新帝英宗は旧執権勢力の一部を排除し、影の実力者である太皇太后ダギの影響も後退する。仁宗やダギを後ろ盾にしてきた忠宣王がこの政争に巻き込まれてチベットに流されると、忠肅王はこの機会をとらえて父王勢力の排除を進める。しかし元では忠宣王から藩王号を継承した傍系王族の暁が英宗の宿衛で寵遇されていた。高麗王位の奪取をもくろんだ暁は、英宗に対し忠肅王の詔書侮辱を讒訴し、そのため王は元に召喚、抑留された。1323年に英宗が弑され泰定帝が即位すると、翌年王は名誉回復され、1325年に帰国した。この間、忠肅王は自身の生活と政治工作（元の要路への賄賂）に必要な経費を本国から「連続転運」させたが、特に桓允全と全成萬は船で「布二萬匹」を輸送したという¹²⁾。

このほか、準備段階で中止された第3次日本遠征に際しては、大都東方の渤海湾岸の平灤州（現河北省秦皇島市盧龍県）で軍船が建造され、1283年に高麗使が様子を目撃している¹³⁾。遠征が実行されれば、これらの軍船は朝鮮半島に回航された可能性が高い。

北中国との交通に関わる公的インフラとして、1293年に設置された前述の水站も注目される。このとき濟州島を起点に、鴨緑江口までの朝鮮半島西岸全域に加え、「楊村海口」（楊村港）までがルートに設定された¹⁴⁾。筆者はこの楊村を大都とその他の外港直沽（現天津市）を結ぶ水路上の同名の河津（現天津市武靖区楊村）に比定している（森平2013b）。楊村は、当時南中国と大都を結ぶ海上交通と内水面交通とが結節する要衝だった。

水站の前提には1291年頃の世祖の政策案がある。世祖は「遼東水程図」をみて水站の設置を構想し、入質中だった高麗世子（忠宣王）の従臣鄭可臣に対し、高麗の主要物産である「米布」を陸輸するコストを指摘、可臣を「江南行省左丞」に任じて海運を掌らせ、これらを水上輸送すれば、元の財政の一部を補い、加えて高麗人の元都滞在費を充当できると提案した。これに対し鄭可臣は、高麗の物産は国内需要を満たす分しかなく、国人は船運に習熟していないとして拒絶した。しかし結局、この案をベースに水站が設置されたとみられる。この水站は1303年頃に廃止されるが、忠宣・忠肅王への盤纏輸送はその後に実施された。公的機構がなくとも海上物流を実現できるだけの基盤が存在したのである。

3.3 南中国からの輸送

南中国との間では高麗にむけての食糧輸送が13世紀末に実施された。1285年、世祖は日本遠征の軍糧として江淮の「米」100万石を合浦に輸送することを指示した¹⁵⁾。

12) 『節要』巻24・忠肅王9年6月; 『高麗史』巻91・藩王暁伝。

13) 『高麗史』巻29・忠烈王世家・9年正月乙亥; 『節要』巻20・忠烈王9年正月。

14) 『元史』巻63・地理志・征東等処行中書省。

ただ遠征計画はすぐに中止され、輸送がどこまで実施されたかは定かでない。91年には質子として入侍中だった世子（忠宣王）の要請をうけ、高麗へ食糧が輸送された。元では87年にモンゴリア東部で宗王ナヤンが反乱し、91年にはその与党カダンが高麗に侵攻した。高麗政府は元朝政府側になって対応を進めていたが、食糧不足をきたし、世子が「江南漕運」による供給を求めたのである¹⁶⁾。同年6月、元の海道万戸黄興・張侑、千戸殷実・唐世雄らが江南の「米」10万石を海上輸送し、下級官員と王都住民に配給された¹⁷⁾。

その後も高麗への食糧輸送が続いた。1292年、江南漕運万戸徐興祚（徐興祥）らが江南の「米」10万石を輸送した¹⁸⁾。遭難により4200石が到着するにとどまったが、これらは軍人と王都住民に配給された。なおこのとき徐興祚は王に鸚鵡・孔雀を献上したという。翌年には江南千戸陳勇らが「米」をもたらした。このときも彼らは鸚鵡など多数の土物を献上した。1290年代に南中国からの食糧輸送を担当した上記人物は、いずれも海運、すなわち南中国から大都への税糧輸送を請け負う海道運糧万戸府の関係者だった（陳2005）。

当時元は遼東への食糧輸送も実施したが、前述のごとく1289年と95年には高麗も加わった。南中国からの食糧供給はその穴埋めになるが、李康漢（2012）は元が遼東への転送を想定したものと解釈する。1295年に江華島の江南「米」を遼東に送ったことはこれに該当するといえる。ただし前述のごとく南中国からの食糧は高麗国内で配給されてもいる。この部分は食糧輸送の「玉突き」にはなっても、「転送」とはいえない。

李康漢（2012）は、同時期の水站設置についても、南中国からの物資輸送との関連を想定している。世祖の水站構想では、朝鮮半島西岸一帯、さらに大都を結ぶ水站に関わって鄭可臣の「江南行省左丞」任命と海運管理に言及しているが、これは南中国からの食糧輸送との関わりを示すものだろう。当時元では泉州と杭州を結ぶ海站と長江河口から直沽への海運の整備とが並行して進められていた¹⁹⁾。元はこうした中国沿海の公的な交通システムを高麗・遼東方面の水站と連結して一体的に運用しようとした形跡がある（李康漢2012；森平2013b）。後述のように、海道運糧万戸府が高麗王都まで食糧を輸送する場合、その航路は鴨緑江口から朝鮮半島西岸を南下した可能性が高く、水站のルートとも一部重なる。

15) 『元史』巻13・世祖本紀・至元22年11月癸巳。

16) 『高麗史』巻30・忠烈王17年4月辛巳；『節要』巻21・忠烈王17年4月辛巳。

17) 『高麗史』巻30・忠烈王世家・17年6月；同巻80・食貨志・賑恤；『節要』巻21・忠烈王17年6月。

18) 『高麗史』巻30・忠烈王世家・18年6月辛卯；同巻30・忠烈王世家・18年閏6月乙卯；同巻80・食貨志・賑恤；『節要』巻21・忠烈王18年閏6月。

19) 『経世大典』站赤・至元26年（1290）2月16日（『永樂大典』巻19418）；『元史』巻15・世祖本紀・至元26年2月丙寅。

4. 海上貿易の新展開

4.1 北中国との貿易の復活

4.1.1 大都方面との貿易

モンゴル時代には、北宋滅亡後に表だっては途絶えていた北中国との貿易が復活した。ユーラシア規模の巨大帝国の政治・経済センターとして大都が発展し、外港として直沽が浮上したことが大きい。この方面との貿易に関する紀年をもつ事件として、1341年に「大都商人」が高麗を訪れ、海賊船の活動を通報したというものがある²⁰⁾。元末に編まれ、当時の社会の実情を反映する漢語会話読本『老乞大』には、元で貿易活動をおこなう高麗商人が直沽から船便で王京（開京）に帰還するというエピソードが登場する。朝鮮時代の漢語教科書『朴通事諺解』も本来元末に編まれた漢語会話読本であり、後代に改訂された内容ではあるものの、元の世相を一定に反映するとみられる。そこには高麗～大都方面を結ぶ「船路」と、そこで活動する「高麗地面裏來載千余筒布子の大船」と「西京（平壤）來的載黃豆的船」が登場する。

海運担当者による貿易も注目され、海運の中心積出港である太倉（現江蘇省蘇州市太倉市）の殷九宰は、海運に対する給金（舶脚錢）を元手に高麗で貿易をおこなったという（植松2004）。彼は直沽で海運の業務を終了した後、そのまま高麗に回航した可能性もある。そうだとすれば、これも北中国と高麗を結ぶ航路を利用した貿易例となる。

このほか、僧侶が海を通じて大都－高麗間を移動した事例がある。麗宋間・日宋間でそうだったように、この種の渡海僧は、外交使船に同乗したものでなければ、貿易船に便乗したと想定できる（榎本2007；李鎮漢2011）。1334年には僧中向が海路で大都に渡った²¹⁾。1368年には明軍が大都を陥落させる際、インド僧指空の遺骨の一部を携えた僧達元が海路で高麗に戻った形跡がある²²⁾。

4.1.2 山東方面との貿易

高麗との海を通じた外交における中国側の窓口は、11世紀初めまで山東半島北岸の登州（現山東省烟台市蓬萊市）だったが、その後北宋と高麗・契丹との緊張関係に伴い閉鎖された。11世紀後半に宋が高麗と復交した後、北中国の通交窓口は山東半島南岸の板橋鎮（現山東省青島市膠州市）に開かれた。当時は外交・貿易ともに南中国の明州（現浙江省寧波市）を窓口とする航路が幹線だったが、北中国における窓口はやはり山東半島だった。

モンゴル時代には1295年、忠宣王と元公主の婚礼経費を捻出するため、高麗朝廷

20) 『高麗史』卷36・忠惠王世家・後2年7月丙子。

21) 李穀『稼亭集』卷3・重興大華嚴普光寺記。

22) 李穡『牧隱集』文藁卷14・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并序。

が益都（現山東省濰紡市青州市）に船を送り、麻布1万4000匹を販売して交鈔を入手した²³⁾。記録上山東を舞台とする貿易はこれのみだが、近年旧登州港で発見された沈船（蓬萊古船）のなかには14世紀頃の高麗船と推定されているものがある（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ほか2006）。韓国で発見された高麗船と同じ平底構造だが、細部に違いもある一方、元代北中国の船舶の実例も少ないため、建造地の確定にはさらに検討を要す。ただ当時の朝鮮半島産陶磁器が相伴しているので、朝鮮半島と山東半島を往来した船だった可能性は認められる。大都・山東以外では、1302年に無禪師が江淮より海路で高麗に到着した例がある²⁴⁾。

4.2 南中国との貿易

4.2.1 商人・通商の直接言及例

南中国との貿易は、南宋滅亡まで高麗の対中貿易の中軸だった。モンゴル時代の関係史料から、南中国との商人の往来や、通商の実践が直接言及された事件を一覧にする。

- ① 1278年、宋商馬嘩が方物を献上し、内庭で宴を賜る²⁵⁾。
- ② 1288年、宋商顧愷・陸清らが来訪して物品を献上する²⁶⁾。
- ③ 1288年、大殿で聖節の宴を催した際、宋人が作戯した²⁷⁾。
- ④ 1295年頃、王妃クトゥルク＝ケルミシュ公主が人参・松子を江南に送り、交易した²⁸⁾。
- ⑤ 1295年頃、高麗王が江浙に貿易船を派遣し、現地で徴税率が議論された²⁹⁾。
- ⑥ 1298年、泉州（現福建省泉州市）に居住していた南インドの馬八国の王子孛哈里が遣使して銀絲帽・金繡手箔・沈香5斤13両・土布2匹を献上した³⁰⁾。
- ⑦ 1301年、江南の商客が寿康宮において忠烈王に宴をたてまつった³¹⁾。
- ⑧ 1304年、安珣の建議により各品の官僚に銀・布を拠出させ、国学の贍学錢に充当し、王も内庫錢を提供。安珣は余財をもって博士金文鼎らを江南（中原）に送り、画先聖・七十子像・祭器・楽器・六経諸子史を購入させた³²⁾。
- ⑨ 1314年頃、成均提挙司が博士柳衍らを江南に遣わし書籍を購入したが、帰着前に

23) 『高麗史』巻74・食貨志・科斂・忠烈王21年4月；『節要』巻21・忠烈王21年4月。

24) 安鼎福『雜同散異』追封卞韓國大夫人真慧大師行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并序。

25) 『高麗史』巻28・忠烈王世家・4年10月丁巳。

26) 『高麗史』巻30・忠烈王世家・14年7月戊申。

27) 『高麗史』巻33・忠宣王世家・忠烈王14年8月；『節要』巻21・忠烈王14年8月。

28) 『節要』巻21・忠烈王21年7月；『高麗史』巻89・齊国大長公主伝。

29) 姚燾『牧庵集』巻16・榮祿大夫福建等処行中書省平章政事大司農史公神道碑。

30) 『高麗史』巻33・忠宣王世家・忠烈王24年6月乙丑；『節要』巻22・忠烈王24年6月。

31) 『高麗史』巻32・忠烈王世家・27年8月戊午；『節要』巻22・忠烈王27年8月。

32) 『高麗史』巻105・安珣伝；同巻74・選挙志・学校。

船が沈没。判典校寺事洪淪が宝鈔150錠を提供し、書籍1万800巻を購入した³³⁾。

①②の宋商は南宋滅亡の前後であり南中国の商人とみられる。③の宋人も宮廷で芸事を披露したことから官人ではなく、渡来した商人に関係する人物であろう。④⑤⑧⑨は王室・朝廷による貿易であり、⑧⑨は学校備品の調達を目的とする。④は営利目的の貿易であり、⑤もその可能性がある。⑥は実質的に交易だったとの指摘がある(李康漢2011)。

状況を概括した記事としては、1342年序刊の『至正四明統志』巻5・土産・市舶物貨に、慶元への舶来品を列挙するなかで、新羅漆、高麗青器、高麗銅器など高麗産品をあげている。人蔘、松子、苧麻も、産地を明示しないが、南宋の『宝慶四明志』では高麗産品としているので同様であろう。また1352年の李穡の上書では「本国は江浙の船を通ず」とし、当時拡大していた「江浙之賊」が帆船で高麗に来襲する恐れを指摘している³⁴⁾。

4.2.2 商船往来の隠れた事例

前述のごとく海を通じた僧侶の移動は彼が便乗した商船の存在を示す。高麗僧式無外は海路で江南に往来した³⁵⁾。1304年には江南の鉄山紹瓊が海路で高麗を来訪³⁶⁾、1354年には湖州(現浙江省湖州市)霞霧山天湖庵の僧法眼が来航した³⁷⁾。1364年には高麗僧千熙が杭州に渡航した³⁸⁾。14世紀初めに江華の禅源寺を修復した際、顔料を求めて「宋」(南中国)に人を遣わし、1324年に帰国した³⁹⁾。報法寺を1348年に重建した際には江浙に大藏経を求め、1367年の再興時にも藏経を江浙より取り寄せた⁴⁰⁾。これらは商船を介した動きだろう。

前述のように海道運糧万戸府による高麗への食糧輸送に際しては、担当者が王に対して進献をおこなった。どのような見返りをうけたかは不明だが、海運担当者は商業勢力でもあったから、事実上の貿易取引を期待し、それが成就した可能性はある。

4.2.3 貿易の盛衰に対する評価

高麗が元に臣属した当初、南宋との貿易は元に牽制され、高麗側も「宋船はほとん

33) 『高麗史』巻34・忠肅王世家・元年六月庚寅; 『節要』巻24・忠肅王元年6月。

34) 『高麗史』巻115・李穡伝。

35) 『稼亭集』巻7・跋福山詩巻; 同巻15・送式無外遊江南。

36) 周南瑞『天下同文』前甲集7・閔漬<高麗国大藏移安記>:「端誠亮節功臣壁上三韓三重匡僉議政丞判選部事贈諡文清公權公(権坦)墓誌銘并序」(原銘、『海東金石苑』附録上)。
cf. 安鼎福『雜同散異』追封卞韓国大夫人真慧大師行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并序; 『高麗史』巻32・忠烈王世家・30年7月己卯; 『節要』巻22・忠烈王30年8月。

37) 景閑『白雲和尚語録』巻下。

38) 「彰聖寺真覚国師大覚圓照塔碑」(1386)。

39) 『東文選』巻65・釈息影庵<禅源寺毗盧殿丹青記>。

40) 李穡『牧隱文藁』巻6・報法寺記。

ど来ない」と虚偽の主張をした⁴¹⁾。しかし南宋滅亡後も海商の記録は僅少である。これについて先学は実態の反映とみている。陳高華(2005)は、海商が外交上の役割を果たすことが少なくなり、政府記録に現れにくくなる点に留意しつつも、元の大陸統合により陸上貿易が隆盛するなか、海上貿易が地位を低下させたとみている。李康漢(2011; 2012; 2013a; 2013b)は、陸上貿易の隆盛や元の貿易抑制策との関係を指摘し、特に14世紀前半の海上貿易を断絶状態と評価した。高麗貿易に従事していた中国海商は、新たに隆盛したユーラシア東西貿易(南海貿易)にシフトしていったというわけである。

両氏の説に対しては、明確な反証とまではいかないものの、疑問点をあげておきたい。まず高麗を基点とする陸上貿易は、海上貿易、特に南中国とのそれを容易に代替できまい。船舶の輸送能力は馬や牛と比べて段違いに高い。そして南中国との貿易で取引される物品には、現地産品に加え、アジア南方からもたらされる香料・薬材などが多く含まれたとみられる。遠く北方から陸路で往来するのは輸送効率が悪く、コスト的に不利になる。

陳高華が言及した王権と海商の関係も重要である。12世紀半ばまで高麗の史書に海商が多数出現するのは、経済活動の記録というより、進献や儀礼参加など彼らが王権宣揚に利用されたことが関係する。高麗を訪れた海商はより多かったはずだが、上記の範疇から外れる者は公的記録に残りにくいのである。当時高麗は元から政治介入を受け、儀典の格式も引き下げられるなど、自国の王権の宣揚に制約が生じていた。このため海商を積極的に君主に結びつけなくなり、少なくとも記録されにくい状況が生じたことは十分考えられる。

高麗貿易に従事した中国海商が他の貿易にシフトすることがどこまで可能だったかも検証を要する。かつて森克己(2010)は、日宋貿易に活躍した宋商と麗宋貿易に活躍した宋商の個人名が重ならないことから、日宋貿易・麗宋貿易を担う海商はそれぞれ専門化していたとの見方を示した。航海や商取引のノウハウ、現地社会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どの点で、新規参入がさほど容易ではなかった可能性がある。

元の政策の影響についても、日元貿易に関して必ずしも実勢と対応しない状況も指摘されている(榎本2007)。この問題を考えるうえでは、高麗が元からみて国内、海外のどちらに位置づけられたかもポイントになろう。これについては元側でも定まらない部分があり、4.2.1⑤の高麗王の貿易船に対する徴税をめぐるのは、どちらの立場で処理すべきか、現場では見解の相違があった。

また李康漢は高麗から中国にむかう貿易の主体を高麗人とみなしているようだが、麗宋間の貿易も宋商が主導し、使船も彼らにより運航される部分が大きかったとみら

41) 『高麗史』巻27・元宗世家・12年正月丙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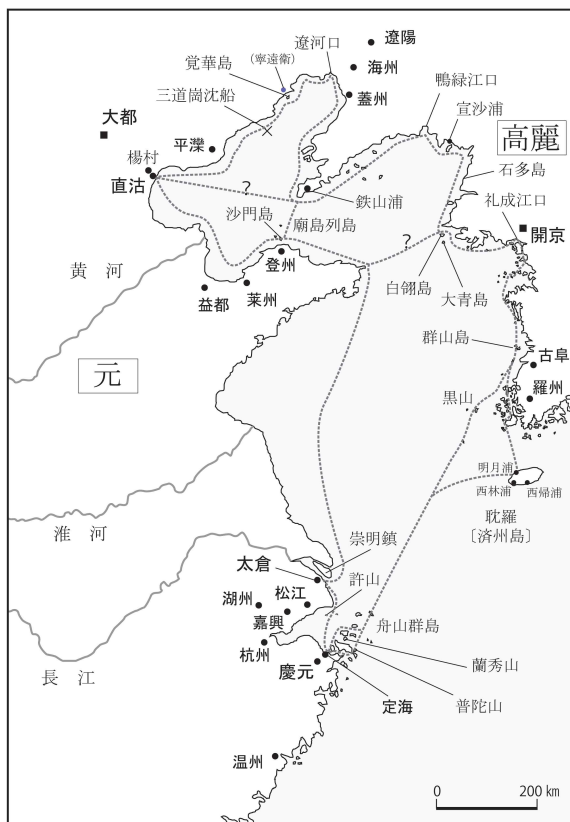
れる点（李鎮漢2011； 森平2014），日元貿易の主軸も前時代と同様に中国海商だったとみられる点（村井2013）を考慮すると，④⑤⑧⑨のように政府・王室が荷主・取引代表者となる貿易を含め，中国への船舶運航や現場取引を依然として中国海商が支えていた可能性は無視できない。特に⑧⑨は海商の活動が途絶したとされる14世紀前半のケースである。

そもそも筆者は，当時に関する僅かな史料から貿易の盛衰を論じることが可能なのか，それ自体に懐疑的である。少なくとも1342年の序をもつ慶元の地方志に南宋代と同様に高麗産品が輸入品として記されることは，1342年をそれなりに遡る時代から，そうした貿易が続いてきたことを示唆する。李穡が1352年に言及した江浙との通商も同様である。以上により筆者は，14世紀前半の高麗と南中国の海上貿易は，中国海商が関わるものを含め，少なくとも途絶したというほどの状況ではなく，「それなりに」おこなわれたと考える。

5. 航路の様相（以下に述べる航路については航路図を参照）

5.1 遼東航路

遼東地方との航路は，遼東側の到着地に蓋州や遼陽が登場することから，遼東半島を周回するものだったと想定される。蓋州は遼東半島北岸の付け根，旧遼河口の南にある。城市はやや内陸に位置するが大清河で海に通じる。遼陽は古くから遼東の中心地だが，直接海に面していない。これについては後述の「海州津」がその外港だったと考える。遼陽南方の海州（現遼寧省鞍山市海城市）も直接海に面さないが，西方を南流する旧遼河右岸に牛莊（現遼寧省鞍山市海城市牛庄鎮）がある。近代，堆積が進んだ遼河口に営口が開かれるまでは牛莊が海港だった。「海州津」は牛莊付近の船着場だったのであろう。



<図> 朝・中間の航路図

この「海州津」は、この遼東半島周回航路を元に臣属する以前の高麗人が利用した事例から浮かび上がる。1233年、崔滋が滅亡直前の金に使用した際、モンゴル軍が活動する陸路を避けて海路を利用し、鉄山浦（現遼寧省大連市旅順口区）を経て海州の「津」に到着した（『補閑集』）。対金通交に突然海路が利用された背景として、既知の航路がもともと存在したのか、戦時下ゆえの緊急対応だったのか、事情はわからない。

それ以前の状況は不明だが、モンゴル時代には渤海湾西岸を遼東に往来する航路も存在した。北中国産の陶磁器を遼東に運ぶ途上で沈没したとみられる綏中三道崗沈船（張威2001）がその物証である。文献史料に明徴はないが、元が中国から遼東に食糧を供給した際の航路は、この渤海湾西岸ルートをたどるものがあつたかもしれない。

5.2 北中国航路

北中国航路は大都航路と山東航路にわかれる。具体例にもとづく復元は困難だが、論理的には次のA～Fの選択肢が想定される。

①大都航路

- 朝鮮半島中西岸―黄海横断―山東半島北岸―渤海湾岸―直沽…………… A
- └鴨緑江口―鉄山浦―廟島列島―山東半島北岸―渤海湾岸―直沽… B
- └遼河口―渤海湾岸―直沽…………… C
- └渤海湾横断―直沽…………… D

②山東航路

- 朝鮮半島中西岸―黄海横断―山東半島北岸…………… E
- └鴨緑江口―鉄山浦―廟島列島―山東半島北岸…………… F

黄海を直接横断するA、Eは9世紀～11世紀初に北中国と朝鮮半島を結ぶ定番の航路だったが、モンゴル時代の実例からはもっぱら遼東半島沿いの航路が示唆される。北中国への木材輸送（4.2.1 ④）に際して、礼成江を出発した高麗船団は鴨緑江口で荷積みをして北中国にむかったはずなので、遼東半島沿いの航路になろう。朝鮮半島と大都方面を結ぶ水站でも、朝鮮半島内は済州島～鴨緑江口の区間に設定されたから、大都方面へは鴨緑江口から延伸された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り、その場合遼東半島沿いをたどるであろう。

海運関係者が高麗に食糧を輸送した際にも、廟島列島から遼東半島を経て高麗西北部にいたった可能性が高い。元の海運は張瑄・朱清に代表される長江口の海上勢力によって整備されたが、彼らが南宋末に海賊として活動した際の動向は彼らの航海知識を示唆する。当時朱清は富家楊氏の貨財を奪い、崇明鎮（長江口の中洲）から

船で東行すること3日、夜に沙門島（廟島列島の1島）にいたってから東北にむかえば高句麗水口（鴨綠江口か）を過ぎ、文・登・夷・維州の諸山を見て北にむかえば燕山・碣石山（北京北方・東方の山系）を目にするところまで往来したという⁴²⁾。ここには山東半島北端から廟島列島を経て鴨綠江口にむかう航路が示される。後に彼らが高麗への食糧輸送を担当した際には、かつて培ったノウハウを活用して、同じルートをたどった可能性が高い。

遼東半島から直沽にむかうにはB、C、Dの選択肢がある。最も迂遠なCは遼東に所用がない限り利用されなかったであろう。B・Dのどちらが選好されたか、事例にもとづく議論ができないので明末の事例（徐2011； 辻2018）から類推する。後金が台頭して陸路の対明交通が困難になった朝鮮の燕行使は、遼東半島南岸を經由して海路で北京に往来したが、当初は廟島列島を経るルートを利用した（1622～25）。その後、明の東北防衛を担う袁崇煥が介入し、渤海湾を横断して彼の拠点を經由するルートに変更される（1629～36）、これは鉄山（旅順）から覺華島（菊花島）へと渤海湾を横断し、寧遠衛（現遼寧省葫蘆島市興城市）にいたるものである。これによって燕行使はより遠距離を航海することになり、渤海湾の浅さも影響して事故が多発した。この渤海湾横断は北京に直航するものではないが航海条件は類似する。如上の状況からみて、海岸・島嶼沿いにランドマークと中継港をたどって進むBがより安全で、選好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おもう。これは山東半島をめざす場合、Fの航路がそのまま該当する。明初の1386・88・89年、高麗が黄海を越える海路で遣使した際にも旅順と山東の間を移動したが⁴³⁾、モンゴル時代の名残といえよう。

以上により、北中国との往来には遼東半島沿岸と廟島列島を經由するのが一般的だったと想定する。ただし黄海直航路や渤海湾直航路の利用可能性も、完全には排除できないだろう。そこで航路図にはこれらも図示したが、？を付して位相の低さを示した。

5.3 南中国航路

5.3.1 北中国沿岸ルート

南宋代まで高麗と南中国を結ぶ航路は、高麗側では王都の外港である礼成江口を窓口として、朝鮮半島南西海域・東シナ海・舟山列島海域を経て、中国側では主に明州（南宋・元代には慶元）を窓口として往来するものだった。モンゴル時代、高麗との交易について中国側で窓口港の指定があったかは判然としないが、東シナ海を經由して南中国に往来する航路を本稿では便宜的に東シナ海ルートと呼ぶことにしよ

42) 蘇天爵『国朝文類』巻69・胡長孺〈何長子伝〉。

43) 1386年使行…李崇仁『陶隱集』巻2；鄭夢周『圃隱集』巻1，1388年使行…『高麗史』巻105・李穡伝；『節要』巻33・恭讓王元年10月，1389年使行…權近『楊村集』巻6・奉使録。

う。ただしモンゴル時代にはこのルートによらず、黄海と北中国沿岸を經由する場合があったとみられる。これは前述した海運関係者の高麗渡航について想定されるもので、

南中国（特に太倉）－山東半島－廟島列島－遼東半島－鴨緑江口－礼成江口……………G

という航路になる。また実例は確認できないが、

南中国（特に太倉）－山東半島－黄海横断－礼成江口……………H

という、朝鮮半島中西部と山東半島の間を直行する航路も、北宋期までの北中国航路の状況からみて、排除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だろう。

太倉は海運の積出港であり、前述のごとく同地の海運関係者のなかには高麗貿易に従事する者がいた。明初の1371年にも戸部が高麗の朝貢船の入港地として太倉に言及し⁴⁴⁾、1372年には高麗使洪師範らが太倉に来航した⁴⁵⁾。榎本渉（2007）と荒木和憲（2013）は、航路Gをモンゴル時代の南中国と高麗を結ぶ主要貿易ルートと想定している。

5.3.2 東シナ海ルート

モンゴル時代における東シナ海ルートの利用については明徴がないが、状況証拠はある。倭寇が深刻化していた1358年、高麗政府は漢人部綱張仁甫らに委託して「唐船」による漕運を南西沿海で実施していた⁴⁶⁾。このことは、朝鮮半島南西海域を航海する知識と技能をもった中国海商の存在を意味するが、前述のごとくこの海域は東シナ海ルートによって朝鮮半島と南中国の間を往来する際に通過する。

また1368年には慶元の前洋に広がる舟山列島の海上勢力（蘭秀山賊）が明軍に鎮圧されたが、その残党が海を越えて済州島、さらに全羅道の古阜に潜伏し、現地で交易にも従事していた（藤田1997）。それを可能とした条件として、南中国の海上勢力と朝鮮半島南西沿海地域の密接な結びつきが推定される。これは突然発生するものではなく、長年にわたる東シナ海ルートを通じた交易活動と、そこでの相互接触が前提になるとみるべきだろう。彼らの取扱商品のなかには、当時まだ中国産品だった綿布と、アジア南方の産品である蘇木が含まれ、南海貿易ともつながった南中国－高麗間の貿易に彼らがなご関与していた可能性をも示唆する。高麗の政堂文学韓仲礼が蘭秀山賊の「唐船」を購入して処罰されたという出来事も⁴⁷⁾、蘭秀山賊が王都社

44) 『明太祖実録』巻68・洪武4年9月丁丑。

45) 『高麗史』巻44・恭愍王世家・22年11月壬子。

46) 『高麗史』巻39・恭愍王世家・7年7月壬戌。

会にまでつながりを持っていたことを示唆する。

明建国前には張士誠，方国珍といった南中国の地方勢力が盛んに高麗に通交した。19世紀の文献だが，彼らの使者が濟州島経由で高麗に往来したと伝える記事もある⁴⁸⁾(李康郁2017)。事実ならば，東シナ海ルートの利用例になろう。

最近李康郁(2017)は，初期の対明通交で東シナ海ルートがさかんに利用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これは従来看過されてきた事実であり，朝鮮半島南西部の羅州を両国の使節が経由したことから判明する。すなわち1368年に明は僂斯を海路で高麗に派遣したが⁴⁹⁾，羅州の郷吏の記録『錦城日記』によると，僂斯は翌年4月に羅州に到着，その後高麗側の回謝使崔尚幸<尚載>(く)は『高麗史』『節要』での表記)らが帰国する彼らに同行して羅州より明にむかった⁵⁰⁾。1370年には僂斯が再び羅州木浦に到り，元の魯王家に嫁いだまま行方不明になっていた長寧翁主(忠惠王の息女)が明より送還され，羅州に到着した。前年明に派遣された朝貢使成俊徳<准得>も羅州に帰還した⁵¹⁾。1371年には入明使尹恭<控>一行が「唐船」で羅州に帰還した⁵²⁾。前述のごとくこの年，明の戸部が高麗船の太倉入港に言及しているが，その直前における尹恭一行の動向が念頭にあった可能性が高い。

1372年に明に派遣され太倉に到った洪師範は，高麗への帰路に許山で遭難し，生存者は嘉興(現浙江省嘉興市)に漂着した⁵³⁾。『至元嘉禾志』巻4・山阜・松江府には「許山は松江府(現上海市松江区)の東南250里の海中に所在する。周長は5里，高さは50丈」とある。また明・王樵『方麓集』巻7・樵李記と『読史方輿紀要』巻89・浙江・封域・山川險要・海には，明末の杭州湾北岸(海寧衛，乍浦・澉浦・海塩)の哨戒ラインとして洋山(大・小洋山)と許山をあげる。これらの位置情報から，許山は上海南方，杭州湾内の小島である灘澚山に比定できる。太倉を発した高麗船は長江口を出てから南下しているわけで，舟山列島方面から東シナ海ルートを通じて帰国する予定だったと考えられる。洪師範の事故後，明は海路による朝貢禁止を高麗に通告する一方，登州経由ならば3日で渡海可能と提案してきた⁵⁴⁾。これは一見矛盾するようだが，ここでいう海路が直接には東シナ海ルートを指しているとすれば諒解できる。

1372年には進献使吳秀南<季南>が羅州に入り，濟州島を経由して明に貢馬を試み

47) 『高麗史』巻43・恭愍王世家・21年5月甲戌；『節要』巻29・恭愍王21年6月。

48) 李裕元『林下筆記』巻13・文献指掌編・沿海亭館。

49) 『高麗史』巻41・恭愍王世家・16年4月壬辰；『節要』巻28：恭愍王16年4月。

50) 『錦城日記』丙午年(1366)。

51) 『錦城日記』庚戌年(1370)。

52) 『錦城日記』辛亥年(1371)。

53) 『明太祖実録』巻75・洪武5年8月29日癸卯。

54) 『高麗史』巻43・恭愍王世家・21年7月壬子。

たが、島内の反乱のため果たせず⁵⁵⁾、直後に別途入明した。1373年には金甲雨が馬の私献のため済州島から明州府定海県に渡海し⁵⁶⁾、同年には周英賛・禹仁烈一行が海難により明への済州馬の進貢に失敗⁵⁷⁾、曹元島（靈光・慈恩島）で座礁し⁵⁸⁾、仁烈らは羅州に上陸した。1374年にも唐船護送別監が羅州に入り、進奉使鄭元庇・謝恩使朱宜（周誼）が羅州を經由した⁵⁹⁾。

以上のように、14世紀後半にはかなりの数の外交使節が東シナ海ルートを利用した。これは14世紀前半に衰退していた航海活動が14世紀後半になるや復活したことを意味するのだろうか。筆者は、東シナ海ルート航海の知識と技能、それを持つ船員と船体、経由地社会とのコネクション、これらの獲得・維持に要する経験の反復と時間の積み重ねを考慮するならば、既に14世紀前半に展開していた状況の継承とみるのが妥当と考える。14世紀後半に入ってすぐの1350・60年代に漢人都綱が漕運を担当し、蘭秀山賊が高麗に潜伏したという状況を見ると、その印象を強くする。李穡がいう江浙地方との通商、『至正四明統志』に記された高麗からの輸入品は、14世紀前半の東シナ海ルートを通じた往来の結果であろう。そのように捉えて問題なければ、14世紀後半に南中国の地方勢力との通交が活発化したことも、海商の「復活」（末松1996；李康漢2013a；同2013b）ではなく、記録上伏流していた海上通交が政治性の復活に伴って再び表面化したものとみるべきである。

なおモンゴル時代には済州島がモンゴル勢力の活動舞台となり、明初にも済州馬の進貢問題が発生したことから、大陸との往来の基点・中継地としての位相も重要になる。朝鮮中期の地誌には元への渡航に利用された済州島の浦口が記される。すなわち南西岸の西林浦と南岸の洪爐川（『新增東国輿地勝覽』巻35・旌義県・山川、大静県）、北西岸の明月浦と南岸の西帰浦（洪爐川と実質同一地）である（李元鎮『耽羅志』済州・山川、旌義県・山川）。これらの浦口を出た船舶の航路は明示的ではないが、「大洋」を越えるとあるので、基本的には東シナ海ルートとみられる。金甲雨が貢馬のために済州島から明州府定海県に渡ったのはこれを示唆する。1365年、元の枢密院掾曹永嘉・李至剛が副使帖木兒ト花に従って済州島に出張したが、翌年帰国すると、李至剛は体調不良のためしばらく松江に逗留し、その間に『耽羅志略』を執筆した⁶⁰⁾。済州島への出張者が現在の上海近郊を通過したならば、やはり東シナ海ルートが利用されたのであろう。

55) 『錦城日記』壬子年；『高麗史』巻43・恭愍王世家・21年4月壬寅。

56) 『史文』巻2・金甲雨盜売馬罪名咨。

57) 『高麗史』巻44・恭愍王世家・23年2月甲子。

58) 『史文』巻2・請通朝貢道路咨；『高麗史』巻44・恭愍王世家・22年11月壬寅。

59) 『錦城日記』甲寅年。

60) 貝瓊『清江貝先生文集』巻7〈耽羅志略後序〉。

6. おわりに

モンゴル時代の朝中間の海上交流は、モンゴルの覇権という時代状況を背景として、モンゴル権力の朝鮮半島沿海進出、公的な物流・交通システムの接続という特色がみられた。特に後者については関係エリアが遼東、北中国、南中国と多岐にわたる。貿易活動もみられたが、北中国では大都とその外港直沽が浮上したことをうけ、この方面との往来がみられた点が新たな要素である。両宋期を通じて活発だった高麗と南中国との間の貿易は、記録が減少するものの、それなりの規模でおこなわれたと考えられる。

航路については、遼東半島を周回して遼河口方面を結ぶルートを描いた。北中国航路については、遼東半島南岸・廟島列島を経由して山東半島北岸・北京方面を結ぶルートが主要だったと推定した。南中国航路については、山東半島、廟島列島、遼東半島を経由する時代特有の北回り航路に加え、両宋期に貿易・外交で活況を呈した東シナ海ルート、すなわち東シナ海と朝鮮半島南西海域を経由する航路が依然利用されたと推定した。

以上のように、モンゴル時代の朝中間海上交通は、活動エリアと航路、活動内容の点で、高麗史上最も多彩な様相をみせていた。しかしこの状況は、明が海禁を実施し、外交ルートも陸路に転換されたことで終焉を迎える。一部の例外的状況は別として、両地域間の定常的な海上交通の本格的再起動は、実に19世紀末の「開港」をまたねばならない。

[参考文献]

- 荒木和憲 (2013) 「中世日朝通交貿易の基本構造をめぐっ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51, pp.79-109.
- 植松正 (2004) 「元代の海運万戸府と海運世家」『京都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紀要(史学編)』3, pp.111-170.
- 榎本涉 (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9~14世紀』東京: 吉川弘文館.
- 末松保和 (1996) 「麗末鮮初に於ける対明関係」『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5 高麗朝史と朝鮮朝史』東京: 吉川弘文館, pp.124-291.
- 辻大和 (2018) 「一七世紀朝鮮・明間における海路使行と貿易の展開」同著『朝鮮王朝の対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東京: 汲古書院, pp.97-126.
- 内藤雋輔 (1961)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の推移に就いて」同著『朝鮮史研究』京都: 東洋史研究会, pp. 367-480+ 1pl.
- 藤田明良 (1997) 「蘭秀山の乱」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十四世紀の舟山群島と高麗・日本』『歴史学研究』698, pp.22-33.
- 村井章介 (2013) 「寺社造営料唐船を見直す: 貿易・文化交流・沈船」同著『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p.241-272.
- 森克己 (2010) 『新編森克己著作集3 続々日宋貿易の研究』東京: 勉誠出版.
- 森平雅彦 (2013a) 「文献と現地の照合による高麗-宋航路の復元: 『高麗凶経』海道の研究」同編『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東京: 汲古書院, pp.3-262.
- 森平雅彦 (2013b) 「高麗における元の站赤: ルートの比定を中心に」同著『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 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pp.316-359.
- 森平雅彦 (2013c)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来王朝体制の保全問題」同著『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 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pp.316-359.
- 森平雅彦 (2014) 「高麗・宋間における使船航路の選択とその背景」『東洋文化研究所紀要』166, pp.67-123.
- 배속희 (2012)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 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中國學報』65, pp.185-206.
- 徐仁範 (2011) 「朝鮮使節の海路朝貢路と海神信仰: 『燕行録』の分析を通して」吉尾寛編『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東京: 汲古書院, pp.81-118.
- 李康郁 (2017) 「高麗恭愍王代後半期における対明関係と濟州征伐」九州史学会朝鮮学部会口頭発表.
- 李康漢 (2010) 「13세기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元代‘關稅’의 문제」『島嶼文化』36, pp.37-66.
- 李康漢 (2011) 「1270년대~1330년대 외국인들의 고려 방문: 13~14세기 동-서

- 교역에서의 한반도의 위치」『한국중세사연구』30, pp.416-467.
- 李康漢 (2012) 「1293~1303년 고려 서해안 ‘元水驛’의 置廢와 그 의미」『한국중세사연구』33, pp.135-162.
- 李康漢 (2013a) 「원과의 교역체제와 그 특징」『한국해양사Ⅲ 고려시대』서울: 한국해양재단, pp.423-490.
- 李康漢 (2013b)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13~14세기 감춰진 교류상의 재구성』파주: 창비.
- 李鎮漢 (2011) 『高麗時代宋商往来研究』서울: 경인문화사.
- 정요근 (2007) 「고려 역로망에 대한 원의 개입과 그 의미」『역사와 현실』64, pp.161-195.
- 崔菊華 (2011) 「元代山東与高麗的貿易」『滄桑』2011-1, pp.48-49.
- 陳高華 (2005b) 「元朝与高麗的海上交通」同著『元史研究新論』上海: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pp.363-375.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ほか (編) (2006) 『蓬萊古船』北京: 文物出版社.
- 張威 (主編) (2001) 『綏中三道崗元代沈船』北京: 科学出版社.
- 周霞 (2010) 「元朝時期的山東半島在与高麗海上商貿往來的重要作用」『魯東大學學報 (哲学社会科学版)』27-5, pp.43-46.

번역문

몽골 시대의 한중 해상교통과 그 항로

모리히라 마사히코(규슈대)

1. 머리말
2. 몽골의 한반도 연해 진출
3. 공적물류의 연결
4. 해상무역의 새로운 전개
5. 항로의 양상
6. 맺음말

1. 머리말

외교·전쟁·무역·문화교류 등의 국제관계는 사람·물자·정보가 지역 간을 이동한 결과로서 성립하였고, 교통은 그 이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교통은 주체, 목적, 기술, 자연환경, 정치·사회·경제조건 등으로 규정되는데, 교통 루트는 이들 여러 조건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서 출현하는 그 상징이며, 반대로 그 여러 조건을 해명하는 관건이 된다.

고려시대는 한국사 상에서도 국제적인 해상교류가 활발한 시대였다고 하는데, 그 중심축은 한중간의 통교였다. 이에 대하여 종래에는 10세기 후반~12세기 초의 대북송통교가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왔으며, 몽골 시대 - 본고에서는 특히 원이 동아시아의 바다에 관여한 1260년대~1360년대를 대상으로 한다 - 의 양상에 대해서는 内藤1961과 陳2005b으로 대표되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아직 이용되지 않은 자료, 언급되지 않는 사례가 남아 있고, 루트(항로)의 분석도 불충분하다.

몽골과 고려의 사이에서 바다를 무대로 발생한 상황은 크게 3개의 국면으로 나뉜다. 제1로 한반도 연해로의 몽골 세력의 진출, 제2로 공적물류의 전개, 제3로 무역이다. 제1·제2의 점은 대륙 왕조와 한반도 왕조가 정치적 일체성을 높이는 것에 의해 이 시대 특유의 현상이었다. 제3의 점은 현상적으로는 전시대로부터 계속되어온 것이지만, 내용 변화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 된다. 이하, 2~4절에서 세 국면을 개관하고, 5절에서 항로의 양상을 논할 것이다.

2. 몽골의 한반도 연해 진출

1260년에 고려가 원에 臣屬한 후, 66년에는 일본으로의 조공권고 문제가 부상하여 한반도에서는 67년에 2회(첫 번째는 도항하지 못하였다), 69년에 2회, 71년, 72년, 75년, 92년에 1회씩, 고려 또는 원이 주체가 되어 대일사절 파견이 실시되었다. 당초 이것은 원의 남송경략과도 연동되어, 1268년에는 남송과의 항로를 확인하기 위한 원의 사신이 흑산도를 시찰하였다.¹⁾

고려에서는 대몽골 전쟁을 주도한 무신집권세력이 1269년에 무너졌다. 하지만 삼별초가 진도를 거점으로 항전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려 연합군이 남해안 지역으로 진출하여 71년에 진도를 함락시키고, 잔존세력이 농성하였던 제주도도 73년에 평정하였다. 이리하여 고려로부터 저항세력을 일소한 후에, 교섭에 응하지 않는 일본에 대하여 1274·81년의 2차례에 걸친 원정이 실시되었다.

삼별초 진압 후, 원은 제주도를 직할하고 장관으로서 達魯花赤을 파견하였다. 그 후 1294년에 施政權이 고려로 반환되기까지 원의 통치기관은 招討司, 都達魯花赤總管府, 安撫司로 변천하고, 또 원·고려 양군의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원 황실의 어용목장도 설치되어 牧民이 파견되었다. 이 牧民集團은 施政權 반환 후에도 잔류하여 1356년 이후 고려와 원의 관계가 냉각되자 고려의 제주도 통치의 장애물이 되어, 최종적으로 74년에 崔瑩이 이끄는 고려군에 의해 토멸되었다.

제주도 이외에도 1270년에는 진도 등의 도서가 牧馬場으로서 원에 이용되었는데,²⁾ 유배지로서의 활용도 주목된다. 濟州道와 大靑島가 쌍벽을 이루는데, 人物島(현 德積島), 祖月島(현 紫月島), 白翎島, 靈興島, 高鸞島, 苳益島(현재 지역 미상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흥성군 관내³⁾), 보성의 乃老島(현 羅老島?), 영암의 披絲島, 烏也島, 与音島, 烏安島 등이 보인다.(森平2013c). 소재지가 판명된 예로 판단하건대, 중서부에서 남서부에 걸친 연안도서가 선정된 듯하다. 이들 지역으로는 일반 범죄자들보다 정쟁에 패한 몽골 지배층이 유배되고 있다.

3. 공적물류의 연결

3.1 遼東과의 왕래

遼東지방과의 사이에서 식량을 상호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1274년 원은

1) 『高麗史』卷26·元宗世家·9年10月己亥; 『高麗史節要』(以下『節要』)卷18·元宗9年10月; 『元高麗紀事』至元5年8月~
2) 『高麗史』卷28·忠烈王世家·2年10月甲子; 同卷29·忠烈王世家·5年10月己亥; 『節要』20·忠烈王5年10月.
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9·忠清道·洪城郡·山川.

東京(현재 遼寧省 遼陽市)의 ‘米’ 2만석을 고려로 조운하여 일본 원정준비를 위해 부족한 군량을 보전하였다.⁴⁾ 89년에는 역으로 遼東의 식량부족을 구제하기 위한 ‘米’ 10만석의 蓋州(현 遼寧省 營口市 蓋州市)로의 수송이 고려에 명해졌다. 고려는 해난피해를 내면서도 2번에 걸쳐 해상수송을 실시하였다.⁵⁾ 1294년에는 일본원정용(실제로는 기근구제용일가)으로 강화도에 비축되어 있던 중국강남의 ‘米’ 중 5만석(후에 3만석으로 감액)을 遼陽·瀋陽 지방의 기근구제로 전용하게 되었고,⁶⁾ 이듬해 고려는 3번에 걸쳐 遼陽으로의 해상수송을 실시하였다.⁷⁾ 1293년에 원은 제주도에서 압록강구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에 水站(水上驛伝)을 설치하고 있다.(상세는 다음 페이지) 이는 시기적으로 上記한 遼東으로의 식량수송에도 관계한다고 보인다(정2007).

3.2 북중국과의 왕래

북중국과의 사이에는 원의 요구물자나 원에 체재 중인 고려왕에 대한 盤纏(여비)의 수송이 실시되었다. 1272년 원 중서성은 사신을 파견하여 궁전을 건축할 자재 30~50주를 요구하여, 이를 배 10척에 적재하여 수송하였다.⁸⁾ 1309년에도 고려는 白頭山에서 압록강으로 떠내려진 사원 건축 자재를 해상수송하기 위한 배 100척과 ‘米’ 3,000석의 각출을 명받았다.⁹⁾ 이들은 당시 원 황실이 大都(현 北京市)나 山西의 五台山에서 왕성하게 사원조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¹⁰⁾ 수송처는 북중국으로 보인다.

충선왕은 1298년의 즉위 후 반년 남짓 만에 퇴위되고, 그 후 10년간 원에서 지내었다. 하지만 왕은 1308년의 복위 후에도 원에서 체류하며 본국을 통치하였으므로, 일부 從臣이 권세를 휘둘렀다. 1313년, 이에 불만을 가진 金深 등이 원에 대하여 왕의 귀국을 요구하였는데, 그때 그들은 盤纏을 본국으로부터 해상수송하는 부담에 대하여 ‘본국은 매년 布 10만 필, 米 400斛, 그 외의 물품도 다 기재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國人에 의한 조운의 폐해가 더욱 심하다’라고 지적하였다.¹¹⁾ 당연히 大都 방면을 향하여 조운되었던 것을 말했을 것이다.

4) 『高麗史』卷27·元宗世家·15年4月己酉.

5) 『高麗史』卷30·忠烈王世家·15年2月丙寅; 3月辛卯; 5月乙酉; 同卷79·食貨志·科斂·忠烈王15年2月; 『節要』卷21·忠烈王15年2月; 3月; 5月.

6) 『高麗史』卷31·忠烈王世家·20年12月庚寅; 『節要』卷21·忠烈王20年12月.

7) 『高麗史』卷31·忠烈王世家·21年2月癸巳; 3月丁巳; 4月己卯; 癸卯; 閏4月癸酉; 『節要』卷21·忠烈王21年2月; 3月; 4月; 閏4月.

8) 『節要』卷19·元宗13年3月.

9) 『高麗史』卷33·忠宣王世家·元年2月甲辰; 元年4月甲子; 『節要』卷23·忠宣王元年3月; 4月.

10) 『元史』卷22·武宗本紀·至大2年(1309)2月甲辰; 3月戊寅; 同卷23·武宗本紀·至大3年正月戊子; 12月甲辰.

11) 『節要』卷23·忠宣王5年正月. cf. 『高麗史』卷104·金周鼎傳附 金深傳.

1321년에는 충숙왕이 원에 억류되고, 다시 盤纏 문제가 발생하였다. 1313년의 충숙왕 즉위 후에도 상황이 된 충선왕과 그 총신이 계속 실권을 쥐고 있었다. 1320년에 원에서 仁宗이 죽자, 새 황제 英宗은 구 집권세력의 일부를 배제시키고, 그들 속의 실력자인 태황태후 다기[ダギ]의 영향력도 후퇴하였다. 仁宗이나 다기를 방패로 삼은 충선왕이 이 정쟁에 말려들어 티베트로 유배되자, 충숙왕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부왕 세력의 배제를 진행한다. 하지만 원에서는 충선왕으로부터 瀋王 호칭을 계승한 방계왕족 朮哥 英宗의 숙위로 총애를 받고 있었다. 고려왕위의 탈취를 꾀한 朮哥는 英宗에 대한 충숙왕의 詔書 모욕을 참조하였고, 그 때문에 왕은 원으로 소환, 억류된다. 1323년에 英宗이 시해되고 泰定帝가 즉위하자, 이듬해 충숙왕은 명예를 회복하고 1325년 귀국하였다. 이 사이 충숙왕은 자신의 생활과 정치 공작(원의 要路에 대한 뇌물)에 필요한 경비를 본국으로부터 ‘連續轉運’시켰는데, 특히 桓允全과 全成萬은 배로 ‘布二萬匹’을 수송하였다고 한다.¹²⁾

이 외에, 준비단계에서 중지된 제3차 일본원정 때에는 大都 동쪽의 渤海灣岸에 있는 平灤州(현 河北省 秦皇島 市 盧龍縣)에서 군선이 건조되어, 1283년에 고려 사신이 그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한다.¹³⁾ 원정이 실시되면, 이들 군선은 한반도로 회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중국과의 교통에 관한 공적 인프라로서 1293년에 설치된 전술한 水站도 주목된다. 이때 제주도를 기점으로 압록강구까지의 한반도 서해안 전역에 더하여 ‘楊村海口(현 楊村港)’까지가 루트로 설정되었다.¹⁴⁾ 필자는 이 ‘楊村’을 大都와 그 외항인 直沽(현 天津市)를 잇는 수로 상의 동명의 河津(현 天津市 武靖區 楊村)으로 비정하고 있다.(森平2013b) 楊村은 당시 남중국과 大都를 잇는 해상교통과 내수면 교통이 결절하는 요충이었다.

水站의 전제로는 1291년 무렵의 世祖의 정책안이 있다. 世祖는 「遼東水程圖」를 보고 水站의 설치를 구상하고, 인질로 있던 고려세자(충선왕)의 從臣인 鄭可臣에 대하여 고려의 주요 물산인 ‘米布’를 육운하는 비용을 지적하고 정가신을 江南行省 左丞로 임명하여 해운을 관장케 하여, 이들을 수상운송하면 원의 재정 일부를 보충하고 더하여 고려인의 元都 체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가신은 고려의 물산은 국내수요를 만족시킬 정도 밖에 안 되며, 國人은 船運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하지만 결국 이 안을 베이스로 水站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 水站은 1303년 무렵 폐지되었는데, 충선·충숙왕에 대한 盤纏 수송은 그 후에 실시되었다. 공적 기구가 없어도 해상물류를 실현할 만큼의 기반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12) 『節要』卷24·忠肅王9年6月; 『高麗史』卷91·瀋王朮哥傳.

13)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9年正月乙亥; 『節要』卷20·忠烈王9年正月.

14) 『元史』卷63·地理志·征東等處行中書省.

3.3 남중국으로부터의 수송

남중국과의 사이에서는 고려로 향한 식량수송이 13세기 말에 실시되었다. 1285년 世祖는 일본원정의 군량으로서 江淮의 ‘米’ 100만 석을 滬浦로 수송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⁵⁾ 다만 원정 계획은 곧 중지되고, 수송이 어디까지 실시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91년에는 인질로서 入侍 중에 있던 세자(충선왕)의 요청을 받아 고려로 식량이 수송되었다. 원에서는 87년에 몽골리아 동부에서 宗王 나얀[ナヤン]이 반란을 일으켰고 91년에는 그와 한패인 카단[カダン]이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정부는 원조정부 측에 서서 대응을 진행하였으나 식량부족을 초래하여, 세자가 ‘江南漕運’에 의한 공급을 요구했던 것이다.¹⁶⁾ 같은 해 6월, 원의 海道萬戶 黃興·張侑, 千戶 殷實·唐世雄 등이 강남의 ‘米’ 10만 석을 해상 수송하여 하급 관원과 왕도 주민에게 배급되었다.¹⁷⁾

그 후에도 고려로의 식량수송이 이어졌다. 1292년 江南漕運萬戶 徐興祚(혹은 徐興祥) 등이 강남의 ‘米’ 10만 석을 수송하였다.¹⁸⁾ 조난에 의해 4,200석이 도착하는데 그쳤는데, 이들은 군인과 왕도 주민에게 배급되었다. 또한 이때 徐興祚가 왕에게 餼·공작 등 다수의 토물을 헌상하였다. 1290년대에 남중국에서 식량수송을 담당한 上記 인물은 모두 해운, 즉 남중국에서 大都로의 稅量 수송을 청부하는 海道運糧萬戶府의 관계자였다.(陳2005)

당시 원은 遼東으로의 식량수송도 실시하였으나, 전술한 대로 1289년과 95년에는 고려도 추가하였다. 남중국으로부터의 식량공급은 그 보충이 되는데, 李康漢(2012)은 원이 遼東으로의 전송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1295년에 강화도의 강남 ‘米’를 遼東으로 보낸 것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전술한 대로 남중국에서의 식량은 고려 국내에서 배급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식량수송의 ‘연쇄추돌[玉突き]’은 될 수 있지만, ‘수송’이라고는 할 수 없다.

李康漢(2012)은 동시기의 水站 설치에 대해서도 남중국으로부터의 물자수송과의 관련을 상정하고 있다. 세조의 수참 구상으로는, 한반도 서안 일대, 나아가 大都를 잇는 수참에 관하여 정가신의 ‘江南行省左丞’ 임명과 해운관리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송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원에서는 泉州와 杭州를 잇는 海站과 長江河口로부터 直沽로의 해운의 정비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었다.¹⁹⁾ 원은 이러한 중국연해의 공적 교통 시스템을 고려·遼東

15) 『元史』卷13·世祖本紀·至元22年11月癸巳.

16) 『高麗史』卷30·忠烈王17年4月辛巳; 『節要』卷21·忠烈王17年4月辛巳.

17) 『高麗史』卷30·忠烈王世家·17年6月; 同卷80·食貨志·賑恤; 『節要』卷21·忠烈王17年6月.

18) 『高麗史』卷30·忠烈王世家·18年6月辛卯; 同卷30·忠烈王世家·18年閏6月乙卯; 同卷80·食貨志·賑恤; 『節要』卷21·忠烈王18年閏6月.

19) 『經世大典』站赤·至元26年(1290)2月16日(『永樂大典』卷19418); 『元史』卷15·世祖本紀·至

방면의 水站과 연결하여 일체적으로 운용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李康漢2012; 森平2013b) 후술하듯, 海道運糧萬戶府가 고려 왕도까지 식량을 수송하는 경우, 그 항로는 압록강구에서 한반도 서안을 남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水站 루트와도 일부 겹친다.

4. 해상무역의 새로운 전개

4.1 북중국과 무역의 부활

4.1.1 大都 방면과의 무역

몽골 시대에는 북송 멸망 후에 표면적으로는 중단되어 있던 북중국과의 무역이 부활하였다. 유라시아 규모의 거대 제국의 정치·경제 센터로서 大都가 발달하고, 외항으로서 直沽가 발달한 것이 크다. 이 방면과의 무역에 관한 기년을 가진 사건으로서, 1341년에 ‘大都商人’이 고려를 방문하여 해적선의 활동을 통보하였다는 것이 있다.²⁰⁾ 원말에 편찬되어 당시의 사회의 실정을 반영하는 한어회화교재 『老乞大』에는 원에서 무역활동을 행하는 고려 상인이 直沽에서 배편으로 왕경(개경)으로 귀환한다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조선시대의 한어교과서 『朴通事諺解』도 본래 원말에 편찬된 한어회화교재로, 후대에 개정된 내용이 있지만 원의 세태를 일정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고려~大都 방면을 맺는 ‘船路’와 거기서 활동하는 ‘高麗地面裏來載千余筒布子的大船’과 ‘西京(平壤)來的載黃豆的船’이 등장한다.

해운담당자에 의한 무역도 주목되어, 해운의 중심 적출항인 太倉(현 江蘇省 蘇州市 太倉市)의 殷九宰는 해운에 대한 給金(船脚錢)을 밀천으로 고려에서 무역을 행하였다고 한다.(植松2004) 그는 直沽에서 해운의 업무를 종료한 후, 그대로 고려로 회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북중국과 고려를 연결하는 항로를 이용한 무역이 된다.

이 외에 승려가 바다를 통해 大都~高麗 간을 이동한 사례가 있다. 여송간·일송간에서 그러하듯이, 이런 종류의 도해승은 외교사선에 동승한 것이 아니라면, 무역선에 편승하였고 상정할 수 있다.(榎本2007; 李鎮漢2011) 1334년에는 승려 中向이 해로로 大都로 건너갔다.²¹⁾ 1368년에는 명군이 大都를 함락하였을 때, 인도 승려 指空의 유골 일부를 가진 승려 達元이 해로로 고려로 돌아간 행적이 있다.²²⁾

고려와의 바다를 통한 외교에서 중국측의 창구는 11세기 초까지 山東半島 북안의 登州(현 山東省 烟台市 蓬萊市)였는데, 그 후 북송과 고려·거란과의 긴장관계에

元26年2月丙寅.

20) 『高麗史』卷36·忠惠王世家·後2年7月丙子.

21) 李穀『稼亭集』卷3·重興大華嚴普光寺記.

22) 李穡『牧隱集』文藁卷14·西天提納薄陀尊者浮屠銘并序.

동반하여 폐쇄되었다. 11세기 후반의 송이 고려와 국교를 회복한 후, 북중국의 통교창구는 山東半島 남안의 板橋鎮(現 山東省 青島市 膠州市)에 열렸다. 당시는 외교·무역 모두 남중국의 明州(현 浙江省 寧波市)를 창구로 하는 항로가 간선이었으나, 북중국에서 창구는 역시 山東半島였다.

몽골 시대에는 1295년 충선왕과 원공주의 혼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 조정이 益都(현 山東省 濰紡市 青州市)에 배를 보내어 마포 1만 4천 필을 판매하여 교초를 입수하였다.²³⁾ 기록상 山東을 무대로 하는 무역은 이것뿐이지만, 근년 옛 登州港에서 발견된 침몰선(蓬萊古船) 속에서는 14세기경의 고려선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6) 한국에서 발견된 고려선과 같은 平底 구조인데 세부는 차이도 있다. 한편, 원대 북중국의 선박의 실례도 적지 않으므로, 建造 지역의 확정에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당시의 한반도산 도자기가 함께 실려 있으므로, 한반도와 山東半島를 왕래하였던 배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大都·山東 이외에는 1302년에 無禪師가 江淮에서 해로로 고려에 도착한 예가 있다.²⁴⁾

4.2 남중국과의 무역

4.2.1 상인·통상의 직접언급 사례

남중국과의 무역은 남송 멸망까지 고려의 대중무역의 중축이었다. 몽골 시대의 관계 사료에서 남중국과의 상인 왕래나 통상의 실천이 직접 언급된 사건을 일람하겠다.

- ① 1278년, 송상 馬擘이 方物을 헌상하니, 내정에서 연회를 베풀었다.²⁵⁾
- ② 1288년, 송상 顧愷·陸淸 등이 내방하여 물품을 헌상하였다.²⁶⁾
- ③ 1288년, 大殿에서 聖節의 연회를 열 때 송나라 사람이 作戲하였다.²⁷⁾
- ④ 1295년경, 왕비 쿠투루크 케르미슈[クトゥルク=ケルミシュ] 공주가 인삼·잣[松子]을 강남으로 보내어 교역하였다.²⁸⁾
- ⑤ 1295년경, 고려왕이 江浙로 무역선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징세율이 의논되었다.²⁹⁾
- ⑥ 1298년 泉州(현 福建省 泉州市)에 거주하고 있던 남인도 馬八國의 왕자 李哈里

23) 『高麗史』卷74·食貨志·科斂·忠烈王21年4月; 『節要』卷21·忠烈王21年4月.

24) 安鼎福『雜同散異』追封卞韓國大夫人真慧大師行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并序.

25) 『高麗史』卷28·忠烈王世家·4年10月丁巳.

26) 高麗史』卷30·忠烈王世家·14年7月戊申.

27) 『高麗史』卷33·忠宣王世家·忠烈王14年8月; 『節要』卷21·忠烈王14年8月.

28) 『節要』卷21·忠烈王21年7月; 『高麗史』卷89·齊國大長公主伝.

29) 姚燾『牧庵集』卷16·榮祿大夫福建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大司農史公神道碑.

- 가 사신을 파견하여 銀絲帽·金繡手箒·沈香 5근 13냥·土布 2필을 헌상하였다.³⁰⁾
- ⑦ 1301년, 강남의 상객이 壽康宮에서 충렬왕에게 연회를 열어 바쳤다.³¹⁾
- ⑧ 1304년, 安珣의 건의에 의해 각품의 관료에게 銀·布를 각출하여 국학의 瞻學錢에 충당하고, 왕도 內庫錢을 제공하였다. 안향은 남은 재산으로써 博士 金文鼎 등을 江南(中原)에 보내어 画先聖·七十子像·祭器·樂器·六經諸子史를 구입하게 하였다.³²⁾
- ⑨ 1314년경, 成均提舉司가 博士 柳衍 등을 江南에 보내어 서적을 구입하였는데, 귀국하기 전에 배가 침몰하였다. 判典校寺事 洪淪이 寶鈔 150錠을 제공하여 서적 1만 800권을 구입하였다.³³⁾

①②의 송상은 남송 멸망 전후이고 남중국 상인으로 보인다. ③의 송나라 사람도 궁정에서 예능을 피로하였으므로 관인은 아니고 도래한 상인과 관계되는 인물일 것이다. ④⑤⑧⑨는 왕실·조정에 의한 무역이며, ⑧⑨는 학교 비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④는 영리 목적의 무역이고, 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⑥는 실질적으로 교역이었다는 지적이 있다.(李康漢2011).

상황을 개괄한 기사로서는 1342년 序刊한 『至正四明續志』 권5 土產·市舶物貨에서 慶元으로의 舶來品을 예로 드는 중에 新羅漆, 高麗青器, 高麗銅器 등 고려산품을 들고 있다. 인삼, 잣[松子], 모시[苧麻]도 산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송의 『寶慶四明志』에서는 고려산품이라고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1352년 李穡의 上書에는 ‘본국은 江浙의 배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당시 확대되고 있던 ‘江浙之賊’이 범선으로 고려에 내습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³⁴⁾

4.2.2 상선왕래의 숨은 사례

전술한 대로 바다를 통한 승려의 이동은 그가 편승한 상선의 존재를 보인다. 고려 승려 式無外는 해로로 江南으로 왕래하였다.³⁵⁾ 1304년에는 江南의 鐵山紹瓊이 해로로 고려를 내방하였고,³⁶⁾ 1354년에는 湖州(현 浙江省 湖州市) 霞霧山 天湖庵의 승려 法眼이 내방하였다.³⁷⁾ 1364년에는 고려승 千熙가 杭州로 도향하였다.³⁸⁾

30) 『高麗史』卷33·忠宣王世家·忠烈王24年6月乙丑; 『節要』卷22·忠烈王24年6月.

31) 『高麗史』卷32·忠烈王世家·27年8月戊午; 『節要』卷22·忠烈王27年8月.

32) 『高麗史』卷105·安珣伝; 同卷74·選舉志·學校.

33) 『高麗史』卷34·忠肅王世家·元年六月庚寅; 『節要』卷24·忠肅王元年6月.

34) 『高麗史』卷115·李穡伝.

35) 『稼亭集』卷7·跋福山詩卷; 同卷15·送式無外遊江南.

36) 周南瑞『天下同文』前甲集7·閔漬〈高麗國大藏移安記〉:「端誠亮節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僉議政丞判選部事贈諡文清公權公(權咀)墓誌銘并序」(原銘, 『海東金石苑』附錄上). cf. 安鼎福『雜同散異』追封卞韓國夫人真慧大師行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并序; 『高麗史』卷32·忠烈王世家·30年7月己卯; 『節要』卷22·忠烈王30年8月.

14세기 초에 강화의 禪源寺를 수복할 때 안료를 구하여 ‘宋(南中國)’으로 사람을 보내어, 1324년에 귀국하였다.³⁹⁾ 報法寺를 1348년에 중건하였을 때에는 江浙에서 대장경을 구하였고, 1367년의 再興 때에도 대장경을 江浙에서 가져왔다.⁴⁰⁾ 이들은 상선을 매개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전술한 대로 海道運糧萬戶府에 의한 고려로의 식량 수송 때에는 담당자가 왕에 대하여 진헌을 행하였다. 어떠한 답례를 받았는지는 불명이지만, 해운담당자는 상업세력이기도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무역 거래를 기대하였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4.2.3 무역의 성쇠에 대한 평가

고려가 원에 臣屬할 당초 남송과의 무역은 원으로부터 견제 받아, 고려측도 ‘宋船은 거의 오지 않는다’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⁴¹⁾ 하지만 남송 멸망 후에도 海商의 기록은 매우 적다. 이에 대하여 선학은 실태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陳高華(2005)은 海商이 외교상의 역할을 맡은 일이 적어지게 되고, 정부기록에 나타나기 힘들어지는 점에 유의하면서, 원의 대륙통합에 의한 육상무역이 융성하는 중에 해상무역의 지위가 저하되었다고 보고 있다. 李康漢(2011; 2012; 2013a; 2013b)은 육상무역의 융성이나 원의 무역억제책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특히 14세기 전반의 해상무역을 단절상태로 평가하였다. 고려 무역에 종사한 중국해상은 새롭게 융성한 유라시아 동서무역[南海貿易]으로 이동해갔다는 것이다.

양씨의 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증으로까지는 갈 수 없지만, 의문점을 들고자 한다. 먼저 고려를 기점으로 하는 육상무역은 해상무역, 특히 남중국과의 그것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선박의 수송능력은 말이나 소에 비해 현격하게 높다. 그리고 남중국과의 무역으로 거래된 물품은 현지산품에 더하여 아시아 남방에서 가져온 향료·약재 등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보인다. 멀리 북방에서 육로로 왕래하는 것은 수송효율이 나빠 코스트적으로 불리해진다.

陳高華가 언급한 왕권과 해상의 관계도 중요하다. 12세기 중엽까지 고려의 사서에 海商이 많이 출현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기록이라기보다, 進獻이나 의례참가 등 그들이 왕권 선양에 이용되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고려를 방문한 해상은 보다 많았을 터인데, 上記한 범주에서 벗어나는 자는 공적 기록에 남겨지기 힘들었던 것이다. 당시 고려는 원으로부터 정치 개입을 받아 의전의 격식도 하향되는 등, 자국

37) 景閑『白雲和尚語錄』卷下.

38) 「彰聖寺真覺國師大覺圓照塔碑」(1386).

39) 『東文選』卷65·積息影庵〈禪源寺毗盧殿丹青記〉.

40) 李穡『牧隱文藁』卷6·報法寺記.

41) 『高麗史』卷27·元宗世家·12年正月丙子.

의 왕권의 선양에 제약에 생겨 있었다. 이 때문에 海商을 적극적으로 군주와 연결시키지 않게 되고, 적어도 기록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고려 무역에 종사한 중국 海商이 다른 무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하였는지도 검증을 요한다. 이전에 森克己(2010)는 日宋貿易에서 활동하였던 宋商과 麗宋貿易에서 활동하였던 宋商의 個人名이 겹치지 않는 점에서, 日宋貿易과 麗宋貿易을 담당한 海商은 각각 전문화하고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항해나 상거래의 노하우, 현지사회와의 커넥션 등의 점에서 신규 참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의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도, 日元貿易에 관하여 반드시 실세와 대응하지 않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榎本2007).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는, 고려가 원에서 보아 국내, 해외 어느 쪽으로 자리매김했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 측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4.2.1⑤의 고려왕의 무역선에 대한 징세를 둘러싸고는 어느 쪽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가, 현장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또 李康漢은 고려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무역의 주체를 고려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한데, 麗宋間의 무역도 宋商이 주도하고, 使船도 그들에 의해 운항되는 부분이 컸다고 보이는 점(李鎮漢2011; 森平2014), 日元貿易의 주축도 전시대와 마찬가지로 중국 海商이었다고 보이는 점(村井2013)을 고려하면, ④⑤⑧⑨와 같이 정부·왕실이 荷主·거래 대표자가 되는 무역을 포함하여 중국으로의 선박운항이나 현장 거래를 여전히 중국 海商이 지탱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⑧⑨는 海商의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14세기 전반의 케이스이다.

애초 필자는 당시에 관한 적은 사료에서 무역의 성쇠를 논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자체에 회의적지만, 적어도 1342년의 序를 가진 慶元의 地方志에 남송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산품이 수입품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1342년을 그 나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로부터 그러한 무역이 이어져 온 것을 시사한다. 李穡이 1352년에 언급한 江浙과의 통상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 의해 필자는 14세기 전반의 고려와 남중국의 해상무역은 중국 海商이 관계되는 것을 포함하여, 적어도 중단되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それなりに]’ 행해졌다고 생각한다.

5. 항로의 양상(이하에 서술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항로도 참조)

5.1 遼東 항로

遼東 지방으로의 항로는 遼東측의 도착지를 蓋州나 遼陽이 등장하는 점에서 遼東半島를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상정된다. 蓋州는 遼東半島 北岸의 죽지 부분이고,

옛 遼河口의 남쪽에 있다. 城市는 조금 내륙에 위치하지만 大清河로 바다와 통한다. 遼陽은 예부터 遼東의 중심지이지만, 직접 바다와 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海州津’이 그 외항이었다고 생각한다. 遼陽 남방의 海州(현 遼寧省 鞍山市 海城市)도 직접 바다에 면하지 않지만, 西方을 南流하는 옛 遼河의 右岸에 牛莊(현 遼寧省 鞍山市 海城市 牛庄鎮)이 있다. 근대에 퇴적이 진행된 遼河口에 營口가 열리기까지는 牛莊이 해항이었다. ‘海州津’은 牛莊 부근의 선착장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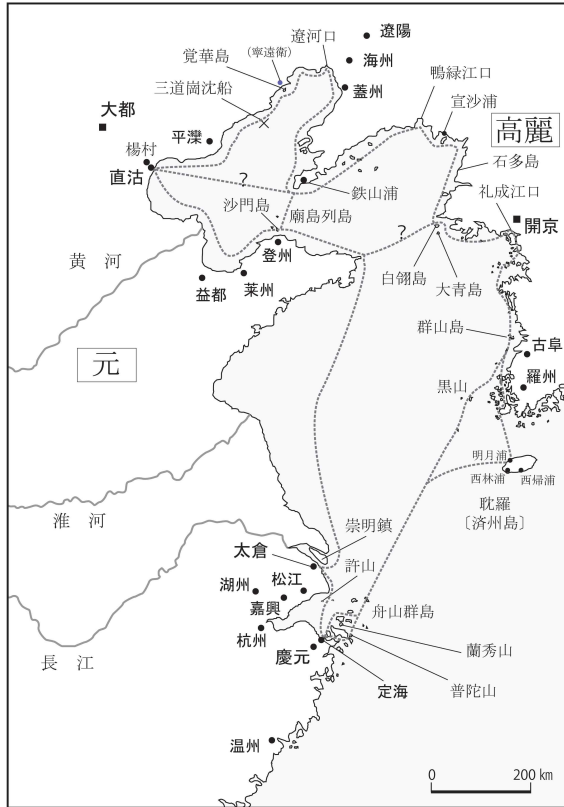
이 ‘海州津’는 이 遼東半島를 돌아가는 항로를 원에 臣屬하기 이전의 고려인이 이용하였던 사례로부터 판명된다. 1233년 崔滋가 멸망 직전의 금에 사행하였을 때, 몽골군이 활동하는 육로를 피하여

해로를 이용하고, 鐵山浦(현 遼寧省 大連市 旅順口區)를 경유하여 海州의 ‘津’에 도착하였다.(『補閑集』). 대금통교에 갑자기 해로가 이용되었던 배경으로서, 주지의 항로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戰時 下로서 긴급하게 대응하였던 것인지, 사정은 알 수 없다.

그 이전의 상황은 명확하지 않으나, 몽골 시대에는 발해만 서안을 遼東으로 왕래하는 항로도 존재하였다. 북중국산의 도자기를 遼東으로 운반하는 도중에 침몰하였다고 보이는 綏中三道崗沈船(張威2001)가 그 물증이다. 문헌사료에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원이 중국에서 遼東으로 식량을 공급하였을 때의 항로는 이 발해만 서안 루트를 따라가는 일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5.2 북중국 항로

북중국 항로는 大都 항로와 山東 항로로 나뉜다. 구체적 사례에 근거한 복원은 곤란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다음의 A~F의 선택지가 상정된다.



<그림> 한·중간의 항로도

①大都 항로

- 한반도 중서안 ㄱ 黃海 橫斷 - 山東半島 北岸 - 渤海灣岸 - 直沽 A
 - ㄴ 鴨綠江口 - 鐵山浦 ㄱ 廟島列島 - 山東半島北岸 - 渤海灣岸-直沽 ... B
 - ㄷ 遼河口 - 渤海灣岸 - 直沽 C
 - ㄹ 渤海灣橫斷 - 直沽 D

②山東航路

- 한반도 중서안 ㄱ 黃海橫斷 - 山東半島 北岸 E
 - ㄴ 鴨綠江口 - 鐵山浦 - 廟島列島 - 山東半島 北岸 F

황해를 직접 횡단하는 A, E는 9세기~11세기 초에 북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정규 항로였으나, 몽골 시대의 실례에서는 오로지 遼東半島 연안 항로가 시사되었다. 북중국으로의 목재수송(4.2.1 ④)을 할 때에 예성강을 출발한 고려선단은 鴨綠江口에서 짐을 싣고 북중국으로 향하였을 터이므로, 遼東半島 연안 항로가 될 것이다. 한반도와 大都 방면을 잇는 수참으로는, 한반도 내에는 제주도~압록강구의 구간에 설정되었으므로, 大都 방면으로는 압록강구에서 뺀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경우 遼東半島 연안을 따라갔을 것이다.

해운관계자가 고려로 식량을 수송하였을 때에도, 廟島列島에서 遼東半島를 경유하여 고려 서북부로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원의 해운은 張瑄·朱清으로 대표되는 長江口의 해상세력에 의해 정비되었는데, 그들이 남송 말의 해적으로서 활동하였을 때의 동향은 그들의 항해지식을 시사한다. 당시 朱清은 富家 楊氏의 재물을 빼앗고, 崇明鎮(長江口의 삼각주)에서 배로 동쪽으로 가기를 3일, 밤에 沙門島(廟島列島의 한 섬)에 이른 후 동북으로 향하면 高句麗水口(압록강구일까)를 지나고, 文·登·夷·維州의 여러 산을 보고 북으로 향하면 燕山·碣石山(北京 북쪽·동쪽의 山系)이 보이는 곳까지 왕래하였다고 한다.⁴²⁾ 여기에는 山東半島 북단에서 廟島列島를 지나 압록강구로 향하는 항로가 보인다. 뒤에 그들이 고려로의 식량 수송을 담당하였을 때에는 이미 익힌 노하우를 활용하여 같은 루트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遼東半島에서 直沽를 향하는 데에는 B, C, D의 선택지가 있다. 가장 돌아가는 C는 遼東에 용건이 없는 한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B·D 중 어디가 선호되었는 가, 실례에 근거한 논의가 불가능하므로 明末의 사례(徐2011; 辻2018)로부터 유추 하겠다. 후금이 대두하여 육로의 대명통교가 곤란해진 조선의 燕行使는 遼東半島 남안을 경유하여 해로로 북경으로 왕래하였는데, 당초에는 廟島列島를 경유하는 루트를 이용하였다(1622~25). 그 후, 명의 동북방위를 담당하던 袁崇煥이 개입하여, 발해만을 횡단하여 그의 거점을 경유하는 루트로 변경한다(1629~36). 이것은 鐵山

42) 蘇天爵『國朝文類』卷69·胡長孺〈何長子伝〉.

(旅順)에서 覺華島(菊花島)으로 발해만을 횡단하여, 寧遠衛(현 遼寧省 葫蘆島市 興城市)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의해 연행사는 보다 원거리를 항해하게 되었고, 발해만의 얕음도 영향을 주어 사고가 다발하였다. 이 발해만 횡단은 북경으로 직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해조건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아, 해안도서 연안에 랜드마크와 중계항을 따라 나아가는 B가 보다 안전하고,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山東半島를 목적으로 할 경우, F의 항로가 그대로 해당된다. 明初인 1386·88·89년, 고려가 황해를 건너 해로로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에도 旅順과 山東의 사이를 이동하였는데,⁴³⁾ 몽골 시대의 잔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 따라, 북중국과의 왕래에는 遼東半島 연안과 廟島列島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상정하겠다. 다만 황해 직항로나 발해만 직항로의 이용가능성도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로도에는 이들도 표시하였는데, ‘?’를 붙여 위상을 낮추어 표시하였다.

5.3 남중국 항로

5.3.1 북중국 연안 루트

남송대까지 고려와 남중국을 잇는 항로는 고려측에서는 왕도의 외항인 禮成江口를 창구로 하고, 한반도 남서해역·동중국해[東シナ海]·舟山列島 해역을 거치고, 중국측에서는 주로 明州(남송·원대에는 慶元)을 창구로서 왕래하는 것이었다. 몽골시대, 고려와의 교역에 대해 중국측에서 창구항이 지정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동중국해를 경유하여 남중국으로 왕래하는 항로를 본고에서는 편의적으로 동중국해 루트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만 몽골 시대에는 이 루트에 의하지 않고, 황해와 북중국 연안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전술한 해운관계자의 고려 도항에 대하여 상정되는 것으로,

南中國(특히 太倉) - 山東半島 - 廟島列島 - 遼東半島 - 鴨綠江口 - 禮成江口 … G

이라는 항로가 된다. 또 실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南中國(특히 太倉) - 山東半島 - 黃海橫斷 - 禮成江口 …………… H

라는 한반도 중서부와 山東半島의 사이를 직행하는 항로도 북송시기까지의 북중국 항로의 상황에서 보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太倉은 해운의 적출항이고, 전술한 대로 같은 지역의 해운관계자 중에서는 고려

43) 1386年使行…李崇仁『陶隱集』卷2；鄭夢周『圃隱集』卷1， 1388年使行…『高麗史』卷105·李穡傳；『節要』卷33·恭讓王元年10月， 1389年使行…權近『楊村集』卷6·奉使錄.

무역에 종사하는 자가 있었다. 명 초기인 1371년에도 戶部가 고려의 조공선의 입항지로서 太倉을 언급하였고,⁴⁴⁾ 1372년에는 고려 사신 洪師範 등이 太倉에 내항하였다.⁴⁵⁾ 榎本涉(2007)와 荒木和憲(2013)은 항로G를 몽골 시대의 남중국과 고려를 잇는 주요 루트로 상정하고 있다.

5.3.2 동중국해 루트

몽골 시대의 동중국해 루트의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나, 상황 증거는 있다. 倭寇가 심각화하고 있던 1358년, 고려정부는 漢人 都綱 張仁甫 등에게 위탁하여 ‘唐船’에 의한 조운을 남서 연안에서 실시하고 있었다.⁴⁶⁾ 이것은 한반도 남서해역을 항해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중국 海商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전술한 대로 이 해역은 동중국해 루트에 의해 한반도와 남중국 사이를 왕래할 때에 통과한다.

또 1368년에는 慶元 앞바다에 펼쳐진 舟山列島의 해상세력(蘭秀山賊)이 明軍에게 진압되는데, 그 잔당이 바다를 건너 제주도, 나아가 전라도의 古阜에 잠복하여, 현지에서 교역에도 종사하고 있다.(藤田1997) 이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서 남중국의 해상세력과 한반도 남서해 지역의 밀접한 관련이 추정된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동중국해 루트를 통한 교역활동과, 거기서의 상호접촉이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취급상품 중에는 당시까지 중국산품이었던 綿布와 아시아 남방의 산품이었던 蘇木이 포함되어, 남해무역과도 연결되었던 남중국~고려 간의 무역에 그들이 또한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려의 政堂文學 韓仲禮가 蘭秀山賊의 ‘唐船’을 구입하여 처벌되었다는 사건도⁴⁷⁾ 蘭秀山賊이 王都 사회까지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명 건국 전에는 張士誠, 方國珍이라는 남중국의 지방 세력이 왕성하게 고려와 통교하였다. 19세기의 문헌이지만, 그들의 사자가 제주도를 경유하여 고려로 왕래하였다고 전하는 기사도 있다.⁴⁸⁾(李康郁2017) 사실이라면, 동중국해 루트의 이용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李康郁(2017)은 초기의 대명통교로 동중국해 루트가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것을 밝혔다. 이는 종래 간과되어 왔던 사실로, 한반도 남서부의 나주를 양국의 사절이 경유하였던 것에서 판명된다. 즉 1368년에 명은 楔斯를 해로로 고려에 파견하였는데,⁴⁹⁾ 나주 향리의 기록 『錦城日記』에 의하면, 楔斯는 이듬해 4월에 羅州에

44) 『明太祖實錄』卷68·洪武4年9月丁丑.

45) 『高麗史』卷44·恭愍王世家·22年11月壬子.

46) 『高麗史』卷39·恭愍王世家·7年7月壬戌.

47) 『高麗史』卷43·恭愍王世家·21年5月甲戌; 『節要』卷29·恭愍王21年6月.

48) 李裕元『林下筆記』卷13·文獻指掌編·沿海亭館.

49) 『高麗史』卷41·恭愍王世家·16年4月壬辰; 『節要』卷28 : 恭愍王16年4月.

도착하고, 그 후 고려측의 回謝使 崔尙幸(『절요』에서는 崔尙載) 등이 귀국하는 그들과 동행하여 나주로부터 명으로 향하였다.⁵⁰⁾ 1370년에는 倭斯가 다시 나주 木浦로 도착하여, 원의 魯王家에 출가하였다가 행방불명된 長寧翁主(忠惠왕의 딸)이 명으로부터 송환되어 나주에 도착하였다. 전년 명에 파견된 朝貢使 成俊德(『절요』에서는 成准得)도 나주로 귀환하였다.⁵¹⁾ 1371년에는 入明使 尹恭(『절요』에서는 尹控) 일행이 '唐船'으로 나주로 귀환하였다.⁵²⁾ 전술한 대로 이 해, 명의 戶部가 고려 선박의 太倉 입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직전의 尹恭 일행의 동향이 염두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372년에 명에 파견되어 太倉에 도착한 洪師範은 고려로의 귀로에서 조난당하여 생존자는 嘉興(현 浙江省 嘉興市)에 표착하였다.⁵³⁾ 『至元嘉禾志』 권4·山阜·松江府에는 '許山은 松江府(현 上海市 松江區)의 동남 250리의 바다 가운데에 소재한다. 둘레는 5리, 높이는 50장'이라고 되어 있다. 또 명나라 王樵의 『方麓集』 권7·樵李記와 『讀史方輿紀要』 권89·浙江·封域·山川險要·海에는 명말의 杭州灣 북안(海寧衛, 乍浦·澉浦·海塩)의 초계 라인으로서 洋山(大·小洋山)과 許山을 들었다. 이들의 위치정보에서 許山은 上海 남방, 杭州灣 내의 작은 섬인 灘澚山으로 비정할 수 있다. 太倉을 출발한 고려선은 長江口를 나온 이후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舟山列島 방면에서 동중국해 루트를 통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생각된다. 洪師範의 사고 후, 명은 해로에 의한 조공 금지를 고려에 통고하는 한편, 登州를 경유한다면 3일 만에 도해가 가능하다고 제안해 왔다.⁵⁴⁾ 이것은 일견 모순되는 듯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로가 직접적으로는 동중국해 루트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양해할 수 있다.

1372년에는 進獻使 吳秀南(『절요』에서는 季南)이 나주로 들어가 제주도를 경유하여 명에 貢馬를 바치고자 하였으나, 도내의 반란 탓에 성공하지 못하였고,⁵⁵⁾ 직후에 다른 길로 명에 들어갔다. 1373년에는 金甲雨가 말을 私獻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明州府 定海縣으로 도해하였고,⁵⁶⁾ 같은 해에는 周英贊·禹仁烈 일행이 해난에 의해 명으로의 제주마 진공에 실패하고,⁵⁷⁾ 曹元島(靈光·慈恩島)에 좌초되어⁵⁸⁾ 仁烈 등은 나주에 상륙하였다. 1374년에도 唐船護送別監이 나주에 들어가 進奉使 鄭元

50) 『錦城日記』丙午年(1366).

51) 『錦城日記』庚戌年(1370).

52) 『錦城日記』辛亥年(1371).

53) 『明太祖實錄』卷75·洪武5年8月29日癸卯.

54) 『高麗史』卷43·恭愍王世家·21年7月壬子.

55) 『錦城日記』壬子年; 『高麗史』卷43·恭愍王世家·21年4月壬寅.

56) 『史文』卷2·金甲雨盜売馬罪名咨.

57) 『高麗史』卷44·恭愍王世家·23年2月甲子.

58) 『史文』卷2·請通朝貢道路咨; 『高麗史』卷44·恭愍王世家·22年11月壬寅.

庇·謝恩使 朱 兪 宜(『절요』에서는 周誼)가 나주를 경유하였다.⁵⁹⁾

이상과 같이, 14세기 후반에는 상당한 수의 외교사절이 동중국해 루트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14세기 전반에 쇠퇴하고 있던 항해활동이 14세기 후반이 되자 회복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자는 동중국해 루트 항해의 지식과 기능, 그것을 가진 선원과 선체, 경유지 사회와의 커넥션, 이들을 획득·유지에 필요한 경험의 반복과 시간 적층을 고려한다면, 이미 14세기 전반에 전개되어갔던 상황의 계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4세기 후반에 들어선 직후인 1350·60년대에 漢人 都綱이 조운을 담당하고, 蘭秀山賊이 고려로 잠복하였다는 상황을 볼 때, 그러한 인상을 강하게 한다. 李穡이 말하는 江浙 지방과의 통상, 『至正四明續志』에 기록된 고려로부터의 수입품은, 14세기 전반의 동중국해 루트를 통해 왕래한 결과일 것이다. 그와 같이 파악해도 문제가 없다면, 14세기 후반의 남중국 지방세력과의 통교가 활발해졌던 것도 海商의 ‘復活’(末松1996; 李康漢2013a; 同2013b)이 아니라, 기록상으로 숨어 있었던 해상통교가 정치성의 부활과 동반하여 다시 표면화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몽골 시대에는 제주도가 몽골 세력의 활동무대가 되고, 명초에도 제주마의 진공문제가 발생하였던 점에서, 대륙과의 왕래의 기점·중계자로서의 위상도 중요해진다. 조선 중기의 地誌에는 원으로의 도항에 이용되었던 제주도의 포구가 기록되었다. 즉 남서안의 西林浦와 남안의 洪爐川(『新增東國輿地勝覽』卷35·旌義縣·山川, 大靜縣), 북서안의 明月浦와 남안의 西歸浦(洪爐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다.(李元鎮 『耽羅志』 濟州·山川, 旌義縣·山川) 이들 포구를 떠난 선박의 항로는 명시할 수 없지만, ‘大洋’을 넘었다고 하므로, 기본적으로 동중국해 루트로 보인다. 金甲雨가 貢馬를 위해 제주도에 明州府 定海縣으로 건너갔던 것은 이것을 시사한다. 1365년, 원의 樞密院掾 曹永嘉·李至剛이 副使 帖木兒卜花를 따라 제주도로 출장하였는데, 이듬해에 귀국하자, 李至剛은 건강 악화 때문에 잠시 松江에 체류하고, 그 사이에 『耽羅志略』을 집필하였다.⁶⁰⁾ 濟州島로의 출장자가 현재의 上海 근교를 통과하였다면, 역시 동중국해 루트가 이용되었을 것이다.

6. 맺음말

몽골 시대의 한중간의 해상교역은 몽골의 패권이라는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몽골 권력의 한반도 연해 진출, 공적인 물류·교통 시스템의 접속이라는 특색이 보인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이 요동·북중국·남중국으로 여러 갈래로 나

59) 『錦城日記』甲寅年.

60) 貝瓊『清江貝先生文集』卷7〈耽羅志略後序〉.

닌다. 무역활동도 보이는데, 북중국에서는 大都와 그 외항 直沽가 부상하였던 것을 받아들여 이 방면과의 왕래가 보였던 점이 새로운 요소이다. 북송·남송 시기를 통하여 활발하였던 고려와 남중국과의 사이의 무역은 기록이 감소하였으나, 나름대로의 규모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항로에 대해서는 요동반도를 돌아가서 遼河口 방면을 잇는 루트를 지적하였다. 북중국 항로에 대해서는 遼東半島 남안·廟島列島를 경유하여 山東半島 북안·北京 방면을 잇는 루트가 주요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남중국 항로에 대해서는 山東半島, 廟島列島, 遼東半島를 경유하는 시대 특유의 북회하는 항로가 더해졌고, 북송·남송 시기에 무역·외교에서 활황을 띠었던 동중국해 루트, 즉 동중국해와 한반도 남서해역을 경유하는 항로가 여전히 이용되었다고 추정한다.

이상과 같이, 몽골 시대의 한중간 해상교통은 활동 지역과 항로, 활동 내용의 점에서 고려 사상 가장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명이 海禁을 실시하고 외교 루트가 육로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종언을 고한다. 일부의 열외상황은 별도로 두고, 두 지역 간의 정상적인 해상교통의 본격적 재기동은 실로 19세기 말의 ‘개항’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荒木和憲(2013), 「中世日朝通交貿易の基本構造をめぐっ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51, pp.79-109.
- 植松正(2004), 「元代の海運万戸府と海運世家」『京都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研究紀要(史學編)』3, pp.111-170.
- 榎本涉(2007),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9~14世紀』東京: 吉川弘文館.
- 末松保和(1996), 「麗末鮮初に於ける対明関係」『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5 高麗朝史と朝鮮朝史』東京: 吉川弘文館, pp.124-291.
- 辻大和(2018), 「一七世紀朝鮮・明間における海路使行と貿易の展開」同著『朝鮮王朝の対中貿易政策と明清交替』東京: 汲古書院, pp.97-126.
- 内藤雋輔(1961), 「朝鮮支那間の航路及び其の推移に就いて」同著『朝鮮史研究』京都: 東洋史研究会, pp. 367-480 + 1pl.
- 藤田明良(1997), 「蘭秀山の乱」と東アジアの海域世界: 十四世紀の舟山群島と高麗・日本』『歴史學研究』698, pp.22-33.
- 村井章介(2013), 「寺社造営料唐船を見直す: 貿易・文化交流・沈船」同著『日本中世の異文化接触』東京: 東京大學出版会, pp.241-272.
- 森克己(2010), 『新編森克己著作集3 續々日宋貿易の研究』東京: 勉誠出版.
- 森平雅彦(2013a), 「文獻と現地の照合による高麗-宋航路の復元: 『高麗圖經』海道の研究」同編『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東京: 汲古書院, pp.3-262.
- 森平雅彦(2013b), 「高麗における元の站赤: ルートの比定を中心に」同著『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帝國秩序と王國の対応』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会, pp.316-359.
- 森平雅彦(2013c),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体制の保全問題」同著『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帝國秩序と王國の対応』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会, pp.316-359.
- 森平雅彦(2014), 「高麗・宋間における使船航路の選択とその背景」『東洋文化研究所紀要』166, pp.67-123.
- 배속희(2012), 「元代 慶元지역과 南方航路: 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中國學報』65, pp.185-206.
- 徐仁範(2011), 「朝鮮使節의 海路朝貢路와 海神信仰: 『燕行錄』의 分析을 通して」吉尾寛編『海域世界の環境と文化』東京: 汲古書院, pp.81-118.
- 李康郁(2017), 「高麗恭愍王代後半期における対明関係と濟州征伐」九州史學會朝鮮學部会口頭發表.
- 李康漢(2010), 「13세기말 고려 대외무역선의 활동과元代‘關稅’의 문제」『島嶼文化』36, pp.37-66.
- 李康漢(2011), 「1270년대~1330년대 외국인들의 고려 방문: 13~14세기 동-서 교

- 역에서의 한반도의 위치」『한국중세사연구』30, pp.416-467.
- 李康漢(2012), 「1293~1303년 고려 서해안 ‘元水驛’의 置廢와 그 의미」『한국중세사연구』33, pp.135-162.
- 李康漢(2013a), 「원과의 교역체제와 그 특징」『한국해양사Ⅲ 고려시대』서울: 한국해양재단, pp.423-490.
- 李康漢(2013b),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13~14세기 감춰진 교류상의 재구성』파주: 창비.
- 李鎭漢(2011), 『高麗時代宋商往來研究』서울: 경인문화사.
- 정요근(2007), 「고려 역로망에 대한 원의 개입과 그 의미」『역사와 현실』64, pp.161-195.
- 崔菊華(2011), 「元代山東与高麗的貿易」『滄桑』2011-1, pp.48-49.
- 陳高華(2005b), 「元朝与高麗的海上交通」同著『元史研究新論』上海: 上海社会科學院出版社, pp.363-375.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외(編)(2006), 『蓬萊古船』北京: 文物出版社.
- 張威(主編)(2001), 『綏中三道崗元代沈船』北京: 科學出版社.
- 周霞(2010), 「元朝時期的山東半島在与高麗海上商貿交往來的重要作用」『魯東大學學報(哲學社会科學版)』27-5, pp.43-46.

제1부 토론문

홍영의(국민대)

오늘 이루어지는 ‘고려 건국 1100주년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대회’는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란 주제로 관련 학자들이 발표를 하여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실 그동안 고려가 바다를 기반하고 중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동안의 연구 분위기와 기초 자료의 부족이 장애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고려의 바다를 주목하고,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이 된 바다에 대해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하고, 중요한 출발점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고대 이래 바다의 섬은 해로를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드리는 교류의 거점이기도 하고, 해산물을 육지민에게 공급해 주는 곳으로, 교통과 국방상 중요 지점의 섬에 군현(郡縣)과 진(鎭)을 설치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높았다. 고려시대까지 바다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바닷길)로 기능했고, 섬은 바닷길의 징검다리였다. 때문에 바다와 섬은 삶의 현장이었다. 바다와 섬 주민, 섬의 토지는 왕화의 대상으로 국가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자원(財源)이었다.

고려가 섬을 크게 주목한 시기는, 크게 궁예정권 때 왕건의 나주경략과 고려 중기의 대몽항쟁기, 고려말기의 왜구 침탈기로 구분된다. 궁예 정권하의 왕건은 해군 대장군(海軍大將軍)으로 진도군(珍島郡)과 고이도(皐夷島)를 점령하여 나주로 이어지는 뱃길까지도 장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해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뱃길의 길목인 압해도(壓海島 : 壓海縣)를 장악하고 있던 능창(能昌)을 제압하면서 서남해지역과 해상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건국 후 태조는 대표적인 원해(遠海)의 해양세력이 존속하는 우산국(울릉도)과 탐라국(제주)을 복속시켰다. 여기에는 고려의 천하관, 즉 황제국을 자처하던 고려는 주변의 여진과 일본 등을 제후국으로 삼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원해의 섬 가운데 우산국(울릉도)이나 탐라국(제주)은 고려가 지향하는 천자와 제후-종번(宗蕃)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고려의 천하관과 함께 섬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초부터 바다와 섬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이용가치를 확인케 해주었던 것은 고려가 지닌 해양적 속성에 있었다. 해상세력 출신의 후예가 건국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해군통수(海軍統帥) 왕건이 자립하여 고려왕을 칭하였다”고 하

거나, ‘해국(海國)’으로 표현하거나, ‘해상[배]의 경제상 이익[舟楫之利]’을 언급할 정도로 고려왕조는 해양국가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

고려 태조는 해상무역에 종사했던 가문의 출신답게 항해에 능숙했으며, 해상의 사정에도 밝았다. 태조가 후백제의 배후 지역인 한반도 서남해에 집중되어 있는 나주 일대의 도서지역 경략에 주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그가 궁에 휘하에 있던 장군시절부터 해전에 뛰어나 나주 연안과 서남해 일대 도서지역을 장악하고, 고려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해상 영역이 전남 여수 부근 돌산도(突山島)와 경남 남해도(南海島), 강주(康州, 진주) 일대까지도 확대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서남해 일대를 장악한 태조는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얻으려는 후백제의 시도를 해상에서 봉쇄해 차단함과 동시에, 해상세력을 규합해 해륙 양면으로 후백제를 협공할 수 있었다. 이 역시, 그가 해상에 대해 친숙하여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태조는 이를 바탕으로 해상경영을 통해 얻는 부가 통일과 국가경영의 재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 주제인 ‘해양강국 고려의 바다를 품다. 건국과 통일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고려가 바다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건국과 통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1. 왕건의 해상활동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2. 바다를 건너온 감귤, 들판을 달리는 말, 3. 몽골시대 한중 해상교통과 그 항로는 고려의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해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신 교수님은 ‘고려의 건국과 통일 그리고 바다’란 주제로 고려왕조의 건국과 이념적 기반, 태조의 통일된 고려 만들기, 고려왕조와 바다 그리고 광종의 개혁정책, 동아시아에서의 중심국으로서의 고려를 주요 내용으로 기초강연을 하셨다. 그리고 고려 건국과 통일의 의미를 “고려왕조는 분열시대를 끝내고 통일신라기 진골귀족에게 소외된 지방세력이 세운 최초의 실질적인 통일왕조, 외세가 개입되지 않고 자체내의 동력에 의해 통일된 국가, 골품제라는 혈족중심 체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의 인적 문화적 자원 흡수하여 정신적으로도 하나라는 통합의식을 갖게 한 점, 끊임없이 지방세력을 중앙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인물이 충원되는 개방적인 사회,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다원적인 사회였다는 점, 태조의 노력에 의해 고려는 하나가 되었으며 천자국을 표방하고, 전쟁을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한 성과를 넘어 정신적으로 고려라는 구심체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의식 민족의식이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태조의 통일된 고려만들기가 기본 바탕이 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계속 내려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 교수님의 발표가 기초강연이라 토론의 대상은 아니지만, 고려가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즉, 통일신라와 다른, 또는 궁예나 견훤과 다른 길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다원화된 국가를 만들어 낸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강봉룡 교수는 한국 해양사의 관점에서 장보고가 활약한 9세기부터 19세기를 가장 활발한 해양시대로 이해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왕건의 해양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918년 고려 건국과 936년 후삼국 통일의 해양사적 배경과 그 흐름을 통해 '장보고-왕건-해양강국 고려'로 설정하여 제시하려고 했다. 즉, 왕건의 서남해지역 장악과 고려 건국, 연안 제해권을 둘러싼 공방전과 후삼국 통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서남해지역은 왕건의 해양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거점이자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압해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의 해양세력을 결집하여 큰 세력을 형성해가고 있던 능창과 증양군 출신으로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 제압이라는 임무를 띠고 '서남해방수군'의 비장으로 파견된 견훤, 그리고 철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호족 궁예의 부하로서 서남해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출정한 왕건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서해안의 정주(황해남도 풍덕) 및 혜성군(충남 당진) 등의 해양세력과 서남해지역(나주)의 연안해양세력 및 고승 등을 성공적으로 포섭하고 지지를 이끌어낸 왕건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를 발판으로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 동력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고려 건국 이후에 제해권을 둘러싼 쟁패 과정에서 왕건의 최대 라이벌인 견훤이 남해안의 주요 해양거점지인 순천을 중심으로 제해권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남해안의 주요 해양거점지인 강주(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해양교역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망가로 성장한 왕봉규가 대두하고 있었다는 점, 서해안에서는 왕건의 지지기반인 혜성군을 포괄하는 운주(충남 홍성) 지역이 아산만 및 천수만의 해양과 충청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륙연계 거점으로 주목되면서 각축장이 되었다는 점, 이 때문에 결국 후백제가 남해안의 순천과 강주, 서해안의 운주는 물론 고려의 '울타리' 역할을 해오던 나주 중심의 서남해지역까지 차지하면서 제해권이 후백제에게 넘어가 고려는 제해권 탈환을 위하여 필사적이었음 지적하였다. 그것이 운주 탈환이었고, 그 성공은 결국 견훤의 금산사 유폐사건과 연관되어 후백제의 대분열과 936년 후삼국 통일의 발판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강 교수는 발표는 왕건의 고려 건국과 통일기에 국한된 것이어서 큰 이견은 없다. 다만 건국과 통일에 기여한 해상세력의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주의 유천궁, 혜성군의 복지겸과 박술

희, 그리고 나주의 오다련과 최지몽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해양세력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러한 서해안 해양세력의 연대는, 왕건 가문이 대대로 서해안의 주요 해양세력과 교류하면서 쌓아온 교분과 여기에 왕건 개인의 헌신적 노력이 보태져서 맺어진 결실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전체 핵심 주제인 ‘고려의 바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보충 설명도 필요할 것 같다. 나아가 그동안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천착해 오셨다. 앞으로 ‘고려의 바다’에 대한 연구 방향이나 방향 등,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논문 주제와는 다르지만, 이에 대한 방안이나 접근방법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야마우치 신지 교수님은 발표문에서 일본과 송의 ‘日宋貿易’에 대신하여 고려와 일본간의 ‘日麗貿易’으로 표현하면서 무역의 거점을 ‘博多’로 보고, 11세기 후반 무렵에는 ‘唐坊(房)’이라고 불리는 무역관계자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거류하는 지역도 형성될 정도였다고 활성화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려무역’은 일송무역에 비해 현격히 규모가 작았다는 점을 博多의 유적에서 고려 도자의 출토량이 중국 도자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 현재 남아 있는 일려무역에 관한 문헌사료가 일본측·한국측 모두 극히 적었던 점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매우 단편적인 일려무역 관계 사료를 통해서 그 사료의 배후에서 넓어지는 무역의 동향이나 그와 깊이 관련되는 고려 왕권의 국제질서관 등의 문제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를 건너온 감굴, 들판을 달리는 말’로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굴이나 말이라는 소재도 八關會儀禮 속에서 찾아질 수 없는 충분히 유효한 소재라는 지적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깊다.

야마우치 신지 교수님이 감굴과 말을 통해 말하려는 그 중심 논점은 ‘중화’로서의 고려 왕권은 남방의 해역세계(對馬島·濟州島)에는 감굴의 貢上을 요구하고, 북방의 내륙세계의 蕃夷(女真)에 대하여 말의 貢上을 요구하였다는 것, 이것은 고려 왕권이 그 남쪽의 해역세계를 자기의 중화질서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정치배영역의 범위 밖에 있는 對馬島나 제주도에 감굴이라는 蕃夷世界의 심벌을 貢上시킨다는 이른바 변칙기술[裏技]의 사용으로 보고, 이것은 적어도 전대의 통일 신라기의 왕권·왕조가 떠올리지 못하였던 변칙기술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변칙기술[裏技]의 사용’은 고려만이 가진 외교적 修辭인지, 아니면 이미 앞에서 지적한대로 ‘그와 같은 의식은 이미 남북조기의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의 변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해석상 ‘進’과 ‘貢’의 문제이다. 대마도(1085)와 日本國(1116)은 ‘진상’으로, 탐라국(1052)은 ‘공상’으로 이해된다. 實錄에는 대부분 ‘獻上’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자발적인 ‘進上’과 ‘貢上’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북방내륙세계 - 고려 - 남방해역세계’라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샌드위치 구조의 지배질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반도의 남쪽 변두리와 북쪽 변두리를 세트로 간주하는 관념은 『高麗史』(권9 세가9 문종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李齊賢의 문종의 평가인 “宋朝每錫褒賞之命、遼氏歲講慶壽之禮、東倭浮海而獻琛、北貊扣關而受塵 - 송조(宋朝)에서 해마다 포상(褒賞)하는 명을 내리고, 요(遼)에서는 해마다 왕의 생신을 경하하는 예를 표시하였으며, 동에서는 왜(倭)가 바다를 건너와 보배를 바치고, 북에서는 맥(貊)이 찾아와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석되는 내용을 “송·요와의 통교와 나란히 동(남)방(해역세계)의 왜로부터는 珍寶가 공헌되고, 북방(내륙세계)의 貊(중국 동북부의 퉁구스계 민족)은 관문을 두드리며 통과를 요구하고 宅地를 부여받아 귀순한다는 것이 자랑스레 서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서는 실로 한반도의 남쪽 해역세계와 북쪽 육역세계를 세트로 간주하여, 각자로부터 중화로서의 ‘고려’가 공헌·귀화를 받는다는 지배질서=중화질서의 관념이 표명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화주의는 중국적 漢-華의 대칭인 夷狄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여진과 일본에 적용시킨다면 동일한 중국적 천하관의 변용(변칙기술[裏技])일 뿐 독자적인 천하관이 성립,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야마우치 신지 교수님의 ‘고려의 천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질문해본다.

고려의 독자적인, 다원적 천하관은 대외적으로 다양한 종족과 주민 등 流移民의 고려 유입과 함께 대내적으로 성주·장군의 來投 등을 통해 고려사회는 다양한 인적·문화적 자원이 유입되었다. 고려왕조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배제시키지 않고 공존하게 하였다. 후삼국이 통일된 후 성주와 장군의 내투는 중단되었으나 발해의 멸망과 부흥운동, 고려와 거란의 전쟁, 거란 내부의 정쟁 등 불안한 동아시아 정세로 인해 다양한 종족과 주민들의 유입은 금나라가 건국되는 12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고려는 이때까지 주변의 수많은 종족과 주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신민으로 삼아 고려의 울타리인 변병으로 삼았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고려 특유의 천하관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초기 다원사회와 천자국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와 국가체제를 뒷받침했던 이념이 ‘一統’ 의식이다. 일통 의식은 ‘三韓’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삼한일통의식’과 함께 천하를 통일한 천자가 등극하여 새로운 통치를 시작한다는 ‘大一統’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고려 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다원사회와 천자국체제를 뒷받침한 이념은 후자인 ‘대일통’ 의식이다. 또한 태조가 작성한 「훈요십조」는 고려왕조 다원사회의 이념이 집약되어 있다(박종기, 「고려 전기 주민 구성과 국가체제 - 來投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 2009, 「고려 다원사회의 형성과 기원」 『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우리 학계에서는 이를 ‘內帝外王’의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이해하고 있다.

모리하라 마시코 교수님은 10세기 후반~12세기 초의 대북송 통교가 주된 연구대상이 되었지만, ‘몽골 시대 - 원이 동아시아의 바다’에 관여한 1260년대~1360년대의 선행연구는 아직 이용되지 않은 사료, 언급되지 않는 사례, 루트(항로)의 분석도 불충분하다는 인식 아래, 몽골과 고려의 사이에서 바다를 무대로 발생한 상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1로 한반도 연해로의 몽골 세력의 진출, 제2로 공적물류의 전개, 제3로 무역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제1·제2은 대륙 왕조와 한반도 왕조가 정치적 일체성을 높이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시대 특유의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논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몽골의 한반도 연해 진출, 遼東과의 왕래(공적물류의 연결, 북중국과의 왕래, 남중국으로부터의 수송), 해상무역의 새로운 전개(북중국과 무역의 부활-大都 방면과의 무역, 남중국과의 무역 상인·통상의 직접언급 사례, 상선왕래의 숨은 사례, 무역의 성쇠에 대한 평가), 항로의 양상(遼東 항로, 북중국 항로, 남중국 항로 북중국 연안 루트, 동중국해 루트)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결국 몽골 시대의 한중간의 해상교역은 몽골의 패권이라는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몽골 권력의 한반도 연해 진출, 공적인 물류·교통 시스템의 접속이라는 특색이 보이는데, 교통 시스템은 관계 지역이 요동·북중국·남중국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며, 무역활동 역시, 북중국에서는 大都와 그 외항 즈구(直沽, 현 天津)가 부상한 것을 계기로 이 방면과의 왕래가 보인다는 점이 새로운 요소로 지적하였다. 또한 북송·남송 시기를 통하여 활발하였던 고려와 남중국과의 사이의 무역은 기록이 감소하였으나, 나름대로의 규모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항로에 대해서는 요동반도를 돌아가서 遼河口 방면을 잇는 루트, 남중국 항로에 대해서는 山東半島, 廟島列島, 遼東半島를 경유하여 북회하는 항로, 북송·남송 시기에 무역·외교에서 활황을 띠었던 동중국해 루트, 즉 동중국해와 한반도 남서해역을 경유하는 항로가 여전히 이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몽골의 고려 바다로의 진출은 몽골과의 전쟁 기간, 즉 남송 정벌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장의 몽골의 한반도 연해 진출은 너무 소략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몽골과의 전쟁 기간의 몽골의 수군활동이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목차가 ‘몽골 시대’로 한정된 것은 몽골과 원 제국과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일성을 주기 위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3장에서 다루어지는 ‘공적물류의 연결’은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 간섭기에 굳이 고려가 안전한 육로를 두고 해양루트로 공적 물류, 예컨대, 私商이 아닌 使臣간의 公的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대규모의 물자 수송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루트로 사상들의 왕래들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남중국으로부터의 수송은 앞의 遼東과의 왕래, 북중국과의 왕래와 겹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합하여 ‘공적물류의 연결’을 하나로 묶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4장의 해상무역의 새로운 전개는 육로 이외의 私商들의 왕래를 다룬 것이다. 북중국과 무역의 부활(大都 방면과의 무역)은 공적 질서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역시 私商에 의한 私的 물류 연결로 보는 것이 좋을까 한다. 이는 다음 절의 남중국과의 무역에서 ‘상인·통상의 직접언급 사례’와 ‘상선왕래의 숨은 사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현상은 고려를 기점으로 하는 육상무역은 해상무역인 남중국과의 그것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요인(코스트)이 되었다는 점, 이를 주도한 층이 중국 海商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5장의 항로의 양상(遼東 항로, 북중국 항로, 남중국 항로-북중국 연안 루트, 동중국해 루트)도 역시 앞의 논지에 맞추어 언급하고 있다. 다른 것은 앞의 논지를 이어가지 위한 서술이라면, 여기에는 북중국 항로, 남중국 항로-북중국 연안 루트는 하나의 항로로 이해되고, ‘동중국해 루트’는 결국 14세기 후반이 이용되었던 ‘남중국 항로’와 일치한다. 이를 통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또한 몽골 시대의 한중간 해상교통은 활동 지역과 항로, 활동 내용의 점에서 고려 사상 가장 다채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그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 루트는 결국 고려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진 루트가 아닌가 보인다. 이것을 몽골과 고려의 해상 루트의 특징으로 볼지 있을까한느 점이다.

나아가 명이 海禁을 실시하고 외교 루트가 육로로 전환되었던 14세기 후반 이후와 두 지역 간의 정상적인 해상교통의 본격적 재기동은 실로 19세기 말의 ‘개항’ 이후에나 복구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과연 14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바다로의 왕래가 없었다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강봉룡 교수는 14세기 이후 19세까지 쇠퇴 내지는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이 두 의견의 충돌 내지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 방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SEA, the Foundation of GORYEO

제2부 발표

- [기조강연 2]
고려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의 바다, 그리고
정국의 추이 / 김기섭(부산대)
 - 고려-송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문화 교류
/ 웨이즈장(中山대)
 - 고려전기 송상왕래와 동북아 지역 교역망
/ 이진한(고려대)
 - 고려-중·일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 교섭
/ 박용진(능인대학원대)
 - 제2부 토론
/ 좌장: 조명제(신라대)
-

기조강연2

고려 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의 바다, 그리고 정국의 추이

김기섭(부산대)

1. 머리말
 2. 원의 쇠퇴와 명의 등장
 3. 고려의 바다와 왜구의 침략
 4. 황산전투 이후 이성계의 부상과 정국의 추이
 5. 고려 왕조의 최후
- 나머지 말

1. 머리말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에서 고려의 건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명해보고 그 의미를 살리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고려의 건국과 통일의 원천으로서 고려의 바다를 규명해보는 작업은 해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고려의 건국과 통일의 힘은 바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정도로 해상세력으로서 태조 왕건은 건국의 토대를 고려의 바다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의 바다는 평화의 바다에서 혼돈의 바다로 변하고 있었다.

14세기 고려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원 간섭기하에서 원과의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반기 이후 명의 건국(1368)으로 명과의 관계 개선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시기였다. 또한 원의 지배질서가 점차 와해되어가기 시작하고, 일본은 남북조 내란기에 들어 지역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왜구의 준동이 심화되어갔다.

또한 요동 지역에서는 원의 약화로 인한 중국 국내의 혼란 속에 흥건적 세력이 고려 깊숙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남방에서는 왜구의 침략이 경인년 이래 그 빈도가 증가하고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우왕 대에 들어와 왜구의 침략은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고, 수도 개경과 내륙에 이르기까지 횡행하면서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다.

원래 고려의 바다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대외 교역과 국내 물류의 유통경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려의 바다를 통해 송상의 왕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탐라, 왜, 유구에 이르기까지 팔관회적 질서 속에서 교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개경의 벽란도뿐 아니라 연안항로에 거점을 둔 조창과 포구를 중심으로 세곡선과 사선을 통한 물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 왜구의 침구는 고려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에서 혼돈의 바다로 바꾸고 말았다. 초기에 왜구는 김해, 합포 등지를 비롯하여 남해안 지역의 세곡선을 대상으로 약탈을 자행하다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해안을 거쳐 심지어 개경에까지 확대되었다. 경인년(1350) 이후 왜구는 전국에 걸쳐 준동하면서 내륙 깊숙이 침구하여 전국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왜구의 침략은 일본 내부의 정세에 따른 현상이기는 하지만 고려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왜구의 침략에 적극 대응한 고려의 무장세력은 이를 기회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고려 왕조의 붕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 세력의 교체 과정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해양을 중요성을 간과하여 왜구의 준동을 가능하게 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고려후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속에서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고려 왕조의 멸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의 쇠퇴와 명의 등장

고려를 둘러싼 주변 제국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고려의 대외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특히 중국의 원명교체와 일본 남북조기의 도래는 고려의 대내외적 현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명의 등장으로 인해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던 원이 서서히 퇴조하고 공민왕의 적극적인 반원 개혁은 고려 사회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고 있었다.

원의 성종(1294~1306)이래 원은 황족의 다툼과 권신들의 전횡으로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속에, 원 순제 이후 빈발한 천재와 기근, 무절제한 궁중생활로 인한 재정난은 가속화되었다. 이 가운데 그동안 몽고의 지배하에 차별을 받아오던 한족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각지에서 지방세력의 발호가 심화되었다. 廣東의 朱光卿, 浙江의 方國珍, 安徽·湖北의 徐壽輝, 江蘇의 張士誠, 安徽 북부의 郭子興 등이 주요 세력이었다. 명 태조 주원장은 안휘 광자흥의 휘하 세력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를 크게 위협한 것은 紅巾賊 세력이었다.

흥건적은 공민왕이 즉위하던 시기 한산동, 유복통 등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세력으로서 至正 15년(1355) 유복통은 亳州(安徽)에 웅거하여 한산동의 아들이 한림아를 옹립하여 황제를 삼고 국호를 宋이라고 하였다. 당시 원 순제는 승상 脫脫을

보내어 각지에서 일어난 빈란 세력을 토벌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 순제는 장사성을 토벌하는 데 고려의 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고려는 유탁과 염제신을 비롯한 군사를 보내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반란군의 실세와 원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고 홍건적의 위협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공민왕 8년 11월에는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와 약탈하고 돌아간 사건이 일어났다. 12월에는 毛居敬이 군사 4만을 거느리고 서북면 지역을 침략하여 의주, 인주를 함락시켰다. 이것이 홍건적의 1차 침입이었다. 고려는 적극 방어하였으나 얼마 후 이들은 서경까지 함락하고 개경을 위협하였다. 고려는 서경을 탈환하고자 군사를 모집하여 안우, 이방실, 김어진 등으로 하여금 탈환케 하였던 바, 함종에서 적 2만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이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홍건적은 공민왕 10년 10월에 10만의 대군으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홍건적의 2차침입으로 개경은 함락되고 공민왕은 福州(안동)로 피신하였고, 총병관 정세운으로 하여금 적을 막도록 하였다. 공민왕 11년(1362) 안우, 이방실, 김득배 등은 20만 병력을 독려하여 개경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선두에서 성을 공격하여 격파함으로써 나머지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로써 홍건적의 2차 침입은 평정되었으나 개경까지 함락됨으로써 그 피해는 막대하였다.

명이 중원을 통일했으나 요동 지역은 여전히 원의 잔존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다. 명 태조는 요동지역의 복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고려의 공민왕 역시 중국 중원의 질서 변화를 직시하면서 반원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공민왕 18년 명 태조가 符寶郎 俛斯을 보내 명조의 수립을 통고하였을 때 공민왕은 크게 환영하면서 원의 '至正' 연호를 즉각 폐지하고 홍상재와 이하생을 賀登極使로 남경에 보내 책봉을 요청하였다. 명 태조 역시 기뻐하며 공민왕을 고려왕으로 봉하고 金印·誥文·大統曆을 고려에 전하였다. 이로써 명과 고려는 정식의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이 북으로 이동하였지만 요동지역에는 여전히 복원 세력이 반독립적 상태로 남아서 고려의 국경을 어지럽히거나 화호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淮王·東平王·나하추 등이 대표적인 존재였으며, 요양행성 평장 유익(劉益)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유익이 명에 귀부함으로써 명은 요동으로 진출하여 처음으로 요동위지휘사를 두었다가 공민왕 20년 7월 이를 다시 정요동위지휘사사(定遼東衛指揮使司)로 개편하여 요동 제위의 군마를 통찰하였다. 이후 점차 명은 고려에 고압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¹⁾

1) 김성준, 「고려 말의 정국과 원·명 관계」 『한국사』20 (국편위, 1994)

명은 요동의 원 잔여 세력을 축출하고 요동을 경략하는 과정에서 공민왕 21년(1372) 나하추 등 원의 잔여 세력이 요동 진출을 위한 명의 군사보급기지였던 우가장을 습격하여 10만석의 군량을 불태우는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이에 명 태조는 나하추의 공격이 고려와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고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공민왕 22년(1373) 명에서 귀국한 고려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홍무제의 선유에 의하면 그동안에 벌어진 고려에 대한 의혹, 불성실, 그리고 고려의 반항적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²⁾ 그러나 이들 비난은 대체로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며 괜한 트집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명은 고려에 대해 복원과 내통하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나하추의 우가장 습격과 같은 사건을 그 근거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나하추와 고려가 공모했다는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시기는 나하추가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며 고려를 괴롭히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나하추의 우가장 습격사건은 명이 고려에 대해 요동 폐쇄를 결정하고 고려의 사신이 요동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분이 되었다.

공민왕의 친명정책에도 불구하고 명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려 조정내에서도 친원파와 친명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 와중에 공민왕 23년 9월에 공민왕이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동년 11월에 명의 사신이 이들을 호송하던 밀직부사 김의에 의해 살해되고 나하추에게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명과 고려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그러나 명의 입장에서는 요동 지역의 나하추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는 항상 중원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고려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명은 이를 위해 늦었지만 고려 우왕 즉위를 승인하고 그동안 역류했던 고려의 사신을 풀어주는 등 유화적 조치를 행하였다. 우왕 13년 명은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나하추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요동 지역의 최대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본격적인 요동 진출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 태조는 그간의 태도를 돌변하여 요동도사로 하여금 고려의 사신을 입국시키지 말도록 하고 鐵嶺衛 설치를 고려에 통고함으로써 고려의 反明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로 인해 최영의 요동정벌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이성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정벌이 단행되었다.

3. 고려의 바다와 왜구의 침략

왕건의 집안은 그 선대부터 해상세력으로 성장해왔으며, 왕건 역시 그 영향을

2)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7월 壬子

받아 수군으로 고려의 건국에 큰 역할을 하였다. 왕건의 바다를 통한 나주 공략은 후백제의 배후를 쳐서 후백제 공략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왕건의 정치적 성장은 해상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후백제의 견훤 역시 자신의 정통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다를 통해 남조 세력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다.

왜구가 고려의 바다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고려의 바다는 교역의 중심이었다. 요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송과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결과 개경의 벽란도는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이었다. 고려와 송 사이에 있었던 송상의 왕래 기록은 서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교역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³⁾ 송상의 왕래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에 보이는 기록 이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한번 왕래시에도 그 규모는 적게는 20여명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오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사다주는 방식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송의 건국 이후 멸망할 때까지 송의 투화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고려에 투화할 수 있었던 것은 송상의 지속적인 왕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종은 요와 국교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송과 통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내사문하성은 우리나라의 문물예약이 발전하였고 상선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보물이 날로 이르니 중국에 기댈 바가 없으며, 만약 거란과 영원히 단절하지 않는다면 송과 통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였다.⁴⁾ 문종 당시에는 요와 통교함으로써 송과 단교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선의 왕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금의 공격이 시작되고 북송이 금에 의해 망할 때에도 송상은 매년 고려를 왕래하면서 고려와의 무역을 계속하였다. 특히 1231년 이후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아 대몽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에도 송상은 고려와의 무역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송의 건국 이후 송상은 끊임없이 고려를 왕래하면서, 고려의 바다 서해는 상시적인 교역의 장이 되었으며, 송과 고려를 이어주는 교역로가 되었다.

송상의 왕래로 인해 고려의 바다가 주요한 교역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과 아울러 국내적 측면에서 고려의 바다는 주요한 세곡 운송로였다. 개경은 서해안과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고려 정부는 건국 초부터 조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고려의 조운제도는 각 군현별로 수취한 세곡을 지역별 거점 포구에 설치된 조창(漕倉)에서 모았다가 조운선을 이용하여 경창으로 옮기는 제도였다. 고려초에는 전국 60곳의 포구에 세곡을 집결시킨 후 경창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다.⁵⁾ 그러

3) 李鎭漢, 『高麗時代 宋商往來研究』 경인문화사, 2011

4) 『고려사』 권8, 문종 12년 8월

5) 정요근, 「교통과 운수」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시대의 역사』 해안, 2018

다가 현종 연간에 12조창을 중심으로 하는 조운제도로 정비되었다. 정종 연간에는 각 조창에 배정된 조운선의 숫자를 규정하였고, 문종연간에 장연에 안란창이 신설되면서 13조창제로 변화하였다.⁶⁾

세곡을 모으는 13조창은 서해 지역에 8곳, 남해안 지역에 3곳이 위치해 있으며, 한강 유역에 2곳이 있다. 이들 조창으로부터 경창으로의 세곡 운송은 당시의 연안항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⁷⁾ 고려 정부는 성종 11년(992)에 60포구에서 개경까지 세곡을 운반하는 비용인 수경가(輸京價)를 정하여 세곡 운송의 비용을 납부자로 하여금 부담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에도 세곡 운송 비용을 수취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연안의 바다는 세곡을 운반하는 주요 교통로였으며, 고려의 바다는 국가 재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당시의 하이웨이였다.



[그림] 13조창 지도

근래 해저 유물의 수중 발굴로 인해 바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해 해저 군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십이동파도선과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마도1호선은 고려의 조운선으로 알려졌다.⁸⁾

이들 조운선은 연안 항로를 따라 개경의 경창에 이르렀다. 연안항로라 하여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연안을 통과하면서 해류가 빠르게 흐르는 곳이라든가, 암초가 많은 곳에서는 좌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태안반도 끝이 안흥량은 암초로 인한 해난 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이곳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좌초되거나 침몰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빈번한 사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안항로는 주요한

이들 조운선은 연안 항로를 따라 개경의 경창에 이르렀다. 연안항로라 하여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연안을 통과하면서 해류가 빠르게 흐르는 곳이라든가, 암초가 많은 곳에서는 좌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태안반도 끝이 안흥량은 암초로 인한 해난 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이곳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좌초되거나 침몰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빈번한 사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안항로는 주요한

6)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연구』 해안, 2013 ;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연구』 해안, 2014

7) 한정훈, 「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 『역사와 경계』 77, 2010.12

8) 문경호, 「泰安 馬島 1호선을 통해 본 高麗의 漕運船」 『한국중세사연구』 31, 2011.10. 마도 1호선이 조운선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박종진, 「마도 1호선은 조운선이 아니다」 한국역사연구회웹진 2010..

세곡 운반의 루트였고 육운에 비해서 편리한 운송로였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의 바다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남북조기에 들어 혼미한 일본의 정국 속에서 큐슈 일원의 왜구 세력이 서서히 고려의 서남해상에 출몰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바다가 왜구의 앞마당이 된 것이다.

[표] 왜구 침구 연표 (이영, 앞의 책, 82쪽 표 인용)

연도	지역	회수	집단	연도	지역	회수	집단
1350	8	6	5	1371	4	4	3
1351	5	3	2	1372	18	11	5
1352	13	10	7	1373	10	6	4
1353	1	1	1	1374	15	13	7
1354	1	1	1	1375	13	5	3
1355	2	2	1	1376	50	15	6
1356	0	0	0	1377	58	32	7
1357	3	3	2	1378	51	23	7
1358	12	10	2	1379	31	22	5
1359	4	4	2	1380	40	14	5
1360	19	5	1	1381	33	14	6
1361	11	4	2	1382	25	8	5
1362	2	2	1	1383	55	13	6
1363	2	1	1	1384	19	12	8
1364	12	8	5	1385	17	11	5
1365	6	3	1	1386	0	0	0
1366	3	3	2	1387	7	4	3
1367	1	1	1	1388	23	9	4
1368	0	0	0	1389	9	5	3
1369	5	2	3	1390	7	3	3
1370	2	2	1	1391	1	1	1

왜구는 남해안 일대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들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켜갔다. 왜구의 침구 지역은 대체로 삼남 지방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구가 사료 상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종 10년(1223) 5월 왜가 금주(김해)를 노략질하였다는 기사이다.⁹⁾ 이어 고종 12년 4월 왜선 2척이 경상도 연해지방 주현을 침략하였다고 하며, 이어 13년 정월, 같은 해 6월에 또다시 금주를 침입하였다.¹⁰⁾ 고종 10년 이

9) 『고려사』 권22, 고종10년 5월

후 약 5년간 왜구는 금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출몰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왜구는 연해주민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고 약탈을 자행하는 정도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충렬왕 6년(1280) 이후 충정왕 2년(1350)까지 70년 사이에는 두 차례 정도의 침구 사례가 있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왜구는 점차 이 지역을 넘어서 개경, 경기 지역에도 침입하고 있으며, 황해도를 거쳐 평남의 삼화, 평북의 용주, 의주에까지 이르고, 동해쪽으로는 함남 북청, 단주에까지 이를 뿐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침입하였다.¹¹⁾ 경인년 이후의 왜구는 빈도나 규모 면에서 그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왜구가 고성, 죽말, 거제를 침입하니 합포 천호 최선(崔禪)과 도령 양관(梁瑄) 등이 이를 격파하고 300여명의 적을 죽였다.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¹²⁾ 경인년부터 고려가 망하는 1391년까지 약 40년 동안 591회나 침구하여 경인년 이전 11회 정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¹³⁾ 특히 1376년부터 왜구의 침구는 급증하여 향후 10년 정도 1385년까지 왜구는 전국에 걸쳐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내륙에도 횡행하면서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였다.

특히 우왕 6년(1380) 경신년의 왜구는 그 집단 규모나 침구 지역, 피해 규모면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하였다. 우왕 6년 8월에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구에 들어와서 큰 밧줄로 배를 잡아매고 일부는 배를 지키고 나머지는 각 주군으로 흩어져 마음대로 불지르고 노략질을 하면서 피해가 막심하였다.¹⁴⁾ 그들이 곡식을 약탈하여 배에 운반하면서 땅에 쏟아진 쌀이 한 자나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침략하여 약탈을 자행했으니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최무선의 화포 공격으로 진포구에 정박한 500척의 배가 거의 불타버리자 그들은 내륙을 횡행하면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퇴로를 찾고자 하였다.

이후 그들은 부여, 정산, 운제, 고산, 유성, 계룡산 등 충남, 전북 지역과 황간, 어모, 상주 등 경북 지역, 함양, 남원, 운봉 등 경남, 전북 지역 일대를 거치고 지리산, 무등산을 지나 일부 패잔병이 바다로 도망쳐갔다. 이들의 이동경로는 진포구로 침입하여 고려 삼남 지방의 곡창지대를 분탕질하고 고려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왜구의 고려 침략은 일본의 국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14세기에 들어서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과 남북조의 대립으로 한동

10) 원종 4년 2월 웅신현(지금의 창원, 진해 일부) 물도에 침입하여 貢船을 약탈한 사례(『고려사』 권25)를 통해 볼 때, 왜구는 금주 인근의 세곡선이나 조창 등을 노려 세곡 탈취를 목표로 약탈하였다.

11) 羅鐘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출판국, 1996 ; 『한국사』20 (국편위, 1994)

12) 『고려사』 권37, 충정왕 2년 2월

13)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2007

14)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 을축

안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등장으로 足利義滿 때에는 전국적 지배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나 곧 守護(守護)의 대립으로 또 다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였다.¹⁵⁾

큐슈 지역은 원래 큐슈의 토착 유력호족이었던 島津, 大友, 少貳 등 세 가문이 대표적인 守護 가문으로서 큐슈를 3분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가운데 북조와 남조 정권이 각각 큐슈지역에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큐슈 지역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남조측의 가네요시(懷良)親王과 북조측의 이마카와 료순(今川了俊)처럼 남북조 정권의 대리인으로 내려왔던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함으로써 그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어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국이었다.

남조측이 큐슈를 장악한 1368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왜구의 침구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370년 이마카와 료순이 九州探題에 임명된 이후 왜구의 침구가 점차 증가하여 1376년 이후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막부가 이마카와 료순을 구주탐제에 임명하여 남조측을 압박하면서 남조와 북조간의 공방이 치열해져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376년 이후의 비약적 증가는 큐슈지역에서 남북조간의 격렬한 공방과 이 와중에 쓰시마섬의 정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왜구의 실체와 관련하여 이들이 남북조 양 정치세력과 어떠한 정치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

대체로 왜구 세력의 지역적 분포는 큐슈 북서부 지역으로 五島列島, 마쓰우라(松浦), 이끼(壹岐), 쓰시마 지역 등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왕 2년(1372) 禁寇를 요청하러 일본에 사신으로 간 羅興儒가 일본승 良柔와 함께 돌아올 때 가져온 서신에 의하면 서변 해도의 완민들이 노략질하는 것은



[그림] 큐슈 주요 지역

15) 金琪燮,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한국민족문화』9, 1997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며 큐슈를 극복하면 왜구를 금압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치 6년(1367)초에 차례로 도착했던 김용과 김일에 대해 무로마찌 막부는 '고려를 침략하는 것은 四國, 九州 해적의 행위여서 엄형을 가하려고 하지 않지만, 금압을 위한 방책을 강구할 뜻은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금압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할 입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조측이 파악하고 있는 왜구는 큐슈 서쪽 지역이 주 근거지였음을 보여준다.

14세기 삼별초 항쟁이 막을 내리면서 남북조기에 들어선 일본의 정치적 불안으로 왜구의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고려의 연안항로는 왜구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들은 조운선이나 조창을 공격하여 세곡을 약탈해갔다. 이에 따라 고려의 세곡운송방식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점차 조창을 폐쇄하고 군현별 조운체제로 변화해갔다.¹⁶⁾ 왜구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경인년(1350) 이후에는 각 군현의 漕船에 대한 약탈행위가 더욱 빈번해진다.

공민왕 3년(1354) 4월과 4년 4월에는 전라도 漕船이 각각 40여척, 200여척이 약탈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왜구의 끊임없는 약탈은 조세운송체제를 육운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공민왕 5년 6월에 조세 운송을 육로로 하기로 결정하고 육로의 원근을 헤아려 원과 관을 짓도록 하였다.¹⁷⁾ 또한 그나마 조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던 鎭城倉이 왜구의 침략을 받게 되자, 연해에 위치한 창고들을 내지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왜구들의 침구 지역도 양광도 내포 일대와 경기만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우왕대에 들어 왜구는 더욱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고려를 침략하였다. 그에 따라 고려도 보다 적극적으로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였다. 우왕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왜구가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점이다.¹⁸⁾ 이들은 내륙에 들어와 장기간 체류하면서 내륙을 횡행하면서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략이 광범위해지고 약탈이 심화되면서 조운의 육운화가 이루어졌지만, 왜구의 내륙진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전라도 연해지역에서는 조운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공양왕대 들어 조운 체계의 복구를 위해 漕轉城을 수축하여 경창으로의 세곡 수송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전라도 龍安(全州)과 영산(羅州), 양광도 신창현 장포(唐城), 김해, 사주, 순천 등지에 조전성을 쌓아 조운을 통한 세곡 운송을 재개하고자 하였다.¹⁹⁾ 이는 우왕대 들어 왜구의 활동이 보다 격렬화되는 가운데 연해 지역에 산성과 읍성을 수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왜구에 대응하고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왜구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고려의

16) 한정훈, 「고려 후기 漕運制의 운영과 변화」『東方學志』151, 2010.9

17) 『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6월 乙亥

18) 정영현, 「고려 禑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역사와 세계』33, 2008

19) 한정훈, 「고려 후기 漕運制의 운영과 변화」

바다는 남북조 내란기를 거치면서 큐슈 지역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4. 황산전투 이후 이성계의 부상과 정국의 추이

왜구의 고려 침략은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 판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성계는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荒山 전투는 鎭浦口로 진출한 왜선 500척이 최무선의 화포 공격으로 진포구 전투에서 대패를 했으나, 그 주력 세력들이 내륙으로 진출하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약탈, 방화, 노략질하는 가운데 황산(남원 운봉읍 인월리)에서 이성계에게 섬멸 당한 사건이었다. 이들 왜구는 중무장을 한 남북조 내란기 당시의 무사였을 것으로 본다.²⁰⁾

이성계는 일본 남북조 내란기에 고려에 대거 침입한 이들 왜구를 황산 전투에서 대패시킴으로써 고려 정계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이성계의 등장과 함께 원간섭기 이래 개혁정치의 과정에서 등장한 신진 정치세력들은 고려 후기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공민왕의 반원개혁과 신돈의 정치개혁이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고려 후기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은 이인임을 중심으로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공민왕의 사후 후계자의 승계를 둘러싼 고려 정계의 대립 속에 강녕대군 우(禰)를 세우려는 이인임 일파, 다른 종실에서 세우려는 경복흥 일파, 복원의 독타불화를 세우려는 일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복원의 독타불화는 심왕 고의 손자로서 일찍부터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공민왕의 시해 후에도 이 일파는 독타불화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며, 실제로 원 황제는 그를 고려왕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인임 일파가 승리함으로써 우왕의 즉위가 이루어졌다.

이인임의 집권 이후 이인임은 자신의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친명을 주장하는 사대부 세력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몽주, 이숭인, 정도전 등도 유배되었다.²¹⁾ 이인임 집권의 전반기에는 그를 중심으로 경복흥 등 권문세족과 지윤, 임견미 무장세력이 중심이 되어 정치가 이루어졌으나 점차 이인임 추종세력을 중심으로 정치의 독주가 지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우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되찾기 위해 세력을 확대해면서 그들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왕 3년 지윤 일파, 우왕 5년 양백연 일파, 우왕 6년 경복흥 일파가 정치적으로 숙청되었다. 이 과정에 무장세력이 동원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

20) 이영, 「손자병법을 통해 살펴본 왜구사 최대의 격전(황산전투)」『잊혀진 전쟁, 왜구』에피스테메, 2007

21)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5월, 6월

고, 특히 우왕대 왜구의 창궐은 무장세력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이인임은 최영의 지원 아래 그의 당여라 하더라도 그의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반기를 더는 인물에 대해서 가차 없는 숙청으로 권력의 독주를 확고히 하였고, 인사행정의 전횡과 공무를 빙자한 전민 탈점을 광범하게 자행하였다.²²⁾ 이 과정에서 이인임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지만 권력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숙청을 주도한 최영과 임견미 등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이 시해된 뒤 동년 11월 명사 채빈이 호송관 김의에게 죽임을 당하자, 정국은 대외 관계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고 친명, 친원 어느 쪽으로 기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중 외교 노선을 택하였다. 동년 12월 복원과의 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하고 우왕 3년 2월에 이르러서 복원은 우왕을 책봉하는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 조정 내에 신진 유학세력들은 전왕의 시해 사실을 명에 알리고 불필요하게 명제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인임이 이를 받아들여 명에도 고부사(告訃使)를 파견하였다. 고려는 명과 복원 사이에서 이중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왕 대에는 대명외교의 회복을 통해 전왕의 시호와 우왕의 승습, 세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왕 5년 10월에 이무방의 사행 파견과 그 실패로부터 5년 9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요동에서 저지되거나, 명에 구금 또는 유배된 사신이 4회에 걸쳐 수십 인에 달하는 등 엄청난 수모를 겪었다.

명은 우왕 11년 7월에 이르러서야 우를 고려 국왕에 책봉하고 전왕의 시호를 공민(恭愍)이라 하였으며, 詔書使로 장부(張溥)를, 諭冊使로 주탁(周倬)을 파견하여 명의 사신 채빈의 살해사건 이후 12년 만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처럼 고려와 명 사이에 10여 년간의 긴장 상태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복원의 나하추 정벌을 위한 貢馬 문제로 여러 차례 곡절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우왕 13년 2월에 명은 다시 고려 사신의 요동 왕래를 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²³⁾ 이는 통보 명분과는 달리 고려사신이 요동을 왕래하는 가운데 나하추와 내통하여 요동 문제를 다시 일으킬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 태도는 고려 조정에 명에 대한 불만을 더욱 심화시켰다.

명은 흥무 20년(우왕 13년) 6월에 나하추를 정벌하고 요동 지역을 평정하면서 요동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자 그들의 야욕을 더욱 드러내었다. 나하추가 평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을 폐쇄하여 고려 사신의 왕래를 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철령위 설치를 통하여 고려의 영토에도 침략의 손길을 뻗었다.

우왕 8년(1382) 8월 한양 천도를 전후하여 이인임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신 임견미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염흥방, 도길부, 우현보 등이 정치 전면

22) 박한남, 「고려 왕조 멸망의 배경」 『한국사』 19 (국편위, 1994)

23) 『고려사』 권136, 신우 13년 2월

에 등장하였고 관리 임명권도 독점하였다. 특히 임견미와 염흥방은 문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탈점하거나, ‘수정목공문’이라고 하여 자신의 노비들로 하여금 수정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토지를 빼앗아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대규모 농장을 차지하였다. 이후 우왕 13년 12월 ‘조반의 옥’ 사건을 계기로²⁴⁾, 다음해 정월 염흥방은 물론 이를 변호하던 임견미, 이인임까지도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최영이 최고 실권자로 등장하였다.

조반의 사건을 계기로 우왕과 최영은 토지 탈점으로 사전의 문제를 일으킨 염흥방, 임견미, 이인임 등을 제거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그들에 의해 탈점된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최영은 신흥 무장세력이었던 이성계의 협력을 얻어 이 사건을 수습함으로써 이성계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앞서 명이 철령위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통보는 우왕 14년 2월 사신으로 갔던 설장수에 의해 전해졌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정보는 그 이전에 알고 있었기에 최영은 정요위의 공격 여부와 화의 여부에 관해 의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화의 쪽으로 기울어져 밀직제학 박의중을 명에 파견하였다.²⁵⁾ 이를 통해 철령 이북에서 공험령(公嶮嶺)에 이르는 땅은 고려의 땅임을 밝히고 철령위 설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⁶⁾ 그러나 명은 철령위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홍무 21년(우왕 14년) 3월 하순에 요동백호 왕득명을 보내 철령위지휘사사를 봉집현(奉集縣)에 설치하였다.²⁷⁾

고려 조정은 명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분개하였고 최영은 백관을 소집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명에 헌납하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묻자 백관은 모두 옳지 않다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최영은 요동정벌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요동정벌을 둘러싸고 최영과 이성계는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최영은 즉각 요동 정벌을 주장한 데 대해 이성계는 사대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 14년 4월 임술일 최영의 총 지휘 하에 조민수를 좌도도통사, 이성계를 우도도통사로 삼아 요동정벌을 위해 평양을 출발하였다.

요동정벌은 우왕 14년 5월(1388)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실패하고 이성계 세력은 회군 이후 최영을 체포한 뒤 고양현으로 귀양을 보냈다가, 합포 충주를 거쳐 우왕 14년 12월 순군옥에서 처형하였다. 이어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세웠

24) 염흥방의 가노 李光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조반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빼앗은 사건에서 비롯되어 염흥방 등이 제거되기에 이른 사건(『고려사절요』 권32, 신우 13년 12월, 신우 14년 정월)

25)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2월

26) 『고려사』 권137, 신우 14년 2월

27) 『명실록』 권139, 태조 홍무 21년 3월辛丑

28) 『고려사』 권137, 신우 14년 2월

다. 이성계는 도총중외제군사(都摠中外諸軍事)로 실권을 잡고, 명은 대외적으로 철령위 설치 계획을 변경하여 국경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성계 역시 복원과 완전히 결별하고 친명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조준·윤소종·조인옥 등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경제·군사 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가운데 사전 문제는 고려 후기 사회경제적 모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이성계는 조준을 천거하여 대사헌에 앉히고 사전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사전개혁을 둘러싸고 급진개혁파로서 조준, 정도전, 윤소종 등은 적극적으로 사전을 혁파하고자 하였으며, 이색을 비롯한 이림, 우현보, 변안열, 권근 등은 사전혁파에 반대하였다.

온건개혁론자들의 사전혁파 반대와 사전개혁에 미온적인 창왕에 대해, 창왕 원년 11월 김저 사건을 기회로 삼아 이들을 축출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여 전제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공양왕 원년 12월 조준의 3차 상서를 통해 전제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양왕 2년 정월 과전수급자에게 전적(田籍)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해 9월公私 전적을 불사르고, 3년 5월 과전법의 기본원칙을 반포하였다.

김저 사건은 대호군 김저(최영의 조카)가 우왕의 지시로 예의판서 곽충보로 하여금 이성계를 제거하는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곽충보가 이성계에 사실을 전함으로써 우왕의 계획이 탄로 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변안열, 이림, 이색 등의 구세력과 온건개혁파들이 유배되고 우왕은 멀리 강릉부로 옮겨졌다. 이후 이성계 일파는 ‘우창비왕설(偶昌非王說)’을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으로 삼아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이때 전왕을 두둔한 이색과 그의 아들 종학을 파직하고, 조민수를 서인으로 삼고 이송인, 하륜, 권근 등과 함께 귀양을 보냈다. 또한 후환을 제거하고자 우왕과 창왕을 시해하였다.

공양왕 2년 5월 명에 파견되었던 왕방과 조반이 돌아와 한 보고에서 “윤이와 이초가 명 황제에게 호소하기를 ‘고려의 이시중이 왕요(王瑤:공양왕)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나, 요는 종실이 아니라 그의 인척이며, 요가 이시중과 함께 군사를 동원하여 상국을 칠 것을 피하므로 이색 등 10명을 살해하고 우현보 등 9인을 귀양 보냈습니다. 이에 귀양 가 있는 재상들이 우리들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보고하고, 친왕이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와서 토벌해주기를 청합니다’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이색, 우현보, 우인열, 정지, 이송인 등이 하옥되었다. 이성계는 공양왕이 즉위한 후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공양왕은 우창을 두둔하며 원만한 해결을 강구할 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일거에 숙청할 계기를 찾고 있던 차에 마침 발생한 것이 윤이·이초 사건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위화도 회군 이후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개혁파 사대부의 협조로 고려사회의 누적된 폐단을 개혁하는 가운데, 김저 사건, 윤이·이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면서 마침내 대권을 장악하였다. 공양왕 2년 12월 삼군도총부를 설치하고, 3년 정월 이성계는 삼군도총제사에 오름으로써 문무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넣게 되었다.

5. 고려 왕조의 최후

윤이·이초의 사건으로 이성계 일파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정몽주는 윤이·이초 사건에 대해 ‘이초(彝初)의 무리는 죄가 명백하지 않고 또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 논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²⁹⁾ 이러한 정몽주의 태도에 대해 대간들 사이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정몽주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공양왕과 정몽주가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양왕 2년 9월 이초당의 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정몽주는 ‘지금 이후 다시 이들을 논핵하는 자는 무고죄로 다스리겠다’고 함으로써 이성계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였다.

공양왕 4년 4월, 이전까지 이성계 세력에 의해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던 이색과 우현보 등은 정몽주와 함께 이성계 세력을 탄핵하고 나섬으로써 정몽주에 동조하는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공양왕 3년 9월부터 공양왕 4년 4월 정몽주가 살해되기 전까지 정몽주에 동조한 세력은 더욱 늘어난 반면 정도전은 대간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되고, 조박·윤소종·남재·남은 등도 유배되었다. 심지어 문하부낭사 김진양은 소를 올려 조준과 정도전을 극형에 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양왕 4년 무렵 정몽주의 세력은 이성계 세력을 압도할 정도로 언론직을 장악하고 있었다.³⁰⁾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원은 사태가 위급함을 이성계에게 알려 정몽주 제거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정몽주가 선죽교에서 격살되었고 그의 당류마저 모두 유배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공양왕의 폐위 수순이었다. 이성계 세력인 배극렴이 폐위 상소를 올리니 결국 왕대비의 명으로 공양왕은 폐위되어 원주로 쫓겨나고 34대 475년의 고려왕조는 막을 내린다.

나머지 말

고려 500년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적극적 실리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시기였다. 침략과 저항의 처절한 삶 속에서도 생을 이어 온 강인한 민초들의 끈기는 조선을 거쳐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낸 힘이 아닐까?

29)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7월

30) 박천식, 「이성계의 집권과 고려 왕조 멸망」 『한국사』19 (국편위, 1994)

论宋丽海上丝绸之路与海洋文化交流

魏志江（中山大学）

- 一、宋丽海上航路的演变和发展
- 二、宋丽海洋贸易与物质文化交流
- 三、宋丽海上人文和精神文化之间的交流

内容提要：宋与高丽之间海上航路的发展，认为是中韩历史上海上丝绸之路发展、演变的重要时期，宋丽海上航线先后经过由北部山东半岛的登州（今山东蓬莱）至高丽翁津（今朝鲜海州西南）航线变迁为宋明州（今浙江宁波）至高丽的礼成江碧澜亭（今开城西海岸）航线。宋丽海上丝绸之路，不仅体现了两国物质贸易的繁盛，也承载着两国人文往来和精神文化的交流。

关键词：海上丝绸之路 宋丽海上航线 海洋文化交流

作者简介：魏志江，中山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兼副院长、行政负责人

宋与高丽海上航路的发展，是中韩历史上海上丝绸之路发展、演变的重要时期。海上丝绸之路（Maritime Silk Road，简称海丝路或MSR），迄今为止虽然中外学术界对其概念和内涵仍然莫衷一是，但本文认为其内涵应该是指从中国东南部沿海港口出发，然后向东北亚延伸至朝鲜半岛，接着沿朝鲜半岛西海岸南下、后经日本博多湾、九州以及西南诸岛、琉球群岛地区的东北亚航线和中国东南沿海继续向西南方向延伸，经过中南半岛南下后通过马六甲海峡、进入印度洋、然后抵达红海、最终行至地中海沿岸的航线。因此，宋丽海上航线和两国海洋经济文化的交流，毫无疑问将会构成了中韩海上丝绸之路的重要内容。目前为止，中外学术界对宋丽海上航路与经济文化交流的研究已经取得了诸多重要的研究成果，其中中国学术界的主要代表有陈高华、宋晞、吴泰、杨渭生、王文楚、陈炎、祁庆富等学人¹⁾；而国外的主要代表性学

1) 分别参见方豪《中西交通史》，上海人民出版社 2008 年版；宋晞《宋商在宋丽贸易中的贡献》，载《中韩关系史论文集》，时事出版社 1979 年版；陈炎《海上丝绸之路与中外文化交流》，北京大学出版社 1996 年版；陈高华、吴泰《宋元时期的海外贸易》，天津人民出版社 1981 年版；陈高华、吴泰《海上丝绸之路》，海洋出版社 1991 年版；王文楚《古代交通地理丛考》，中华书局 1996 年版。

者主要有韩国东亚大学的金庠基、高丽大学的李镇汉、金渭显、尹明哲、姜仲吉等教授和日本学者内藤雋辅、森平雅彦等先生，其撰写了一系列研究宋丽海上航路与海洋经济文化交流的论著。本文拟在学界先贤研究的基础上，进一步就宋丽海上航路与海洋文化交流等问题加以论述，不当之处，敬请指正！

一、宋丽海上航路的演变和发展

宋丽海上丝绸之路航线的变化，与两国的政治外交关系和辽宋丽三国关系密切相关。因而，宋丽海上丝绸之路的演变和发展大致经历了前、后两个阶段。

前一阶段（960-1071年），宋丽海上航线的內容主要是指登州（今山东蓬莱）到高丽翁津（今朝鲜海州西南）的航线。918年，泰封部将王建杀弓裔自立，建立高丽王朝，之后与中国五代十国的后唐、后晋、后汉和后周政权均维持着朝贡关系，利用朝鲜半岛西北海岸的翁津与中国山东半岛的登州展开交往，从而维持其与中国中原王朝的交流。宋朝建立后，高丽与宋的交往同样也是利用此条航线，《宋史》卷487《高丽传》载：淳化四年（993年）“正月，治遣使白思柔贡方物，并谢赐经及御制。二月，遣秘书丞、直史馆陈靖、秘书丞刘式为使，加治检校太师，仍降诏存问军吏耆老。靖等自东牟趣八角海口，得思柔所乘海船及高丽水工，即登舟，自芝冈岛顺风泛大海，再宿，抵翁津口登陆。行百六十里，抵高丽之境，曰海州，又百里，至阎州，又四十里，至白州，又四十里，至其国。治迎使于郊，尽藩臣礼。延留靖等七十余日而还。遗以裘衣、金带、金银器数百两、布三万余端，附表称谢。²⁾”考察宋朝时期的登州，郡名东牟，现今山东的蓬莱县；八角海口，现今山东福山县西北的八角镇；芝冈岛，现今山东烟台北芝罘岛，其距离登州约20公里。靖等归国，亦沿此航路，“先是，式等复命，治遣使元证衍送之。证衍至安香浦口，值风损船，溺所赍物。诏登州给证衍文据遣还，仍赐治衣段二百匹、银器二百两、羊五十口。³⁾”安香浦，距离登州10公里左右，其虽非登州治下，然仍有登州给发文据放行。故宋朝天圣年间以前宋人出使高丽，多由登州附近如八角海口启航，并由登州管辖。高丽翁津，也就是现在朝鲜海州西南的翁津；阎州，是现在朝鲜的延安，高丽时代称为盐州；白州，是现在朝鲜的白川。《宋史》载：“往时高丽人往返皆自登州，（熙宁）七年，遣其臣金良鉴来言，欲远契丹，乞改途由明州诣阙。从之。⁴⁾”因此，五代、宋初以来，登州一直是与高丽通航往来的海上航线，《续资治通鉴长编》（以下简称《长编》）载：“大中祥符八年（1015年）二月甲戌“令登州于八角镇海口设官署，以待高丽、女真使者。⁵⁾”宋仁宗时也

2)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 1977 年点校本，14040页。

3)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 1977 年点校本，14042页。

4)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 1977 年点校本，14046页。

5)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八十四，大中祥符八年(1015 年)二月甲戌，中华书局 2004 年

说：“新罗、高丽诸国，往年入贡，其舟船皆由登州海岸往还。⁶⁾”因此，自高丽王朝建立直到宋神宗熙宁四年（1071年），这段航线不仅是宋丽海上交通时利用的主要航线，同时也是唐朝与新罗时期进行海上贸易和文化交流的主要航线，还是日本遣隋使和遣唐使往来的主要航线。另外，密州板桥镇至高丽的航线是此段航线的网络支线，即由密州板桥镇（今山东胶县）出港到高丽翁津口后登陆，据《长编》载：元丰六年（1083年），入内供奉官、勾当龙图、天章、宝文阁冯景为高丽国信使，“令排办修补过河船及按视近便海道，今至登、密州，问之得二处海道并可发船至高丽，比明州实近便。⁷⁾”又据徐兢《宣和奉使高丽途经》载黄水洋谓：“自中国适高句丽，唯明州道经此，若自登州、板桥以济，则可以避之。⁸⁾”故密州通高丽之港口，实为板桥镇，元祐三年（1088年）改板桥镇为胶西县。但此海路很少使用。

1020年，辽丽两国恢复朝贡关系，在这之前由于战争的关系两国处于敌对状态，朝贡关系也一度中断。1020年后，辽丽关系进入了一个相对持久稳定和平发展的新时期，这种关系一直持续到1125年辽国灭亡。在这一时期，辽丽两国使节的往来频繁密切，高丽通过以下名义遣使辽国，比如四季问候、谢横宣、谢册封、谢恩、进贡、贺正、贺即位、吊祭、告奏、告哀等，辽国则主要通过吊慰、告哀、横宣、册封、贺生辰、来祭、来诏、起复等名义遣使高丽，如此之后，辽丽两国朝贡体制终于全面确立起来，并且构成了东亚地区国际秩序的基础。因为辽丽之间关系的改善，高丽先前结盟宋用来牵制契丹的外交政策，此时已经显得不太重要。1022年（宋天禧五年，高丽显宗十三年），高丽决定停止使用宋“天禧”年号，“复行契丹年号”，并且在高丽显宗二十一年（宋天圣八年，辽太平十年，1030），遣使元颖等前往宋“贡金器、银厨、刀剑、鞍勒、马、香油、人参、细布、硫磺、青鼠皮等物⁹⁾”后，断绝了对宋的朝贡，“其后绝不通中国者四十三年¹⁰⁾”。故以宋仁宗天圣年间开始，宋丽两国由于断绝邦交，两国航路基本上亦处于断绝的状态。迄1071年（宋熙宁四年），宋由于“联丽制辽”的再度实施，宋丽邦交得以恢复，宋丽海上丝绸之路也进入了后一阶段。

后一阶段（1072-1279年），宋丽此阶段的海上航线主要是由明州（今浙江宁波）到高丽礼成江碧澜亭（今开城西海岸）的航线。关于航路改变的原因，学术界已多有论及，主要是北宋从国家安保立场，以登州“地近北虏，号为极边。虏中山川，隐约可见，便风一帆，奄至城下。自国朝以来，常屯重兵，教习水战，旦暮传烽，以通警急。”故宋庆历年间，特下诏实行海禁，以禁止海商自海道往登、莱州以及辽国经商贸，故登州通高丽海道亦渐废弃。直至宋熙宁四年（1071年），宋丽恢复邦交，宋出

版，1918页。

6)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一百五十八，中华书局1985年版，3829页。

7) 李焘：《续资治通鉴长编》卷三百四十一，中华书局1985年版。

8) 徐兢：《宣和奉使高丽途经》，卷三十四，商务印书馆1937年版，121页。

9)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1977年点校本，14045页。

10)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1977年点校本，14045页。

使高丽之海上航路改为明州往返，盖亦由于高丽之请求，《宋史》卷487《高丽传》谓：“往时高丽人往返皆自登州，七年，遣其臣金良鉴来言，欲远契丹，乞改途由明州诣阙。从之。¹¹⁾”而宋朝册封出使高丽和宋商赴高丽贸易，则规定由明州往返。其具体航线，《高丽史》、《高丽史节要》以及《宋史》、《宋会要辑稿》等所载甚略，唯宋人徐兢所撰《宣和奉使高丽图经》（以下简称《高丽图经》），其卷34至39《海道门》对宋丽海上航路进行了十分系统、明确的记载，为研究宋丽海上航路和高丽社会政治、经济、文化以及宋丽关系之极为重要的史料。《高丽图经》除中国学者王文楚、祁庆富等教授做了较为深入的考证外，近年来，日本九州大学东洋史学科森平雅彦教授结合文献记载和实地考察，对宋丽海上航路进行了考证、复元。宋丽航路自明州出发，到达定海（今镇海县）后、经过虎头山（今镇海县招宝山东北的虎蹲山），向东航行到达昌国县（今定海县）的沈家门、梅岑，宋代又称补陀洛迦山，就是现在的普陀山，从这里出海后，进入白水洋、黄水洋、黑水洋，现在浙江沿海、长江以北到淮河入海口为黄水洋，黑水洋，也称黑水沟，即淮河入海口以东、山东半岛以东、以南的洋面；经夹界山，又称古五屿，“华夷以此为界限”，现在的五屿西南为小黑山岛，岛南是中韩两国的领海分界处，也就是中国与高丽的海上分界线；过白山，王文楚先生考订为现在大黑山岛东南面的荞麦岛，并谓徐兢《高丽图经》记载有误，王氏谓“《高丽图经》记载，先过白山，后至黑山，同书又记载徐兢等归国，‘早过黑山，次过白山，’则黑山在北，白山在南。今大黑山岛东南有荞麦岛，恰为航路所经行，盖是。《高丽图经》黑山下云：‘黑山在白山之东南’，与海路途径不符，当误，或为‘白山在黑山之东南’之误。”然而，中国学者祁庆富和日本学者藤田明良均认为是黑山岛西北之红岛，日本学者森平雅彦经过实地勘察后亦认为徐兢记载之“白山”，当为今之红岛，朝鲜时代亦称红衣岛，其距黑山岛西北约十八公里，海岸线为高耸的断崖所环绕，其恰如徐兢所谓“连亘如城”，其断崖显露的硅岩、砂岩在日光下映照得如白玉一般，故名白山。

盖王氏虽然注意到《高丽图经》有关黑山和白山的途径航程，但是却忽略了徐兢《高丽图经》中对白山形态的记载：其“白山”条谓：“是日午后，东北望一山极大，连亘如城。日色射处，其白如玉。未后风作，舟行甚快。”而荞麦岛，不过为周围一公里左右圆锥状的小岛，显然与其状如城垣的白山岛不符，故徐兢使团先经过白山岛，后抵达黑山岛的往返记载无误，而王氏实误矣；使团由白山抵达黑山，现在韩国的大黑山岛，是宋丽时期海上丝路南路的枢纽，也是船舶往来停歇的地方；经过黑山岛，沿群山列岛海岸向北，抵达紫燕岛，即现在韩国京畿道广州境内，处于首尔东南方向，日本学者津田左右吉考证为现今的仁川西部的永宗岛¹²⁾，确实如此。然后到达急水门水道，进入礼成港，在碧澜亭登上陆地后，再由陆路抵达高丽的都城开城。碧澜亭，位于现在开城西礼成江东岸，船舶在这里停舟靠岸登上陆地，前往开城。从宋神宗熙宁

11)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 1977 年点校本，14046页。

12) [日]津田左右吉《朝鲜历史地理》卷二《关于元代高丽西北境之混乱》。

后直到南宋，宋丽之间的海上航路都是经过此段路线。如果能够顺着季风之便，五、六日就可以到达。

另外，宋丽海上丝路南路航线还有泉州港，也是宋与高丽贸易的重要港口，如《宋史》卷三百三十一《罗拯传》云：“拯使闽时，泉商黄谨往高丽，馆之礼宾省。¹³⁾”苏轼亦谓：“切问泉州多有海舶入高丽，往来买卖。”中国学者陈高华先生曾经就《高丽史》的记载，归纳出北宋时期泉州海商往返高丽的史料，达十九起。其中，前述泉商黄谨（为“慎”之误）还充当了宋丽恢复邦交信使的角色。如高丽文宗二十二年（宋神宗熙宁元年，1068年）七月，“宋人黄慎来见……遣慎等来传天子之意，¹⁴⁾”熙宁二年（1069年），黄慎等由高丽返宋，“其国礼宾省移牒福建转运使罗拯云：“本朝商人黄真、洪万来，称运使奉密旨，令诏接通好……今以公状附真、万西还。¹⁵⁾”由于宋朝规定：诸赴高丽、日本贸易者，例由明州市舶司给予公凭发解启航，即“凡中国之贾高丽与日本，诸番之至中国者，惟庆元得受而遣焉。”庆元，即北宋之明州，据《宋史》卷88《地理志》载，南宋绍熙五年（1194年）升明州为庆元府，故名。故福建海商由泉州出港赴高丽贸易，显然违背了宋明州市舶司管辖之规定，故苏轼不得不奏请云：“元丰三年（1080年）八月二十三日中书札子节文，诸非广州市舶司辄发过南蕃纲船舶，非明州市舶司而发过日本、高丽者，以违制论。”然而，根据陈高华先生统计，《高丽史》明确记载明州商人不过三起，数量上远低于泉商十五起，盖“福建狡商专擅交通高丽，引惹牟利，如徐戡者甚众。¹⁶⁾”因此“泉州多有海舶入高丽，往来买卖。¹⁷⁾”徐戡，泉州海商，苏轼说他：“其先受高丽钱物，于杭州雕造《夹注华严经》，费用浩瀚。印版既成，公然于海舶载去交纳，却受本国厚赏。¹⁸⁾”又谓哲宗元祐四年（1089年）十一月，徐戡“于海舶内载到高丽僧统义天手下侍者僧寿介、继常、颖流，院子金宝、菱善等五人，及赍到本国礼宾省牒云：‘奉本国王旨，令寿介等五人赍义天祭文来祭奠杭州僧源梨。¹⁹⁾’”苏轼让他从明州回国，但是“访闻明州近日少有因便商客入高丽国，²⁰⁾”而“泉州多有海舶入高丽往来买卖，²¹⁾”故而将寿介等“发往泉州，附舡归国。²²⁾”故北宋后期至南宋，明州虽然一直是朝廷出使高丽往返之港口，但也不能否认民间海商由泉州赴高丽贸易者亦多。不过，由泉州出港，驶往高丽礼成港的航路，应该仍然是由泉州港海岸北上，循着明州往高丽的航路往返。南宋时，由于海外贸易发达，泉州成

13) 元·脱脱：《宋史》卷三百三十一《罗拯传》，中华书局 1977 年点校本，10646页。

14) 郑麟趾：《高丽史》卷八，《世家·文宗二》。

15) 元·脱脱：《宋史》卷四百八十七《高丽传》，中华书局 1977 年点校本，14046页。

16) 苏轼：《东坡奏议》卷六《论高丽进奉状》，中华书局，445页。

17) 苏轼：《东坡奏议》卷六《乞令高丽僧从泉州归国状》，中华书局，448页。

18) 苏轼：《东坡奏议》卷八《乞禁商旅过外国状》，中华书局，459页。

19) 苏轼：《东坡奏议》卷六《论高丽进奉状》，中华书局，445页。

20) 苏轼：《东坡奏议》卷六《乞令高丽僧从泉州归国状》，中华书局，448页。

21) 苏轼：《东坡奏议》卷六《乞令高丽僧从泉州归国状》，中华书局，448页。

22) 苏轼：《东坡奏议》卷六《论高丽进奉状》，中华书局，445页。

为了北上连接明州和高丽，向西连接广州、粤东，从而通往南洋的海上航路枢纽，东南亚、印度洋以西等地区的商船常常往来于此。不过，与明州港相比，泉州主要是印度洋、南洋以西的船舶往来停靠的港口，在与高丽海上往来的交流中，依然不能取代明州的地位。

二、宋丽海洋贸易与物质文化交流

宋代对外贸易发达，宋丽贸易亦多于海上进行，朝贡贸易和民间贸易是宋丽两国之间的海洋贸易与物质文化的交流的主要体现。

关于朝贡贸易。朝贡贸易是宋丽两国最基本也是最传统的贸易形态，两国都制定了一系列管理朝贡贸易的机构，比如市舶司，专门负责管理海外贸易，宋朝在临安府（今杭州）、庆元府（明州，今宁波）、广州、泉州以及密州板桥镇等地均有设置，还在澈浦、华亭、温州等地创置了市舶场或市舶务。市舶机构掌“诸国物货航舶而至者。”其中，掌管往来南海诸国海上贸易的是广州和泉州市舶司，掌管往来高丽、日本等东北亚地区海上贸易物品的则是由明州和杭州市舶司。所以，主要是由明州和杭州市舶司管理宋丽之间进行的海上丝绸之路贸易往来。市舶司主要负责的贸易事务为：对高丽朝贡物品的检验、解运、收纳、交易和处理等。宋初，高丽朝贡物品均需交纳京城，但是，随着元丰三年（1080年）《市舶法》的颁行，其中规定朝贡品中除细色须运转京师交纳外，其余粗色等物，一律由市舶司就地出卖，以其价格申报朝廷。就宋丽朝贡贸易而论，仁宗天圣以前，朝贡品多由登州府检视和运转朝廷；熙宁以后，由于登州通高丽航路成为禁途，故主要由明州市舶司检视，根据货物之粗、细色，或转运京师；或就地发卖，然后将其价值奏报朝廷。宋丽之间的朝贡贸易品之交易，一般由朝廷三司和太府寺办理，元丰三年（1080年）以前，宋对高丽之朝贡品，采取估计回赐制，即对贡物估算其价值，然后予以回赐；元丰三年以后，开始以定额回赐制取代了估价回赐制，是年正月，宋神宗下诏谓：“高丽国王每朝贡，回赐浙绢万匹，需下有司估准贡物乃给，有伤事体。宜自今国王贡物，不估直回赐，永为定数。”南宋时期，虽然规定市舶司对诸番国朝贡品实行抽解和和买之制，但是，并不适用于高丽，宋丽朝贡贸易仍旧沿神宗旧制，以浙绢万匹回赐高丽。

此外，关于宋丽朝贡贸易，高丽王朝制定了相关制度用来管理王室朝贡贸易，负责中国皇帝颁发的诏书以及领受来自中国皇帝的恩赐，此外，还对中国海商设置了专门的驿馆。高丽大、小府寺的负责事务主要是收纳、处理来自中国皇帝赐予的物品，以及向中国王朝进方物等。高丽通过海上航路运到中国的贸易品主要是衣褥、铜器、折扇、银、药材、螺钿漆器、狼尾笔、人参、麝香、松子、草席、苧布、香油、松烟墨等，而中国通过海上航线运输到高丽的贸易品主要是瓷器、玉器、茶叶、乐器、药材、沉香、金银器、笔墨纸砚、鞍马等，以及各式各样的绫罗绢纱等丝织品和赐予高

丽国王的鞋靴、衣带等服饰类物品。由此看来，两国间的交易不仅有手工业品和土特产品，并以此类产品为主要交易品，还有少数部分如香料等物品是从南洋转运而来，反映了此一时期东亚海上贸易网络的已经形成。

关于宋丽海商经营的民间贸易活动。在新罗时代，张保皋海上贸易集团，崛起于朝鲜半岛东南端的莞岛，是东亚海上航行中最大的贸易集团，曾一度垄断了东亚的海上贸易。到了十至十三世纪，宋朝海商组成中、小型船队，从东南沿海北上，经由淮河入海口航行渡过东海，前往高丽进行商业贸易活动。宋朝海商成为当时东亚海域内最活跃的海商，在一定程度上，宋海商主导了东亚海域的秩序。高丽设置有清州、四店、忠州、利宾等四座驿馆作为专门接待宋商的落脚点，宋商到达高丽之后，在高丽礼宾省的安排下，就入住在这四座驿馆中。宋商在高丽主要从事的贸易活动分为“朝贡”贸易和民间自由贸易两种：第一种指的是与高丽王室之间直接进行的“朝贡”贸易，可以在《高丽史》见到，书中记载为“献方物”等，当高丽国王收到后，再以方物数倍偿还于宋；第二种指民间的自由贸易。宋商进行的民间贸易在当时的高丽并没有形成统一固定的市场，“唯以日中为虚，男女老幼、官吏工技、各以其所有用以交易。²³⁾”而且，高丽也没有制定抽解和征税制度，只有在宋商返航之时，为了防止违禁物品出境，高丽的监察御史要负责对宋商船进行检视。此外，高丽也对宋进行着海外贸易，高丽商人以王室为首，主要依附于高丽使团以及搭乘宋商船只进行对中国的海上贸易，其中明州是丽商在宋进行贸易的主要地方，高丽交易的贸易品有银、铜器、漆器、螺钿器、苧布、绸缎、折扇、草席、高丽纸、松烟墨、狼尾笔，以及人参、麝香、松子、香油、药材等物品，主要用来换取中国的茶叶、瓷器、药物、丝织品、香料以及书籍、玉器、木器文具、佛教用具等各种物品。

三、宋丽海上人文和精神文化之间的交流

宋丽海上丝绸之路，不仅是宋丽两国物质文明之间交流的桥梁，也承载着两国人文和精神文化的沟通和交流。学术界关于宋丽海上丝绸之路在人文和精神文化方面的交流也多有论及，作为代表性的研究成果，无疑当首推杨渭生先生的论著。鉴于宋丽两国海上文学、艺术、制度文化、典籍与人员往来等交流，杨著已经做了较为系统、全面地论述，故作者在杨著论述的基础上，仅就宋丽两国海上丝绸之路有关的海神信仰和典籍以及儒佛道三教文化之交流等进一步加以论述如下：

首先，随着宋丽海上航路之开拓，两国海民相互形成了共同的宗教海神信仰意识，成为此一时期宋丽海上丝绸之路的重要内涵。其主要体现在宋丽两国都存在着祭祀东海龙王和观音崇拜等信仰。据徐兢《高丽图经》记载，宋使团抵达定海县，也就是“先期

23) 徐兢：《宣和奉使高丽途经》，卷三，商务印书馆1937年版，10页。

遣中使、武功大夫容彭年建道场欲总持院七昼夜，仍降御香，宣祝于显仁助顺渊圣广德王祠。神物出现，壮如蜥蜴，实东海龙君也²⁴⁾。”而高丽亦有祭祀东海龙王之信仰，徐兢等抵达高丽群山岛时，见“近西小山上，有五龙祠、资福寺”，抵蛤窟抛泊，“其山不甚高大，民居亦众。山之脊有龙祠，舟人往返必祀之。”蛤窟，即急水门西之甲串，其地位于江华岛北，今属龙津郡，盖其祭祀龙王之所在也。龙王主风雨、海上有波涛之险，故祭祀东海龙王以保佑航海之安全。又，徐兢使团由普陀山出海前，亦举行了盛大的祈禱观音菩萨的仪式，“二十六日戊寅，西北风劲甚。使者率三节人以小舟登岸入梅岑。旧云：梅子真棲隐之地。有履迹瓢痕在石桥上。其深麓中有萧梁所建宝陀院，殿有灵感观音……旧制，使者于此请禱。是夜，僧徒焚诵歌呗甚严，而三节官吏兵卒，莫不虔恪作礼。”故航海前，宋官民必拜祭观音菩萨以护佑其航海安全，而海上拜祭观音，亦是高丽海民之信仰，徐兢记载宋丽航路之菩萨占，即是丽人海上命名之岛屿，谓“是日午后，过菩萨占。丽人谓其上曾有显异，因以名之。”可见，宋丽两国通过官民航海往来，形成了祭祀东海龙王和观音菩萨崇拜等的共同的海上信仰，也成为宋丽两国海上丝绸之路人文交流的重要内容。

其次，宋丽海上丝绸之路往来中，增进了两国人文典籍的交流。高丽使臣于海上来华，所进行大量的求书、购书活动，如宋太宗端拱二年（989年）赐予高丽《大藏经》一部，太宗淳化元年（990年），又赐予高丽使节《密藏论》、《逍遥咏》和《莲花心轮》等佛经。淳化四年（993年），应高丽之请，赐儒家《九经》于高丽。宋真宗大中祥符九年（1016年），高丽使郭元辞归，真宗应其所请，再赐予《九经》、《史记》、《两汉书》、《三国志》、《晋书》以及《圣惠方》、诸子、历日、御制诗、《国朝登科记》等。宋哲宗元祐元年（1086年），高丽使来贺哲宗即位，哲宗应其所请赐予《文苑英华》一部。哲宗元符二年（1099年），高丽进奉使尹瓘等乞赐《太平御览》等书，哲宗诏曰：“所乞《太平御览》，并《神医普救方》，见校定。俟后次使人到阙给赐。”宋徽宗建中靖国元年（1101年）高丽使王蝦、吴延宠回国，宋徽宗又赐高丽国王《太平御览》一千卷。除宋朝廷赐予外，高丽使节还被允许自行前往书肆购书。宋神宗熙宁七年（1074年），诏国子监许卖《九经》以及其它经史子集诸书给高丽使节。神宗元丰八年（1085年），高丽使求买《大藏经》、《华严经》各一部，诏从之。宋哲宗元祐七年（1092年），哲宗不顾苏轼反对，允许高丽使购买《册府元龟》以归。宋丽典籍交流还体现在高丽大量高僧、留学生以及宋朝商贩于宋朝购买书籍以献于高丽国王，宋太宗太平兴国八年（983年），高丽博士任老成从宋朝购买了《大庙堂图》一铺并记一卷，《社稷堂图》一铺并记一卷，《文宣王庙图》一铺，《祭器图》一卷，《七十二贤赞记》一卷，以为高丽营造有关庙堂之参考。此外，宋商李文通于宋仁宗天圣五年（1027年）赴高丽时献给高丽国王图书579卷，宋哲宗元祐二年（1087年），宋泉州商人徐馥等二十八人至高丽

24) 徐兢：《宣和奉使高丽途经》，卷三十四，商务印书馆1937年版，118页。

献《新注华严经》版，宋光宗绍熙三年（1192年），宋商又献《太平御览》，高丽奖励其白金六十斤。

随着儒家经典和《史记》、《汉书》、《三国志》等史书大量输入高丽；高丽也有诸多书籍传入宋朝，如高丽宣宗八年（1091年），宋哲宗以高丽国书籍多好本，特命馆伴将所求书目录授予高丽使李资义，嘱其“虽有卷第不足者，亦须传写附来²⁵⁾。”故次年（1092年），高丽使即献《黄帝针经》于宋哲宗。此外，原本宋朝已保存不完全的《说苑》，由高丽献出后才得以补全完整；还有已经失传的《周易占》、《黄帝针经》等古籍，也是通过高丽重新输入到宋朝。加强了两国以书籍为载体的人文文化交流。

第三，宋丽两国佛教文化的交流，构成了宋与高丽的海上文化交流的重要内容。主要体现在两国《大藏经》之交流、僧侣的往来和中国科举制度、儒佛道三教教义对高丽佛教的影响等。其中《大藏经》等佛教典籍的互赠和交流影响较大，如前述泉州海商徐戡，其“先受高丽钱物，于杭州雕造《夹注华严经》，费用浩瀚。印版既成，公然于海舶载去交纳，却受本国厚赏。²⁶⁾”；而高僧人文往来，则主要是高丽僧人谛观、义通以及高丽王子义天到宋朝的访问交流，其中谛观、义通为中国天台宗的复兴做出了很大的贡献，特别是对天台宗相关典籍的回归起到了重要作用，高丽僧义通也被后人尊其为天台宗的第十六祖。高丽王子义天是在宋哲宗时期来到中国，博访名山古刹，带来的大量华严宗典籍弥补了中国华严宗典籍的缺口，并受到宋哲宗的接见，拜杭州慧因寺的净源法师为老师学习华严宗，对华严宗的复兴起到了重要的作用。此外，义天还请天竺寺的从谏法师讲解天台教观之道，其回国时，带回佛教典籍和儒家经书一千多卷，在高丽弘扬天台宗、华严宗，提倡“教观兼修”，主持高丽国清寺，创立高丽的天台宗，并拜从谏为初祖。因此宋丽两国高僧通过海上丝绸之路进行文化交流，极大地丰富了两国人文文化交流的内涵。

此外，随着两国人文往来和科举制度传入高丽，高丽除科举取士外，还实行僧侣的科举考试制度，称为僧科制度。僧科有预备试和正式试之分，预备试主要在各山门或宗派内进行，预备试合格才能参加国家正式大选，大选也有禅宗选和教宗选之分，禅宗大选一般是在广明寺在禅宗僧侣中进行，教宗大选则于王轮寺在各教宗僧侣中进行。如果禅、教大选合格，就授予初级法阶大选，然后按照如下法阶晋升：禅宗法阶：大选-大德-大师-重大师-三重大师-禅师-大禅师；教宗法阶：大选-大德-大师-重大师-三重大师-首座-僧统。而高丽时代的僧职主要是僧录司，僧录司有左右两街，两街各有都僧录，下设副僧录、僧正，都僧录掌管一切佛教活动，其渊源显然是受到宋朝科举制度的影响。

随着宋朝儒佛道三教传入高丽和宋丽两国佛教文化的交流，中国的儒佛道思想对高丽的佛学思想产生了十分重要的影响，主要体现在高丽儒佛道三教合一和天台宗的创

25) 郑麟趾:《高丽史》卷一〇《宣宗世家》，朝鲜古书刊行会本。

26) 《东坡奏议》卷六。按，《续通鉴长编》卷四三五引苏轼奏议，称：“泉州商人徐戡。

立。高丽太祖以佛教立国，但是，佛教内部的宗派矛盾不断，尤其是以海印寺为中心的南岳和北岳两派水火不容，相互攻击。为了解决佛教内部的门户之争，从宋朝回国的义天大师提出了“教禅合一”、“教观兼修”的主张，义天认为：佛有教禅二法，但两者各有偏执，教法注重外修而忽略内心观照；禅法则强调内心作用而无视外部修炼，故“学教之人多弃内而外求，习禅之人好忘缘而内照。并为偏执，俱滞一边，其犹争兔角之长短，斗空花之浓淡。”因此，义天提出“教禅兼修”。但是，在教宗和禅宗的关系上，义天主张教宗融摄禅宗，并对“不立文字，以心传心”的禅法颇有微词，其提出禅宗本义是“籍教习禅”而非“离教习禅。”其实，义天的“教观兼修”的思想并非源自自创，而是深受中国华严宗高僧圭峰、晋水和清凉大师的影响，华严宗即主张“教禅一致”，尤其是清凉大师认为：华严宗“法界缘起”与天台宗的“三谛圆融说”相互契合，并认为华严宗靠经典义理解悟、洞彻法界，与禅宗不立文字，以心传心的解悟过程是一致的，因而华严宗与禅宗是相通的。义天大师不仅与上述晋水（净源大师）相互往来切磋佛法，而且，对华严宗经典颇多研究。在儒佛道的关系上，义天十分重视三教合一，尤其是对宋朝援儒入佛的思想大力弘扬。其主张“得释门遍于五时，儒典通乎六籍，包罗大小，通观尊卑，虽设教有殊，而崇孝无别。”，这些思想显然也是受到宋朝佛法的影响。此外，十二世纪末期，郑仲夫、崔忠献等武臣之乱，高丽教宗势力受到重大打击，1205年，高丽改吉祥寺为曹溪山修禅寺，高僧知讷以《金刚经》、《六祖坛经》为本创立了曹溪宗，其亦主张“教禅不二”，但与义天主张“教主禅从”不同，而是强调“禅主教从”，在具体修行方面，主张“定慧双修”，从而将“渐悟”和“顿悟”统一起来。此外，受到宋僧大慧普觉禅师的影响，知讷融合儒家的忠义，提出禅宗的“忠义之心”即佛教“菩提心，乃名异而实同。”从而体现出三教融合和诸宗汇通的倾向，此与中国佛教的儒释道三教合一，显然是一致的。

综上所述，宋与高丽海上航路的发展，可以说是中韩历史上海上丝绸之路发展、演变的重要时期，宋丽海上航线先后经过北部山东半岛的登州（今山东蓬莱）沿岸至高丽翁津（今朝鲜海州西南）航线和由南部明州（今浙江宁波）至高丽礼成江碧澜亭（今开城西海岸）航线的变迁，而南方福建的泉州港，亦成为宋代对高丽海上贸易和人文交流的重要口岸。宋丽海上丝绸之路，不仅体现了宋代海上对外贸易的发达，而且也体现了宋丽两国物质贸易的繁盛，宋丽海上丝绸之路，不仅是丝绸、瓷器、茶叶等贸易品和高丽其它土特产品的交流，也承载着两国制度文明、海神信仰和宗教文明等人文和精神文化的交流。

번역문

고려-송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문화 교류

웨이즈장(中山대학)

1. 고려-송 해상 항로의 변천 및 발전
2. 고려-송 해상 무역 및 물질문화 교류
3. 고려-송 해상 인문 및 정신문화 교류

내용요약: 고려와 송나라 간의 해상 항로의 발전은 한중 역사상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 및 변천된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며, 고려와 송나라 간의 해상 항로는 북부 산둥 반도의 등주(현재의 산둥 평라이)에서 고려의 웅진(현재의 북한 해주 서남부)에 이르는 항로에서 점차적으로 송나라의 명주(현재의 저장 닙보)에서 고려의 예성강 벽란정(현재의 개성 서쪽 해안)에 이르는 항로로 옮겨져 왔다. 고려-송의 해상 실크로드는 양국 간의 물질적 교류이 번성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양국 사람들 간의 왕래와 정신문화의 교류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해상 실크로드, 고려-송 해상 항로, 해양 문화 교류

저자 소개: 웨이즈장, 중산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부원장 및 행정책임자 겸임

고려와 송나라 간의 해상 항로가 발전한 때는 한중 역사상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 및 변천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해상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 약칭 MSR)는 비록 지금까지도 중국과 외국의 학계에서 그 개념과 의미에 관해 여전히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중국 동남부 연해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동북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 한반도에 이른 후에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일본의 하카다만, 큐슈 및 서남 제도, 류큐 군도 지역에 이르는 동북아 항로 및 중국 동남 연해에서 서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항로, 즉 인도차이나 반도를 남하한 후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양에 진입해서 홍해에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지중해 해안에 이르는 항로로 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고려-송 해상 항로 및 양국 간의 해양 경제 및 문화의 교류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중 실크로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지금까지 중국과 외국의 학계에서 고려-송 해상 항로 및 경제 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는데, 중국 학계를 대

표하는 학자로는 천가오화[陳高華], 송시[宋晞], 우타이[吳泰], 양웨이성[楊渭生], 왕원추[王文楚], 천옌[陳炎], 치칭푸[祁慶富] 등이 있고¹⁾, 외국 학계를 대표하여 한국에서는 동아대학교의 김양기, 고려대학교의 이진한, 김위현, 윤명철, 강중길 교수 등과 일본의 나이토 슌스케[內藤雋輔], 모리히라 마사히코[參平雅彦] 선생 등이 고려-송 해상 항로 및 해양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하여 연구한 논저를 집필하였다. 본 논문은 학계 선현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고려-송 해상항로와 해양 문화 교류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진일보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는 지적을 바란다.

1. 고려-송 해상 항로의 변천 및 발전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 항로의 변화는 양국의 정치 외교 관계 및 고려, 요, 송 세 국가 간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의 변천 및 발전은 대체로 전반기와 후반기 두 단계로 나뉜다.

전반기(960-1071년)의 고려-송 해상 항로는 주로 등주(登州, 현재의 산둥 평라이)에서 고려 웅진(翁津, 현재의 북한 해주 서남쪽)에 이르는 항로를 이른다. 918년에 태봉의 장군 왕건이 궁예를 살해하고 자립하여 고려 왕조를 세웠고, 이후에 중국의 오대십국 가운데 후당, 후진, 후한 및 후주 정권과 모두 조공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한반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웅진을 이용하여 중국 산둥반도의 등주와 왕래를 함으로써 중국의 중원에 세워진 왕조들과 교류를 유지하였다. 송 왕조가 세워진 후에도 고려와 송 사이의 왕래는 여전히 이 항로를 이용하였는데, 『송사(宋史)』 487권의 『고려전(高麗傳)』에는 “순화 4년(淳化四年, 993년) 정월, 치(治, 고려 성종)이 파견한 사신 백사유(白思柔)가 방물을 바쳤고, 이에 경전과 어제를 하사하였다. 이월, 비서승 및 직사관 진정(陳靖)과 비서승 유식(劉式)을 사자로 하고, 치에게 검교태사(檢校太師)를 더하였으니, 이에 조서를 내려 군사와 기로를 위문하였다. 진정 등은 동모(東牟)에서 팔각해포구(八角海口)로 가 백사유가 탄 배와 고려의 백사공들을 만나 그 배를 타고 지강도(芝岡島)에서 출발하여 순풍을 타고 바다로 나갔으며, 이들 후에 웅진포구(翁津口)에 닿아 상륙하였다. 160리를 가서 고려의 지경인 해주(海州)에 이르렀고, 다시 100리를 가서 염주(閔州)에 이르렀으며, 다시 40리를 가서 백주(白州)에 이르렀고, 다시 40리를 가서 고려(의 도움)에 닿을 수

1) 方豪 『中西交通史』(上海人民出版社, 2008年版), 宋晞 『宋商在宋麗交易中的貢獻』(載 『中韓關係史論文集』, 時事出版社, 1979年版), 陳炎 『海上絲綢之路與中外文化交流』(北京大學出版社, 1996年版), 陳高華、吳泰 『宋元時期的海外貿易』(天津人民出版社, 1981年版), 陳高華、吳泰 『海上絲綢之路』(海洋出版社, 1991年版), 王文楚 『古代交通地理叢考』(中華書局, 1996年版)을 각각 참고하였다.

있었다. 치는 교외에서 사신을 맞이하여, 신하의 예를 다하였다. 진정 등은 70여일을 머무른 후에 돌아왔다. 습의, 금대, 금은기 수백 냥과 포 삼만여 필을 남겨 감사를 표하였다.”²⁾는 기록이 있다. 송 왕조 시기의 등주에 대해 살펴보자면, 군의 명칭은 동모로 현재의 산둥 평라이현[蓬萊縣]이고, 팔각해는 현재의 산둥 푸산현[福山縣] 서북쪽에 위치한 바궤현[八角縣]이며, 지강도는 현재 산둥 옌타이[煙台] 북쪽의 즈푸다오[芝罘島]로 (옛)등주에서 거리는 20리가량 떨어져 있다. 진정 등은 귀국 시에도 이 항로를 이용하였는데, “먼저 이렇듯 유식 등이 명을 따르니, 치가 원증연(元證衍) 등으로 하여금 호송토록 하였는데, 증연이 안향포(安香浦)에 이르렀을 때,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가지고 오던 물건이 바다에 빠져버렸다. 등주에 조서를 내려, 증연에게 문서를 발급하여 환국하도록 하였고 치에게는 옷감 200필, 은기 200량, 양 50마리를 하사하였다.”³⁾ 안향포는 등주에서 10리가량 떨어져 있었고, 비록 등주의 관할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등주에서 문서를 발행하여 통과를 시켰다. 고로 송 천성 연간 이전에는 송나라 사람이 사신으로서 고려로 나가는 경우에 대부분 등주 부근의 팔각해 포구와 같은 곳에서 출항하였는데, 이를 등주에서 관할하였다. 고려 옹진은 현재 북한 해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옹진이고, 염주는 현재 북한의 연안(延安)으로 고려시대에는 염주(鹽州)로 불렸으며, 백주는 현재 북한의 백천(白川)이다. 『송사』에는 “고려로 갈 때에는 모두 등주에서 나가고 들어오는데, (희녕) 7년에 (고려에서) 김량감을 파견하여 거란에서 멀어지길 원하며 명주에서 들고고 나가도록 길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를 수용하였다.”⁴⁾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오대 및 송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등주는 줄곧 고려와 항해하여 오가는 곳이었는데,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이하에서는 『장편(長編)』으로 줄여 부른다)』에는 “대중상부 8년(大中祥符八年, 1015년) 2월 갑술일에 등주의 팔각해 보구에 관서를 설치하여 고려와 여진의 사신을 맞이하라는 영을 내린 바가 있다.”⁵⁾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송 인종 시기에는 “신라와 고려에서 예년에 입조하여 조공할 시에, 배들이 모두 등주의 해안을 통하여 드나들었다.”⁶⁾와 같이 말한 바가 있다. 고려의 왕건이 나라를 세운 때로부터 송 신종 희년 4년(宋神宗熙寧四年, 1071년)에 이르기까지, 이 항로는 고려와 송 사이의 해상교통에 있어 주요 항로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라와 당 왕조의 시기에 진행된 해상 무역과 문화 교류의 주요 통로였으며, 또한 일본의 견수사와 견당사가 오가던 주요 항로였다. 그 외에도 밀주 판교진에서 고려에 이르는 항로는 이러한 항로망의 지선으로, 밀주 판교

2) 元・脫脫：『宋史』卷四百八十七『高麗傳』，中華書局 1977年點校本，14040頁。

3) 元・脫脫：『宋史』卷四百八十七『高麗傳』，中華書局 1977年點校本，14042頁。

4) 元・脫脫：『宋史』卷四百八十七『高麗傳』，中華書局 1977年點校本，14046頁。

5) 李燾：『續資治通鑑長編』卷八十四，大中祥符八年(1015年)二月甲戌，中華書局 2004年版，1918頁。

6) 李燾：『續資治通鑑長編』卷一百五十八，中華書局 1985年版，3829頁。

진(密州 板橋鎮, 현재의 산둥 자오현)에서 출항하여 고려의 옹진 포구에 이른 후에 상륙하게 되는데, 『장편』에는 원봉 6년(1083년)에 내공봉관, 구당용도, 천장, 보문 각인 풍경(馮景)을 들게 하여 고려국신사로 삼고, “강을 건너는 배를 보수하고 가까우며 편리한 해도를 알아보도록 영을 내리니, 등주와 밀주의 해도를 통해 배를 띄우면 고려에 도착하고 명주보다 실질적으로 더 가깝고 편리하다고 하였다⁷⁾”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서경(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황수양(黃水洋)에 대해 말한 바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이 고구려를 친 이후에 명주의 길만이 이곳을 지나는데, 만약 등주나 판교에서 건널 수 있다면 그곳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고로 밀주에서 고려로 통하는 항구는 실질적으로는 판교진이었으나, 원우 3년(元祐三年, 1088년)에 판교진에서 교서현(膠西縣)으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이 항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1020년에 고려와 요, 두 나라의 조공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양국이 전쟁으로 인하여 적대관계에 놓여있었으며, 조공관계도 한동안 중단되었다. 1020년 이후에 고려와 요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1125년 요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와 요의 사절이 빈번하게 왕래하였으며, 고려는 아래와 같은 명의로 요에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예를 들면 계절에 따른 문후[四季問候], 횡선에 대한 감사[謝橫宣], 책봉에 대한 감사[謝冊封], 사은(謝恩), 조공 진상[進貢], 새해 축하[賀正], 즉위 축하[賀即位], 문상[吊祭], 고주(告奏), 고애(告哀) 등이 있다. 반면에 요나라는 조문(吊慰), 고애(告哀), 횡선(橫宣), 책봉(冊封), 생일 축하[賀生辰], 제사(來祭), 조서(來詔), 기복(起復) 등의 명의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이후에 고려와 요의 조공 체제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질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려와 요의 관계가 개선이 됨으로 인하여, 고려가 예전에는 송과의 결맹을 이용하여 거란을 억제하려는 외교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이 시기가 되면서 이러한 외교정책을 중시하지 않게 된다. 1022년(송 천희 5년(宋天禧五年), 고려 현종 13년(高麗顯宗十三年))에 고려에서는 송의 연호인 ‘천희’를 쓰는 것을 중지하는 것과 거란의 연호를 다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고려 현종 21년(송 천성 8년(宋天聖八年), 요 태평 10년(遼太平十年), 1030년)에는 원영(元穎)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금기, 은주, 도검, 마구, 말, 향유, 인삼, 삼베, 유황, 다람쥐 가죽 등⁹⁾’을 바친 후에 송에 대한 조공을 단절하였으며, ‘그 후 중국과는 43년간 왕래하지 않았다¹⁰⁾’. 고로 송 인종 천성(宋仁宗天聖) 연간이 시작

7)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卷三百四十一, 中華書局 1985年版.

8)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三十四, 商務印書館 1937年版, 121頁.

9) 元·脫脫: 『宋史』 卷四百八十七 『高麗傳』, 中華書局 1977年點校本, 14045頁.

10) 元·脫脫: 『宋史』 卷四百八十七 『高麗傳』, 中華書局 1977年點校本, 14045頁.

될 때에는 고려와 송, 양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항로 역시 기본적으로는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1071년(송 희녕 4년(宋熙寧四年))에 송이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재차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고,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후반기(1072~1279년)의 고려-송의 해상 항로는 주로 명주(明州, 현재의 저장 Ningbo)에서 고려의 예성강 벽란정(禮成江 碧瀾亭, 현재의 개성 서쪽 해안)에 이르는 항로를 취하게 된다. 항로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학계에서 이미 여러 번 논한 바가 있으며, 주로 북송의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등주는 “땅이 북쪽의 오랑캐들과 가까워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가까워서 들린다. 북쪽 오랑캐들의 땅에 있는 산과 내에 (그들이) 숨어있는 것이 보이는데, 바람이 한 번 불면 단숨에 성 아래까지 달려들 것 같다.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강한 군사들을 주둔시켜 왔고 수전에 대하여 익혔으며, 낮과 밤으로 봉화를 전달하여 긴급한 상황을 경계하였다.” 고로 송 경력(宋慶歷) 연간에 해금을 시행하는 조서를 내렸으며, 이로써 해양 무역 상인들이 등주, 내주(萊州) 등으로 왕래하는 것과 요나라와의 무역을 금지한 탓에, 등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해로는 점차 방치되었다. 송 희녕 4년(1071년)에 이르러, 고려와 송은 외교관계를 회복하면서 송이 고려로 사신을 보내는 항로를 명주에서 드나들도록 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송사』 487권의 『고려전』에서 말하길, “고려로 갈 때에는 모두 등주에서 나가고 들어오는데, 7년에 (고려에서) 김량감(金良鑾)을 파견하여 거란에서 멀어지길 원하며 명주에서 들어오고 나가도록 길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를 수용하였다.¹¹⁾”라고 하였다. 그리고 송에서 고려로 파견되는 책봉 사신과 고려와 교역하는 송의 상인들 역시 명주에서 드나들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로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송사』 및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에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송나라 사람 서공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이하에서는 『고려도경(高麗圖經)』으로 약칭한다)에서 34~39권의 『해도문(海道門)』에 고려-송의 해상 항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고려-송 해상 항로와 고려의 사회정치, 경제, 문화 및 고려와 송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고려도경』은 중국에서 왕원추, 치칭푸 등의 학자들이 비교적 깊이 고증한 것 외에도, 최근에는 일본 큐슈대학 동양사학과의 모리히라 마사히코 교수가 문헌기록과 현지조사를 결합하여 고려-송 해상 항로에 대하여 고증 및 복원을 진행하였다. 고려-송 항로는 명주에서 출발하여 정해(定海, 현재의 전하이현)에 도달한 후, 호두산(虎頭山, 현재의 전하이현 자오바오산 동북쪽의 후둔산)

11) 元·脫脫: 『宋史』卷四百八十七『高麗傳』, 中華書局 1977年點校本, 14046頁.

을 지나 동쪽으로 항해하여 창국현(昌國縣, 현재의 덩하이현)의 심가문(沈家門) 및 매잠(梅岑)에 이르는데, 이곳은 송대에는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으로 불렸으며 현재의 보타산(普陀山)이다. 이곳에서 바다로 나간 후에는 백수양(白水洋), 황수양(黃水洋), 흑수양(黑水洋)으로 접어드는데, 현재의 저장 연해 및 장강 이북에서 회하(淮河)의 하구까지가 황수양이고, 흑수양은 흑수구(黑水溝)로도 불리며 회하 하구의 동쪽, 산둥반도의 동쪽 및 남쪽을 둘러싸는 바다를 말한다. 그리고 협계산(夾界山)을 지나는데, 이곳은 옛 오서[古五嶼]라 불리면서 ‘중국어와 오랑캐가 이를 경계로 한다[華夷以此爲界限]’고 하였고, 현재의 오서 서남쪽이 소흑산도(小黑山島)로서, 섬의 남쪽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경계선이며, 당시에 고려와 중국의 해상 분계선이었다. 이후에 백산(白山)을 지나게 되는데, 왕원추 선생은 이곳을 현재 대흑산도(大黑山島)의 동남쪽에 있는 교맥도(蕎麥島)로 고정하면서 서공의 『고려도경』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고려도경』에는 ‘먼저 백산을 지나고, 나중에 흑산(黑山)을 지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서공 등이 귀국하면서 ‘먼저 흑산을 지나고, 나중에 백산을 지났다’고 하니 이는 흑산이 북쪽에 있고 백산이 남쪽에 있음을 말한다. 지금의 대흑산도 동남쪽에 교맥도가 있고 공교롭게도 항로가 이곳을 지난다. 『고려도경』의 ‘흑산 하(黑山下)’에서는 ‘흑산은 백산의 동남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항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이며, 혹은 ‘백산은 흑산의 동남에 있다’를 잘못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치칭푸 및 일본 후지타 아키요시[藤田明良]는 모두 (백산이) 흑산도 서북쪽에 있는 홍도(紅島)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의 모리히라 마사히코도 현지 조사 이후에 서공이 기록한 ‘백산’을 현재의 홍도라고 하였다. 홍도는 조선시대에는 홍의도(紅衣島)라고도 불렸고, 흑산도에서 서북쪽으로 18km 떨어져 있는데, 해안선이 치솟은 단애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서공이 말한 ‘연이어 뻗친 것이 마치 성과 같다[連亘如城]’와 딱 들어맞으며, 절벽에 들어난 규암과 사암이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것이 백옥과 같아서 백산이라 불리었다.

왕원추가 비록 『고려도경』에 기록된 흑산 및 백산과 연관된 항로에 대해서는 주의 기울였으나, 서공이 『고려도경』에 기록한 ‘백산’의 형상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데, 서공은 ‘백산’에 대하여 “이날 오후에 동북쪽에 있는 큰 산을 바라보니 연이어 뻗친 것이 마치 성과 같았고, 햇빛(에 반사된) 색이 사방으로 비치니 흰 빛이 마치 옥과 같았다. 미시 이후에 바람이 불어오니, 배가 가는 것이 아주 빨랐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맥도는 둘레가 약 1km 밖에 되지 않는 원추형의 작은 섬으로, 그 모양이 성벽과 같은 형상인 백산도와는 맞지 않으니, 서공을 비롯한 사신 일행이 먼저 백산도를 지난 후에 흑산도에 도달하였다는 기록은 잘못되지 않았고 오히려 왕원추가 오류를 범한 것이며, 사신 일행이 백산에서 흑산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대흑산도가 고려시기에는 해상 실크로드의 남쪽 길에 있어 중심축이

었기 때문에 배들이 왕래하고 쉬어가는 곳이었음을 말한다. 흑산도를 지나면, 군산 열도(群山列島)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여 자연도(紫燕島)에 도달하는데, 이곳은 현재의 한국 경기도 광주 지역에 해당하고 서울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일본의 츠타 소키치[津田左右吉]는 현재의 인천 서부에 있는 영종도라 고증하였는데¹²⁾, 이는 사실과 부합한다. 이후에 급수문(急水門)의 수로에 이르고 예성항(禮成港)에 진입하여, 벽란도에서 상륙한 후에는 육로로 고려의 도성인 개성에 다다르게 된다. 벽란정은 현재의 개성 서쪽에 있는 예성강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선박들이 이곳에 정박하면 (사람들은) 상륙하여 개성으로 향하게 된다. 송 신종 희녕 연간에서 남송에 이르기까지, 고려와 송 사이의 해상 항로는 모두 이 노선을 이용하였으며, 만약에 계절풍이 불어준다면 (송에서 고려까지) 대엿새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의 남로에는 천주항(泉州港)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은 고려와 송 사이의 무역에 있어 중요한 항구였다. 예를 들면 『송사』 331권 『나증전(羅拯傳)』에서는 “나증이 민에 사자로 갔을 때, 천주의 상인(泉商) 황근(黃謹)이 고려로 간다고 하니, 예빈성에 묵었다¹³⁾”라고 말하였다. 소식(蘇軾) 역시 “천주에서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고려로 왕래하며 교역을 하는지 물어보았다.”와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중국의 천가오화 선생은 『고려사』의 기록에서 북송 시기에 천주의 해상 무역상인들이 고려를 오간 사료를 귀납하여 정리한 바가 있는데, 그 수가 19건에 이른다. 그중에서 앞에서 말한 황근(‘신(愼)’의 오기)은 고려와 송이 외교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사신의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면, 고려 문종 22년(송 신종 희녕 원년, 1068년) 7월에는 “송나라 사람 황신(黃愼)이 와서 알현하였는데..... 황신 등을 파견하여 천자의 뜻을 전하였다¹⁴⁾”라는 기록이 있고, 희녕 2년(1069년)에 황신 등이 고려에서 돌아왔는데, 이는 “본조의 상인 황진(黃眞), 홍만(洪萬)이 오니, 칭운사가 밀지를 받들어 (그들이) 통과하기 쉽게 하도록 영을 내렸다..... 지금 공문을 가지고 황진과 홍만이 서쪽으로 돌아왔다.¹⁵⁾”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송 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고려나 일본과 무역을 하는 자는 예의 명주의 시박사가 발행한 공문을 가지고 출항해야 한다”, 즉 “중국에서 고려 및 일본과 무역을 하거나 중국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들은 경원(慶元)에서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경원은 북송의 명주로서, 『고려사』 88권 『지리지(地理志)』의 기록에 따르면 남송 소희 5년(南宋紹熙五年, 1194년)에 명주에서 경원부(慶元府)로 승격되어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건(福建)의 해상 무역상[海商]들이 천주에서 출항하여 고려로 가서 무역을 하는 것은 명백히 송의 명주 시박사(市舶司)

12) [日]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卷二 『關於元代高麗西北境之混亂』

13) 元·脫脫: 『宋史』卷三百三十一 『羅拯傳』, 中華書局 1977年點校本, 10646頁.

14) 鄭麟趾: 『高麗史』 卷八, 『世家·文宗二』.

15) 元·脫脫: 『宋史』 卷四百八十七 『高麗傳』, 中華書局 1977年點校本, 14046頁.

가 관할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소식이 부득불 상소를 올려 “원풍 3년(1080년) 8월 23일 중서찰자와 절문을 올리오니, 광주(廣州)의 시박사를 통하지 않고 남번강(南蕃綱)으로 항해하거나 명주의 시박사를 거치지 않고 고려 및 일본으로 가는 모든 자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천가오화 선생의 통계에 따르면, 『고려사』에서 명주 상인에 대하여 명확히 기록한 것은 세 건에 불과하고, 이는 숫자상으로 천주 상인에 관한 기록 15건에 한참 못 미치는데, 이는 “북건의 교활한 상인들이 배를 모두 차지하고 고려로 와서 이익을 탐하니, 서전(徐戡)과 같은 자들이 매우 많았다¹⁶⁾”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주에서 많은 선박들이 고려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였다¹⁷⁾”라고 하였다. 서전은 천주의 해상 무역상인으로, 소식은 그에 대하여 “먼저 고려에서 금전과 물건을 받아, 항주에서 『협주화엄경(夾注華嚴經)』을 찍는데, 그 비용이 엄청났다. 인쇄가 끝나면 이를 공공연히 배에 실어가서 바치니, 본국에서는 후히 상을 내렸다.¹⁸⁾”고 말하였다. 또 철종 원우 4년(1089년)의 기록은 “서전이 바다에서 고려 승려 의천(義天)의 수하인 시자승 수개(壽介), 계상(繼常), 영류(穎流) 및 완자금보(阮子金寶), 능선(菱善) 등 다섯 사람을 배에 태워 왔고, 또 본국의 예빈성에 가져온 서찰에서 말하길, ‘본국 왕의 뜻을 받들어, 수개를 비롯한 다섯 사람이 의천의 제문을 가져와 항주의 승려 원리의 제를 드릴 것을 명한다¹⁹⁾’”라고 전하고 있다. 소식은 그들을 명주를 통하여 귀국하도록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근자에 명주로 오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천주가) 고려로 가기에 편하기 때문이고²⁰⁾”, “천주에서 많은 선박들이 고려를 왕래하면서 무역하며²¹⁾”, 고로 수개 등을 “천주로 보내서 배에 태워 귀국 시키고²²⁾”자 하였다. 북송 후기에서 남송 시기까지, 비록 명주가 계속해서 조정에서 고려로 가는 사신들이 드나드는 항구의 역할을 하였으나, 민간 해상 무역상들이 천주에서 고려로 가서 무역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천주에서 출항하여 고려의 예성강으로 향하는 항로는, 천주항에서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명주에서 고려로 가는 항로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남송시기에는 대외 무역이 발달하였고, 천주가 북쪽으로는 명주 및 고려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광주 및 광동성 동부(粵東)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남양(南洋)으로 통하는 해상 항로의 중심축이 되어 동남아 및 인도양의 서쪽에서 온 상선이 빈번하게 이곳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명주항과 비교했을 때, 천주는 주로 인도양 및 남양 서쪽의 선박들이 드나

16) 蘇軾: 『東坡奏議』 卷六 『論高麗進奉狀』, 中華書局, 445頁.

17) 蘇軾: 『東坡奏議』 卷六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中華書局, 448頁.

18) 蘇軾: 『東坡奏議』 卷八 『乞禁商旅過外國狀』, 中華書局, 459頁.

19) 蘇軾: 『東坡奏議』 卷六 『論高麗進奉狀』, 中華書局, 445頁.

20) 蘇軾: 『東坡奏議』 卷六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中華書局, 448頁.

21) 蘇軾: 『東坡奏議』 卷六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中華書局, 448頁.

22) 蘇軾: 『東坡奏議』 卷六 『論高麗進奉狀』, 中華書局, 445頁.

들며 정박하는 항구였지, 고려와의 해상 교류에 있어서는 명주의 지위를 대체하지 못하였다.

2. 고려-송 해상 무역 및 물질문화 교류

송대에 대외무역이 발달하면서, 고려와 송 사이의 무역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진행되었고, 조공무역과 민간무역이 고려와 송 양국 간의 해양무역 및 물질문화 교류의 주요한 형태였다.

조공무역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는 고려와 송 양국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무역형태로서, 양국 모두 조공무역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예를 들면, 시박사는 (송에서) 해외 무역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곳으로, 임안부(臨安府, 현재의 항저우), 경원부(명주, 현재의 Ningbo), 광주, 천주 및 밀주의 판교진 등의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또한 감포(澗蒲), 화정(華亭), 온주(溫州) 등의 지역에는 시박장(市舶場) 및 시박무(市舶務)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각국의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과 내왕하는 사람들'을 관리하였다. 그중에서, 남해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과의 해상 무역을 관리하던 곳은 광주와 천주의 시박사이며, 반면에 고려 및 일본과 같은 동북아 지역과의 해상 무역을 관리하던 곳이 명주와 항주의 시박사이다. 그러므로 명주 및 항주의 시박사에서 주로 고려와 송 사이에 진행되던 해상 실크로드 무역을 관리하였다. 시박사에서 맡고 있는 무역관련 사무는 고려의 조공 물품에 대한 검사, 운송, 수납, 교역 및 처리 등이 있었다. 송 초기에는 고려의 조공 물품은 모두 수도(당시의 개봉부)로 바쳐졌다. 그러나 원풍 3년(1080년)에 '시박법(市舶法)'을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조공 물품 중에 상품은 수도로 보내졌지만, 남은 하품은 모두 시박사에서 판매하여 그 내역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고려-송 조공무역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인종 천성 이전에는 등주부(登州府)에서 검시하고 조정으로 보냈고, 희녕 이후에는 등주에서 고려로 통하는 항로가 폐쇄됨에 따라 주로 명주 시박사에서 검시하였는데, 화물의 등급에 근거하여 상품은 수도로 보내고 하품은 매매하여 내역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고려와 송 사이의 조공 무역은 일반적으로 삼사(三司) 및 태부사(太府寺)에서 담당하였다. 원풍 3년(1080년) 이전에는 송이 고려의 조공 물품에 대하여 '회사제(回賜制)'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조공 물품의 가치를 계산하여 상응하는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풍 3년 이후에는 '정액(定額) 회사제'로 '고가(估價) 회사제'를 대체하였는데, 이 해 정월에 송의 신종이 조서를 내려 "고려 국왕의 조공에 대하여 하사할 때마다 매번 많은 손해가 발생하니, 다음부터는 관원들이 공물의 공급과 실물이 상한 것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고려) 국왕의 공물에 대하여 값을 계산하여 하사하지 않고, (공물의) 수량을 정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남송시기에는, 시박사에서 제후국의 조공

물품에 대하여 세를 매기고 매매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이를 고려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즉, 고려-송 조공무역에 대해서는 신종 시기의 옛 제도를 따라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고려에 하사한 것이다.

이밖에, 고려 왕조에서도 여러 제도를 제정하여 왕실의 조공무역을 관리하고, 중국 황제가 하달한 조서를 처리하며, 중국 황제로부터 온 은사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 무역상들을 상대하는 역관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대, 소부사(大, 小府寺)가 책임지는 사무는 중국의 황제가 하사한 물품 및 중국에 조공으로 바쳐질 방물을 수납하고 처리하는 것이었다. 고려가 해상 항로를 통하여 중국에 운반한 조공 물품은 의복, 늦그릇, 접선, 은, 약재, 나전칠기, 낭미필, 인삼, 사향, 잣, 자리, 향유, 숯먹 등이 있었으며, 중국이 해상 항로를 통하여 고려로 보낸 무역품은 주로 도자기, 옥기, 찻잎, 약기, 약재, 침향, 금은기, 문방사우, 안마 등의 물품, 각양각색의 능라견사와 같은 비단, 그리고 고려 국왕에게 하사한 신발과 의대를 비롯한 복식품이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의 교역은 비단 수공예 제품 및 토산품을 주요한 교역 물품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향료와 같이 남양에서 전해진 물품들도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무역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반영한다.

고려와 송의 해상 무역상들이 경영한 민간 무역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신라시대에는 한반도 서남단의 완도에서 일어난 장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무역상들이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무역 집단을 이루었고, 한동안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그렇지만 10세기에서 13세기에는, 송의 해상 무역상들이 중, 소규모의 선단을 꾸려서, 동남 연안에서 북상하여 회하 하구에서 황해로 접어든 뒤에 고려로 향하여 상업 및 무역 활동을 진행하였다. 송의 해상 무역상들은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해역에서 가장 활약하는 무역상들이었으며, 또한 이들이 동아시아 해역의 질서를 일정 정도 주도하였다. 고려에서는 청주, 사점(四店), 충주 및 이빈(利賓) 등지에 역관을 설치하여 송나라 상인들을 접대하는 거점으로 삼았고,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에 도착하면 고려 예빈성(禮賓省)이 안배한 바에 따라 4곳의 역관 중 한 곳에 유숙하였다.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에서 종사한 무역활동은 ‘조공’무역과 민간자유무역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려왕실과 직접 진행한 ‘조공’무역을 가리키며, 『고려사』에서도 관련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책에서는 ‘헌방물(獻方物)’ 등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는 고려 왕실에서 (송나라 상인들이 가져온) 물건을 수령한 뒤에 다시 방물로써 몇 배에 해당하는 양을 송에 상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의 자유무역이다. 송나라 상인들이 무역을 할 때, 당시 고려에는 고정된 시장이 없었으므로, “여러 날 가운데 하루를 잡아, 남녀노소, 관리와 기술자 등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교역하였다²³⁾”. 그리고 고려에는 관세[抽解]를 징수하는 제도가 없었으므로, 송나라의 상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금수품[違禁物品]이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의 감찰어사(監察御使)들이 책임을 지고 송나라 상인들의 선박에 대하여 검시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고려도 송에 대하여 해외 무역을 진행하였는데, 고려의 상인들은 왕실을 우두머리로 삼아 고려의 사신단에 의탁하여 송나라의 상선에 올라 중국과 해상무역을 진행하였고, 명주가 고려 상인들이 송나라에서 무역을 하는 주요 거점이었다. 고려 상인들은 은, 놋그릇, 나전칠기, 자리, 주단, 접선, 고려지, 송연떡, 낭미필 및 인삼, 사향, 잣, 향유, 약재 등의 물품을 가져와서, 주로 중국의 차잎, 자기, 약물, 비단, 향료 및 서적, 옥기, 목제 문구, 불교 용품 등의 물품과 바꾸었다.

3. 고려-송 해상 인문 및 정신문화 교류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는 고려와 송 양국의 물질문명이 교류하는 다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인문 및 정신문화가 소통 및 교류하는 통로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가 인문 및 정신문화 방면의 교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의심할 여지없이 양웨이 선생의 논저를 들 수 있다. 고려와 송 양국의 문학, 예술, 제도, 문화, 서적과 인적 왕래 등의 교류에 관하여, 양웨이 선생의 논저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양웨이 선생의 논술을 기초로 하여,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와 관계있는 해신 신앙 및 서적 그리고 유불도 삼교 문화의 교류에 대하여 진일보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가 개척됨에 따라, 양국의 해안 거주민들은 서로 같은 종교적 해신 신앙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시기의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주로 고려와 송 양국에 모두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관음보살을 숭배하는 등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송의 사신단이 정해현에 도달하였는데, “이 기일에 앞서 중사인 무공대부 용팽년(容彭年)을 보내어 총지원(總持院)에서 7주야 동안 도량을 가졌고, 또 어항을 내려 현인조순연성광덕왕사(顯仁助順淵聖廣德王祠)에 선축하니 신물이 나타났는데 그 형상이 도마뱀 같았다. 이는 실로 동해의 용군인 것이다.²³⁾” 그리고 고려에도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앙이 있었는데, 서긍 등이 고려의 군산도에 도착하였을 때, “가까운 서소산(西小山) 위에 오룡사(五龍祠)와 자복사(資福寺)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합굴(蛤窟)에 도달하여 정박할 때, “그 산은 비록 높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많이

2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 商務印書館 1937年版, 10頁.

2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三十四, 商務印書館 1937年版, 118頁.

거주하였고, 산등성이에는 용사(龍祠)가 있어 뱃사람들이 왕래할 때마다 그곳에서 치성을 드렸다.” 합골은 급수문의 서쪽인 갑곶(甲串)이고, 그 땅은 강화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현재는 용진군에 속한다. 그리고 그 제사는 용왕이 있는 곳에 드러졌을 것이다. 용왕은 비와 바람, 그리고 바다의 큰 파도를 다스리므로,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항해 시에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빌기 위함이었다. 또한, 서공이 보타산에서 출항하기 전에 역시 관음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26일(무인)에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 사자가 삼절의 인원을 거느리고 작은 배로 상륙하여 매잡으로 들어갔다. 전부터 이르기를, 매자진(梅子眞)이 은거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신발 자국과 표주박 흔적이 돌다리 위에 있다. 그곳 깊은 산기슭 속에는 소량이 세운 보타이 있고 그 절에는 영감 관음(靈感觀音)이 있다……. 구제로는 사자는 여기서 기도를 드린다. 이날 밤 승도들은 분향 송경하고 범패를 하는 것이 심히 엄숙하였고, 삼절의 관리와 병졸도 다들 경건하게 예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항해 전에, 송의 관민은 반드시 관음보살에게 항해 시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고, 바다에서 관음에게 제사하는 것은 고려의 해안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으며, 서공은 고려-송 항로의 보살점(菩薩占)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려인들이 바다에서 명명한 도서로, “이날 오시 후에 보살점을 지나갔다. 고려인들이 말하기를, 그 위에서 기적이 나타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와 송 양국은 관민이 왕래를 하면서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관음보살을 숭배하는 공통된 해상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고려-송 해상 실크로드의 인문 교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다음으로, 고려와 송이 해상 실크로드를 왕래하면서 양국의 인문 서적의 교류가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고려의 사신이 바다를 통해 중국으로 와서 대량의 책을 찾고 구매하였는데, 예를 들면 송 태종 단공 2년(宋太宗端拱二年, 989년)에 고려에 『대장경(大藏經)』 한 부를 하사하였고, 태종 순화 원년(太宗淳化元年, 990년)에 또한 고려의 사절에게 『밀장전(密藏詮)』, 『소요영(逍遙詠)』 및 『연화심륜(蓮花心輪)』 등의 불경을 하사하였다. 순화 4년(993년)에는 고려의 요청에 응하여 유가의 『구경(九經)』을 고려에 하사하였다. 송 진종 대중상부 9년(宋眞宗大中祥符九年, 1016년)에는, 고려의 사신 곽원이 하직 인사를 왔을 때, 진종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경』, 『사기(史記)』, 『양한서(兩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및 『성혜방(聖惠方)』, 제자(백가), 일력, 어제시, 『국조등과기(國朝登科記)』 등을 하사하였다. 송 철종 원우 원년(宋哲宗元祐元年, 1086년)에는, 고려의 사신이 철종의 즉위를 축하하러 왔을 때, 철종이 요청에 응하여 『문원영화(文苑英華)』 한 부를 하사하였다. 철종 원부 2년(哲宗元符二年, 1099년)에는 고려의 진봉사 윤근 등이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의 서적을 하사해줄 것을 청하였고, 이에 철종이 조서를 내려

“(고려의 사신이) 청한 『태평어람』 및 『신의보구방(神醫普救方)』은 교정 중에 있으니, 이후에 사신이 곁에 들었을 때 하사하겠노라”고 하였다. 송 휘종 건중정국 원년(宋徽宗建中靖國元年, 1101년)에는, 고려의 사신 왕하(王蝦), 오연총(吳延寵)이 귀국할 때, 송 휘종이 고려 국왕에게 『태평어람』 천 권을 하사하였다. 송의 조정에서 책을 하사한 것 외에도, 고려의 사절들에게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송 신종 희녕 7년(宋神宗熙寧七年, 1074년)에는 국자감에 조서를 내려, 『구경』을 비롯한 경사자집(經史子集)과 관련한 여러 책들을 고려의 사절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신종 원풍 8년(神宗元豐八年, 1085년)에는 고려의 사신들이 『대장경』과 『화엄경(華嚴經)』을 각각 한 부씩 구입하기를 원하니, 조서를 내려 응하였다. 송 철종 원우 7년(宋哲宗元祐七年, 1092년)에는, 철종이 소식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려의 사신들이 『책부원귀(冊府元龜)』를 구입하여 귀국하는 것을 윤택하였다. 고려와 송의 서적 교류는 또한 고려에서 온 많은 승려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송조의 상인들이 송에서 서적을 구입하여 고려 국왕에게 바치는 형국을 보이기도 하였다. 송 태종 태평흥국 8년(宋太宗太平興國八年, 983년)에는, 고려의 박사 임로성(任老成)이 송에서 『대묘당도(大廟堂圖)』 한 폭 및 기록 한 권, 『사직당도(社稷堂圖)』 한 폭 및 기록 한 권, 『문선왕묘도(文宣王廟圖)』 한 폭, 『제기도(祭器圖)』 한 권, 『칠십이현찬기(七十二賢贊記)』 한 권을 구입하였으며, 이는 고려에서 묘당을 조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이외에도, 송의 상인 이문통(李文通)이 송 인종 천성 5년(宋仁宗天聖五年, 1027년)에 고려로 갔을 때 도서 579권을 헌상하였고, 철종 원우 2년(哲宗元祐二年, 1087년)에는 천주의 상인 서전을 비롯한 28인이 고려에 『신주화엄경(新注華嚴經)』을 헌상하였으며, 송 광종 소희 3년(宋光宗紹熙三年, 1192년)에는 송나라 상인이 『태평어람』을 헌상하였기에 고려에서 백금 60근을 상으로 내렸다.

유가 경전 및 『사기』, 『한서』, 『삼국지』 등의 사서가 대량으로 고려로 유입됨에 따라, 고려에서도 많은 책들이 송으로 전해졌는데, 예를 들면 고려 선종 8년(1091년)에 송 철종이 고려에도 좋은 책이 있음을 듣고, 특명을 내려 그 목록을 고려의 사신 이자익(李資義)에게 전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써서 가지고 오라²⁵⁾”고 분부하여, 다음해(1092년)에 고려의 사신들이 『황제침경(黃帝針經)』을 송 철종에게 헌상하였다. 이외에도 원본이 송나라에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던 『설원(說苑)』은 고려에서 헌상한 후에 비로소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었고, 이미 실전되었던 『주역점(周易占)』, 『황제침경』 등의 고서는 고려를 통하여 다시 송에 유입이 되었다. 이는 양국이 서적을 매개체로 하여 인문 문화 교류를 강화한 것을 보여준다.

25) 鄭麟趾: 『高麗史』 卷一〇, 『宣宗世家』, 朝鮮古書刊行會本.

셋째, 고려와 송 양국의 불교문화의 교류는 고려와 송의 해상 문화 교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이는 주로 양국의 『대장경』과 관련한 교류, 승려의 왕래와 중국의 과거제도 및 유불도 삼교의 교의가 고려의 영향을 주는 것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중에서도 『대장경』 등의 불교 서적을 서로 증정하고 교류한 것이 영향이 비교적 컸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도 기술한 서전이 “먼저 고려에서 금전과 물건을 받아, 항주에서 『협주화엄경』을 찍는데, 그 비용이 엄청났다. 인쇄가 끝나면 이를 공공연히 배에 실어가서 바치니, 본국에서는 후히 상을 내렸다.²⁶⁾” 그리고 고승들의 인문적 왕래는 주로 고려의 승려 체관(諦觀), 의통(義通) 그리고 고려의 왕자 의천(義天)이 송으로 방문하여 교류하였고, 그중에서 체관과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부흥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천태종(天台宗)과 관련한 서적이 돌아오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승려 의통은 훗날 천태종의 제십육조로 존경을 받았다. 고려의 왕자 의천은 송 철종 시기에 중국으로 와서 명산고찰을 둘러보았고, 송 철종을 접견하였으며, 그가 가져온 대량의 화엄종 서적을 통해 중국 화엄종 서적의 부족한 점이 보충되었다. 그리고 그는 항주 혜은사(慧恩寺)의 정원 법사(淨源法師)를 스승으로 섬겨 화엄종의 교리를 익혔고, 화엄종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의천은 천축사(天竺寺)의 종간 법사(從諫法師)에게 천태교관(天台教觀)의 도에 대한 강해를 청하였고, 귀국 시에 불교 서적 및 유가 경서 천여 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후에 고려에서 천태종과 화엄종(華嚴宗)을 발양시키면서 ‘교관겸수(教觀兼修)’를 제창하였고, 고려의 국청사(國淸寺)에서 주지를 맡았으며, 고려의 천태종을 창립하여 종간을 시조로 삼았다. 고려와 송 양국의 고승들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하여 진행한 문화 교류는 양국의 인문 문화 교류의 의미를 매우 풍부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의 사람과 문화가 왕래하고 과거제도가 고려에 전해짐에 따라, 고려는 과거를 통하여 관리를 뽑는 것 외에도 승려들의 과거시험 제도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승과제도라 칭하였다. 승과는 예비 시험과 정식 시험으로 구분하였는데, 예비 시험은 주로 각 산문과 종파의 내부에서 시행하였고, 예비 시험에 합격한 승려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식 대선에 참가하였다. 정식 시험은 선종선(禪宗選)와 교종선(教宗選)으로 구분하였는데, 선종 대선은 일반적으로 광명사의 선종 승려들이 진행하였으나, 반면에 교종 대선은 왕륜사의 교종 승려들이 진행하였다. 만약 선종 및 교종 대선에 합격하면, 초급 법계인 대선이 수여되고 아래의 법계에 따라 승급하였다. 선종 법계는 ‘대선(大選)-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이며, 교종 법계는 ‘대선(大選)-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이다. 그

26) 『東坡奏議』 卷六. 『續通鑑長編』 卷四三五에서 蘇軾의 奏議를 인용하였다.

리고 고려시대의 승직은 주로 승록사(僧錄司)에서 관장하였고, 승록사에는 좌우 양가가 있었으며, 양가에는 모두 승록(僧錄)이 있었고 밑에는 부승록(副僧錄), 승정(僧正)을 두었다. 승록이 모든 불교 활동을 관장하였는데, 그 기원에는 명백히 송의 과거제도가 영향을 끼쳤다.

송의 유불도 삼교가 고려에 유입되고 고려와 송 양국의 불교문화가 교류됨에 따라, 중국의 유불도 사상이 고려의 불학 사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주로 고려의 유불교 삼교가 하나로 합쳐지고 천태종이 창립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고려의 태조는 불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으나, 불교 내부에서 종파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남악(南嶽)과 북악(北嶽)의 양대 종파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로 서로 공격하였다. 불교 내부에서 문호간의 분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송에서 귀국한 의천 대사(義天大師)는 ‘교선합일(敎禪合一)’ 및 ‘교관겸수’를 주장하였고, “불교에는 교와 선의 두 법이 있으나 양측이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교법은 외적인 수행을 중시하나 내심을 들여다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반면에, 선법에서는 내심의 작용을 강조하나 외적인 수련을 무시한다. 그러므로 교법을 배우는 자는 대부분 안을 버리고 밖을 구하며, 선법을 배우는 자는 인연을 끊고 내면의 빛을 보려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정제되기 마련이니, 그들의 다툼은 토끼에 난 뿔의 길이를 재는 것이요, 머리가 빈 꽃의 질고 열음을 재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이에 의천은 ‘교선겸수(敎禪兼修)’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종과 선종의 관계에 있어, 의천은 교종이 선종을 융합하고 거느릴 것을 주장하였고, ‘불립문자, 이신전심(不立文字, 以心傳心)’으로 대표되는 선법에 불만을 가지면서, 선종의 본의가 ‘적교습선(籍敎習禪)’이며 ‘이교습선(離敎習禪)’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사실상, 의천의 ‘교관겸수’ 사상은 독자적으로 창립한 것이 아니라 중국 화엄종의 고승인 규봉(圭峰), 진수(晉水) 및 청량 대사(淸涼大師)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화엄종에서는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하였는데, 특히 청량 대사는 화엄종의 ‘법계록기(法界緣起)’과 천태종의 ‘삼체원융설(三諦圓融說)’은 서로 들어맞으며 화엄종이 경전의 의미에 의거하여 깨달음을 얻고 법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는 것과 선종에서 ‘불립문자, 이신전심’을 깨닫는 과정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화엄종과 선종이 서로 통한다고 하였다. 의천 대사는 상술한 진수(晉水, 정원 대사(淨源大師))와 서로 왕래하면서 불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화엄종의 경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였다. 유불도의 관계에 있어, 의천은 삼교의 합일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특히 송의 원유입불(援儒入佛) 사상을 적극적으로 발양하였다. 그는 “불법을 얻으면 오시에 이르고 유가의 법은 육적과 통하여, 크고 작음을 포괄하며 귀함과 비천함을 꿰뚫어 보니, 비록 가르침은 다르나 효를 숭상함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니, 이러한 사상은 명백히 송의 불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12세기 말기에 정중부 및 최충헌 등이 무

신의 난을 일으켰을 때, 고려 교종의 세력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1205년에 고려는 길상사를 조계산의 수선사로 바꾸었으며, 고승 지눌(知訥)은 『대장경』 및 『육조단경(六祖壇經)』을 기본으로 하여 조계종을 세웠고 또한 ‘교선불이(敎禪不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천이 ‘교주선종(敎主禪從)’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선주교종(禪主教從)’을 강조하였고, 구체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으므로 ‘점오(漸悟)’와 ‘돈오(頓悟)’를 합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지눌은 송의 대혜보각 선사(大慧普覺禪師)의 영향을 받아 유가의 충의를 융합하고자 하였는데, 선종의 ‘충의지심(忠義之心)’은 ‘보살심과 이름은 다르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삼교가 융합되고 각 종파가 통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중국 불교에서 유불도 삼교가 합일되는 것과 명백히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자면, 고려-송 해상 항로의 발전은 한중 역사상의 해상 실�크로드가 발전하고 변천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려-송의 해상 항로는 북부인 산둥반도의 등주(현재의 산둥 평라이) 연안에서 고려 용진(현재의 북한 해주 서남)에 이르는 항로에서 남부의 명주(현재의 저장 Ningbo)에서 고려의 예성강 벽란정(현재의 개성 서쪽 해안)에 이르는 항로로 옮겨갔고, 남방인 복건의 천주항 역시 송의 대고려 해상 무역 및 인문 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구였다. 고려-송의 해상 실�크로드는 송대의 해상 대외 무역이 구체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려-송 양국의 물질 무역이 번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송의 해상 실�크로드는 비단, 자기, 차잎 등의 무역품과 고려의 기타 토산품을 교역하는 것만 아니라, 양국의 제도 문명, 해신 신앙 및 종교 문명 등의 인문 및 정신문화의 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발표문

高麗前期 宋商往來와 東北亞 地域 交易網

李鎮漢(高麗大)

1. 머리말
2. 고려전기 중국과의 외교와 송상왕래
3. 고려 주변국의 來獻과 동북아 교역망의 형성
4. 마치며 —송상왕래 및 교역망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1. 머리말

고려초에는 고려의 海商들이 산동반도 지역에 가서 무역을 하였고, 중국 해상들도 고려를 찾아와 서남해 지역에서 무역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해상들이 부를 쌓고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중국에 가서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신을 태우고 가는 편에 한정하여 무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고려의 해상무역은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에 성종은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자 송상들이 고려에 와서 무역하는 것을 막지 않아서 목종, 현종대를 거치면서 송상들의 왕래는 증가하였으며, 한 해에도 여러 척의배가 왔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은 배가 정박하는 예성항이나 고려가 제공한 개경의 객관에서 언제나 무역할 수 있었다. 송상과 더불어 고려 주변국의 사람들이 고려를 찾아왔다. 여진을 비롯한 黑水靺鞨과 鐵利國 등의 추장과 사신들은 고려에 와서 국왕에게 헌상하고 회사품과 함께 鄉職과 武散階를 하사받고 돌아갔다.¹⁾ 고려는 그들에게 고려의 位階를 주어 고려적 질서체계 내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해주고, 회사품을 통해 경제적 욕구를 해결해줌으로써 변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여진의 추장들은 고려의 위계를 제수받아 자신의 세력 범위 또는 주변 민족에게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고, 고려와의 조공회사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 한편 고려에 왔던 일본인들도 여진과 비슷하게 헌상을 하고 회사를 받았으나, 상인적인 속성이 강해서 고려적 위

1) '1018년에 동여진과 서여진의 추장 鹽之渠·伊那·徐乙那 등 50명이 와서 말과 갑옷 및 병장기를 바쳤으므로 모두 의복과 물품을 내려주었다(『高麗史』 권4 「世家」 현종 9년 동 10월辛亥)'고 하였으며, 여진 계통의 철리국 등도 현종대와 덕종대에 고려를 찾아와 헌상하였다(『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3년 8월 갑인).

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변국의 고려 내헌이 송상의 왕래와 연관 되었다는 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고려에 송상과 주변국 사람들이 자주 와서 머물렀다면, 그들간에 조우하여 무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진이나 일본 사람들이 고려에 와서 헌상을 하고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팔관회 때는 송상과 여진·일본인들이 의례에 참가하므로 동시에 개경에 체류하였을 것이며, 그 밖에도 사실상 개경과 예성항에 상주하는 송상들이 외국의 사신들이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송상과 여진·일본인들은 제3국인 고려에서 무역하면서, 고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교역망이 형성되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여진인들은 10세기 이후 거란의 방해로 송에 직접 가서 외교와 무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일본 상인들은 항해술과 조선술이 부족하여 송에 가지 못하고 방문하는 송상에 의존하는 무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진과 일본인들에게 고려는 헌상과 회사의 이익 뿐 아니라 고려의 물산도 구득하고 송상과의 무역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던 것 같다. 고려전기에는 동북아시아 국가와 민족이 송상의 고려 무역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제적 행사가 팔관회였음을 서술할 것이다.

2. 고려전기 중국과의 외교와 송상왕래

1) 나말여초 중국과의 외교와 해상교류

9세기 중엽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고 삼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나 그의 사후 한중 간의 해상무역은 특별한 주도세력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서남해 지역에 있었던 후백제는 해상교통으로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원 왕조는 물론 오월 및 거란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활발히 외교를 펼쳤다. 신라는 서남해를 장악한 후백제 때문에 중국과의 통교가 쉽지 않았지만, 중국 왕조와 외교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고, 진주 지역의 호족인 王逢規는 독자적으로 외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태봉은 지금의 경기도 및 황해도 서해안 지역과 전남 서남해안을 차지하여 중국 화북 지역에 가기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철원에 수도를 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국가적으로 대중국 외교는 후백제에 비해 열세였다. 그런데 궁예정권은 해상무역이나 수로 교통에 관심이 적었던데 반해 서해 지역의 호족들은 활발하게 중국과의 사무역을 하였다.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은 호족으로서 마침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중국과의 외

교와 무역에 적극적이었다. 후삼국이 경쟁하는 시기에는 거란이 고려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었으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²⁾ 그러나 고려는 통일 이후 거란보다는 바다 건너 중원의 왕조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후당에 이어 후평이 건국되자 매우 빠른 시기에 고려는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다. 거란의 정치적 간섭을 받던 후진은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에 책봉 사절을 보냈으며 많은 회사품을 주었다. 942년에 거란이 고려에 사신과 함께 낙타를 보내온 것은 우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으나 태조는 거란 사신을 유배하고 낙타를 만부교에 묶어 굶어죽이는 초강경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거란과의 긴장관계를 통해 후삼국 통일 이후 호족들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무마하고 중앙집권화를 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또한 중국의 해상들이 고려에 왔고,³⁾ 고려의 해상들이 산동반도 지역으로 건너가 후진의 등주 등에서 무역하고 있었으며, 후진과의 외교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해상무역에 더욱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후진은 태조가 흥하고 혜종이 즉위하자 즉시 사신을 보내 책봉하고 엄청난 분량의 하사품을 고려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외교정세가 바뀌면서 고려에서 서북해안을 거쳐 발해만을 가로질러 중국에 가는 항로는 거란의 위협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황해도 서북해안에서 산동반도로 향하는 항로는 여전히 고려와 중원왕조의 외교 및 무역을 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때 오월 및 남당을 비롯한 십국 왕조와의 해상왕래는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 악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었다. 오히려 후백제가 없어져서 예성항에서 서남해를 경유하여 장강지역에 가는 항로는 매우 안전해졌다. 따라서 938년 오월국에 갔던 張訓이 돌아와 吳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정조·광평시랑 柳勳律이 南唐에 조공을 바쳤으며, 940년에는 광평시랑 柳兢質이 방물을 바쳤다. 고려는 통일 이후에도 중원왕조와 더불어 장강 이남의 여러 왕조에 대한 외교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해상들이 지속적으로 왕래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사료상 이 항로는 고려 해상들보다 吳越 등의 중국 해상들이 더 자주 왕래했던 것 같다. 고려가 북선향로를 이용하여 중원왕조의 외교 및 무역을 주도하였고, 오월 등의 해상들은 남선향로에서 더 크게 활약하였던 것이다.

2) * 거란족은 916년에 거란국을 세운 뒤, 요-대요-대거란-대요의 순으로 국호를 변경하였다. 이처럼 시기에 따라 국호가 달랐으나 고려초와 거란과의 전쟁시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거란'으로 서술할 것이다.

** 본고는 자료의 인용 전거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대한 각주는 달지 않고 <참고문헌>에 일괄적으로 기록하였다. 쪽수를 생략한 점에 대해 선학에게 양해를 구한다.

3) 왕건의 즉위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高麗世系』에는 貞明 4년(918) 3월에 唐商客 王昌瑾이 산 거울에 왕건이 장차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문자가 적혔다는 소위 '古鏡識'을 통해서 태봉에 중국 상인이 있었음이 확인된다(『高麗史』 권1, 「世家」太祖世系). 고려 건국 이후에도 중국 상인의 왕래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938년에 서인도의 승려 洪梵大師가 와서 개경의 舍那寺에 머물며 圓空國師 智宗 등을 육성하다가 바다를 건너 돌아갔다는 기록은 해상의 배가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보다 앞선 937년에 태조가 일본에 첩을 보내 교섭을 시도하였으며 일본이 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는데, 외교 문서가 전달되는 것은 한일 간의 해상왕래와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 송 건국 이후 고려의 대중국외교와 ‘海禁’

광종은 後周와의 밀접한 외교를 지속하면서 雙冀 등 후주 투화인들을 중용하여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후주에 이어 송이 건국되자 광종은 중원 왕조 중시 정책을 계속하여 곧바로 사신을 보냈고, 송은 고려에 책봉 사절을 보냈다. 이처럼 신속하게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것은 광종이 송 황제의 책봉이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대에는 송이 고려와 연합하여 거란을 협공한다는 전략적 방침에 따라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고려 국왕의 책봉 호칭을 더해주었다. 보통 책봉은 새로운 왕이 즉위한 이후에 한번 행해지는 것인데, 송이 고려의 성종에게 특별한 호의와 혜택을 베푼 것은 그 만큼 고려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뜻이다. 고려는 그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 송과의 외교를 통해 많은 회사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유교화에 필요한 귀중한 서적과 자료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편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성종은 그 이전에 장보고나 왕건이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에 최승로는 해상들이 개별적으로 서해를 건너 중국에 가서 무역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 우리 태조는 뜻(情)을 사대하는데 오로지 하였음에도 오히려 몇 해에 한 번 行李를 보내 報聘의 예를 닦았을 뿐입니다. 지금은 비단 交聘의 사절과 무역으로 인한 使价가 많으니 중국에서 천하게 여기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왕래 때문에 배가 부서져 죽는 자가 많습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교빙의 사절에게 무역을 겸하여 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 제 때가 아닌 매매[非時賣買]는 하나같이 모두 금하십시오.(『고려사』 권93, 최승로전).

A1에 의하면 고려의 정식 사절이 중국에 갈 때에 한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소위 ‘겸행무역’만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일종의 고려인에 대한 ‘해금정책’이었던 셈인데, 이 건의가 받아들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崔承老의 시무책이 대부분 성종에 의해서 수용되었다는 점과 성종대 이후 고려 해상의 활동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에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중국의 상인들이 고려에 오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서 송상의 왕래는 지속되었다.

성종은 거란이 군사력으로 송을 압도하며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잘 알고서도 태조의 유훈에 따라 거란을 멀리하고 친송외교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가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실리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동북아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란을 멀리했던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마침내 거란은 고려와 송이 연합하여 자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993년에 고려를 침입하였다. 거란의 침입을 예상하지 못한 고려의 국왕과 신료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결국 서희의 주장에 따라 거란과의 협상에 나섰고, 고려는 거란에 사대하는 조건으로 압록강 이남의 강동6주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성종을 이어 즉위한 목종과 현종도 송과의 외교를 중단하지 않았다. 거란에 사대외교를 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송에 사신을 파견하는 이종 외교를 하였고, 그것은 거란이 다시 1010년에 고려를 대규모 공격을 단행하는 빌미가 되었다.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한 고려는 거란의 3차 침입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1018년 거란이 침입하자, 강감찬 등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귀주 등지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으며, 거란은 막대한 병력과 군마의 손실을 입고 서둘러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전쟁은 거란의 건국 이후 치른 대외전쟁에서 가장 큰 참패의 하나였다고 할 만큼 고려의 승리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거란과의 적대적 관계가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고려는 거란과의 사대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송과의 이종외교도 중단했으나 송상의 왕래는 계속되었다.

3) 송상의 고려 왕래

전근대 무역의 기본 원칙은 외교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고려와 송의 외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송상이 고려를 왕래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 고려가 송과의 외교를 통해 선진문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송상을 또다른 유입통로로 삼은 것이다. 송은 고려가 자신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거란의 책봉을 받고 사대관계를 유지해나가자, 고려를 적대국으로 여겨 <慶歷編勅>과 <嘉祐編勅>을 내려서 해상이 거란의 책봉국인 고려에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였기 때문이다. 송은 거란에 사대하는 고려를 적대국처럼 대우하면서도 장차 거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교류는 열어두었던 것이다.

거란과 송과의 이종외교를 포기하고 거란과의 사대만을 하기로 결정한 현종 이후 덕종과 정종, 문종 등의 여러 국왕들의 입장에서 송상이 고려를 왕래하는 것 자체만으로 책봉국인 거란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송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얻을 수 없게 되자, 선진문물을 구하기 위해서 고려 국왕들은 계속 송상이 왕래하도록 허용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은 다음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B1. 왕이 耽羅와 靈岩의 木材를 벌채하여 큰 배를 만들어 송과 통하려 하니, 內史 門下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北朝-거란-와 修好한 뒤로는 국경에 급한 변이 없고, 백성이 생활을 편안히 즐기니, 이것으로써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上策입니다. 지난 庚戌年-1010-에 거란이 우리를 힐책한 글에 ‘동으로 여진과 結託하고 서쪽으로 송과 왕래하니, 이것은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였고, 또 尙書 柳 參이 사신으로 갔을 때에 東京留守가 南朝-송-와 사신 왕래한 일을 물으면서 의심하였는데 이 (송과 통교하려는)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입니다. (중략: 재목 벌채로 인한 폐해 언급). 하물며 우리 나라에는 文物·禮樂이 행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商舶이 연이어 내왕하여서 값진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므로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거란과 영구히 絶交하지 않을 것이 라면 송과 통교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좇았다(『高麗史節要』 권5, 문종 12년 8월).

B1에서는 1058년에 문종이 큰 배를 만들어 송과의 외교를 재개하려 하자, 내사 문하성이 반대한 근거를 보면, ‘우리 나라에는 文物·禮樂이 행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商舶이 연이어 내왕하여서 값진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므로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송상을 통해 송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대송통교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문종이 내사문하성의 건의를 존중해서 자신의 의지를 철회하였다. 그런데, 1060년대 들어서 거란의 내분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1068년에 송 신종이 즉위한 뒤 고려와 연합하여 거란을 제압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해상을 통해 고려에 통교를 제의하였다. 고려도 그 제안을 수용하여, 1071년에 고려의 사신이 송에 가면서 외교가 재개되었다.

고려가 대송통교를 시작한 이후에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약간의 국경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란은 문종 말년까지 생신 사절을 그대로 보내는 등 양국의 통교를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책봉국이 감히 다른 나라와 외교를 열었는데도, 거란과 고려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고려가 송과의 외교를 진행하면서 책봉을 요청하지 않고 표문에서 송의 연호 없이 干支만을 사용하는 등 고려가 사대하던 거란과의 관계를 더욱 존중하는 입장을 지속했던 데서 기인한다. 고려가 국방체제 정비를 통해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서, 거란의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사실 문종은 송과의 사신 왕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했다. 그 이유는 현종말까지 거란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송에 사신을 보내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선왕들의 실리 외교를 재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종은 송에 사신을 보낼 때, 進奉과 謝恩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공물을 보낸 뒤, 그 대가로 많은 회사품을 받아왔다. 1080년에 송에 가던 고려 사신의 배가 난파된 뒤로 고려는 가져간 공물의 가치에 관계없이 浙江 지역의 絹 1만필을 받는 특별한 우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송의 사신이 고려에 가져온 귀중한 하사품은 그대로 고려의 이익이 되었으니, 문종의 대송통교의 목적은 선진문물의 도입과 조공무역의 이익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와 더불어 문종의 대송통교로 인해 송상의 왕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고려와 송이 외교를 재개하는데, 송상의 공로가 매우 컸다. 송상 황신이 천주 해상 출신 나증의 지시를 받아 두차례나 양국을 왕래하며 송 신종의 통교 의사를 문종에게 전하고, 문종의 동의를 받아 송에 전달하였다. 대송통교 이후 고려의 사신단은 송상 배를 타고 송을 왕래하며 외교를 하였으며, 송의 사신 역시 고려에 가면서 송상의 도움을 받았다. 송 신종은 고려와의 외교가 재개되면서 황제의 권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장차 외교와 군사적으로 고려와 거란을 협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송상의 공로에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고려를 왕래하는 해상에 대한 형식적인 규제조차 철폐하고 대신 그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추되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기록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C1. 元豐 2년 정월에 明州에서 고려를 오가는 상인으로 財本 5천緡 이상에 이르는 자를 括索하여 明州에 姓名을 籍하며 保識한다. 해마다 배 두 척을 보내 交易을 하되 禁物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고 그 다음해에 돌아오게 하며, 허가없이 출발한 배는 盜販法에 의거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私적으로 고려에 가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그치지 않았는데 고려가 중국과 더불어 다시 통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을 세웠다(『續資治通監長編』 권296 신종 원풍 2년 춘정월 병자).

C1의 조치는 1079년에 財本 5천緡 이상에 이르는 자가 명주에 신고하고 고려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지된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고 고려에 갈 수 있다는 규정이며, 그 이전에 나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던 것에 비해 큰 변화이다. 이후 고려에는 적어도 연 2척 이상의 배가 갈 수 있었다고 하므로, 송상의 배가 정박하는 예성항과 송상이 머무는 개경의 객관에는 송상이 상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고려 주변국의 來獻과 동북아 교역망의 형성

1) 여진과 일본의 고려 내헌

여진은 고려 건국 초부터 찾아왔다. 여진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고려에 오는 곳을 기준으로 동여진·서여진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압록강 유역을 경유하여 서북계 지역으로 오면 서여진, 함경도 원산만 부근의 동계 지역으로 오면 동여진이라고 불렸다. 그밖에 黑水靺鞨·鐵利國 등 여진 계통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내헌의 형식은 거의 유사하였다. 이들은 고려에 와서 국왕에게 方物 또는 土物로 기록된 여진의 특산물을 바치고 소정의 회사품을 받았으며, 『고려사』에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관례에 따라 물품을 하사하였다’[賜例物]고⁴⁾ 기록하였다. 그와 더불어 여진의 추장과 사신에게 고려적 질서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난 무산계와 향직을 주었으며, 이것은 여진인들이 본토로 돌아가 주변 부족들에 대해 자신의 위세를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고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주변국이나 遠邦의 상인들이 황제에게 방물을 바쳤을 때 夷狄들이 황제의 덕을 흠모하여 먼 곳을 찾아와 入朝한 것에 대한 대가로 헌상한 물품의 가치를 헤아려 回賜品을 준 것에서 유래하였다. 고려도 중국에 사대하러 다녔지만, 자신들을 찾아온 여진에게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다음의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D1. (定宗 3년 추9월) 동여진의 大匡 蘇無蓋 등이 와서 말 700필과 방물을 바치거늘 왕이 天德殿에 행차하고 말을 검열하여 3등급으로 나누고 그 값을 평가하여 정하였다. 1등급은 銀注子 하나와 錦·絹 각 1필, 2등급은 銀鉢 하나와 금·견 각 1필, 3등급은 금·견 각 1필로 하였다. 갑자기 우레와 함께 비가 내려 물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벼락이 치고 궁궐의 서쪽 모퉁이에도 벼락이 쳐서 왕이 크게 놀랐으므로 근신들이 부축하여 重光殿에 들게 하였다. 드디어 병환이 나니 사면령을 내렸다(『高麗史』 권2, 「世家」 定宗 3년 추9월).

D1에서는 948년 9월에 동여진에서 말을 바치자 정종이 하나하나 검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1등급에서 3등급에 이르기까지 값을 치러주었다. 이 기사에서 여진이 가져온 말이 모두 700필이므로 모두 3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최소한 錦·絹 700필은 받았을 것이며, 내용상 1·2 등급도 있었을 것이므로 은주전자·은사발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700필의 말에 방물을 싣고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때 받은 회사품은 그 이상이였다고 여겨진다. 명마의 산지에 사는 여진 사람들은 고려 군사

4) 『高麗史』 권8, 「世家」 문종 25년 하4월 임오.

력 강화에 필요한 말을 가져와 고려 국왕에게 헌상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개경에서 교역을 했다. 여진인들은 말 이외에도 貂鼠皮·靑鼠皮, 鐵甲, 병기·의장·弓弩, 戈船·楫矢, 黃毛 등을 헌상하고, 匹段, 의복, 布物, 器皿 등 고급 옷감과 금속제 그릇을 회사받았다. 이와 같이 여진인들이 고려를 찾아 국왕에게 내헌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헌상과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

일본인은 고려를 찾아와 무역을 하였으나 왕래의 빈도는 여진에 비교하여 매우 적었다. 그러나 고려에 투화하는 일본인이 많았다는 것은 그 만큼 배를 타고 쉽게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에 표류한 고려인들을 되돌려 보낸 기록은 곧 일본 상선이 고려에 왔음을 뜻하기 때문에 실제 고려를 왕래한 일본 상선이 기록 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고려와 일본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가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고려를 다니는 일본 상인들이 외교 사절의 행세를 하며 고려 국왕에게 헌상을 하고 회사를 받았다. 일본 상인은 고려를 찾은 여진의 사절과 송상이 갖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E1. (문종 27년 추7월) 병오일에 東南海都部署가 아뢰기를 “日本國人 王則貞·松永年 등 42인이 와서 螺鈿鞍橋·刀鏡·匣硯·箱櫛·書案·畫屏·香爐·弓箭·水銀·螺甲 등 물품을 進上하고자 청하였고, 一岐島勾當官이 藤井安國 등 33인을 보내어 東宮과 여러 令公府에 方物을 바칠 것을 청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制하여 海道로 京師에 이르도록 하였다(『高麗史』 권9, 「世家」 文宗 27년 추7월)

E1에서는 동남해도부서에서 일본국인 王則貞·松永年과 一岐島勾當官이 보낸 藤井安國이 찾아와 고려 국왕 및 태자 등에게 헌상할 것을 청하였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한다. 두 집단이 동시에 고려에 왔는데, 진상한다거나 방물을 바칠 것을 청한다는 것은 여진과 유사하다. 일본인들은 상인적인 속성이 강해서 향직이나 무산계 등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다를 뿐 마치 외교사신처럼 와서 고려 국왕에게 헌상하고 회사품을 받는 형식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2) 여진과 일본인들의 사행무역과 송상

고려에 여진인들은 국왕에 대한 헌상 의례를 마친 뒤, 일정 기간 개경에 머물며 필요한 물품들을 교역해갔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중국 문헌과 『고려사』의 기록을 보자.

F1. 後周末에 고려에 갔을 때 마침 여진이 고려에 말을 바쳤다. 그 사람은 거의

100 여명이 되었으며, 市에서 물건을 거래하는데 값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갑자기 활을 당겨 사람을 겨누니 사람들이 감히 向하지 못하였다. 그 억세고 사나움에 본디 고려도 어찌할 수 없었다. 고려의 국왕 왕건은 일찍이 그 말 10,000필로 백제를 평정하였다고 한다(『演繁路』續集 권1).

F2. (문종 4년 춘정월) 丙午日에 東北面兵馬錄事·衛尉注簿 朴庸載가 陞辭하자 왕이 制하기를 “蕃人으로 조회하러 오는 者는 賊首 那拂이 아니면 入朝를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蕃類 300인이 강제로 京館에 머물고 있었던 까닭이다(『高麗史』 권7, 「世家」, 文宗 4년 춘정월).

F3. (문종 35년) 五月 己丑日에 東女眞 酋長 陳順 등 23인이 와서 말을 바쳤다. 제하여 이르기를 “무릇 蕃人으로 입조하러 오는 자가 개경에 머무는 것은 15일을 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넘으면) 모두 客館에서 나가도록 명하는 것을 영원한 법식으로 삼으라.”고 하였다(『高麗史』 권9, 「世家」, 文宗 35년).

F1의 내용은 南唐의 章僚가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견문한 것을 기록한 『海外行程記』를 보고, 다시 송의 程大昌이 『演繁路』에 옮겨놓은 것이다. 시기는 후주말로 송이 건국된 960년보다 조금 앞선 950년대 말 고려 광종대였을 것이다. 장료가 고려에 사신을 갔을 때 마침 여진 사람 100여명이 고려에 와서 말을 바쳤고, 저자에서 물건을 샀다고 한다. 또한 고려 태조가 여진의 말 1만필에 힘입어 후백제를 평정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여진인들은 바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했음을 알려준다.

F2는 1050년 정월에 문종이 임지인 동북면으로 가는 박용재에게 여진이 개경의 객관에 너무 많은 수가 머물고 있다며, 那拂을 제외하고 입조를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강제로 머물게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京館에서 여진인들이 머물렀다고 하였다. 경관은 개경의 여진 객관이란 뜻일 것이며, 『고려도경』 권 27 官舍 客館條에서 언급한 ‘狄人女眞을 대접’하는 迎仙館과 靈隱館 등이 해당될 것이다.

F3은 1081년 5월에 여진인들이 개경에 머무는 기한을 15일이 넘지 않게 하고, 영구히 지켜야할 규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진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머물 곳이 없게 되자, 문종이 입조한 여진인들의 개경 체류 기간을 15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⁵⁾ 이 기록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여진인들이 적어도 15일보다는 더

5) 송이나 거란의 사절 뿐 아니라 여진인과 송상을 객관에 머물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외형상 그들을 외국에서 온 사절로 각별하게 대우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정해진 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감시와 통제를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개경에서 여진인과 송상이 완전히 자유롭게 교역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그 교역품이

많이 고려에 머물 수 있었으며, 15일로 정했던 것은 여진인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진인들이 고려 국왕에게 입조하여 자신들이 가져온 방물을 헌상하고 회사를 받는 의식은 하루 정도였으므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며 교역하기 희망했던 것이다.

세 기록을 종합하면, 여진인들은 고려의 변경의 관아에 가서 내헌의 의사를 밝힌 뒤 국왕의 허락을 받아 개경으로 향하였으며, 국왕에게 헌상을 하고 하사를 받은 뒤 고려가 여진을 위해 제공한 숙소인 객관에서 약 15일 정도 머물며 시전에서 소위 '사행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일본의 상인들도 여진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헌상과 사행 무역을 하였을 것이다. 김해에 있는 동남해도부서는 일본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관서로서 동여진이 동북면병마사나 도부서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해도부서는 일본인의 성명·인원수와 더불어 찾아온 목적 및 화물의 종류와 수량을 상세히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국왕은 그들이 해도를 이용하여 개경에 도착하도록 명령하였다. 일본인들에게 배를 타고 개경에 오도록 한 것은 육지 운송으로 인한 백성들의 노역의 줄이고, 적재한 화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옮기며, 외국의 배가 서남해를 다니기 위해서는 노련한 고려의 뱃사공들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사절단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1에서 王則貞 등의 일행은 동남해도부서에 개경에 갈 것을 요청한 뒤에 중앙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 객관이나 배에서 대기하였을 것이다. 국왕의 명령이 전달된 뒤 그들은 예성항을 거쳐 개경에 도착하여 객관에 머물며, 약속한 대로 고려의 국왕과 동궁 및 여러 승공을 알현하고 물품을 바쳤을 것이다. 고려 국왕 등은 王則貞 등이 가져온 헌상품에 대해 그 가치를 헤아려 회사품과 특사품을 주었을 것이다.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여진에게 개경의 객관에서 15일간 머물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일본인들도 그 정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그 동안 그들은 약간의 활동상의 제약은 있었겠지만, 일본의 배가 정박하는 곳에 송상의 배가 있었으며, 일본의 상인들이 머무는 개경의 객관에는 송상도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에 온 외국인들은 市廛에 고려의 상인 뿐 아니라 송상을 만나 교역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의 기록을 검토해보자.

G1. (현종 13년 8월) 甲寅日에 宋의 福州 사람 陳象中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鐵利國의 首領 那沙가 黑水의 阿夫間을 보내어 土物을 바쳤다. 辛酉일에 廣南人 陳文遂 등이 와서 香藥을 바쳤다(『高麗史』 권4, 「世家」 현종 13년 8월).

국외로 반출될 때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G2. (덕종 즉위년 6월) 乙未日에 東女眞將軍 大宛·沙伊羅 등 58인이 와서 良馬를 바쳤다. 鐵利國主 武那沙가 若吾者 등을 보내와 貂鼠皮를 바쳤다. 宋의 台州 商客 陳惟志 등 64인이 왔다(高麗史』 권5, 「世家」 덕종 즉위년 6월).

G1에서는 1022년 8월 갑인일에 송상 진상중이 왔고, 이어 철리국 수령이 보낸 흑수의 阿夫閒이 왔으며, 병인일에 송상 진문수가 왔다고 한다. 갑인일과 신유일은 7일의 차이가 있으니, 阿夫閒과 송상은 얼마 동안 개경에서 함께 있었을 것이다. G2는 1031년 6월 을미일에 東女眞將軍 大宛·沙伊羅, 鐵利國主가 보낸 若吾者, 송상 陳惟志가 왔다는 것이다. 그 다음 기사가 이튿날인 병신일 기사이므로 이들은 같은 날 입조한 것이었다. 이처럼 송상과 여진인들이 고려에 자주 왔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에 국왕에게 헌상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송상과 여진인들은 동시에 체류하면서 객관에 머물렀으므로 서로 만나서 교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개경의 시전은 황성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十字街에 이르는 도로 좌우에 지어진 長廊에 있었다. 송상이 머무는 迎賓館·會仙館·娛賓館·清河館·朝宗館·淸州館·忠州館·四店館·利賓館 등의 객관은 개경의 남문밖에서 兩廊까지 자리하였다. 거란 사신과 송상을 위한 객관은 개경 나성의 南大街 일대에 개경 시전과 인접한 곳에 있었다. 개경 상업의 중심부에 객관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⁶⁾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여진인들은 고려 국왕에 대한 헌상 의례하기 전이나 마치고 난 뒤에 적어도 10여일 이상을 시전에서 사행무역을 하면서 송상을 만날 수 있었다.⁷⁾

요컨대 고려를 찾은 외국인들은 개경에 머물며 고려의 상인 뿐만 아니라 송상을 만나 원하는 물품을 교역할 수 있었다. 특히 10세기말-11세기초까지만 해도 여진인들은 압록강을 통해 송의 산동반도에 가서 조공과 무역을 했으나 이것을 막기

6) 개경에는 송의 사신이 머무는 順天館 외에도 會同館-英華館-, 迎賓館, 會仙館, 宣恩館, 廣仁館, 誤賓館, 清河館, 朝宗館, 東西館, 新興館, 迎恩館, 仁恩館-仙賓館-, 迎仙館, 靈隱館, 興威館, 淸州館, 忠州館, 四店館, 利賓館 등 여러 나라 사절과 상인을 위한 객관이 있었다. 이것들은 고려가 외교와 무역을 중시하였고, 개경내의 무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7) 입조를 위해 고려에 온 여진인들의 사행무역을 위해 고려는 일정한 지원과 더불어 통제를 병행하였을 것이며, 고려의 사절이 중국에 갔던 경험을 반영하여 그 원칙을 정했을 것이다. 참고로 송은 고려 사절단의 무역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 주현마다 관원이 동행하면서 매매에 도움을 주게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관원도 두었으며 세 금도 면제해주었다. 송의 수도에 도착한 이후에는 사신들이 숙소인 同文館에 머물면, 상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복도 양 옆에 매대를 설치하고 사신들과 교역하도록 하였다. 다만, 고려 사신들의 외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외출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기생을 불러 술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구매한 물건은 검사한 뒤 금지물품은 돈을 돌려주고 회수하였다.

위해 거란이 압록강 하구에 성을 쌓은 이후 송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송의 선진문물을 교역할 수 있는 곳은 고려 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여진이 고려를 찾은 주요한 이유는 교역에 있었으며, 일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해된다.

3) 동북아교역망의 형성과 팔관회

고려에서 송상과 외국인들의 교역은 처음에는 우연히 이루어졌으나 송상이 상시적으로 왕래하면서 사실상 필연이 되었다. 그러므로 송상은 고려에서 여진과 교역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고려와의 무역 규모를 늘렸고, 그것은 여진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팔관회는 여진인들이 고려에 와서 송상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마련해준 행사였다. 팔관회는 고려가 건국된 918년부터 시작되고 태조가 儀鳳樓에 납시어 관람을 한 이래 국왕들이 자주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이자,⁸⁾ 국왕으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전체가 즐기는 축제였다. 그러므로 上元·中元·한식·입하·하지 등과 더불어 관리들에게 3일의 휴가를 주었으며, 그것은 7일을 쉬는 元正 다음으로 많은 것이었다.⁹⁾ 따라서 팔관회 때는 온 개경의 백성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의봉문 앞 구정에서 치러지는 행사와 의식을 보고 즐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고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에 송상과 동서여진·철리국·흑수말갈·일본인들이 상호 간에 무역하기 위해 고려를 찾아오자, 고려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외국인들의 현상을 팔관회라는 행사에 통합하여 시행하였다. 팔관회 때 송상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의식에 참여하였고, 그에 맞춰 고려를 찾아오게 되자 팔관회는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참여자들 간에 무역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겨났다. 아래의 팔관회 기사는 그러한 정황을 알려주고 있다.

H1. (靖宗 즉위년 11월) 庚子日에 八關會를 설하였다. 왕이 神鳳樓에 납시고 百官에게 醕를 베풀었으며 저녁에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大會 때에 다시 醕를 하사하고, 樂을 관람하였다. 東京·西京 두 京과 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府·八牧이 각각 표를 올려 陳賀하였다. 宋商客·東西蕃·耽羅國 역시 方物을 바쳤다. 자리를 주어 의례를 보도록 하였다. 뒤에 常例로써 삼았다(『高麗史』 권6, 「世家」 靖宗 즉위년 11월).

H2. (문종 27년 11월) 辛亥日에 八關會를 열고 神鳳樓에 거동하여 觀樂하였다. 다

8) 『高麗史』 권1, 「世家」 太祖 원년 11월.

9) 『高麗史』 권84, 「刑法志」 1 公式 官吏給暇.

음날 大會日에 大宋·黑水·耽羅·日本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禮物과 名馬를 바쳤다(『高麗史』 권9, 「世家」 文宗 27년 11월).

H1에서 팔관회의 대회일에 국내에서는 양계 병마사나 界首官 등의 큰 고을 수령들이 표를 올렸고, 외국인으로는 송상과 더불어 동서여진·탐라의 사절이 방물을 바치는 의례를 행하였으며, 이후 상례가 되었다고 하였다.¹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례가 의종대(1146-1170) 초에 崔允儀 등이 편찬한 『詳定古今禮』의 내용을 참고하였다고 하는 『高麗史』 예지에 실려 있다. 대회일에 태자이하 문무 여러 관원들이 의례를 한 뒤에, 宋 都綱이 고려 국왕에게 朝賀하고 物狀을 바쳤고, 그 다음에 동·서여진과 탐라가 宋 도강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¹¹⁾ 송상이 의례를 먼저 했다는 것은 여진이나 탐라의 사절보다 더 높은 위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무역상이기는 하지만, 대국인 송에서 왔다는 상징성이 더 컸고, 여진이나 탐라의 사절도 상인적인 속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H2는 1073년 11월 팔관회의 대회일에 大宋·黑水·耽羅·日本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는 것이다. 그 앞의 팔관회 기록에는 송상·여진·탐라만이 있었으나, 이 기사에는 일본이 대회일에 헌상하는 의례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문종의 대송통교 이후 일본의 고려 내헌이 증가하면서 팔관회의 가장 중요한 의례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다만, 의례 참가 순서에 일본이 가장 뒤에 있다는 것은 이미 시행되던 의례 순서에 일본이 추가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쨌든 팔관회에 참가한 일본인들은 의례를 마친 뒤 고려 상인은 물론 송상·흑수말갈 사람들이 교역할 수 있었다.

요컨대, 팔관회는 개경 사람 뿐 아니라 각지에서 하례하러 온 고려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축제였다. 1034년 이후에는 송상과 동서여진인들은 팔관회에 함께 의례에 참여하였고, 같은 기간 고려에 머물면서 상호간에 무역이 가능해졌다. 또한 팔관회에 송상·동서여진 등이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상례화했으므로 때에 맞추어 와서 의례에 참석한 이후에 송상과 여진인들은 서로 무역할 수 있었다. 팔관회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고려에 오는 여진인들이 송상을 만나는 것이 필연이 되면서, 그들은 고려의 국왕에 대한 헌상과 더불어 송상과의 교역이라는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려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팔관회는 고려가 동북아 중심이었으며, 고려 국왕이 '해동천자'였음을 과시하는 행사였다. 그것은 고려를 찾아온 송상과 주변 국가가 상호 교역하면서 형성되었던 동북아의 교역망을 의례로 만든 것이었다.

10) 고려에 귀속되기 전에 탐라민이 팔관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가 많았던 것은 겸하여 개경에서 교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1) 『高麗史』 권69, 「禮志」 嘉禮雜儀-仲冬八關會儀.

4. 마치며 - 송상왕래 및 교역망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

이상에서 고려전기 송상왕래와 교역망의 형성에 관해 간단히 서술하였는데, 이 주제와 관련한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들을 있다.

먼저 송상의 고려 왕래는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고려가 받게 된 갑작스런 송과의 외교 단절로 인해 야기된 선진문물의 도입선 차단이라는 충격을 완화시켜주었다는 점이다. 오대의 여러 나라와 그 계승국가인 송이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고려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문화적 산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은 고려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과의 외교 단절로 인해 선진문물 수입 통로가 막히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문종 12년 내사문사성의 주장과 같이 송상이 값진 보배를 해마다 고려에 가져와서 고려의 선진문화에 대한 갈증을 일부나마 해소해주었다. 하지만 송상은 송에서 ‘禁輸品’으로 지정한 최고급 문물을 가져올 수 없었으므로 문종은 거란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대를 전제로한 대송통교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후 고려는 거란과 송에 대한 이중외교를 통해 적지 않은 경제문화적 실리를 얻었다.

거란을 대신하여 금이 등장하고 고려에 대해 형제 관계에 이어 군신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고려의 조정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자겸 등의 주도하여 송이 아니라 금을 사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금과 송을 상대로 한 이중외교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사』 인종 4년 3월의 기사에서는 事金 결정에 대해 이자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종을 비롯한 고려 조정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종의 사후 평가에서 금과의 외교를 잘했다고 한 사신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금과 송의 전쟁에서 송이 회하 이남 지역으로 밀려나고 송이 금에 대한 복벌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송의 외교전략상 고려에 대한 가치가 사실상 사라져버리자, 고려의 바람대로 금과 송의 이중외교는 구현되지 않았고, 의종대 이후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송상왕래는 중국과의 외교 및 고려 국왕의 권위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여진의 고려 왕래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동\서여진과 흑수말갈 사람들이 고려에 자주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들이 어디를 경유하여 개경에 왔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외국인의 왕래를 참고한다면 동여진은 당연히 원산만 지역에서 산맥을 넘어 오고, 서여진은 소위 ‘의주로’를 통해 개경에 도착하였다고 추정할 것이다. 이처럼 육로로 올 경우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고려가 여진의 ‘사신’들을 支供하는 데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동서여진이 양계지역에 도착하여 국경 지역 군현에 신고를 받고 중앙의 허락을 받아 개경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을 당 왕조가 외국사신에게 했듯이 고려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너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진이 고려에 사헌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진의 해상왕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오는 경우 경상도 金州에 도착한 뒤 조정의 허가를 받고, 남해와 서해를 거쳐 고려에 왔다는 기록이 있다. 서여진은 압록강에서 북계와 서해도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여 예성항에 오고, 동여진은 동계지역의 원산만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뒤 동해를 남하하여 왔을 것인데, 인종대 고려와 송이 가도의 문제로 설전을 벌일 때 고려 사람들이 여진인이 수전에 능하다고 하고, 바다로 고려에 왔다고 주장한 것은 그러한 개연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많은 여진인들이 고려를 왕래하였음에도 고려의 백성들이 그로 인해 불편하거나 괴로움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 해상왕래의 정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도부서와 각 군현의 해군을 통해 여진의 해상왕래에 대한 충분한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그들이 해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 森克己, 「日宋麗連鎖關係の展開」 『史淵』 41, 1949; 『續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 森克己, 「能動的貿易の發展過程に於ける高麗地位」 『日宋貿易の研究』, 國書刊行會, 1975.
-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서울大出版部, 1985(재간행).
- 旗田巍, 「高麗の‘武散階’-郷吏·耽羅の王族·女眞の酋長·老兵·工匠·樂人の位階」 『朝鮮學報』 21·22合, 1961.
- 武田幸男, 「高麗初期の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 『朝鮮學報』 41, 1966.
- 李丙燾, 『韓國史(中世編)』,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61.
- 徐炳國, 「高麗·宋·遼의 三角貿易考」 『白山學報』 15, 1973.
- 金庠基,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74.
- 奧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 朴平植, 「高麗時期的 開京市廛」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2000.
- 서성호,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38, 2000.
-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002,
- 金日宇, 「고려시대 耽羅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海上活動」 『韓國史學報』 18, 2004; 『高麗時代 濟州社會의 變化』, 西歸浦文化院, 2005.
-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7.
- 榎本涉, 「日麗貿易」 『中世都市 博多を掘る』(大庭康時 外 編), 海鳥社, 2008.
- 백승호, 「高麗와 宋의 朝貢-回賜貿易」 『海洋文化研究』 1, 2008.
-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 李鎮漢,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景仁文化社, 2011.
- 이진한,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발표문

高麗·中·日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 교섭

朴鎔辰(能仁大學院大)

I. 머리말
II. 고려전기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교섭
III. 고려중기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교섭
IV. 고려후기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교섭
V. 맺음말

I. 머리말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 속하는 전근대시기 한국·중국·일본은 불교의 상호 교류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로 해상 교류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전근대시기의 대중국 불교 교류는 북조의 경우는 육로, 남조의 경우 해로가 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시대적 추이에 따라 교류의 루트는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고려시대(918-1392) 중국 제왕조와의 불교 교류 루트는 오대와 북송의 경우 해로가 중심이지만 육지로 연결된 요·遼·금·원·元은 육로가 일반적이었다. 원대의 경우 육로가 일반적이거나 항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경우 해로를 통한 상선의 왕래도 다수 활용되었다. 물론 일본과의 불교 교류는 해로이면서 송상을 매개로 전개된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고려와 중국 및 일본과의 해상을 통한 불교 교류의 모습은 전존 자료의 한계로 그 실상이 분명치 않다. 고려와 중국 제왕조의 교류는 비교적 찾아지지만 일본과의 그것은 간략하면서도 그 전존이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의 연구는 국가간 해상교류의 연구는 다수 있지만 불교계의 교류가 일부 언급되었거나 혹은 고려 전시기의 불교 교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¹⁾ 본고에서는 고려의 전시기를 대상으로 불교계의 교류 가운데 해상을 통한 교류와 불교 교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국내외 다수 연구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사료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張東翼, 2004, 『日本古中世 高麗資料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1,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輯委員會, 1999, 『對外關係史總合年表』, 東京: 吉川弘文館.

고려시대 송과 일본 승려의 해상 교류와 불교 교섭이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육로가 중심이 된 원나라와의 교류도 불교 교류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며, 승려의 활동 이외에 사신단의 불교 활동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려와 송·원·본 교류의 내용을 고려초 10세기, 고려중기 11세기에서 12세기, 고려후기 13세기에서 14세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해상교류와 교섭을 통하여 사상의 전개나 추이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고려전기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교섭

고려는 후삼국이 정립하던 918년에 건국하여 중국 오대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다. 송나라는 조광윤에 의해 960년에 건국되었는데 5대 10국의 전란을 수습하며 사회를 안정시켜 나갔다. 고려와 송의 교류 이전에는 당나라와 5대 10국이 그 상대국이었고, 해상 교류가 중심이 되었다. 고려초 10세기 불교 교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 초 10세기 불교 교류와 구법승²⁾

연번	인명	출국	입국	종파	내용	전거	비고
1	홍법	930년 이후	불명	선종	· 만월, 삼오에서 행각	『정토사홍법대사비』	
2	석초	940년	946년	법안종	· 구법문도	『석원사립』	
3	해거	943년 이후	불명	선종	· 법안문의, 청원9세 · 금릉 청량사,보은사	『경덕전등록』권25, 『송고승전』문의	
4	영감	943년 이후	불명	선종	· 법안문의, 청원9세	『경덕전등록』권26	
5	징관	949-975년	불명	선종	· 장경혜릉, 청원7세	『선문보장록』권상	
6	중봉	949-975년	불명	선종	· 장경혜릉, 청원7세	『선문보장록』권상	
7	의통	950년 이후	중국 입적	천태종	· 천태종 16조 · 의적 제자	『불조통기』권8	
8	덕선	950년 이후	970년	법안종	· 향해문도	『백련사원묘국사비』	
9	지중	959년	970년	법안종	· 영명연수 사사 · 국청사 의적 대면	『거둔사원공국사탑비』 『백련사원묘국사비』	
10	고려승 36인	959년	970년	법안종	· 영명연수 사사 · 국청사 의적 대면	『경덕전등록』권26	
11	체관	960년	중국 입적	천태종	· 왕명으로 입국하여 천태 관련 불서 전달 · 의적의 제자	『불조통기』권10	
12	영준	968년	972년	선종	· 영명연수 사사	『적연국사자광탑비』	
13	여가	989년	989년	불명	· 대장경 청구	『송사』권487	

2) 박용진, 2013, 「고려 불교 교류」 『한국해양사』, 한국해양재단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고려초 930년 이후 송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 간 신라와 고려의 승려는 흥법弘法, 석초釋超, 혜거慧炬, 영감靈鑿, 징관澄觀, 중봉重峯 등이 있지만 이들의 기록은 분명치 않고 대부분 해상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전개하였다. 흥법은 930년 신라 경순왕 4년에 입조사 시랑 현신玄信을 따라 후당으로 들어가 민절閩浙 지역에서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귀국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돌아와서는 선법을 넓혔고, 고려 성종대에 대선사, 목종대에는 국사로 봉해진 바 있다. 도봉산 영국사의 혜거국사는 청량문의淸涼文益의 법사로 입송시기는 문의의 생존기간인 885년에서 958년이므로 후주後周의 어느 시기에 입송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연영준은 968년에 영명 연수에게서 수학한 뒤 972년 귀국하였고, 현종대에 대선사가 되었다. 또한 943년에 중국에 들어간 영감은 법안문의 법사로 청원행사의 9세에 해당하는 혜거와 동문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입국은 분명치 않다.

진관석초는 태조 왕건대인 940년에 중국에 들어가 구법하고 6년만인 946년 정종대에 귀국하였다. 광종대 지종智宗 등 36인은 광종에 의해 법안종의 영명연수永明延壽 문하로 유학을 떠났다. 지종은 955년(광종 6년) 항주의 연수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광종 21년(961)에는 국청사의 정광의적淸光義寂에게 나아가 『대정혜론大定慧論』을 배우고 천태교학을 전수받았다. 또한 968년에 승통 찬영贊寧과 천태현재天台縣宰 임식任植 등의 요청으로 그 곳 전교원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을 강론하였으며, 광종 21년(970)에 귀국하였다. 지종과 비슷한 시기에 덕선, 영준, 고려승 36인은 모두 연수의 문하에서 유학하였는데, 이들은 선종승 36인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종대에는 많은 승려가 남중국으로 유학하였는데, 청원행사의 9세이자 법안문의 법을 잇고 귀국한 혜거, 지종, 영준 등은 모두 법안문의 또는 그의 법사에게 나아가는 점과 당시 광종대의 법안종에 대한 관심 고조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대무위, 혜운, 혜흥은 이름만 전하는 신라 또는 고려의 구법승려로 그 시기는 명확치 않고, 기타 현눌, 귀산, 영광, 영감 등이 있지만 교류나 유력의 시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천태종 계통의 교류승으로는 덕선, 체관, 의통을 들 수 있다. 고려 초 의통義通과 체관諦觀은 중국에 들어가 활동하였는데,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6대 교조가 되었고 체관은 천태종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를 저술하였다. 의통(927~988)은 후진後晉 천복天福(936-944) 연간에 중국으로 갔다. 우선 천태덕소(891-972)가 있는 곳에 이르러 홀연히 깨달음을 얻고는 이어 나계의적(917-987)에 나아가 일심삼관의 천태교학을 들었다. 송 태조 건덕(963-968) 연간에 사명四明에 이르러 고려로 귀국할 배편을 준비하다가 태수 전유치錢惟治

(949-1014, 오월왕 錢俶의 子)의 만류로 머물러 968년 전교원을 세웠고, 송 태종으로부터 보운寶運으로 사액되었다. 의통은 그곳에서 이십년간 천태교관을 펴다가 988년에 입적하였고, 뒤에 천태종의 제16조가 되었다.

체관은 광종 21년(960) 오월왕 전숙의 요청으로 파견되었으며, 중국에 들어가 천태종 12대 교조인 의적의 문하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입적하였는데, 『천태사교의』는 이 기간 중에 쓰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입송한 고려승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지종이 있다. 지종 역시 961년에 의적에게 나아가 천태교학을 수학하고 『송고승전』을 저술한 찬영 등과 교류하고 970년에 귀국하였다. 『고려사』에 전하는 지종 이후 고려승 36인이 연수의 문하에 나아간 일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겠지만 그 내용은 기록에 잘 찾아지지 않는다. 송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을 유력한 의통, 체관, 지종 등은 고려인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송의 건국을 전후한 정치상황, 중국의 불교계의 사상 동향 등을 공유하였을 법하다.

고려시대 동아시아 불교 교류에 있어 입송구법승이나 유력승의 존재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일반이었다. 고려초기 사신의 불교 교류는 대부분 송나라 대장경 요청과 관련이 있다. 성종대에 승려 여가如可가 표문을 가지고 가서 대장경을 내려 주기를 요청하였다. 989년(성종 8)에 한인경과 위덕유를 사신으로 파견한 때 비로소 대장경을 받았고 여가 역시 함께 귀국하였다.³⁾ 이후 991년에는 한 연공이 사신으로 가서 2차 대장경의 청구와 수용이 이루어졌다. 이 때 고려에서 수용한 대장경은 『개보칙판대장경開寶勅版大藏經』 본장 5,048권 481질이였다. 이 대장경이 바로 고려초조대장경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Ⅲ. 고려중기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교섭

1. 고려중기 입송구법과 불교 교류

고려 성종대에 대장경 청구를 전후로 하여 거란의 침입 등 미묘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여·송 국교의 단절을 가져왔다. 993년 이후 여·송관계는 단절되었다가 고려 문종대(1046-1083) 송 신종 희령(1068-1077) 연간에 문종의 의사 요청건을 전후로 국교가 재개되면서 승려의 입송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고려중기 11세기에서 13세기의 불교 교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宋史』卷487 列傳246 外國3 高麗 宋 太宗 端拱 2年 條.

<표 2> 고려중기 불교 교류와 구법승4)

인명	출국	입국	종파	교류 내용	전거	비고
고려승 3인	1076년	불명	불명	· 항주 천축사 체재 및 구법 · 송 황제 고려승 3인에게 가사 및 법호를 내림	『함순임안지』권40 『속자치통감장편』권279	
의천 대각국사	1085년	1086	화엄 천태	· 담진 등 11인과 입송 (수개, 낙진, 혜선, 도린, 담진) · 송나라 철종을 만남 · 송 불교계와 교류 - 화엄, 천태, 계율, 선종 등	『불조통기』권14 『대각국사문집』 『영통사대각국사비』 『반야사원경왕사비』	
수개	1089년	不明	화엄	· 계상, 영류, 원자 김보, 배선 · 송상 서전의 상선으로 입송 · 송승 정원 추모 및 구법	『소동파전집』주의집6	
담진 혜조국사	1085년	不明	선종	· 쌍계사, 왕사, 국사가 됨	『대각국사문집』	
	1105-22년	不明	선종	· 거란대장경 3부 구입	『삼국유사』권3	육
탄연 대감국사	無	無	선종	· <사위의송>을 송상에게 주어 송의 승려 개심에게 전함	『단속사대감국사비』 『속전등록』권33 등	
고려인	1129-37年	不明	선종	· 천동사 평지정각 상당문	『평지정각선사광록』권4	
탁연	不明	不明	不明	· 1258년경 송 연경사 교류	『호산록』권3	

1076년(문종 30) 12월에 고려승 3인 담진黨眞, 담진曇眞, 여현麗賢은 1076년을 전후하여 입송하여 항주 천축사에 체재하였고, 경사로 가서 1080년까지 머물다가 귀국하였다. 이 가운데 담진은 뒤에 대각국사 의천을 도와 함께 입송하였으며, 예종대 왕사와 국사를 역임한 혜조국사이다.

고려전기 동아시아 불교계에 있어 주목된 인물은 의천과 그 주변 교류승이다. 위의 표에 제시된 입송 승려 가운데 수개壽介, 낙진樂眞, 혜선慧宣, 도린道隣, 담진 등은 의천의 입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다. 의천은 1085년 4월에 쌍계사 담진, 제자인 수개 등 11인과 함께 정주에서 송나라 상인 임영의 상선을 타고 입송구법을 단행하였다. 의천을 수행한 낙진은 송에서 화엄승려인 유성법사有誠法師나 진수정원淨水淨源과 화엄 사상을 교류하였으며 의천의 여·송간 불전 교류를 도왔다. 의천이 『유교경』을 강경한 기록이 문집에 전하는데, 낙진은 정원에게서 『유교경절요』 및 『금강경』을 받아 의천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의천의 입송구법시 수종자 가운데 수개는 귀국 이후에도 송나라를 왕래하였는데, 송승 정원(1011~1088)이 사망하자 의천은 1089년 3월 수개, 계상繼常, 영류穎流,

4) 본장은 필자의 『義天 -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1 : 李鎮漢, 2011, 『高麗時代 松商 往來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정리하였다.

원자院子 김보金保, 배선裴善 등 5인을 파견하여 조문하는 한편 황제의 축수를 위하여 금탑을 바치고 정원의 사리를 얻어 귀국하였다. 특히 수개의 일행은 송승 정원의 제전을 치르는 것 이외의 ‘심사학법’ 즉 스승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 유력하려 하였으나 소식에 의해 저지되어 귀국하기도 하였다. 수개의 입송은 송나라 천주 출신의 상인인 서전徐猷의 상선으로 입송하였고, 귀국 역시 송나라의 상선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고려와 송의 교류 가운데는 대규모의 경판 구입이 확인되는데, 고려 의천의 요청으로 조조된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이 1087년(선종 4) 송상 서전에 의해 납품되었다. 이 목판은 조선시대 1424년(세종 6)에 불서 및 경판을 요청한 일본에 하사되어 경도京都의 상국사相國寺에 비치되었으나 현재 전존하지 않는다.

의천의 입송구법시 교류 승려는 다양한 종파였으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의천의 입송구법시 교류 승려

宗 派	교 류 승 려	宗 派	교 류 승 려
華 嚴 宗	有誠, 淨源, 善聰, 宗喜, 慧清, 希仲, 道璘, 晉仁, 顏顯 (希俊 智生 道亭 履淵)	戒 律 宗	擇其, 元照, 沖羽
天 台 宗	從諫, 元淨, 中立, 法隣, 惟勤, 辯眞 (仁岳 可久)	法 相 宗	慧林, 善淵
禪 宗	宗本, 了元, 懷璉, 法圓 (慧圓 淨因)	西天梵學	天吉祥, 紹德
*宗派未詳	希湛, 守長, 澄流, □喜, 守明, 德懋, 宣英 (希辯, 利涉, 行端)		

의천은 송의 화엄종의 정원淨源, 선종善聰, 정인淨因, 원소元韶, 안현顏顯 등과 교류하였다. 의천과 정원간의 서신이 많이 남아 있어 불교 사상의 상호 교류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기타 법상종의 혜림, 선연, 계율종의 택기, 원조, 서천범학西天梵學的 천길상, 소덕 등이 있지만 이들과의 구체적인 교류 모습과 교학에 대하여는 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의천이 송나라 상인 임영의 상선을 이용하여 입송구법을 단행한 1085년 전후의 동아시아불교계의 교류는 송상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모습이 사서나 기록에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는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어 송상의 매개를 통한 동아시아 불교교류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와 송나라 승려간 불교 교류는 송나라 해상의 매개와 활동이 주목되는데, 송상은 도강이원적, 서도강, 도강 홍보, 도강 진수, 광도강 등 다수의 상단 도강都綱이 나오며, 1085년에서 1090년 사이에 고려와 송을 내왕하였다. 불교의 교류와 관련한 송상의 교류 활동은 불교 경전 및 경전의 주석서인 장소의 전달이 확인된다. 또한 고려의 산물인 구리경쇠, 인삼, 구리발우, 수정, 은합, 가사 등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특히 불전의 교류 이외에 각국의 불교계의 동향 등이 함께 언급된 점으로 미

루어 11세기 고려와 송의 불교계는 다양한 문물이나 정보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천은 입송구법을 전후하여 화엄, 천태 등 불교계의 제종 승려와 학문적 교류를 진행하였고, 특히 송나라에 일실되었던 불서, 고려의 신간인 『신편제종교장총록』, 『원종문류』, 이오의 『협주금강경』등 다양한 불교 장소章疏를 전하였다. 또한 고려에 이미 일실되었던 불서나 새로 발견되거나 신간의 자료는 송상을 통하여 즉시 입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천의 불교 교류에 있어 전달이나 매개는 송상이 담당하였고, 특별한 경우는 의천의 제자나 송나라 정원의 제자가 직접 왕래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승려로는 낙진, 담진이 불서의 전달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송나라 정원의 제자인 안현은 고려와 송을 내왕하며 『원종문류』등 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의천은 국왕의 후원에 힘입어 교장 조조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송, 요, 일본 등 주변 제국과 불전의 교류 활동에 진력하였다.

담진은 선종 승려로 1076년을 전후하여 항주 천축사와 개봉에서 1080년까지 머물다가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담진은 송 신종으로부터 자색가사와 함께 법원대사의 호를 받았으며, 송의 선승들과 교류하였다. 담진은 송나라 임제종臨濟宗의 정인도진淨因道臻(1014-1093)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귀국 후에는 임제종의 선풍을 수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고려 불교계의 활동으로는 의천의 입송구법을 돕거나 『요장遼藏』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직접적인 입송구법이 아닌 간접적 교류의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담진의 제자인 탄연은 인종 18년(1140) 이후 그가 지은 『사위의송四威儀頌』과 『상당어구上堂語句』를 송상 방경인方景仁을 통하여 송나라의 사명 아육광리사의 선사 개심介諶(1080~1148)에게 보내어 인가를 청하였다. 임제종의 황룡혜남을 계승한 개심은 이를 보고 찬탄하여 인가서를 보냈다. 또 송나라의 승려인 도응道膺, 응수膺壽, 행밀行密, 계환戒環, 자양慈仰 등과도 서한을 통하여 도우가 되었다. 이렇듯 고려 중기 12세기에도 여·송의 불교계는 송상을 매개로 한 해상 교류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불법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탄연과 비슷한 시기에 고려국 첩문을 가진 관리가 송나라에서 재승齋僧과 축수祝壽를 할 때, 조동종 광지정각宏智正覺(1091-1157)이 상당하여 설법한 일이 있어 송나라 불교계의 선종 가운데 조동종의 선풍이나 동향도 소개되었을 법하다.

이러한 경향은 12세기 선종계의 직간접적인 여·송교류를 통하여 선종 서적을 수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가지산문의 학일은 장경혜릉(854-932)의 어록을 통하여 깨달음을 열었고, 이자현(1061~1125)은 설봉의존의 『설봉어록雪峰語錄』을 읽고 선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이보다 앞서 고려초에 설봉의존(822~908)의 문하에 들었던 대무위, 현눌, 영조 등이 있었고, 장경혜릉의 문하이자 청원 7세인 징관과 중봉, 귀산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고려 선종계의 전통과 학일의 사상 역시 분리되어

전개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학일은 송나라에 유학하거나 교류의 모습은 잘 찾아지지 않지만 고려 선종의 독자성에 더하여 이미 중국의 선종사상에 대하여 어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법하다. 뒤의 보조국사 지눌(1158-1210)도 대혜서 大慧書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는데, 수선사 계열에서는 간화선 수행의 지침서로서 『대혜어록』을 수용하여 활용하였다.

1127년 북송이 망한 이후 고려 승려의 입송구법은 사서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무신집권기에 송상이 36여회 내왕한 것으로 보아 불교 교류를 포함한 문물 교류는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신집권기의 사례로 고려의 공공상인空空上人과 송의 선승 조파祖播가 1230년대 무렵 송인을 매개로 불구와 시문을 교류한 일이 있다. 또한 백련사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은 1258년 8월에 탁연으로부터 송나라 연경사에서 보내준 『불설명佛舌詔』과 『조사찬』, 『정토원기』를 보았고, 1262년에는 송 연경사의 존속들이 쓴 『법화수품찬法華隨品讚』을 받아 보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찬영讚詠을 보냈다. 원외국사圓悟國師 역시 연경사의 법언法言으로부터 「불거기佛居記」를 받은 다수의 기록으로 보아 무신집권기에도 송상이 매개된 간접적 불교 교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⁵⁾

고려 승려 이외의 불교 교류로는 사신단에 의한 교류 활동이 확인된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현종은 1019년 8월에 하정사賀正使로 최원신과 이수화를 파견하였고, 1022년에는 한조의 사신단 179명이 입송하여 각각 대장경을 받아왔다. 고려에 있어 송판대장경의 수용은 고려의 인쇄문화의 전기를 가져왔고, 불교 지식의 보급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이렇듯 고려 사신단은 외교 본래 목적의 수행 이외에 불교 교류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였을 법하다. 또한 사신단 및 수종인들이 송나라 불교계를 목도하고 불서 구입을 하는 등 제반 활동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고려중기 사신의 활동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윤관과 김부식 사신단의 불교 교류 활동이다. 1098년(숙종 3) 사신으로 파견된 윤관과 조규의 일행이 항주 혜인원에는 1,300량을 희사하여 화엄대각을 세우고 경전을 안치토록 하였다. 이 보다 앞서 의천은 1087년(선종 4, 원우 2년)에 금서화엄경 3본 즉 6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40권본 『화엄경』을 기증한 바 있다. 항주의 혜인원 즉 고려 혜인사는 의천의 지원으로 부흥된 이래 지속적으로 고려와 교류한 사원이었으며, 훗날 고려 충선왕에 의해 원판대장경이 기진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1126년(인종 4) 김부식은 이주연 등과 황제 즉위 하례사로 입송하였다. 일행은 명주 연경원 원조법사圓照法師를 방문하여 법의와 함께 원효의 논소 200권을 주어 유통케 하였다. 이 가운데 『화엄경소』와 『금강삼매경소』는 송나라 혜홍(惠洪, 1071~1128)의 『임간록林間錄』

5) 張東翼, 2009,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李鎮漢, 2011, 『高麗時代 松商往來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pp.248-276의 「松商往來表」

에 인용되어 활용되었다. 이렇듯 고려의 불서가 송나라에 유통되어 불교계에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2. 송과 일본 승려의 고려 불교계 활동

동아시아불교계에 있어 승려의 왕래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송과 일본의 승려가 고려에 입국하여 활동한 기록은 잘 나타나지 않아 사례는 일부에 그친다. 고려의 건국 이후 중국의 오대 시기에는 오월의 승려 자린이 후백제, 일본 등을 방문한 뒤에 고려에 입국하여 천태교법을 전하였다. 뒤에 고려는 사신 이인옥 등을 파견하여 자린을 명주로 송환한 바 있다. 숙종대에는 1096년 9월 선정전에서 송승 혜진을 인견하였고, 다음날 성종과 혜진을 각각 명오 삼중대사로 삼았다고 하여 법호와 법계를 내린 사실을 전하고 있다. 한편 송승 혜진은 송나라 상인 황충黃冲 등 31명과 함께 왔고, 이들은 개성의 보제사에 머물렀다. 혜진은 보타낙산普陀落山과 성굴聖窟을 보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이렇듯 송승의 고려 방문은 송나라 상선을 통하였고, 그들의 방문 목적은 명확치 않지만 고려의 불적에 대한 유력 즉 이미 송나라에서 전해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고려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송나라 승려의 고려 내왕은 다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각국사문집』에 송상을 통한 안현의 내왕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송상은 고려뿐만 아니라 고려와 일본간 교류의 주요 담당자이자 문물과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특히 다음의 자료는 송, 일본 등에 고려의 교장 조조가 알려졌고, 공식적인 수교 없이 송상을 매개로 하여 교장을 구득하였음을 알려준다. 1095년 흥복사 승이 다자이후大宰府에서 송상 유유를 만나 고려의 의천에게서 극락요서極樂要書·미타행원彌陀行願 등의 장소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상 유유는 다음해인 1096년에 극락요서 등 13부 20권을 고려에서 구득하여 전해주었다. 이보다 앞서 『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 『교장총록』)을 편찬한 1090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의천은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에 서장을 보낸 바 있다. 고려에서 6천여 권의 경전의 조조를 마치고, 새로이 교장을 조조함에 있어 장소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아 『교장총록』등에 일본 관련 자료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흥복사興福寺의 영초永超가 1094년에 『동역전등목록東域傳燈目錄』을 편찬하면서 의천이 편찬한 『원종문류』를 참고한 점으로 미루어 『교장총록』역시 비슷한 시기에 전해졌을 법하다. 특히 송상을 매개로 여·일간 교장 장소의 교류는 주목된다.

또 다른 고려와 일본의 불교 교류는 인화사仁和寺에서 대재부를 통하여 고려로부터 경전과 장소류를 구득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1105년 5월에 일본의 인화

사 각행법친왕은 대재권수 등원계중을 통하여 고려에 『석마하연론통현초』 등 불교 장소를 구하였고, 계중은 송상의 배편으로 사자를 보내서 고려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조조한 간본을 구득하였다.⁶⁾ 『석마하연론통현초』는 1099년에 흥왕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약 6년 만에 일본에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1120년에는 대법사 각수의 의뢰로 송상 장영, 소경 등을 통하여 고려에서 『홍찬법화전』을 비롯한 교장 100여권을 수입하였다. 이 불서에 대하여 준원은 도착하는 즉시 필사하여 보관하였다.⁷⁾ 이 시기 고려와 일본의 불서 교류를 중개하였던 송상은 유유, 장영, 소경 등으로 고려와 송의 교류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가 없는 가운데 송상은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불서의 교류 및 전달, 각국의 출판 등에 대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IV. 고려후기 불교계의 해상교류와 불교교섭

1. 고려후기 불교 교류와 입원구법승

고려와 원과의 강화가 이루어진 1270년대부터는 원도인 연경으로 향하는 육로를 통하여 공·사적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며, 불교 교류 역시 대부분 육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된다. 또한 고려후기 불교 교류와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은 단편적인 기록으로 구법의 노정이나 내용은 분명치 않다. 고려와 원의 교통신로는 이승휴의 『빈왕록』에서 나오는 육로가 상세한데, 해상을 이용한 입원구법승으로는 백운경한이나 식무외 등의 일부 자료에 그친다. 본고는 불교계의 해상 교류가 중심이지만 한국불교사에 있어 조계종의 법통과 관련한 원대 임제종파의 교류를 염두에 두면서 13-14세기의 여원간 불교 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후기 불교 교류와 주요 구법승을 제시하고 특히 해상 교류와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코자 한다.⁸⁾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반까지의 입원 구법 관련 자료는 단편적이고 그 교통신로는 대부분 분명치 않다. 원감국사 충지(沖止)는 충렬왕 12년(1286) 4월 수선사의 제6세 주법이 되었고, 이후 역마를 타고 중하에 이르러 원 황제를 만났다고 하여 육로를 통하여 원나라로 갔다. 1290년에는 유가업의 혜영(惠永)이 사경승 100명과

6) 『東寺王代記』史料3-8,146.

7) 『平安遺文題跋編』1043호.

8) 박용진, 2016, 「고려시대 회암사의 역사와 국외 교류」, 『회암사와 불교사』, 회암사지박물관 ; 趙明濟, 2004, 『高麗後期 看話禪 研究』, 서울: 혜안 ; 張東翼, 1997,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함께 입원하였다. 1300년 이후 시기의 화엄종의 우운友雲, 약란若蘭, 천희千熙, 천태종의 달목達牧과 의선義旋, 선종의 굉변, 유가업의 해원海圓, 고림청무古林淸茂(1262-1329)와 교류한 진장로眞長老⁹⁾, 1335년 무렵의 혜월과 달죽 등도 육로를 통하여 입원하였고, 이들은 원도인 연경을 찾은 뒤 강남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거나 고승을 찾아 구법하였지만, 단편적인 기록으로 교류 내용은 상세치 않다.

충렬왕 21년(1295)에 요암원명了庵元明, 각원覺圓, 각성覺性, 묘부상인妙孚上人 등 8인이 휴휴암의 몽산을 방문하였고, 1296년 12월에 內願堂 大禪師 混丘, 靖寧院公主 妙智, 明順院公主 妙惠, 前都元帥 上洛公 金方慶, 侍中 韓康, 재상 廉承益, 金昕, 李混, 尙武 朴卿, 柳裾 등 10명이 휴휴암의 몽산을 찾고자 하였다.¹⁰⁾ 대선사 혼구 등이 몽산을 면대코자 한 시기는 충렬왕이 공주를 비롯 신하 243인, 시종 590인을 거느리고 세자의 혼인과 하정賀正을 위하여 입원한 때로, 충렬왕 22년(1296) 9월21일부터 1297년 3월 9일까지의 약 6개월간 이동과 체류에 해당한다. 그 입원 노정은 1296년 9월 21일 개경을 출발하여 요동을 거쳐 1296년 11월 17일에 연경에 도착하였으며 육로를 통한 2개월의 여정이었다.¹¹⁾ 혼구의 일행이 몽산을 찾았다면 연경에서 육로나 수운을 통하여 방문하였을 법하다.

14세기 중엽에는 한국불교사상의 주요 고승의 입원구법이 있지만 그 노정은 육로에 해당하며 해상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태고보우는 1346년에 연도燕都에 있다가 강남 남소南巢의 수성의 문인과 교류한 뒤 호주湖州 하무산霞霧山 천호암天湖菴의 석옥청공石屋淸瑛에게 나아가 가사와 주장자를 신표로 받고 다시 연도로 갔다가 1348년 봄에 고려로 돌아왔다. 태고보우의 행장에는 입원구법의 행로는 확인되지 않아 육로를 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혜근은 1347년 11월에 고려를 떠나 1348년 3월 13일 원도의 법원사에 도착하여 지공을 찾아 구법하고 약 10년간 불적 순례와 구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혜근은 ‘丁亥十一月發足向北 戊子三月十三日行到大都法源寺¹²⁾’라고 하여 육로를 통하여 북쪽으로 이동한 약 4개월의 여정이었다. 또한 원도에서 절강성의 명주 지역으로 떠나 구법활동후 다시 원도에서 체류하다가 육로인 요양 지역을 거쳐 귀국하였다. 따라서 혜근의 입원구법은 출국과 귀국 모두 육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혜근의 1348년부터 10년간의 입원순례는 원나라의 지공과 처림에게서 법을 구하고, 천암원장 등 호구소룡계의 고승들을 역방한 시기였다. 또한 명주의 관음신앙 성지인 보타낙가산, 석가사리 신앙성지인 아육왕사 등 주요 불교 성지를 순례하

9) 『大明高僧傳』卷3(『大正藏』50, p.909下), “紹興寶林寺沙門釋大同.”

10) 남권희, 1994, 「蒙山德異와 高麗 人物들과의 交流 : 筆寫本 《諸經撮要》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圖書館學論集』, 한국도서관정보학회, pp.26-33의 부록 「法門景致」.

11) 『高麗史』권31 世家31 忠烈王 23年 條.

12) 覺宏, 「懶翁和尚行狀」 『懶翁和尚語錄』 제2장 제2면.

기도 하였다. 해근의 입원 순례는 원나라 뿐 만 아니라 일본, 교지 등 동아시아 제국의 불교계 인물들과 교류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무학자초 역시 공민왕 2년(1353)에 원도에 가서 3년여 입원구법하였지만 상세한 교통로는 확인되지 않아 육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대 해상을 통한 불교 교류를 살펴보면, 식무외式無外는 14세기에 활동한 인물로 해상을 통하여 입원구법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가정집』에 관련 시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해로를 통하여 명주로 입원구법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 백운경한은 고려말 1351년에 입원구법을 떠나 임제종의 석옥청공에게 법을 구하고 1352년에 해로를 통하여 귀국한 사례에 해당한다. 입원시 경로는 상세치 않지만 귀국의 경로만은 『백운화상어록』에 비교적 상세하다. 경한은 1351년 5월 17일에 호주 하무산 천호암으로 석옥화상을 방문하여 계송을 올렸고, 다시 1352년 정월 상순에 천호암의 석옥청공을 찾아, 상원 9일 전날에 무심과 무념의 진종에 계합하였다. 이어 청공을 떠나 휴휴암에 도착하였다. 당시 흥건적들이 도처에서 횡패하여 뱃길도 육로도 모두 막혀 왕래가 어려워 1개월간 객식으로 휴휴암에서 배회하였다. 백운은 휴휴암을 떠나 중국 장쑤성 대창大倉에서 2월말에 출항하여 3월 22일에 고려에 도착하였다.¹⁴⁾ 이로 보면 경한의 귀국 노정은 명주로부터 약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소요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자유自休는 1378년 무렵 일본을 유람한 뒤 다시 중국으로 갔다.¹⁵⁾ 이 시기는 원명 교체기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왕래 여부는 분명치 않다. 고려말에도 승려의 왕래가 확인되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크다.

이 시기 여원 불교계의 해상 교류와 관련하여 대장경의 수입이 주목된다. 1340년대 천태종의 의선은 원도 연경 대연성사에 주석하였는데, 대장경을 원에서 구입하여 고려에 봉안하였다.¹⁶⁾ ‘여항묵본餘杭墨本’이라 하여 원판대장경을 원의 강절江浙 지역에서 인성하여 해상 선편으로 수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말 왕실 및 권문세가의 원찰에서 필요한 대장경을 원의 강절 지역에서 해양을 통하여 수입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우왕대 문하시중을 지낸 윤환尹桓은 충목왕 4년(1348)과 공민왕 16년(1367)의 두 차례 원나라의 강절에서 원판대장경을 구입하여 증건한 원찰 보법사報法寺에 봉안하였다.

한편, 여원교류기에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듯 고려 국왕 및 관료를 비롯한 재원 고려인의 불교 교류가 다수 확인된다. 충선왕 왕장王璋은 고려와 원에서 정치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남아있다. 충선왕은 원도에서 활동하면서

13) 『東文選』권21, 「送式無外上人乘舟如上國」, “瀟海西頭天一涯 片帆高掛欲何之 與師相識 渾無賴 又作春風送別詩.”

14) 『語錄』下, 제2장 1-2面.

15) 『牧隱集』권9, “送曹溪大選自休游日本 因往江南求法 新羅僧向扶桑去 又道中原訪趙州.”

16) 『稼亭先生文集』권18, 律詩.

강남의 불적을 순례하는 한편 고승을 역방하였다. 1319년 3월 이제현 등과 함께 천목산 환주암의 중봉명본을 찾는 한편 항주 혜인사에서 반곡선사盤谷禪師를 맞아 화엄대의를 듣기도 하였다. 충선왕과 명본이 서신으로 교류한 내용이 남아 있고, 초석범기는 이 서신을 필사하여 남기기도 하였다. 충선왕의 원도에서 불교계의 활동은 불적 순례, 불교학 교류, 대장경 기진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고려승의 일본구법은 요연법明了然法明(-1251-)이 대표적이다. 법명은 원나라 경산의 무준사범(1178-1249)에게 참학한 뒤 일본땅이 불지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순례하러 순우淳祐 7년(1247)에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갔다.(『조동종전서』16, 史傳上; 『일본불교전서』110) 1251년 3월 18일에는 出羽國 善見村에 玉泉寺를 개창하고 이어 北越에 주석하고 있던 조동종의 도원道元(1200-1253)을 찾아 그의 불법을 계승하였다. 또 다른 일본 조동종에서 알려진 인물로는 『흥화계보전弘化系譜傳』 권2에 의하면 峨山下의 無外圓昭(1311-81)도 고려의 승려로 분류된다.¹⁷⁾ 이외 고려승으로는 고려 水精寺 空室妙空이 일본에 입국하여 高峯顯日(1241-1316)의 교학을 배우고 慶芳禪師(?-1381) 등을 배출하였다. 이는 고려승이 入日求法하여 불교계에서 활동한 사례로 주목된다.

2. 원과 일본승의 고려 불교계 교류 및 활동

고려에 입국한 원나라 승려는 1304년 입국하여 활동한 철산소경鐵山紹瓊, 1326년의 지공指空, 14세기 중엽의 무극장로無極長老 등이 있다.¹⁸⁾ 철산소경은 1304년 7월을 전후하여 입국하였다. 철산소경은 임제종 몽산덕이蒙山德異의 법통을 이었는데, 고려 후기 몽산의 간화선풍이 유행하는 가운데 사법제자가 고려를 방문한 셈이다. 소경의 입국을 주선한 인물은 당시 원나라에서 유력하던 충감沖鑑으로, 그가 중국의 강남 지역에 머물 때에 소경의 도행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고려로 돌아와서 3년간을 함께 하였다.¹⁹⁾

1369년 이전 1344년을 전후한 시기에 회암사에는 원나라 승려 무극장로가 머문 사실이 있다.²⁰⁾ 이는 원의 초석범기楚石梵琦가 고려의 회암사에 머물고 있는 무극장로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중국 임제종의 대혜파 범기의 서신은 혜근과 보우가 사법한 호구소룡파虎丘紹隆派 이외의 교류 내용을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고 보우는 1339년에 소요산 백운암에서 해로를 통해 고려에 온 원나라 승려 무극을 만나 석옥청공 등 원나라의 임제종의 계파 및 정보를 교류한 바

17) 佐藤秀孝, 1984, 「曹洞禪者の日中往來について」『宗學研究』26, p.289.

18) 박용진, 2016, 「고려시대 회암사의 역사와 국외 교류」, 『회암사와 불교사』, 양주: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19) 危素, 「高麗林州大普光禪寺碑」(『韓國金石全文』中世下, p.1180).

20) 文斌等, 『仏日普照慧辯楚石禪師語錄』卷19, 「偈頌」5(『卍新續藏』권71).

있다²¹⁾. 한편, 충숙왕 6년(1329) 이후 1333년 1월을 전후한 시기에 가정 이곡(1298-1351)이 무극의 문도인 경초가 중국의 전당錢塘으로 돌아감에 따라 무극의 시에 차운次韻하여 시를 지어 송별하였다.

지공은 인도 출신으로 원도에서 활동하던 중 1326년 3월 고려에 왔다가 1328년 9월까지 2년 7개월 체류하면서 불교계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원나라로 귀국한 뒤 고려말 불교계를 주도한 혜근, 보우, 경한 등 고승들과 교류하였으며 그의 사후 회암사에 사리탑과 탑비가 세워졌다. 지공의 고려 불교계 활동으로는 승숙에게 안선安禪, 수계와 계법 전수, 범어 불전의 교정, 불적의 성지인 금강산 순례 등이 있다.²²⁾ 기타 원대 승려로서 고려 불교계와 교류한 인물로는 원승 담당법사湛堂法師 성징性澄이 지치至治 연간(1321-1323)을 전후 하여 고려에 와서 천태 서적을 구하여 돌아간 바 있다(『釋鑑稽古略續集』, 『大正藏』49).

다음으로 일본승의 고려 불교계 활동이나 교류를 살펴보면, 고려와 일본의 불교 교류는 오래 되었지만 단편적인 자료가 대부분으로 그 실상은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분류하면, 일본승의 입려구법, 일본승의 입원入元 왕래시 체류, 불전 및 불구佛具 교류, 기타 왕래 기록 등으로 대분된다.

일본승의 고려 구법 및 활동은 『고려사』 고종3년 2월조에 일본승이 고려에 와서 불법을 구한 기록과 1359년의 중암수운中菴守允(1333-?), 1340년대의 석옹石翁, 1390년 영무永茂 등이 개경의 인근 사원에 머물면서 승숙과 교류하였다. 1344년 혜근이 회암사에 이르러 한 방에서 장좌불와하며 수도하였는데, 당시 일본 승려 석옹화상이 있었다. 석옹이 회암사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체재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회암사는 외국 승려를 수용하고 상호 교류하는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고보우도 석옹에게 계송을 지어 보낸 일이 있는데, 이 시기는 석옹이 회암사에 체재한 1344년부터 보우가 원나라로 떠나는 1346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해당한다. 보우가 교류한 일본 승려로는 석옹장로石翁長老, 지성선인志性禪人, 웅선인雄禪人, 중암수운中菴壽允 등이 찾아지는데, 웅선인은 원나라의 강남으로 떠나가는 선승이었고, 수운은 1376년에 보우에게 자신의 호로써 계송을 구한 인물이었다.²³⁾ 수운은 이색에게서 「발황벽어록跋黃檗語錄」을 받았으며, 그의 사법 계통이 간략히 제시되었다.²⁴⁾

21) 維昌, 『圓證行狀』(『韓國佛教全書』권6, p.696).

22) 閔漬, 「禪要錄序」, “親對日角 默伝妙志 因受御香 名以往觀金剛山

23) 雪栖編, 『太古和尚語錄』(『韓國佛教全書』권6, pp. 686-692).

24) 李穡, 「跋黃檗語錄」(『牧隱集彙』권13), “其師見龍山 與道長老同師中峯有得 住持江南兜率寺”. 스승은 龍山見이며 道長老와 함께 중봉명본에게 참학하였다. 伊藤幸司, 「선종에서 본 일본과 고려·조선의 교류」, 『朝鮮時代の韓國과 日本』(韓日關係史學會 創立 20周年記念 韓日國際學術會議 자료집, 2012)에서 上田純一, 『足利義滿と禪宗』(法藏館, 2011)을 인용하여 石翁은 일본의 東福寺 聖一派의 선승으로, 평산처림의 제자가 된 石翁曇

일본 승려가 원나라 왕래시 표착 등의 사유로 체류한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 충숙왕 11년(1324) 7월에 입원구법 일본승 대지大智(1290-1366)가 고려에 표착하여 고려국왕에게 계송을 바치고 귀국하였다고 한다(『고려사』세가 35, 충숙왕 11년 7월). 일본승 여문如聞은 충목왕 즉위년(1344)에 제주도에 표착하였다가 고림청무(1262-1329)의 어록을 필사하여 돌아갔다. 중암은 일본 승려로 개경 인근의 영은사에서 머물렀다. 중암은 1381년을 전후하여 여러 해 고려에 체재하였는데, 이색을 비롯한 유학자와도 교류하였으며, 둔촌과 도은이 연말에 영은사의 중암을 찾아 교류하였다. 그의 종파나 활동은 분명치 않지만 고려의 개경 사원에 일본 승려가 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러한 유의 기사는 고려 13-14세기에 다수 확인되며 일본승이 일·중 왕래시 고려의 본토나 탐라에 표착하는 경우가 다수 보인다.

이외 고려와 일본 승려간 원나라에서 간접적인 불교 교류도 추정된다. 일본승 성심成壽의 『참천태산오대산기參天台五臺山記』는 1072년 3월 15일부터 1073년 6월 12일 명주 정해현에서 제자 5명을 귀국시킬 때까지의 1년 3개월의 입송 및 체재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고려선인高麗船人’과의 접촉, 개봉 상국사에서 고려 사신단 관련 견문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간접적인 교류도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고려시대 중일 승려들의 교류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명확히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본고에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불교계 교류를 통한 구법 및 새로운 불교학의 수입과 동향 파악, 대장경 및 불서 수입과 기타 불구·불화 등 불교문화 수입, 불교 성지 순례 등으로 대분된다. 특히 이러한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중국·일본은 불교의 상호교류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로 해상 교류를 들 수 있다. 고려시대(918-1392) 중국 제국과의 불교 교류는 오대와 북송의 경우 해로가 중심이지만 육지로 연결된 요·금·원은 육로가 일반적이었다. 원대의 경우 육로가 일반적이거나 항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경우 해로를 통한 상선의 왕래도 다수 활용되었다. 물론 일본과의 불교 교류는 해로이면서 송상을 매개로 전개된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분류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고려전기 흥법, 석초 등은 선종 계통의 승려로 구법하였고, 광종대에 지종, 덕선 등 36인이 오월국의 영명연수에게 나아갔으며, 구법과 함께 불교 성적 순례도 확

球로 추정하고, 石翁과 懶翁慧勤과는 법형제로 보았다.

25) 『牧隱詩藁』권31, “遁村來過云 將與陶隱 守歲靈隱寺 中菴所居也 中菴出日本 道氣絕纖塵 二李慰獨夜 三韓知幾春.”

인된다. 광종의 불교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된 국가 파견 구법승으로 분류된다. 즉, 구법의 목적을 띤 것으로, 승사 수업을 통하여 중국 불교계의 새로운 교학과 동향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13-14세기 원대에는 한국불교사상 조계종의 기원과 법통의 주요 고승으로 고려말 조선초 불교계를 주도한 태고보우, 백운경한, 나옹혜근, 무학자초 등이 원 임제종의 제가를 역방하여 인가를 받는 등 교류하였다. 이들은 송대와 달리 육로를 통하였고, 경한은 해로를 통하여 귀국하며 교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고려승의 일본구법 및 불교계 활동 사례로는 1250년을 전후한 요연법명이 있고, 기타 14세기의 원소, 묘공 등의 인물이 찾아진다.

둘째는 국가간 외교의 목적으로 불서 등을 전하거나 이와 반대로 대장경이나 불전을 구하는 상호교류적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961년(광종 12)에 오월왕 전숙은 천태관계 교적을 고려에서 구하였고, 체관은 구법승이 아닌 국가간 외교의 목적으로 불서를 가지고 파견되기도 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은 동아시아 불교계의 제종 불교 주석서를 수집하여,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조조하여 송, 요, 일본 등에 불서를 전하였다. 특히 송나라에 실전되었던 화엄 및 천태교학서를 유통시켜 화엄 및 천태종을 재흥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려중기 지눌 이후에는 선종의 어록서가 수입되어 활용되었고, 원대에도 고려선승들의 어록이 제작되는 한편 원승의 어록을 중심으로 선종 사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셋째는 중국의 주요 불적을 유력하는 성지순례적 목적을 들 수 있다. 구법승의 관련 기록이 소략하지만 송대부터 원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구법승은 불교 성적을 순례하였다. 고려 구법승의 목적이나 활동은 구법이나 순례 등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려와 송원일본과의 해상교류나 불교 교섭의 자료는 단편적이고 소략하여 그 실체를 찾기 어렵다. 고려전기와 중기에는 오월국의 자린, 숙종대 성총과 혜진 등이 상선을 통하여 입려구법 및 성지 순례의 기록이 찾아지고, 의천은 입송구법 이후 송 불교계와 인적 물적 교류를 전개하였다. 또한 교장의 수집과 간행을 통하여 송, 요,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가 없는 가운데 송상은 해로를 통하여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불서의 교류 및 전달, 각국의 출판 등에 대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고려후기인 13-14세기에 고려에 입국하여 활동한 원나라와 일본의 승려를 살펴보면, 원승으로는 1304년 철산소경, 1326년의 지공, 14세기 중엽의 무극장로 등이 비교적 자료가 남아있지만 대부분 육로를 통한 교류라는 점에서 송대와 다른 점이다. 일부는 해로를 통하여 귀국하는 사례도 있지만 제한적이다. 일본승의 고려 불교계 활동이나 교류를 살펴보면, 고려와 일본의 불교 교류는 오래 되었지만 단편적인 자료가 대부분인데, 이는 일본승의 입려구법, 일본승의 입원 왕래시 체류, 불전

및 불구 교류, 기타 왕래 기록 등으로 대분된다. 일본승의 고려 구법 및 활동은 14세기에 중암수운, 석옹, 영무 등이 개경의 인근 사원에 머물면서 승속과 교류하였다. 또한 고려 13-14세기에는 일본승이 일중 왕래시 고려의 본토나 탐라에 표착하는 경우도 다수 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고려와 송·원·일본 교류의 내용을 고려초 10세기, 고려중기 11세기에서 12세기, 고려후기 13세기에서 14세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해상교류와 교섭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향후 고려불교사상의 전개나 추이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용진, 2011, 『의천-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박종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서울: 푸른역사.
 이승휴, 진성규역, 2009, 『賓王錄』, 서울: 지만지.
 李鎭漢, 2011, 『高麗時代 松商往來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張東翼, 2009,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張東翼, 2004, 『日本古中世 高麗資料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趙明濟, 2004, 『高麗後期 看話禪 研究』, 서울: 혜안.
 魏志江, 2006, 『中韓關係史研究』, 廣州: 中山大学出版社.
 陳景富, 1999, 『中韓佛教關係一千年』,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山内晋次, 2017, 「入唐僧·入宋僧の時代」, 『日本古代交流史入門』, 東京: 勉誠出版.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輯委員會, 1999, 『對外關係史總合年表』, 東京: 吉川弘文館.

제2부 토론문

조명제(신라대)

2부에 발표된 3편의 글은 근래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주제에 맞추어야 하고, 발표문이라는 형식으로 인한 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구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내용에서 아쉬운 느낌을 준다.

먼저 종래 一國史 위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대외관계사, 교류사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상을 준다. 나아가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시각이 여전히 깔려 있어 근래의 연구 동향과 어울리지 않는다. 주지하듯이 10~14세기는 중화질서가 약화되고 거란-금-몽골제국으로 이어지는 유목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교류와 교역에 대해서는 중앙유라시아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외 교류가 국가권력의 영향 하에 있지만, 9세기 이후 정치, 외교적 교류에서 민간 주도의 교역으로 변화하였으며, 동아시아 해상 교역은 이슬람 상인과 연계된 인도양 해역세계, 동남아 해역세계까지 연계되었다.

한편, 관계사를 다루는 논문은 자국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글로벌한 연구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시된 연구 성과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흔적이 드러난다. 특히, 단순한 교류 관계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1. 魏志江, 「고려-송 해상실크로드와 해양문화 교류」

이 글은 발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체로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다만, 발표문에서 지나치게 중화주의적 시각이 드러나 있고, 그러한 시각에 따른 무리한 설명이 적지 않다. 세부적인 내용과 표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나 사실 자체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유불도 사상이 고려의 불학 사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주로 고려의 유불도 삼교가 하나로 합쳐지고 천태종이 창립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 이러한 결론은 송, 고려의 사상사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송대에 유불도 삼교일치가 표방되지만, 신유학의 등장과 함께 불교, 도교에 비판이라는 흐름이 엄연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 삼교일치론은 유불도의 대립 양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거나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모색된 측면이 있다. 또한 삼교일치를 표방하더라도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에 따라 그 내용도 다르다. 적어도 13세기까지 고려불교에서는 부분적으로 유불일치설이 제기되지만, 불교 우위의 논리이다. 송의 유불도 삼교일치와 같은 흐름은 고려말에 이르러 제기되며, 그것은 사대부들이 朱子學을 수용하면서 불교 비판론을 제기하는 데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다. 발표자의 의견과 같이 송의 유불도 삼교일치사상이 고려불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해하거나 고려사상계에 일방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며, 지나친 해석이다.

“의천의 ‘교관겸수’ 사상은 독자적으로 창립한 것이 아니라 중국 화엄종의 고승인 圭峰, 泚水 및 淸涼大師의 영향을 받은 것”

→ 의천의 교관겸수 사상은 당시 고려의 정치 상황, 불교계의 통합을 위한 의도 등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의천은 그러한 사상적인 기반을 중국 화엄종에서 찾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중국불교의 일방적인 영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의천의 불교사상과 전적 정리가 동아시아 불교에 미친 영향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知訥은 『金剛經』, 『六祖壇經』을 기본으로 하여 조계종을 세웠고 또한 ‘敎禪不二’를 주장”

→ 이러한 경전은 지눌이 깨닫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지눌의 사상적인 기반은 화엄사상, 간화선이 중심이다. 또한 지눌은 수선사를 개창하였지만, 이는 하나의 山門에 불과하며 조계종을 세운 것은 아니다. 후대에 조계종의 법통설과 관련하여 지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지, 실제 사실은 아니다.

“지눌은 송의 大慧禪師의 영향을 받아 유가의 충의를 융합하고자 하였는데, 선종의 ‘忠義之心’은 ‘菩提心과 이름은 다르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하였다.”

→ 지눌이 대혜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러한 언설을 주장한 사실은 없다.

2. 이진한, 「고려전기 송상 왕래와 동북아 지역 교역망」

이 글은 송상 왕래를 중심으로 고려전기 중국과의 교류 관계, 고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교역망의 형성을 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이 정치권력과 국제무역의 관계에 주목한다든지 정치권력에 의한 무역항과 상인에 대한 관리·통제, 進貢 형식을 취하는 물품 거래가 권력 측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나 대외 자세를 장식하여 뒷받침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연구 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고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교역망의 형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가 교역의 매개 이상의 역할이 있는지, 교역망의 중심이라고 할 만하지 의문이 든다. 거래 대상으로서 고려의 산물이나 물품이 충분하지 않으며, 나아가 대외 교역이 고려 국내의 유통구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고려 중심의 교역망이라는 실체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해상 무역을 둘러싼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거점은 일본의 경우 博多, 송의 경우 明州.杭州였고, 공통적으로 宋商이 관여하였다. 또한 11세기 후반 이후에는 일본무역, 고려무역에 종사하는 해상이 명주, 항주에서 빈번히 교착하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국제 교역은 송의 해상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교역이 중심이었다. 예를 들어 11세기 후반의 일본과 고려의 통교에 종사한 해상 王則貞은 일본에 도착해서 다자이후의 府老를 맡았던 송의 王氏 일족이었다. 이들 송상은 의천판 고려 불전의 입수를 중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 중심의 동북아 교역망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쪽에서 전근대 무역의 기본 원칙은 외교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고려와 송의 외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송상이 고려를 왕래한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송과 일본도 정식 외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졌고, 고려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동아시아에서 9~14세기에는 국가 중심의 정치, 외교적 교류에서 민간 교역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고려만의 특이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12쪽에서 동여진은 원산만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뒤 동해를 남하하는, 고려로의 해상 왕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왕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보완하면 좋겠다. 먼저, 여진의 조선훈, 항해술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해 시절의 항로가 대부분 일본의 北陸 지방으로 향한 것은 오오츠크해에서 내려오는 리만 해류를 타고 오다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쓰시마 해류의 영향으로 다시 동해(일본해)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항로, 항해술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항해술의 문제는 1019년에 50척의 刀伊가 쓰시마, 큐슈 북부를 침략하였고, 다시 고려를 습격한 사례도 있다. 여진이 고려 동해안 또한 울릉도 등에 자주 침략하였으므로 이러한 항로를 통해 고려로의 해상이 왕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려가 여진의 침략을 우려하여 자유로운 해상 왕래까지 허용하였을까? 라는 의문도 있다.

3. 박용진, 「고려·중·일 불교계의 해상 교류와 불교 교섭」

이 글은 고려전기(고려초~10세기), 중기(11~12세기), 후기(13~14세기)로 나누어 해상을 통한 불교 교류와 교섭을 다루었다. 주요 논지는 기존 연구 성과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결과는 발표자가 밝힌 바와 같이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시각과 방법론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한 것이나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먼저, 제목과 목차가 일치하지 않으며, 시기 구분 자체가 불교사적 흐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전체적으로 불교 교류의 양상을 나열함으로써 불교 교류에 대한 사상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전체적인 내용이 중국불교의 영향이 강조되어 있는데, 중국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불교사상을 제공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일방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고려, 일본은 송대 불교의 새로운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용하지만, 독자적인 불교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고려, 일본, 베트남 등에서 송대 불교가 수용되는 양상은 차이가 있으며, 주도적인 종파나 사상도 차이가 있다.

발표자는 불교 교섭의 자료가 단편적이고 소략하여 그 실체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3세기 고려불교계에서 송상을 통해 입수한 송의 禪籍이 대단히 방대하며, 그것이 복각되거나 고려의 독자적인 선적으로 편집, 편찬되어 고려 선종의 사상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 성과가 근래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조명제, 『禪門拈頌集 연구-12~13세기 고려의 公案禪과 송의 禪籍-』, 경진출판, 2015) 특히, 이러한 송의 선적은 11세기 이후에 목판본으로 출판되면서 일정하게 정본화된 문헌이며, 공안선의 유행과 깊이 관련된다. 나아가 선종을 통한 송대 문화의 수용은 고려, 일본에서 불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문, 문예, 미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 드러난다. <표1>에 종파를 법안종이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지종은 본문 서술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천태종 승려이다. 헤거국사의 중국 유학도 최근 새로운 비문 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지눌이 대혜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대혜어록』이 맞다.

末木文美士, 横内裕人, 上川通夫, 保立道久, 原美和子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지만, 의천이 간행한 敎藏(이른바 續藏經)이 일본불교에 전래된 영향은 주목된다. 院政기에 宋商을 통해 수입된 고려판 전적은 일본 중세불교의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遼 불교의 문헌이 적지 않으며, 특히

『顯密圓通成佛心要集』은 1097년에 간행된 고려본을 서사한 것이 현재 일본 高山寺에 남아 있다. 이 책은 顯密雙修와 밀교의 易行性を 강조하며, 화엄과 밀교의 관계에서 明惠와 비슷한 것이 있다. 가마쿠라불교에서 밀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院政.鎌倉期の 밀교가 헤이안 초기의 밀교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院政.鎌倉期の 현밀쌍수를 충분히 이론화한 저작이 없는 상황에서, 遼의 『顯密圓通成佛心要集』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橫内裕人, 「高麗續藏經と中世日本」, 『佛敎史學研究』 45-1, 2002에서 교장(속장)이 가마쿠라불교의 현밀체제 성립의 伏流水가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고려본 불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2018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학술대회
2018 KNMM International Symposium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SEA, the Foundation of GORYEO

제3부 발표

- 고고자료로 본 고려의 해상활동
/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
 - 일본 출토 고려 청자
/ 후루야 데쓰오(교토국립박물관)
 - 중국 출토 고려 청자의 지역적 분포와 시대적 특징
/ 동치엔리(杭州박물관)
 - 제3부 토론
/ 좌장: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

발표문

고고자료로 본 고려의 해상활동

정의도(한국문물연구원)

1. 서
2. 고려선과 출수유물
3. 선박의 사용시기와 그 종류
4.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
5. 결론

1. 서

고려의 해상활동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고려 수군과 관련된 것으로 고려는 국초부터 수군을 편제하고 동해와 서해, 남해에 걸쳐 수군진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동여진과의 전투, 몽골의 침략에 대한 항전과 삼별초의 난, 일본 원정, 그리고 왜구의 침입과 격퇴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려는 건국초기에 남방 각지에 12개의 조창을 설치하여 지방의 조세수입을 수로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송하는 조운제를 시행하였으며 오대 송대의 중국왕조와 사신의 교환은 물론이며 매우 활발한 교역을 행하였다.

고고학이 문헌사를 유적과 유물로서 보완하는 학문이 아니라 유적과 유물로서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인만큼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서 유적과 유물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고려의 해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선박을 직접자료라고 한다면 수군을 관할하는 수군진, 조운선의 기지 역할을 하는 조창, 해상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객관이나 선박에 실린 물품 등은 간접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금은 고려인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성장하여 특하면 고래 같은 파도를 타게 되니 본래 선박을 앞세우는 것은 의당한 일이라고 하여 고려사람들의 왕성한 해상활동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 글은 고려시대의 왕성한 해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자료인 선박과 출수유물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선박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고찰, 이어서 간접자료인 선박을 이용한 해상활동과 관련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2. 고려선과 출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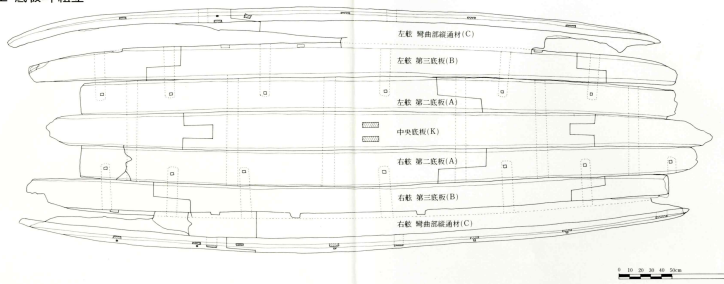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일본도 부러워하는 수중고고학 강국으로 수중조사를 전담하는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왕성한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그간 서남해 일원에서 조사된 고려선과 동반 출수된 유물 등을 조사된 시기에 따라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1) 완도선 선체와 출수유물

완도선은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일원으로 완도군청 소재지인 완도읍에서 동북방 8.7km에 위치한 조약도의 동쪽 끝에 있는 해두리 부락 앞 300m 해상의 무인도인 어두지섬의 동북 돌출부분에서 72m 지점의 해역이다.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30,701점이 인양되었는데 그 중 도자기류가 30,673점으로 대부분이며 금속류와 목제품이 있다. 선체편 81점도 함께 인양 수습되었는데 중앙저판과 좌현저판 2점, 우현저판 2점 등 5점의 저판, 좌현 만곡부종통재와 우현만곡부종통부재, 외판이 좌현 5층, 우현 4층 등인데 일부는 부식이 심하다.

도자기는 청자대접과 접시가 30,000점 이상을 차지하며 103점의 청자광구병과 11점의 매병, 그리고 3점의 장고와 유병, 호, 발, 잔, 그리고 청동제 숟가락도 포함되어 있다. 청자대접과 접시는 구부가 넓게 외반되고 동체가 S자 곡선을 이루며 기벽은 얇고 유색은 녹청색, 녹갈색, 회청색 등의 청자유를 얇게 발라 시유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12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다.[도1]

제1도 底板의 組立



도1. 완도선 배 저판조립(上).출토 청동숟가락(下左) 靑靑鐵繪牡丹唐草文長鼓(下右)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5, 『완도해저유물 발굴보고서』 전재)

2) 목포달리도선체와 출수유물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매몰 선체에 대한 발굴조사는 섬의 북서쪽에 자리한 달리 2구의 일명 지픈골 앞 개펄에서 이루어졌다. 이 해안은 평평한 해안퇴적층이 비교적 넓게 발달한 곳이었으나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의 축조 이후부터 유입되는 토사량의 감소로 발생한 해안지형의 변화에 기인하여 개펄 속에 묻혀 있던 달리도 매몰선이 발견되었다. 선체 내에는 어떠한 적하물도 남아 있지 않았다. 달리도선의 잔존 선체는 저판 3열과 우현 외판재 4단, 좌현 외판재 2단 및 선미판의 일부가 온전히 결구된 채 매몰되어 있었다. 잔존 규모는 전체 길이 10.5m, 잔존 너비 2.72m, 잔존 깊이 0.8m 정도이다.

달리도선에서는 사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고고유물이 전혀 발굴되지 않았으나 달리도선이 11세기 중후반 경의 선박으로 파악되고 있는 완도선과 형태는 유사하나 좀 더 발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달리도선 선체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의하면 1210~1400년(확률 95%)인 것으로 밝혀져 달리도선은 완도선보다는 늦은 시기인 13~14세기 경에 활동한 선박으로 간주된다.

3) 군산 십이동파도 선체와 출수유물

십이동파도선 선체는 편평한 저판과 L자형 부재인 만곡부재를 갖추고 있는 평저형구조로 완도선과 유사하다. 그러나 선체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개흙에 묻혀 있던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고 저판과 만곡부, 선수부, 외판 등 일부만 인양되었다. 이외에도 닻줄을 감는 호롱(碇輪) 받침대와 닻장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출토되었다. 선체의 잔존 규모는 길이 7m, 너비 2.5m인데 저판과 각 부재의 크기 등으로 볼 때 전장 14~15m 정도의 선박으로 추정된다.

십이동파도선에서 인양된 유물은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며 1차 조사에서 철제 솔과 청동손가락, 나무췌기, 2차 조사에서는 선체와 닻장, 밧줄 등이 인양되었다. 십이동파도 인양 청자는 12세기 초가 중심시기인 해남 진산리요지보다는 앞선 시기 즉 11세기 후반 경으로 편년될 수 있겠다.

4) 안좌선 선체와 출수유물

전남 신안군 안좌도선은 안좌도 북쪽에 자리한 해안의 갯벌층에 비교적 얇게 묻혀 있었다. 선체 내부에는 가공되지 않은 다량의 자연목들과 청자, 질그릇편, 숯돌 등이 배 바닥 층에서 발견되었다. 선체의 잔존 부분은 저판과 좌현 외판재 2단, 우현 외판재 7단이 결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3열의 저판이 갯벌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으므로 선수판을 삽입했던 홈과 선미재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선체 내부에는 횡강력재인 가롱목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배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과 돛대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명예형 가롱 1개가 조립상태로 확인되었다.

안좌도선의 잔존 규모는 전체 길이 14.7m, 너비 4.53m, 깊이 1.4m 정도인데 도상 작업으로 복원된 크기는 상부 너비 6.6m, 전체 길이 17m, 깊이 2.3m 정도

의 목선이다. 안좌도선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잔 2점, 청자접시 3점, 녹갈색잡유호 1점과 흑갈색 잡유호편, 도기편, 옹기편 등이 있다. 청자잔은 청자상감국화문잔으로 1점은 완형이고 1점은 반파된 것이며 청자접시는 팔각접시와 도범으로 찍어낸 팔각화형접시가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14세기 경에 유행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체의 구조와 출토 유물로 미루어보아 안좌도선의 운항시기는 14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고 안좌도선은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다.

5) 중국 봉래수성출토 고려선체 및 출토유물

중국 산둥성 봉래시 북단에 위치한 봉래수성 내 남쪽 소해의 서남곶에서 1984년에 원대의 전선(봉래1호선)이 발굴되었고 2005년 7월~11월 사이에 3척의 고선박이 발견되었다. 발굴된 3척의 고선박 중 1척은 중국 명대 중만기의 선박(봉래2호선)이다.

봉래3호선은 총적된 진흙층 5.2m에서 출토되었으며 잔존 길이 17.1m, 폭 6.2m, 잔존 길이 17.1m, 폭 6.2m, 잔존 높이 1.28m이다. 추정 복원 전체 길이 22.6m, 갑판 폭 8.4m, 높이 3m로 2개의 돛을 갖춘 목범선이다. 현존 5개의 격벽과 4개의 격벽 흔적이 남아 있어 모두 9개의 격벽에 10개의 창을 갖추었다.

봉래3호선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청자상감초화문접시, 청자상감파도연주문대접, 도기호, 도기장군, 옹기, 도기대반 등이 중국자기인 흑유완, 청유완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는 둔중한 기형과 간략한 문양, 사립을 받쳐 번조한 기법 등을 미루어볼 때 여말선초(14세기말~1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도2]



도2. 봉래 3호선 배 저판(上). 출토 도자기 편 일괄(下)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烟台市博物館·蓬萊市文物園, 2006, 『蓬萊古船』 전제 및 필자촬영)

6) 마도1호선 선체 및 출수유물

선체는 잔존 규모가 전체 길이 10.8m, 폭 3.7m이고, 남동-북서 방향으로 매몰되어 있었으며, 총 39편의 부재가 남아있었다. 선체 구조는 5열의 底板을 가진 平底型 선박이며, 기울기가 완만한 彎曲部縱通材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중앙저판의 연결은 턱걸이 장부이음방식을 사용하고 船體外板은 고려 선박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홈붙이 클링커이음방식(上角型 接合, grooved clinker joint)을 사용하고 있다.

태안 마도 1호선에서 발굴된 유물은 선체를 포함하여 총 489점이다. 벼, 조, 콩, 깎지, 메밀 등 다량의 곡류가 발굴 되었으나 유물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선적된 도자기는 대부분 고려청자와 젓갈 등 지방의 특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도기류가 다량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고려청자에는 표형주자와 승반, 투각 기대 등 일부 상급품이 포함되어있다. 목간·죽찰은 총 73점이 출토되었는데 목간 15점, 죽찰이 58점이다. 그 외에도 선상에서 사용했거나 진상용품으로 청동 숟가락, 철제 솔, 숫돌, 나무국자, 대나무반, 대나무 바구니, 석탄, 빗 등이 출토되었다.

태안 마도 1호선은 목간판독결과 마도1호선은 1208년 봄 난파된 선박으로 고려 시대 수취관계 등 구체적인 역사적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7) 마도2호선 선체 및 출수유물

마도2호선은 全長 12.6m, 중심 폭 4.4m의 규모다. 저판 21부재, 외판 20부재로 총 41부재가 남아있었으며, 가룽목 5점, 원통목 7점, 닻구조물 1점, 닻돌 1점도 출수되었다. 저판은 7열로 연결되어 있고 선수가 선미보다 넓게 제작되었다. 마도2호선에서 확인된 평저형의 횡단면 구조, 클링커 이음방식을 채용한 외판 구조, 가룽목과 원통목을 사용하여 횡강력을 유지한 점 등의 구조적 특징은 우리나라 13세기 고선박의 형태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마도2호선은 곡물을 운반하던 배로 출수된 자기류는 총 140점으로 전량 청자이다. 기종은 발·대접·접시·잔·병·호 등 생활용기가 중심을 이룬다.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청자는 포장목으로 묶여 있던 자기류와 선상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선상에서 실제 사용된 자기류로 구분된다.

마도2호선에는 태안선·마도1호선과 마찬가지로 화물의 운송표로 쓰인 목간 47점이 나왔다. 목간에는 출항지 또는 실린 화물의 생산지로 추정되는 高敞縣, 戊松縣, 長沙縣, 高阜郡이 적혀 있다. 화물 종류는 白米, 中米, 太, 豆, 末醬, 麴, 卵醢, 精蜜, 眞 등이다.

목간에 남아 있는 화물 수취인 중 하나인 이극서는 고종대 추밀원부사(1219년)와 평장사(1220년)를 지낸 인물이다. 그런데 목간에서 이극서의 관직은 郞中으로 적혀 있어 마도2호선은 1219년보다는 앞선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도2호선은 마도1호선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나오는 곡물을 개경에 있는 관직자에게 운반하던 곡물운반선이라고 할 수 있다.

8) 인천 영흥도선 선체와 출수유물

영흥도선은 2012년 인천 섬업별해역에서 발굴된 선박이다. 영흥도선의 잔존규모는 길이 6m, 폭 1.4m, 선심 0.3m 가량이며 선체는 총 3부재가 발굴되었으며 적재목으로 추정되는 원통목 1점이 확인되었다. 중앙저판은 최대 길이 590cm, 최대 폭 42cm, 최대두께 31cm로 2개의 부재가 턱걸이장부이음으로 이어져 있는 상태이다. 턱걸이장부이음부에는 견고한 고정을 위해 측면에서 피삭을 관통시켰다.

영흥도선 출수유물은 도기병 2점, 도기장군 2점, 도기호 2점, 철제술 17점, 청동제용기 1점, 용도불명 목제품 1점, 소형 원통목 2점이 있다. 이 중 황갈색 내용물이 담겨 있던 소형반구병의 형태와 시문양상을 보면 그 제작시기를 빠르면 8세기 후반 늦어도 9세기경 즉 나말여초기로 추정할 수 있고 선체에 대한 방소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한 결과 8~9세기 경으로 연대가 측정되어 고고학적 편년결과와 부합된다.

9) 태안 마도3호선 선체와 출수유물

고려시대 난파선 마도3호선 수중발굴조사 결과 35점의 화물 물표 목간과 도기호, 청자, 청동용기를 포함해 다수의 곡물류와 동물뼈 등을 발굴했다. 마도3호선은 선수와 선미, 돛대 등 선체 구조가 거의 완형으로 남아 있어 마도3호선의 선체 길이는 약 12m이며 폭은 8.5m로 선체는 좌현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매몰되어 있다. 외판은 좌현은 10단, 우현은 9단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인양되었던 고선박 중 가장 많은 외판이 확인된 것이다.

마도3호선에서는 도기호 45점, 도기병 4점, 접시 1점 등 모두 50점의 도기가 출수되었고 60점의 청동유물(발 · 접시 · 합 · 뚜껑 등의 용기류와 수저, 국자 및 중국 동전, 방울 등)이 출수되었다. 마도3호선은 출수된 화물의 물표 연구결과에 의하면 1265~1268년 사이 침몰한 선박이다. 발송지는 전라남도 여수를 포함한 남부 해안이며, 최종 목적지는 당시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였다. [도3]





도3. 마도 3호선 배 평면노출도(上左).출토 목간(上右).출토 도자기 및 청동유물 일괄(下)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태안마도3호선』 전제)

10) 대부도2호선 선체와 출수유물

대부도 2호선은 출수 유물을 통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 경에 침몰된 고려시대 선박으로 밝혀졌으며 매물 당시의 규모는 길이 9.15m, 중심폭 2.9m 가량이었다. 잔존 선체는 저편 4열 11부재, 만곡종통재 좌·우현 각 3부재, 좌현외판 2단 5부재, 우현외판 3단8부재 선수판재 3부재, 선미판재 2부재 등이 결구된 채로 확인되었다. 선체 내부에는 가롱목 5점이 만곡종통재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돛대를 받쳐주는 멩에형가롱 1점이 결구되어 있었다.

대부도 2호선에서 출수된 청자는 총 21점이다. 기종은 발과 접시만이 발견되었으며 문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양은 소량이지만 음각선문, 음각연판문, 압출화문 등이 있다. 수량, 사용흔적 등으로 보아 상품으로 적재된 것이 아니고 선상 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는 청자발에 간략하게 표현된 음각연판문으로 미루어보아 대략적인 시기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도4]



도4. 대부도2호선 작업광경(上左).출토 청동유물(上右). 출토 도자기 일괄(下)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안산 대부도2호선』 전제)

3. 선박의 사용시기와 그 종류

먼저 선박의 사용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영흥도선은 신라말 고려초의 선박으로 중앙저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재의 형태에서부터 그 측면에 결구되는 부재들이 고려시대의 선박과는 구조적인 측면과 나무못의 결구양상에 있어서 전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어 신라말에 건조되어 고려초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고려시대에 건조된 선박은 군산 십이동파도선, 완도선, 태안마도 1·2·3호선, 대부도 2호선, 달리도선, 안좌선 등인데 대체적인 선체 구조는 3열, 5열, 7열의 흘수底板을 가진 平底型 선박이며, 기울기가 완만한 彎曲部縱通材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중앙저판의 연결은 턱걸이 장부이음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장부이음방식보다 견고하게 결구하고 있으며, 船體外板의 연결방식은 고려 선박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홈붙이클링커 이음방식(上角型 接合, grooved clinker joint)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부도2호선에서 고려시대 선박에서 보이지 않았던 조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 발굴된 고려시대 저판은 3열이나 5열, 7열의 흘수열로 가운데 열에 돛대를 세워 끼울 수 있는 2개의 홈이 확인된다. 하지만 대부도 2호선은 4열의 저판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돛대구멍도 자연스럽게 중앙 2개 저판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고 봉래선에서는 예외적으로 격벽이 발견되어 중국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으나 고려선의 발전된 구조로 보았다. 그리고 15세기에 건조된 태안마도4호선에도 선체는 저판 3열, 좌현 외판 4단, 우현 외판 11단, 선수재 2단, 선미재 2단과 가룽목 등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 이래의 선박 건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박들은 저판이나 저판에서 외판으로 올라가는 방식, 가룽목의 존재 등으로 그 구조가 유사하거나 발전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모두 동일 계통의 선박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그 사용기는 대부분 동반 출수되는 유물로서 추정이 가능한데 앞서서 제시한 각 선박의 박재품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한 사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표1. 인양 고려선 일람표

	선박명	출수위치	선체 및 동반출수유물	사용시기
1	완도선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해저	선체-저판, 만곡부종통재, 외판재 동반출수유물-청자접시, 대접 등 3만점 이상	12세기 초
2	목포 달리도선	목포시 충무도 달리도 갯벌	선체-저판, 외판재, 선미판 일부	13~14세기
3	군산 십이동파도선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해저	선체-저판, 만곡부종통재, 장삭, 가룻, 선수재, 나무 닻장, 닻줄 동반출수유물-청자접시, 대접, 완, 유병, 철제술, 청동손가락 등 8,743점	11~12세기 초
4	안좌선	신안군 안좌도 갯벌	선체-저판, 외판재, 동반출수유물-청자잔, 접시, 녹갈색잡유호 등	14세기
5	봉래선3호	중국 산둥성 봉래수성 남쪽	선체-저판, 외판, 돛대자리 등 동반출수유물-청자상감접시, 대접, 도기호 등	14세기
6	마도1호선	태안군 마도 해저 15~21m	선체-외판, 저판 동반출수유물-고려청자, 도기류, 목간, 청동손가락, 철제술, 나무국자 등	13세기 초
7	마도2호선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	선체-저판, 외판, 가룻목, 원통목 동반출수유물-청자발, 대접, 접시, 잔, 병과 도기류, 곡물(쌀, 콩)	13세기 초
8	영흥도선	옹진군 영흥면 외리 섬업벌해역	선체-저판 동반출수유물-도기병, 장군, 호, 철제술, 청동제용기 1점 등	8~9세기
9	마도3호선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	선체-저판, 외판, 돛대 동반출수유물-도기호, 청자, 청동용기(발, 접시, 합, 뚜껑, 수저, 국자, 중국동전 등)	13세기 중반
10	대부도2호선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수욕장 인근 해역	선체-저판, 외판, 선수, 선미 동반출수유물-청자발, 접시 등	12~13세기

고려사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선박의 종류는 舟舸, 大船, 軍船, 戈船, 兵船, 龍船, 劔船, 舟艦, 戰艦, 樓船, 漕船, 哨馬船 등이 있고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巡船, 官船, 松舫, 幕船, 采舫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송방은 군산도의 배라고 하였다. 용선이나 누선은 유람이나 연회에 사용하였던 것이고 舟舸, 大船, 軍船, 戈船, 兵船, 戰艦이 전투용 선박이며 漕船과 哨馬船이 漕運船을 말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정종 연간에 12창의 조운선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石頭倉·通陽倉·河陽

倉·永豐倉·鎮城倉·芙蓉倉·長興倉·海龍倉·海陵倉·安興倉에는 각각 배 6척을 두었는데 모두 哨馬船이었고 1척당 1천석을 실을 수 있었다. 德興倉에는 20척, 興元倉에는 21척을 두었는데 모두 平底船이었으며 1척당 2백석을 실을 수 있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정종 연간(1034~1046)에 12창에 조운선을 두었는데 석두창 등에는 초마선을 두었는데 1척당 1천석을 실을 수 있었고 덕흥창과 흥원창에는 2백석을 실을 수 있는 평저선을 두었다고 하였다. 석두창 등에 둔 조운선은 1천석을 실을 수 있는 초마선이었고 덕흥창에 둔 평저선은 2백석을 실을 수 있었으니 그 적재량은 1천석과 2백석으로 다섯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운선이 초마선과 평저선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선박의 종류는 같지 않아도 조운에 투입되면 조운선으로 불렸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경상도의 세공은 다만 초마선 10척뿐이므로 조금이라도 주춤 쓸 데가 있으면 반드시 私船을 빼앗아서 이바지합니다」라고 하여 고려시대 조운선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이지 종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초마선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는데 태종 13년 사재감의 계목에 「도성의 땅이 큰 강가에 있어서 배의 사용이 심히 많습시다. 경상도의 세공은 다만 초마선 10척뿐이므로 조금이라도 주춤 쓸 데가 있으면 반드시 私船을 빼앗아서 이바지합니다. 이제부터 성상의 거동에 亭子船 2척, 초마선 20척, 小居刀船 10척, 平底船 80척을 공액으로 정하고...” “위의 조목에서 충청도·강원도·풍해도에 평저선을 각각 10척씩으로 하고, 경상도는 전액 숫자대로 하고, 전라도는 초마선을 10척씩으로 하여, 계목과 같이 시행하소서.”라고 하여 초마선과 평저선은 다른 종류의 선박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선은 배의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전통이라고 쓰고 있으나 평저선은 고려 조선시대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이었다. 말하자면 조운선은 조운을 담당하는 선박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조운을 담당하는 선박의 종류에는 초마선, 평저선, 잉박선 등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인양된 고려선의 동반 출수유물을 보면 완도선이 3만점 이상의 도자기를 적재하고 있었고 군산십이동파도선은 청자접시, 대접, 완, 유병, 철제술, 청동송가락 등 8,743점이 출수되었다. 그리고 마도1호선과 2호선, 3호선은 다량의 곡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죽간도 함께 출수되어 화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박은 모두 평저선이지만 그것이 기록에 보이는 선박의 종류 중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고 화물선 또는 상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 선박을 두고 조운선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도 있으나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고려시대 조운선은 선박의 종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죽간에 남아 있는 화주명을 고려해도 국가 세공을 운반하던 조운선으로 보기는 문제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고려선의 인양 위치는 한국의 서남 해안에 한정되어 있고 동반하여

출수되는 도자기나 곡물을 위주로 한다. [도5]

그러므로 이들 선박의 종류가 서남해안을 왕래하는 화물선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채로운 것은 고려선이면서 원의 포구에서 폐선이 된 봉래선이라고 하겠다. 봉래선 3호는 피삭 고정방식이 안좌선과 다른 결구 방식을 보여 주고 장좌가 2개이며 얇은 판재로 격벽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용골 대신 3열의 저판을 갖추고 있으며 목재로 만든 장삭을 이용하며 외판을 연결하고 있고 돛배받침 구멍의 형태가 안좌선과 동일한 평면형태라는 점에서 역시 고려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5. 수중유적 발굴조사 지점 지도
(동양도자미술관, 2015, 『新發見の高麗青磁』전재)

그렇다면 고려선이 왜 원나라까지 와서 폐선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선 가운데 최초의 원양선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그 항해의 배경은 분명하지 않지만 개경 일대에서 황해를 횡단하는 직항로를 이용한 국제 무역선 또는 국제화물선으로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무난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4. 해상활동 관련 유적과 유물

다음은 고려의 해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자료에 대한 것이다. 고려의 해상활동을 고려하면 관방이 앞서야 할 것이나 앞서 출수된 배는 일단 조운선과 국제무역선 등으로 구분되었고 아쉽게도 고려의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건조되었던 전선이나 동여진과의 교전에 건조되었던 군선, 삼별초 대몽항쟁과 관련된 선박,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관련된 전선 등 관방과 관련된 선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려의 대몽항쟁기간 동안 삼별초는 출륙에 반대하여 진도를 거쳐 제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몽고군과의 교전이나 진도 용장성과 향파두리성의 축조에

선박을 이용한 상황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나 조운 등 물자의 교역과 관련된 유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송나라와의 교역은 수많은 사절이나 상인들이 다녀간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알기 어렵다. 다만 중국과의 교류는 고려가 송의 불교와 서적, 의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육로는 요나 금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으므로 해로를 더욱 이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시대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거란과 또한 금의 문화도 수용하여 분묘의 조성방법이 변하게 되고 부장품 또한 중국품을 수용하게 되면서 다수의 중국 물자가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동경과 동전, 손가락 등이 금속제품이 있고 중국제 자기가 있겠지만 그 물품들이 반드시 고려 선박을 이용하여 들여왔다는 확증은 없다.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에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려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었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려 사람도 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건너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필요마다 송의 배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봉래선과 같이 중국에서 발견되는 고려의 교역선도 있으므로 고려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거나 물품을 보낸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고려가 송과 교류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중국산 유물이 고려선을 이용하여 수입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양된 대부분의 고려선이 조운선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려시대 조운과 관련된 유적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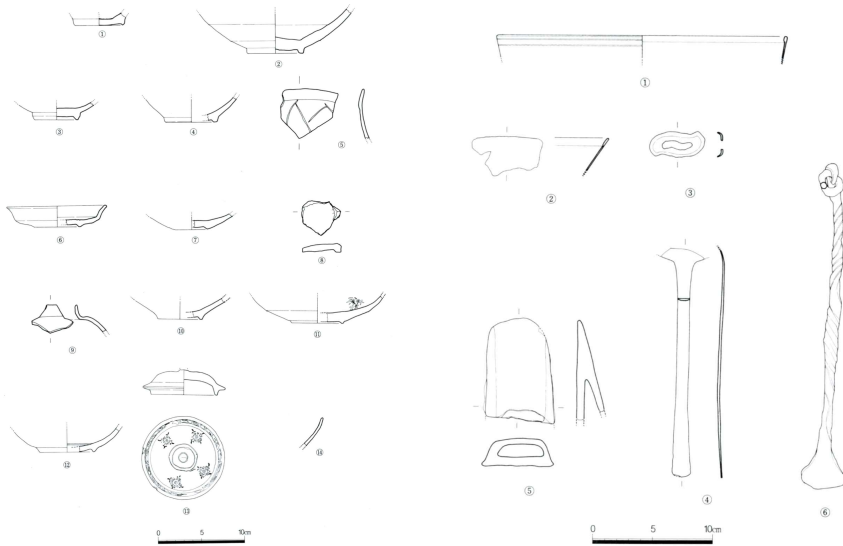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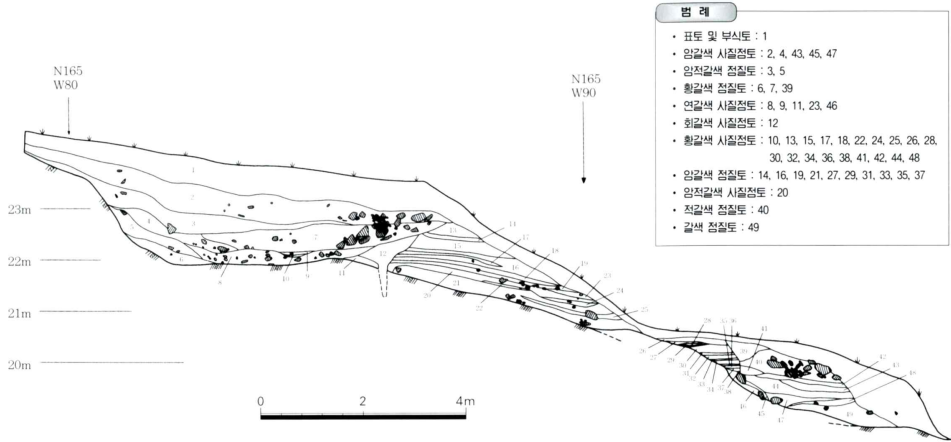
a. 관방유적- 삼별초의 대몽항쟁 당시 축조된 진도 용장성, 그리고 장도 청해진 유적이 있다. 삼별초는 원종11년(1270)에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고 재물을 훔쳐 배에 싣고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에 들어가 거점을 삼고 용장성을 축조하였다가 여몽군에게 쫓기어 제주를 함락한다.

용장산성은 단기간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왕궁지와 이를 둘러싼 토성으로 이루어진 내성 및 외성(羅城)에 해당하는 약 13km에 이르는 대규모의 산성 및 그에 부속된 여러 개의 성문과 적대, 치 등 부대시설이 확인되었고, 공간구조를 밝혀줄 수 있는 산성 내부의 건물지와 제사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용장산성의 조사에서는 축조시기 및 사용 시기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평가되는 명문기와와 동전류를 비롯한 청자유물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들 고고자료의 분석을 통해 용장산성은 1243년(고종 30)에 이미 축조되어 대몽항쟁 기간에 해도입보처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1270년(원종 11) 8월 삼별초군의 진도 입거와 함께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용장성 왕궁지는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해 삼별초군이 진도에 들어오기 2~3년 전에는 착공하여 진도에 들어왔을 때는 궁성과 왕궁이 완공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269년 남해 창선도에 있던 國史를 진도로 옮긴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용장산성은 1243년(고종 30)에 이미 축조되어 고종대 대몽항쟁 과정에서 해도입보처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1270년(원종 11) 8월 삼별초군이 진도에 들어오면서 내성(왕궁과 석심토축의 토루)과 외성(용장산성)으로 이루어진 도성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향파두리성은 1997년 4월 18일 사적 제396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1,135,476㎡이다. 1270년(원종 11) 2월 고려 조정이 몽골의 침입으로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자, 이에 맞서 김통정을 총수로 한 삼별초가 고려의 김방경과 몽골의 혼도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최후까지 항쟁하다 1273년 전원이 순의한 삼별초의 마지막 보루이다. 해발 190~215m 지점에 있는 향파두리 토성은 1271년 여몽연합군에 대항하던 삼별초군이 완도에 용장성을 쌓고 주둔하며 활동하다가 여몽연합군에게 패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와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시기에 축성한 것이다. 본래 토성(높이 5m, 너비 3.4m)으로 총 길이 6km에 이르는 외성을 쌓고 안에 다시 석성으로 800m의 내성을 쌓은 이중 성곽이었으며, 각종 방어시설뿐 아니라 궁궐과 관아까지 갖춘 요새였다. 환해장성 또한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으로 『탐라지』의 기록에 따르면 원종 11년(1270) 진도에 있던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수, 고여림이 군사들과 제주도민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패하였고, 이긴 삼별초는 또다시 관군을 막기 위해 계속 성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장도 청해진유적을 들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장도 청해진유적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91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차까지의 발굴조사에서는 판축토성으로 이루어진 890m에 달하는 성벽과 내부 건물지, 굴립주 건물지, 매납유구 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331m에 달하는 해안 목책열의 분포범위 확인과 함께 총 3만여점이 넘는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장도가 청해진의 주요 근거지였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구와 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많은 유물들은 앞으로 청해진유적의 초기 운영시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고서에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장도의 토축성은 도면을 검토하면 장기간에 걸쳐 수축된 것으로 판단되고 유적 내부에서는 고려의 초기 청자는 보이지 않지만 다수의 11~12세기 대 순청자와 13세기 대의 상감청자가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통일신라 말 장도에 설치된 청해진은 고려 초에 일시 폐지되었다가 조운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수군진 등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6]



도6. 청해진유적 토층도(上).출토 상감청자 및 금속유물 실측도(下)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장도청해진유적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에서 전재)

마지막으로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은 고려사에 수많은 기사가 남아 있지만 유적과 유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본에는 다수 남아 있다. 후쿠오카 東公園에 위치한 元寇史料館에 전시되어 있는 몽고군 갑주(蒙古軍 戎衣로 소개하고 있음)와 활, 그리고 후쿠오카지역의 元寇防壘(博多小學校石壘遺構, 西新元寇防壘, 生の松原元寇防壘, 今津元寇防壘), 鷹島海底에서 원군의 선체편, 鐵製

靑, 청자완 등이 출수되었다. 또한 회화작품으로는 蒙古襲來繪詞가 유명하다. 이 그림은 2권의 두루마리로 구성된 일본 가마쿠라 시대 후기의 그림으로, 원나라의 일본 원정 당시 원정군과 일본 무사들과의 싸움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는 여몽 연합군을 맞아 대항하는 일본군을 위주로 그려진 것이기는 하나 몽고군의 선박이 그려져 있고 상륙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몽고군과 함께 고려군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착용한 갑주에서 구분된다. [도7]



도7. 〈蒙古襲來繪詞〉 부분도(上.下)

(작자미상, 두루마리, 원본(일본국내청 소장), 모본(규슈대학 부속도서관 소장본))

b. 교류유적- 고려는 오대, 송대의 중국왕조와 사신의 교환이나 물자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송과의 교류는 빈번하였으며 1012년부터 1278년까지 고려에 내방한 송상은 고려사에 나타난 기록만 120여회에 달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에서 중국사신을 맞이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군산도에 군산정, 공해, 오룡묘와 자복사, 송산행궁, 주민 10여 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군산 선유도 망주봉 동쪽 산봉우리 중단에 오룡묘가 있는데 이 묘사가 옮겨지지 않았다면 망주봉 동쪽 기슭에는 오룡묘와 자복사, 셋터마을 부근에는 관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망주봉

서쪽 산봉우리 남쪽에는 송산행궁과 그 부근 바닷가에는 군산정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 선유도 망주봉 남쪽 기슭에는 산사와 흡사하게 건물지로 추정되는 계단식 지형이 남아 있고 송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서는 건물지의 기단석과 적심석 담장지가 확인되었다. 현지조사 결과 출토유물은 청자류와 기와류가 있는데 특히 청자류는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편이며, 기벽이 얇고 유색은 연회록색을 띤다. 받침은 백색내화토빛음과 고급의 기물에 사용된다고 알려진 규석받침도 일부 확인되었다. 내면에 받침 흔적이 없는 유물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갑발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은 주로 압인양각기법으로 화문을 새기거나 음각기법으로 화문, 앵무문, 연판문 등을 시문하였다. 받침과, 문양 등을 보아 12세기대에 제작된 청자들로 추정된다.[도8]



선유도 망주봉 일원



오룡묘 추정 송산행궁지



수습 청자

도8. 선유도 망주봉 오룡묘 일원과 수습 유물(필자 촬영)

또한 마도에는 객관이 있는데 안흥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중국 사신들의 입출국 경로에 자리 잡은 고만도의 객관이 수로에서 너무 멀어 정박하기에 불편하여 정해헌 관내에 객관을 새로 설치해 사신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곳으로 삼은 곳이다. 태안군 마도와 신진도의 마주보는 곳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지형이 2개소 가량 확인되지만 현지 조사결과 대부분 개발되어 별다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신진도의 북쪽 신진초등학교 인근에는 모래빛음 받침

의 청자와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여 기물을 제작한 다수의 절요접시가 확인되었고 제작시기는 받침과 기형으로 보아 12세기 중반경으로 판단되어 안흥정과 관련된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도9]



도9. 신진도 내 추정 고려건물지 유적 전경과 수습유물 일괄(필자 촬영)

중국에 남아 있는 고려의 해상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高麗使館이 있다. 송나라는 해로로 오는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등주에 관을 설치하였고 개봉에도 고려사관을 두었으나 거란과 여진 등 북방민족의 압력으로 육로가 막히자 西海南部斜斷航路의 관문인 명주에 고려사관을 다시 만들었다. 고려의 사신을 접견하던 곳은 모두 두군데로 하나는 1078년 鎮海區 부둣가에 세운 航濟亭과 樂賓館이며 다른 하나는 1117년 북송 휘종 때 건립된 高麗館이다. 고려관은 1999년 닝보시(寧波市)에서 고려사관 유지를 찾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복원되어 있기도 하다.[도10] 이와 같이 북송 해양교통의 중심지였던 닝보에 고려사관이 설립된 것은 고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유력한 유적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도10. 고려관
(동양도자미술관, 2015, 『新發見の高麗青磁』 전제)



도11. 동아시아 항로와 서금일행의 이동경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한국의 보물선』 전제)

c. 조운유적- 60개의 포창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려의 조운제도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며 조창을 중심으로 하는 조운제도로 전환되었다. 조창은 해로나 수로를 따라 서남해안과 한강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12조창을 거점 삼아 조세를 운송하였으나 문종 중엽에 안란창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13개 조창으로 늘어났다. 13조창의 위치는 대체적인 위치는 밝혀져 있으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곡물창고와 같이 통양창과 관련된 뚜렷한 유적이거나 유물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사천 선진리성이 조사 결과 고려시대의 통양창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리성은 사천만의 동쪽 연안의 중앙에 돌출된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쪽의 평지에 축조된 토축성으로 포곡식 평산성이며 전체 연장은 1382m에 달한다. 기단석렬을 배치한 성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기와의 시기를 참고하면 초축시기는 9세기 중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 토성은 10세기와 11세기에 수축되는데 보고자는 이 시기에 통양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성곽의 위치와 축조, 수축과정을 두고 보면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통양창이 위치하였다고 하였을 때 있어야 하는 공해나 창고건물 등 내부 구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태안반도 서쪽 끝인 신진도와 마도 주변의 해협인 안흥량은 험한 물길로 예로부터 선박의 사고가 잦은 곳으로 난행량으로 불리던 것을 안흥량으로 고쳤다고 한다. 서금의 기록에도 놀란 여울물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천만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물선이니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 마도 일원의 침선은 바로 이 일대의 거친 물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고려 조정에서는 인종 12년(1134)에 흥주(충남 흥성군) 소태현(충남 태안군)에 운하를 굴착하고자 하였고 의종 8년에는 소태현에 운하를 개착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고려 말에 들어 다시 왕실의 인척인 왕강에 의하여 탄포와 창포 사이를 잇는 운하 개착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도12] 당시에 운하 개착을 위하여 굴착한 흔적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무미고개 부근에 당시의 굴포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은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당시 해수가 찼었던 지점도 거의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도12. 운하굴착에 따른 동선변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1호선』에서 전재)

또한 안흥 내항에서 안흥량으로 접어드는 지역인 안흥초등학교 신진도 분교 일대와 분교 후문에서 서북쪽 100m 지점에서는 기와편과 도기, 청자, 백자 편이 발견되어 조운과 관련된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흥량 일대에는 안전항해와 관련된 제사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도 하다. 근흥면 신진도리 일대와 파도리 일대 등 안흥량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정족리 지령산, 성안마을, 당산, 신진도리, 마도, 파도리 아치네, 가의도 등의 산제당, 성황당에서는 모두 매년 음력 정월에 풍어와 함께 조운선 및 사신선의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고려시대 유구와 유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

2) 관련유물

박재품 가운데 대다수는 다량으로 운송할 경우 부피가 큰 도자기와 수레나 인력으로 운반하기에 무거운 금속제품이 차지한다. 도자기는 수중에서 인양된 것으로 보아 선박을 이용한 것이 분명하고 동전 또한 신안선의 예를 보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경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양이 상당하고 출토되는 경향을 보면 특히 중국제 동경(호주경, 소주경 등)에 대한 수요가 각별하여 대량으로 들여왔을 것으로 판단되어 박재품으로 보았다.

a. 청자

침몰된 고려선에서 출수되는 박재품의 종류는 곡물과 도자기가 대부분이다. 곡물은 대부분 세곡미나 지방에서 개경으로 올리는 것이었고 도자기 중 청자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서해안의 물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므로 해저에서 인양되는 곡물류와 청자는 당시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방 가마에서 개경을 비롯한 각지로 운송되었던 것은 이미 인양된 선박으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국외에서 발견되는 청자는 당연히 누군가에 의하여 운반되었을 것이며 한두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과정에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송자기가 수입되었다. 고려에 수입된 복송의 자기는 요주요의 청자인화보상당초문완이나 자주요의 백지흑화모란문병, 정요의 흑유금채화문완, 경덕진요의 청백자과형주자와 승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고려시대 중국도자기가 출토된 유적은 대부분 분묘와 사지이다. 강원도 삼척군 북평리 삼화리 고려고분, 강원도 법천리 사지, 개성 만월대 왕궁지,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탑 등에서 출토된 것은 유명하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 수종사탑에서 출토된 청자주름문호와 금속제 사리기와 같이 중국자기를 사리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태안마도 해역에서는 2009년부터 4년간 각종 백자들과 청자는 물론 흑유, 도기호 등 다양한 기종의 166점에 이르는 중국도자기를 인양하였는데 송 원대 복건성 등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본 규슈 하카타지역에도 유사한 형태의 도자기가 확인된다. 특히 일부 도자기 바닥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 중 丸과 船은 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丘 鄴 漁 鄭 徐 綱 朱 綱 林 綱 등 나머지 글자는 성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 뒤에 붙은 강은 綱司의 줄임말로 사설군대까지 갖춘 대규모 상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도자기의 출수는 려송무역 뿐만 아니라 일송무역과도 관련된 송선의 화물로 보고 있어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중국도자기는 중국대륙-한반도-일본을 잇는 송나라 해상의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각시도 해저에서 인양된 청자방형연적은 중국 원대의 무역자기이며 복제주군 한경면 선창리 해저에서도 다량의 중국자기가 인양되었는데 河濱遺範 金玉滿堂 등의 명문은 남송대 용천자기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발견된 원의 귀달린 흑갈유도기병은 신안해저에도 출수되기도 하며 여몽연합군이 출병한 일본 구주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원자기의 이동경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고려에서 발견되는 중국자기는 물론 중국선을 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려선이 중국에서 직접 들여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고려청자가 중국에서 출토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청자를 평하면서 도기 중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년에 제작이 정교해져 색과 빛깔이 유난히 뛰어나다고 하였고 남송 태평노인의 수증금의 천하제일에는 고려비색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 받고 있었으니 그 수요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국 각지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되는데 크게 남과 북 두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라오닝, 지린, 네이멍구, 베이징, 허베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장쑤, 안후이, 저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이다. 출토지역이 이렇게 남북으로 크게 나뉜 배경이 고려와 중국의 바닷길을 통한 경로와 크게 연결된 것은 분명하고 이 경우 고려선박이 그 운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봉래선의 경우를 보아도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b. 거울 및 동전

고려묘에는 중국전이 자주 출토되고 있는데 대다수는 북송전이 차지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북송전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종과 휘종 연간(1068~1125)에 중국에서 많은 양의 동전이 주조되었을 뿐 아니라 신종 시기의 신칙에 의하여 동전의 수출이 자유로웠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대송무역에 있어서 송 상인과 고려 상인의 활동을 감안할 때 그 과정에서 중국 동전이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무게의 동전이 수입되었을 것이므로 신안선의 경우와 같이 선박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직 고려선이나 고려로 향하던 선박에서 다량의 선박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

동전을 수입하여 이를 실제 화폐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사람들의 지불수단은 포와 은병이며 중국에서 내려준 전보는 모두 부고에 저장해두고 있었다고 하였고 속종대에는 은병이나 나중에는 쇠은을 사용하여 중국처럼 동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한 배경은 금속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적인 동의 수요처로서 사찰일 것으로 추정하고 그 시기는 범종이나 금고, 향완의 제작시기가 몰리는 12~13세기로 본 견해가 있다. 중국에서 동을 수입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 범종이나 금고, 향완 등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여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동경으로 분류된 동경 가운데 중국 제작지(杭州, 蘇州, 湖州)명이 표시된 동경을 중심으로 성분 조성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경면에서 나타나는 도금 층의 성분 분석을 통해 표면 제작기법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모두 75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금속기지가 남아 있는 44점에 대한 결과는 구리, 주석, 납의 함량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구리 64~75%, 주석 18~27%, 납 5~12% 가량 함유된 B그룹 14점, 구리 64~80%, 주석 12~17%, 납 4~12% 범위로 함유된 C그룹 13점으로 대다수의 동경이 포함되었다.[도13] 그런데

고려국조명이 표시된 동경의 성분은 구리 70.1%, 주석 15.3%, 납 12.6%이고 진~당대 동경의 주성분은 구리 66~78%, 주석 21~26%, 납 1~7%로 일정한 합금 조성비로 나타나며 오대, 송, 명, 청대에 이르면 합금 성분비는 일정하지 않고 주석은 감소하고 납 함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동경의 합금 성분비는 고려시대에도 반영되는데 자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동경의 성분 조성은 구리 68~71%, 주석 14~17%, 납 11~14%의 값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보면

중국 현지에서 관 주도로 제작된 것은 B그룹에 속하고 C그룹의 동경은 중국 현지 사주경이거나 고려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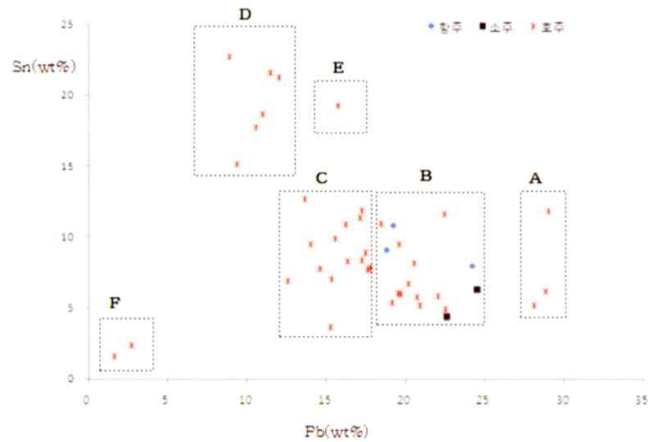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된 동경은 아마도 동전처럼 박재품으로 고려사회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지 제작 동경과 고려 제작 동경의 성분 조성이 다른 것은 청동제품을 만드는 전통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동전을 수입하여 제작된 금속제품은 형태나 문양은 다르지만 성분 분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하다.

5. 결론

이상의 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로 판단되는 고려의 해상활동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대단히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고려시대의 침선이 발견되고 그 사용시기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있는 것은 고려인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

구분	Sn%	Pb%	杭州銘	蘇州銘	湖州銘	전체
A	>28	5~12	-	-	3 점	3 점
B	18~27	5~12	3 점	2 점	12 점	17 점
C	12~17	4~12	-	-	15 점	15 점
D	<12	15~23	-	-	6 점	6 점
E	<12	>15	-	-	1 점	1 점
F	<3	<3	-	-	2 점	2 점

그림1 湖州銘, 蘇州銘, 杭州銘 동경의 주석, 납 성분비에 따른 분포도



도13. 명문별 주석, 납 함량 분포에 따른 동경수량
(국립중앙박물관, 2012,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 동경자료집』 전제)

는 일차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고려시대 해상활동을 간접 증거로는 삼별초의 대몽항쟁으로 비롯된 진도 용장성과 제주 향파두리성이 있었고 또한 장도 청해진유적은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어 수군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역과 관련된 선유도유적은 송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차후 발굴 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실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창유적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사천 선진리성이 초축 이후 수축되는 시기와 조창의 확립시기와 맞물려 있어 차후 조창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된다면 고려시대 조창의 구조와 역할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려사람들의 해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청자가 있는데 청자는 침선에서 인양되는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고려청자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명성이 높았으므로 그 수요가 많았을 것이며 이것을 배로 운반하는 주체는 고려인들로 생각되고 중국땅에서 폐기된 봉래선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청자 또한 각종 유적이나 해저에서 발견되어 상당한 양이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운송을 담당한 사람들 중에는 고려인과 고려선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전과 동경은 고려의 수요가 커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품목이지만 동전이 과연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는 고려인들이 해외에서 성장하여 특하면 고래 같은 파도를 타게 되니 선박을 앞세워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발표문

「日本出土の高麗青磁」

降矢哲男(京都国立博物館)

- 1、はじめに
- 2、研究史
- 3、韓半島産陶磁器の分類・時期区分
- 4、各地域における様相
- 5、韓半島産陶磁器の流通
- 6、まとめ

1、はじめに

日本における高麗青磁の研究は、博多遺跡群、大宰府史跡・条坊遺跡から出土したものを中心に行われてきている。中国陶磁器との出土量の差もあり、めまぐるしい研究の進展はみられないものの、近年、全国各地からその出土が確認されており、中世日本における朝鮮半島との交流を探る上で、重要な資料となっている。

2、研究史

遺跡から出土する韓半島産陶磁器の研究、特に今回取り扱う高麗時代の陶磁器については、博多遺跡群、大宰府史跡・条坊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ものを中心に行われてきている。

1916 年

中山平次郎「福岡附近より拾集したる象嵌陶片」『考古学雑誌』6-8

1934 年

中山平次郎「鎌倉海岸にて採拾の高麗青磁片」『陶磁』6-6

1983 年

西谷 正「九州・沖縄出土の朝鮮産陶磁器に関する予察」『九州文化研究所紀要』第 28 号

1984 年

日本貿易陶磁研究会研究集会「日本出土の高麗・李朝陶磁」

1990 年

関西近世考古学研究会・財団法人今日庵茶道資料館「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
(1990『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茶道資料館)

1992 年

東洋陶磁学会、韓半島産陶磁器の様相について、総合的視点からの研究発表や討論。

2000 年

降矢哲男「遺跡出土の高麗青磁」『南島考古』第 19 号 沖縄考古学会
森本朝子・片山まび「博多出土の高麗・朝鮮当時の分類試案 - 生産地編年を視座として - 」『博多研究会誌』第 8 号

2002 年

降矢哲男「韓半島産陶磁器の流通 - 高麗時代の製品を中心に - 」『貿易陶磁研究』№22

3、韓半島産陶磁器の分類・時期区分

i、韓半島産陶磁器の分類

森本朝子・片山まび両氏より、近年、博多遺跡群から出土が見られた韓半島産陶磁器について、時期区分・分類が行われた(森本・片山 2000)。分類は、生産地分類が基本。一方で、消費地である日本の各遺跡から出土する韓半島産陶磁器をその時期区分に合わせてみると、くい違いが生じている。

ii、時期区分

11 世紀後半から 15 世紀後半までを、I 期から IV 期に区分。

I 期・・・象嵌技法が出現する以前の時期である。釉調や胎土、そして重ね焼き(目跡)の有無から、精製品と粗製品の 2 種類に区分。11 世紀後半から 12

世紀初頭。

Ⅱ期・・・無文のもの、陰陽刻文の製品もみられるが、象嵌技法が主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る時期。精製品が多くみられる。また、鉄絵をも出現。12世紀前半から13世紀中葉。

Ⅲ期・・・Ⅱ期に続き、象嵌技法が主に用いられる。器面全体に文様が施される傾向がみえる。13世紀後半から14世紀中葉。

Ⅳ期・・・高麗時代からの影響を色濃く残す象嵌青磁と、朝鮮時代の粉青沙器とが入り混じっている時期。14世紀後半から15世紀後半。

4、各地域における様相

i、東北(北海道も含む)地方

平泉・柳之御所跡(岩手)、十三湊遺跡(青森)、陣が峯城跡(福島)、新宮城跡(福島)など

*平泉への流入ルート・・・太平洋ルート、日本海ルート、陸路

ii、関東地方

宇津木台遺跡(東京)、南広間地遺跡(東京)、そして上浜田遺跡(神奈川)、千葉地遺跡(神奈川)、若宮大路周辺遺跡群(神奈川)などを始めとした、鎌倉幕府に関連する遺跡など。

鎌倉については、出土遺跡の年代が13世紀から14世紀と限られ、出土する遺物の年代については13世紀中葉から14世紀初頭に集中。出土する器種の多くが梅瓶や香炉や枕など、特殊品で、碗・皿は数点出土するのみ。時期はⅡ期の後半からⅢ期。

iii、中部地方

三の宮遺跡(長野)、江馬之下城館跡(岐阜)、深山田遺跡(山梨)、寺家遺跡(石川)、じょうべのま遺跡(富山)、一条谷朝倉氏遺跡(福井)など。

iv、近畿地方

臨川寺、相国寺、仁和寺といった大寺院や、京都大学構内遺跡、白河北殿遺跡(いずれも京都)など、平安京に関連した遺跡など。

v、中国地方

山陰地域では上福万遺跡（鳥取）、目久美遺跡（鳥取）、出雲国分寺跡（島根）、古市遺跡（島根）など。古市遺跡からはI期の製品が出土。その他の出土遺物とのセット関係から、博多を経由してきたことが予測されるが、遺跡の立地する、山陰については、その地理的環境から、生産地からの直接的な流入も考慮。

山陽地域は、草戸千軒町遺跡（広島）、恵下山城跡（広島）、大内氏館跡（山口）、冷泉家北遺跡（山口）など。

vi、四国地方

湯築城跡（愛媛）、別府若宮遺跡（愛媛）、正法寺遺跡（愛媛）、中村城跡（高知）、田村遺跡群 loc.4（高知）が確認。

vii、九州地方

北部九州に出土が集中する。大宰府史跡・条坊跡（福岡）、博多遺跡群（福岡）をはじめとして、寺院跡、城館跡など特定階層と関連がある遺跡以外の、一般集落を含む遺跡からも数多く出土。碗・皿といった形態が主体を占めている。大宰府、博多の位置する福岡平野を中心に、遺跡の集中が見られる。また、佐志中遺跡（佐賀）など唐津市を中心とした地域、東彼杵町を中心とした地域（長崎）についても遺跡が集中する。また、島嶼部である対馬、壱岐、五島列島などからも出土が確認され、特に地理的にも近い、対馬においては出土量も多く、伝世品も数多く確認されている。

viii、沖縄

伊是名城跡、浦添城跡、具志川城跡、首里城跡、北谷城跡、今帰仁城跡など。出土する遺構が全てグスクもしくはそれに関連した施設。出土する遺物は全てIV期。

5、韓半島産陶磁器の流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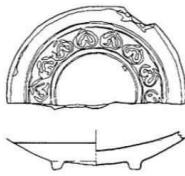
- ・基本的には、中国産陶磁器と同様に、生産地から博多を経由して、各地に流通
- ・海上ルートおよび陸路のルート
- ・一乗谷朝倉氏遺跡や中村城跡など、骨董的な伝世品としての流通

6、まと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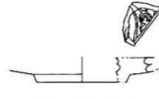
[主要参考文献]

- 赤司善彦 1991「研究ノート 朝鮮製無釉陶器の流入 - 高麗期を中心として -」『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 16』九州歴史資料館今井 敦 1993「海を渡った高麗青磁」『MUSEUM No.503』ミュージアム出版
- 内野 正 1992「青白磁梅瓶小考」『研究論集X I』東京都埋文センター小野正敏 1997『戦国城下町の考古学』講談社
- 亀井明德 1993「南西諸島における貿易陶磁器の流通経路」『上智アジア学第 11 号』上智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
- 良謨 1978「記銘・詩文のある高麗陶磁」『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学館
- 手塚直樹 1985「鎌倉出土の高麗青磁」『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集 陶磁編』平凡社
- 崔 健 1987「韓国青磁発生に関する背景的考察」『古文化』31(韓文)
- 1994「韓国初期青磁の分類と変遷 - 窯址出土資料を中心に -」『東洋陶磁』第 22 号
- 東洋陶磁学会崔 淳雨 1978「高麗陶磁の編年」『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学館
- 徳永貞紹 1998「肥前神崎荘・松浦荘域の中世港湾と貿易陶磁」『貿易陶磁研究No.18』日本貿易陶磁研究会野守 健 1944『高麗陶磁の研究』清閑舎
- 降矢哲男 1999「深山田遺跡出土の高麗青磁について」『山梨県考古学論集IV』山梨県考古学協会2002「平泉出土の貿易陶磁 - 柳之御所遺跡出土の韓半島産陶磁器から見える流通経路 -」『平泉文化研究年報』第 2 号岩手県教育委員会
- 宮崎貴夫 1998「長崎県地域の貿易陶磁の様相 - 肥前西部・壱岐・対馬 -」『貿易陶磁研究No.18』日本貿易陶磁研究会森田 勉 1985「北部九州出土の高麗陶磁器 - 編年試案 -」『貿易陶磁研究』No.5 日本貿易陶磁研究会
- 山本信夫 1985「日本における初期高麗青磁について - 太宰府出土品を中心として -」『貿易陶磁研究』No.5 日本貿易陶磁研究会1990「11・12 世紀の貿易陶磁器 - 1980 年代の編年研究を中心として -」『貿易陶磁研究』No.10 日本貿易陶磁研究会
- 尹 龍二・片山まび訳 1998『韓国陶磁史の研究』淡交社

青森県



十三湊遺跡第120次



十三湊遺跡第121-2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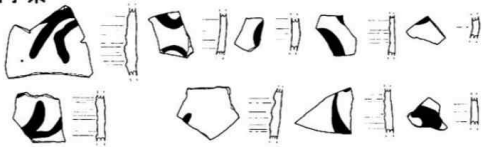


浪岡城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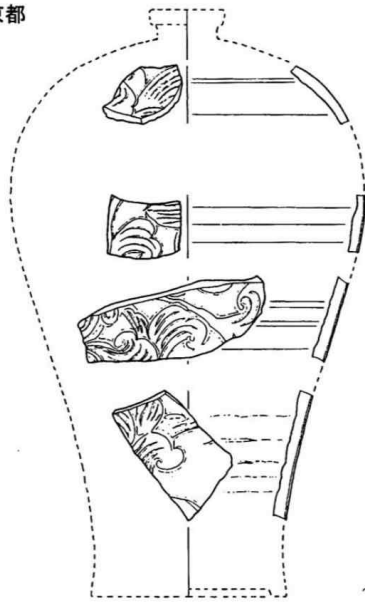
根城跡

岩手県



柳之御所跡

東京都



宇津木台遺跡H地区

神奈川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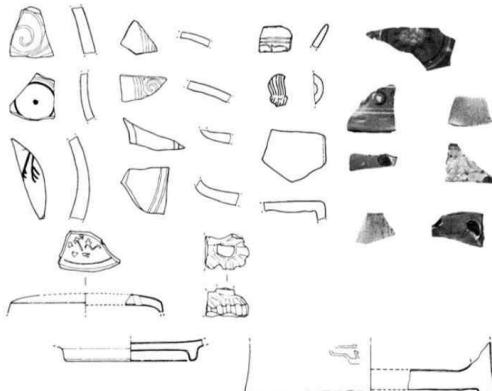


材木座町屋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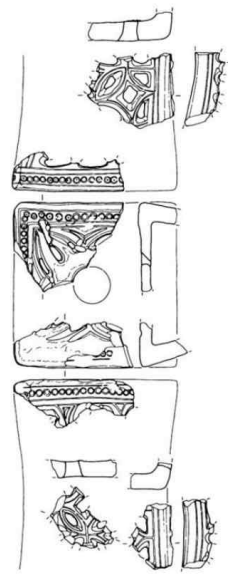
千葉地東遺跡

小町2丁目345番地
-2地点遺跡



千葉地遺跡

福井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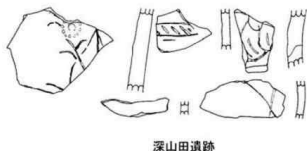


一乗谷朝倉氏遺跡第59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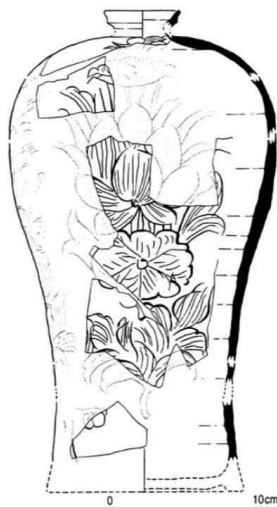
日本出土の高麗青磁

京都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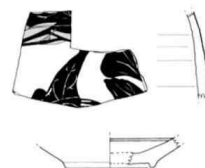
山梨県



深山田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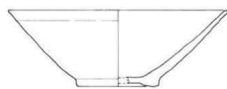


京都大学構内遺跡



平安京左京八条三坊七町

京都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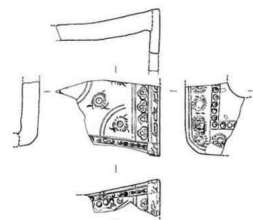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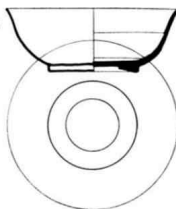


平安京左京三条二坊六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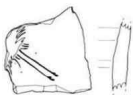


平安京左京五条三坊一六町

広島



平安京左京四余三坊



平安京左京四余四坊九町



平安京左京六条二坊六町



平安京左京六条三坊七町



草戸千軒町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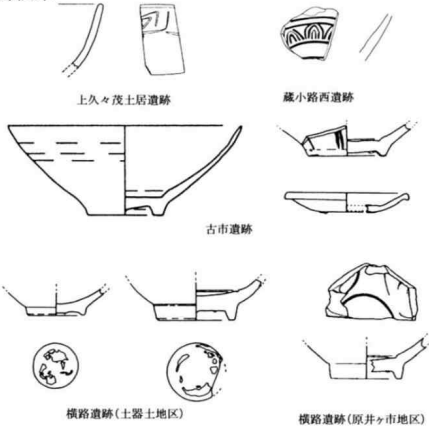
草戸千軒町遺跡第11・12次



恵下山城跡

日本出土の高麗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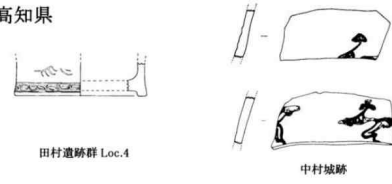
島根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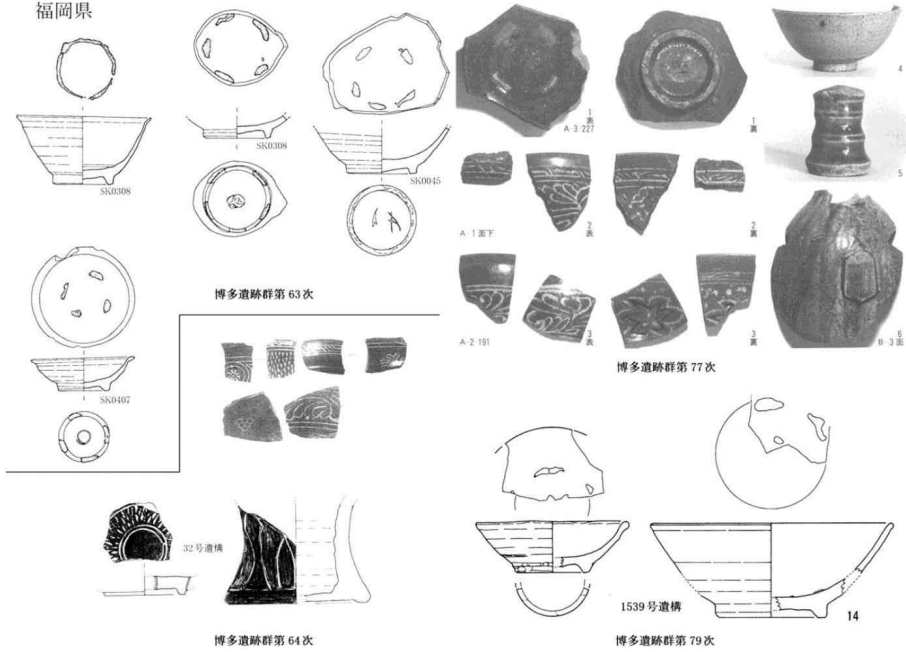
愛媛県



高知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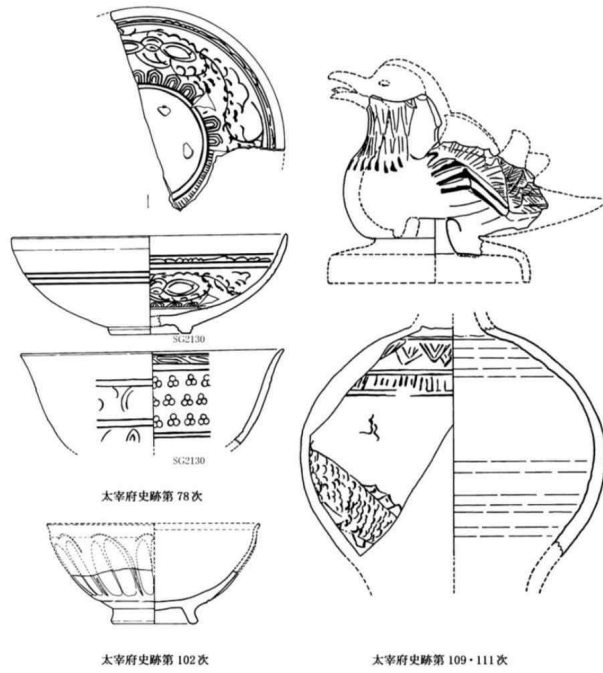


福岡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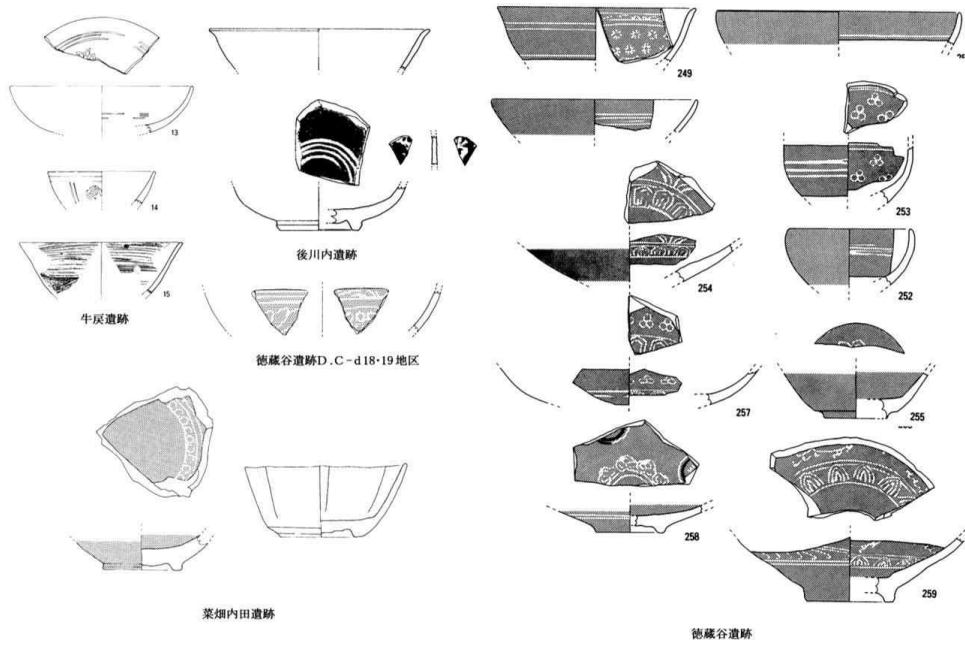


日本出土の高麗青磁

福岡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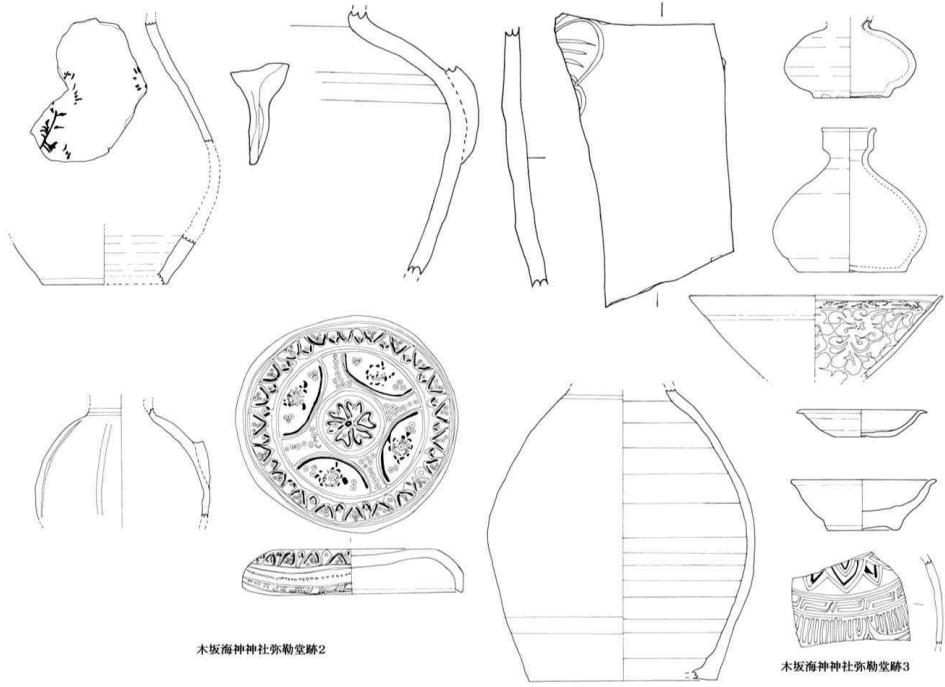


佐賀県



日本出土の高麗青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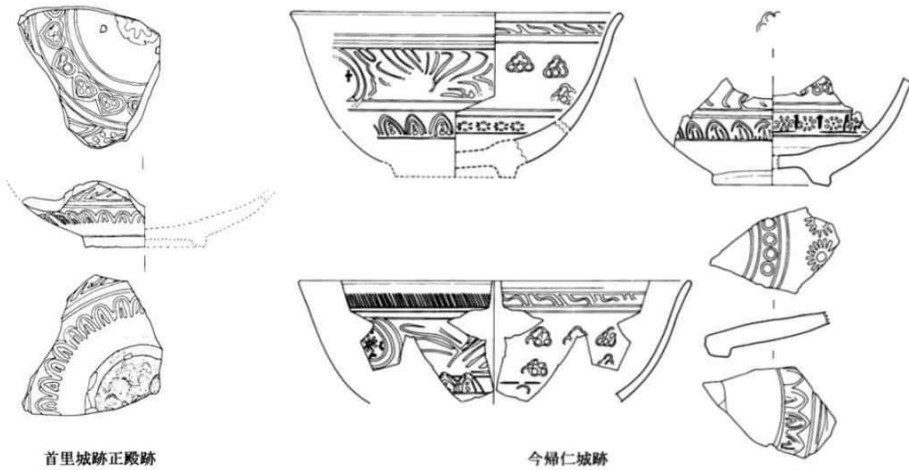
長崎県



木坂海神社弥勒堂跡2

木坂海神社弥勒堂跡3

沖縄県



首里城跡正殿跡

今帰仁城跡

日本出土の高麗青磁

일본 출토 고려 청자

후루야 데쓰오(교토국립박물관)

1. 머리말
2. 연구사
3. 한반도산 도자기의 분류·시기구분
4. 각 지역에서의 양상
5. 한반도산 도자기의 유통
6. 맺음말

1. 머리말

일본에 있어서 고려청자의 연구는 博多 유적군, 大宰府 사적·条坊 유적에서 출토된 것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중국 도자기의 출토량과의 차이도 있어 급속한 연구의 진전은 보이지 않지만, 근년 전국 각지에서 그 출토가 확인되고 있어 중세 일본의 한반도와의 교류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연구사

유적에서 출토된 한반도 생산 자기의 연구, 특히 이번에 취급할 고려시대의 도자기에 대해서는 博多 유적군, 大宰府 사적·条坊 유적에서 출토된 것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1916년

中山平次郎, 「福岡附近より拾集したる象嵌陶片」 『考古学雑誌』 6-8

1934년

中山平次郎, 「鎌倉海岸にて採拾の高麗青磁片」 『陶磁』 6-6

1983년

西谷 正, 「九州・沖縄出土の朝鮮産陶磁器に関する予察」『九州文化研究所紀要』
第28号

1984년

日本貿易陶磁研究会研究集会, 「日本出土の高麗・李朝陶磁」

1990년

関西近世考古学研究会・財団法人今日庵茶道資料館, 「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
(1990 『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茶道資料館)

1992년

東洋陶磁学会, 韓半島産 陶磁器의 양상에 대해 총합적 시점에서 연구발표와 토론.

2000년

降矢哲男, 「遺跡出土の高麗青磁」『南島考古』第19号 沖縄考古学会

森本朝子・片山まび, 「博多出土の高麗・朝鮮当時の分類試案 - 生産地編年を視座
として - 」『博多研究会誌』第8号

2002년

「韓半島産陶磁器の流通 - 高麗時代の製品を中心に - 」『貿易陶磁研究』№22

3. 한반도산 도자기의 분류·시기구분

1) 韓半島産陶磁器の分類

森本朝子・片山まび 兩氏로부터 근년 博多 유적군으로부터 출토되었던 한반도산 도자기에 대하여 시기구분·분류가 행해졌다.(森本・片山 2000) 분류는 생산지 분류가 기본이다. 한편으로 소비지인 일본의 각 유적에서 출토된 한반도산 도자기를 그 시기 구분에 합쳐보면, 불일치가 생기고 있다.

2) 시기구분

11세기 후반부터 15세기 후반까지를 I 기에서 IV기로 구분한다.

I 기 … 상감기법이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釉調나 태토, 그리고 재벌구이(目跡)의 유무에서 양질의 제품과 조질의 제품 2종류로 구분된다. 11세기 후반에서

고려 건국과 통일의 원천, 바다

12세기 초두.

Ⅱ기 … 無文, 陰陽刻文의 제품도 보이지만, 상감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시기. 양질품이 많이 보인다. 또 철화도 출현. 12세기 전반에서 13세기 중엽.

Ⅲ기 … Ⅱ기에 이어 상감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器面 전체에 시문되는 경향이 보인다.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엽.

Ⅳ기 … 고려시대로부터의 영향이 진하게 남은 상감청자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가 혼재하고 있는 시기.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후반.

4. 각 지역에서의 양상

1) 東北(北海道 포함) 지방

平泉·柳之御所 유적(岩手), 十三湊 유적(青森), 陣が峯城 유적(福島), 新宮城 유적(福島) 등

* 平泉로의 유입루트 : 태평양 루트, 동해 루트, 육로

2) 關東 지방

宇津木台 유적(東京), 南広間地 유적(東京), 그리고 上浜田 유적(神奈川), 千葉地 유적(神奈川), 若宮大路 주변 유적군(神奈川) 등을 비롯한 鎌倉幕府에 관련된 유적 등.

鎌倉에 대해서는 출토유적의 연대가 13세기에서 14세기로 한정되고, 출토되는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13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초두에 집중된다. 출토되는 기종의 다수는 매병이나 향로나 베게 등이며, 특수품으로 碗·皿는 몇 점 출토될 뿐이다. 시기는 Ⅱ기의 후반에서 Ⅲ기.

3) 中部 지방

三の宮 유적(長野), 江馬之下城館 유적(岐阜), 深山田 유적(山梨), 寺家 유적(石川), じょうべのみ 유적(富山), 一条谷朝倉氏 유적(福井) 등.

4) 近畿 지방

臨川寺, 相国寺, 仁和寺 등의 대사원이나, 京都大学 구내 유적, 白河北殿 유적(모두 교토) 등, 平安京와 관계되는 유적 등.

5) 中国 지방

山陰 지역에서는 上福万 유적(鳥取), 目久美 유적(鳥取), 出雲国分寺 유적(島根), 古市 유적(島根) 등. 古市 유적에서는 I 期の 제품이 출토. 그 외의 출토유물과의 세트 관계에서 博多를 경유하여 온 것으로 예측되지만, 유적이 입지하는 山陰에 대해서는 그 지리적 환경에서 생산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유입도 고려된다.

山陽 지역은 草戸千軒町 유적(広島), 恵下山 유적(広島), 大内氏 유적(山口), 冷泉家北 유적(山口) 등.

6) 四国 지방

湯築城 유적(愛媛), 別府若宮 유적(愛媛), 正法寺 유적(愛媛), 中村城 유적(高知), 田村 유적군 loc.4(高知)이 확인된다.

7) 九州지방

북부九州에서 출토가 집중된다. 大宰府 사적·条坊 유적(福岡), 博多遺 유적(福岡)을 비롯하여, 사원 유적, 城館 유적 등 특정 계층과 관계가 있는 유적 이외의 일반 집락을 포함한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碗·皿 등의 형태가 주체를 점하고 있다. 大宰府, 博다가 위치하는 福岡 평야를 중심으로 유적의 집중이 보인다. 또 佐志中 유적(佐賀) 등 唐津市를 중심으로 한 지역, 東彼杵町을 중심으로 한 지역(長崎)에 대해서도 유적이 집중된다. 또 도서지역인 対馬, 壱岐, 五島열도 등에서도 출토가 확인되고, 특히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対馬에서는 출토량이 많고 傳世品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8) 沖繩

伊是名城 유적, 浦添城 유적, 具志川城 유적, 首里城 유적, 北谷城 유적, 今帰仁城 유적 등. 출토된 유구가 모두 구스크[グスク] 혹은 그와 관련된 시설이다. 출토된 유물은 모두 IV기.

5. 한반도산 도자기의 유통

- 기본적으로는 중국산 도자기와 마찬가지로 생산지에서 博多를 경유하여 각지로 유통
- 해상 루트 및 육로 루트
- 一乘谷朝倉氏 유적이나 中村城 유적 등 골동적인 傳世品으로서의 유통

6. 맺음말

[주요참고문헌]

- 赤司善彦, 1991, 「研究ノート 朝鮮製無釉陶器の流入 - 高麗期を中心として - 」 『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 16』九州歴史資料館
- 今井 敦, 1993, 「海を渡った高麗青磁」 『MUSEUM No503』ミュージアム出版
- 内野 正, 1992, 「青白磁梅瓶小考」 『研究論集X I』東京都埋文センター
- 小野正敏, 1997 『戦国城下町の考古学』講談社
- 亀井明德, 1993, 「南西諸島における貿易陶磁器の流通経路」 『上智アジア学 第11号』上智大学アジア文化研究所
- 鄭良謨, 1978, 「記銘・詩文のある高麗陶磁」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学館
-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青磁」 『三上次男博士喜寿記念論集 陶磁編』平凡社
- 崔健, 1987, 「韓国青磁発生に関する背景的考察」 『古文化』31(韓文)
- 1994, 「韓国初期青磁の分類と変遷 - 窯址出土資料を中心に - 」 『東洋陶磁』第22号 東洋陶磁学会
- 崔淳雨, 1978,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学館
- 徳永貞紹, 1998, 「肥前神崎荘・松浦荘域の中世港湾と貿易陶磁」 『貿易陶磁研究 No 18』日本貿易陶磁研究会
- 野守 健, 1944, 『高麗陶磁の研究』清閑舎
- 降矢哲男, 1999, 「深山田遺跡出土の高麗青磁について」 『山梨県考古学論集IV』山梨県考古学協会
- 2002, 「平泉出土の貿易陶磁 - 柳之御所遺跡出土の韓半島産陶磁器から見える流通経路 - 」 『平泉文化研究年報』第2号 岩手県教育委員会
- 宮崎貴夫, 1998, 「長崎県地域の貿易陶磁の様相 - 肥前西部・壱岐・対馬 - 」 『貿易陶磁研究 No18』日本貿易陶磁研究会
- 森田 勉, 1985, 「北部九州出土の高麗陶磁器 - 編年試案 - 」 『貿易陶磁研究』No5 日本貿易陶磁研究会
- 山本信夫, 1985, 「日本における初期高麗青磁について - 太宰府出土品を中心として - 」 『貿易陶磁研究』No5 日本貿易陶磁研究会
- 1990, 「11・12 世紀の貿易陶磁器 - 1980 年代の編年研究を中心として - 」 『貿易陶磁研究』No10 日本貿易陶磁研究会
- 尹 龍二・片山まび訳, 1998, 『韓国陶瓷史の研究』淡交社

中国出土高丽青瓷的地域分布与时代特征

董千里（杭州博物馆）

- 一、学术回顾
- 二、中国出土高丽青瓷
- 三、小结

摘要

高丽青瓷是指大约在王氏高丽统治时期，即公元918年至1392年期间，在朝鲜半岛出现的具有灰白胎和翡色釉，并发明瓷胎镶嵌技法的青釉瓷器品种。高丽青瓷的创烧和出现受到了中国唐末至五代越窑制瓷技术和审美意识的影响，随着高丽与中国间的文化和瓷业交流，高丽青瓷也不断地模仿中国南、北各窑系的制瓷工艺。高丽青瓷不仅受到高丽皇室和上层的欢迎，同时也通过陆路或海路进入到中国，通过多年来科学考古调查，在中国境内也发现其踪迹，甚至被当时中国皇室所接纳。

本文在前人研究的基础上，对中国出土高丽青瓷进行详细的整理，试图完成两个基础性工作：第一，中国出土高丽青瓷的遗迹，可分为东北、华北、华东三个区域。第二，其时代则可以划分为：宋金时期（12世纪中期至13世纪中期）、元代早中期（13世纪中期至14世纪中期）、元末明初（14世纪晚期）。

通过上述基础性研究可以引申出以下四个问题：1.高丽青瓷进入中国的原因；2.高丽青瓷进入中国的路线；3.中国境内高丽青瓷的使用阶层；4.当时中国人对于高丽青瓷的评价。限于篇幅，笔者将另撰文讨论。

本文试图厘清中国出土高丽青瓷的实态，也望为今后高丽青瓷的研究提供资料佐证。

关键词：高丽青瓷 瓷器 高丽

一、学术回顾

本文研究的对象是中国出土的高丽青瓷，其产地是朝鲜半岛的青瓷窑址，高丽青瓷通过海路或陆路进入到中国，并供时人使用。目前，考古发掘出的这些高丽青瓷，其年代从宋代历经元代至明初，跨度从12世纪中期至15世纪早期。从上世纪50年代开始，中国各地就不断出土高丽青瓷，其中一些是完整器，更多的是残片，而经科学考古发掘，带有地层年代信息或与可帮助判定时代的同伴物一同出土的高丽青瓷只有50余件，这50余件考古出土的瓷器是本文研究的对象。

从上世纪70年代起，中国的陶瓷学家冯先铭¹⁾、耿宝昌²⁾两位开始对中国出土高丽青瓷进行介绍。

对中国出土的高丽青瓷统计研究始于韩国的金载悦。其在《传入中国的高丽瓷器》³⁾中把中国发现的高丽青瓷按照出土地进行了排序。

日本的小林仁对中国出土高丽青瓷和博物馆所藏的高丽青瓷进行了再整理，撰文《中国出土高丽青瓷考》⁴⁾。小林仁把出土地点大致分为南北两大区域：1.北方：东北几省、内蒙古、河北、山东等；2.南方：江苏、安徽、浙江等，并指出当时高丽人从朝鲜半岛进入中国存在着南北两条路线。

中国的学者之后也开始系统研究中国出土的高丽青瓷。其中，马争鸣撰写的《杭州出土的高丽青瓷》⁵⁾，在小林仁的统计上，进一步加以说明，并增加新的瓷片材料，同时运用科技测定了杭州地区出土高丽青瓷标本的成分。

最新的研究成果为彭善国于2013年撰写的《中国出土高丽青瓷述论》⁶⁾。该文整理了全国24件高丽青瓷标本，并将这些高丽青瓷根据考古学类型学的形制和装饰分为三组，并讨论了中国出土高丽青瓷的分布特征。

1) 冯先铭：《中国出土朝鲜、伊朗古代陶瓷》，文中例举了6处中国出土的高丽青瓷。参见 李毅华编：《冯先铭中国古陶瓷论文集》，北京：紫禁城出版社，两木出版社，1987年，第329-330，345-346页。

2) 耿宝昌：《闲话朝鲜高丽青瓷》，《博物馆研究》，1985年第2期，第91页。也见：刘东瑞等：《文物鉴赏丛书 陶瓷1》，北京：文物出版社，1995年，第157-165页。文中例举了5处中国出土的高丽青瓷。

3) 金载悦：『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청자』《传入中国的高丽青瓷》三星文化财团：《湖严美术馆研究论文集》，第4号，1999年。第15-36页。文中对中国出土的高丽青瓷进行了梳理，但未对标本的年代做判断，但限于资料所限，刊发的资料中图片资料不全和错误。

4) 小林仁：《中国出土高丽青瓷考》，《中国古陶瓷研究》第14辑，北京：紫禁城出版社，2008年，第563-588页。文末将中国出土的高丽青瓷汇成表格，统计了尺寸、出土地点、朝代、文献出处，为之后的研究者提供了较大的便利。

5) 马争鸣：《杭州出土的高丽青瓷》，《东方博物》，2008年第4期，第109-115页。马争鸣将杭州地区出土的高丽青瓷资料进行了更为细致的整理和公布，补充了小林仁先生的遗漏。同时从文物科技鉴定分析技术上对高丽青瓷、汝窑等瓷器进行胎、釉检测，能够更科学地认识高丽青瓷和其他青瓷的异同。

6) 彭善国：《中国出土高丽青瓷论述》，《边疆考古研究》第14辑，2014年，第181-191页。

此外，韩国的方炳善《传入中国的高丽青瓷和其对陶瓷史的影响》⁷⁾一文，结合中国已有研究成果，把出土的高丽青瓷分为华北和华南两区域，同时还新增中国台湾发现的高丽青瓷作为参考。⁸⁾

通过以上的学术史回顾可以发现，中国考古出土的高丽青瓷实物标本的数量有限，学者们对于其的研究已有一定的成果。本文旨通过对科学考古中出土高丽青瓷的统计，对中国出土高丽青瓷的地域和时代再次审视。希望本文能助推高丽青瓷研究的深入。

二、中国出土高丽青瓷

本文只统计正规考古出土的高丽青瓷，通过已发表的考古报告和简报资料，结合其在地区上集中程度，本文将其分布情况分为三个区域：1.东北地区；2.华北地区；3.华东地区。

2.1东北地区

东北地区很早就与朝鲜半岛有陆路上的往来，在此出土的高丽青瓷能充分证明当时高丽与中国东北之间的密切联系。

2.1.1 黑龙江

黑龙江省出土的高丽青瓷是目前中国高丽青瓷标本的地理最北端，为大致判断高丽青瓷在中国的辐射范围提供了依据。

1989年5月在黑龙江省哈尔滨市市郊香坊区幸福乡水田村内，热电厂在铺设管道时，发现了一处瓷器窖藏。⁹⁾该处窖藏共计瓷器88件，高丽青瓷碗1件（考古编号J:23）。

碗高6.8，口径19.2，底径6.6厘米（图1）。敞口，斜弧腹，圈足较矮。外壁等距镶

7) 方炳善：『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传入中国的高丽青瓷及陶瓷史的影响》），讲座美术史，第40号，2013年，第13-38页。其中新增了台湾东部海岛地区出土的高丽青瓷资料。

8) 徐韶谿：《兰屿椰油村Rusasol遗址调查报告》，台东县：台湾史前文化博物馆：《南岛研究学报》，第二卷第一期，2008年，第55-84页。其中第70页载“陶瓷片里除了属中国陶瓷片之外尚发现高丽青瓷”，确认为高丽青瓷的共有七件，尚有一件疑为高丽青瓷，此七件高丽青瓷的器形可分辨为碗形2件，罐形1件，盘形3件，其年代尚待考证。”同页追加图版2公布了高丽青瓷图像资料，大部分为青瓷底部残片，胎较厚，釉色深绿色，内底有支钉痕迹，整体类似越窑。笔者观察后发现碗内底有圆刻痕迹，应为康津窑生产的12世纪中期的翡色青瓷，而一件带有黑色叶片镶嵌的时代可能在12世纪后期。

9) 同注15

嵌有4朵黑叶白蕊折枝花。内壁镶嵌等距的四朵黑叶白蕊折枝花,内底镶嵌一朵双圈包围的黑叶白蕊菊花。外底圈足内有三处支烧痕迹。

2.1.2 吉林

共计两处,一处为德惠市揽头窝堡遗址第四区域第4探方2层出土了一件高丽青瓷素面碗(残破,已修复)。¹⁰⁾另一处为前郭塔虎城出土的高丽青瓷镶嵌菊花纹盏(残破,已修复)。¹¹⁾

素面青瓷碗(图2)。侈口,浅弧腹,近足处内折,圈足,底部有支烧痕迹。外腹素面无纹,施青釉,内壁纤细阴刻花纹。¹²⁾

镶嵌菊花纹青瓷盏(图3),仅存盏的四分之一。敛口,深弧腹,近底内收,圈足,满釉支烧。内壁青釉素面无镶嵌纹饰,外壁镶嵌白花黑叶的折枝菊花,¹³⁾口沿白色镶嵌回纹带一周。

2.1.3 辽宁

辽阳市1964年(时称为辽阳县)兰家乡石灰窑村中出土了一件镶嵌青瓷枕。

镶嵌青瓷枕(图4),长17.4,宽11.4,高10厘米,整体呈长方形,束腰。露胎处呈灰色,青色釉。枕一侧有四个支烧痕。上下两面镶嵌七朵折枝菊花。前后两面为逆镶嵌缠枝卷草纹。左右两面气孔周围镶嵌白色双圈纹同心圆,四角镶嵌黑叶白蕊菊花纹。¹⁴⁾

1971年辽阳北园5号墓出土的一件镶嵌青瓷粉盒。1972同地的北园6号墓出土一件镶嵌青瓷碗。

青瓷粉盒(图5),通高3.5,口径8.3,足径5厘米。子母口扣合,整体呈扁圆形。¹⁵⁾内底有三处支烧痕。器盖表面镶嵌菊花纹,中心圆形双圈纹内的三朵菊花呈三角排列,双圈纹外饰14朵小菊花,外层为白色连珠纹。盒身口沿镶嵌一圈白色回纹。¹⁶⁾

10) 宋玉彬:《揽头窝堡遗址》,《田野考古集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五周年纪念》,北京文物出版社,2008年,第86-89页;赵德让:《长春市志 文物志》,长春:吉林人民出版社,1995年,第41页。

11) 吉林省地方志编纂委员会:《吉林省志 卷四十三 文物志》,长春:吉林人民出版社,1991年,第254页。

12) 彭善国:《中国出土高丽青瓷论述》,《边疆考古研究》第14辑,2014年,第182页,第181页图一2。

13) 彭善国:《中国出土高丽青瓷论述》,《边疆考古研究》第14辑,2014年,第182页,第183页图二6。

14) 邢爱文:《辽阳博物馆馆藏精品图集》,沈阳:辽宁大学出版社,2009年,第55页。

15) 同注38

青瓷小碗(图6),高5.5,口径8.6,底径4厘米。口沿露胎处呈灰色。釉色青中泛黄,釉面布满细小开片。敛口,外壁口沿镶嵌一圈白色回纹,腹部镶嵌3朵白花黑叶菊花纹。内壁素面。外底有3处支烧痕迹。¹⁷⁾

1976年辽阳庞夹河1号墓出土一件镶嵌青瓷碗。¹⁸⁾

高丽青瓷碗¹⁹⁾(图7),高9,口径19,底径6.9厘米,直口微敛,斜直腹微弧,内底刻划圆圈纹,足底有三处支烧痕。内、外壁口沿下镶嵌白色卷草纹带,内壁等距离镶嵌四朵白色荔枝纹,内底心镶嵌白色团菊纹。外壁腹部镶嵌白色缠枝卷草纹带,其中又等距镶嵌4个白色双圈纹包围的黑叶白花的折枝菊花纹,近足部等距镶嵌黑叶白花折枝菊花纹。²⁰⁾

沈阳市小南边门发现两座元代墓葬,其中2号墓中出土一件高丽青瓷镶嵌团菊纹八角形碗(M2:2)和两件青瓷镶嵌荔枝纹碗(M2:3, M2:4)。

镶嵌团菊纹八角形青瓷碗(M2:2),通高4.3,口径11.2,底径7.4,壁厚0.5厘米(图8)。胎呈淡灰色,施青色釉。敞口,斜直腹,腹呈八角形,近足处内折,圈足,外底有三处支烧痕。八角形碗外壁的每面镶嵌双线框包围的两朵黑叶白花菊花纹。内底刻如意纹。²¹⁾

镶嵌荔枝纹青瓷碗²²⁾(M2:3),高6.8,口径19.6,底径7厘米,敛口,斜弧腹,圈足较矮,外底有三处支烧痕迹,胎呈灰色,青色釉(图9)。²³⁾内壁口沿下1厘米处镶嵌白色卷草纹。内壁等距镶嵌四朵白色荔枝纹。内底镶嵌白色如意纹,中心镶嵌一朵白色菊花纹。外壁等距镶嵌四朵白色双圈纹包围的黑叶白花折枝菊花,近足处镶嵌四朵黑叶白花折枝菊花纹。²⁴⁾

镶嵌荔枝纹青瓷大碗(M2:4)(图10)。高9.2,口径19.8-20.4,底径6.5厘米,敞口,斜弧腹,腹部较深,近足处内收,高圈足,外底有三处支烧痕。胎呈浅灰色,釉呈暗青色。内壁下1厘米处镶嵌三道白色弦纹,其间镶嵌卷草纹,内壁等距镶嵌5朵

16) 邢爱文:《辽阳博物馆馆藏精品图集》,沈阳:辽宁大学出版社,2009年,第57页。

17) 同注38;邢爱文:《辽阳博物馆馆藏精品图集》,沈阳:辽宁大学出版社,2009年,第56页。

18) 丁丽:《辽阳出土的高丽青瓷》,《辽海文物学刊》,1994年2期,第50,102-103页;杨瑶:《辽阳博物馆藏古朝鲜瓷器鉴赏》,《东方收藏》,2014年第4期,第64-67页。

19) 同注38

20) 同注38;邢爱文:《辽阳博物馆馆藏精品图集》,沈阳:辽宁大学出版社,2009年,第54页。

21) 赵晓刚:《沈阳城区的元代墓葬》,《边疆考古研究》第13辑,2013年,第77,78页,345页图版二2。

22) 赵晓刚:《沈阳城区的元代墓葬》,《边疆考古研究》第13辑,2013年,第77,78页,M2:3碗为第345页图版二3。

23) 张柏:《中国出土瓷器全集2 天津辽宁吉林黑龙江》,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145页。

24) 赵晓刚:《沈阳城区的元代墓葬》,《边疆考古研究》第13辑,2013年,第77,78页。

白色荔枝纹。内底中心镶嵌白色菊花纹3朵，呈三角形布局，其外镶嵌如意纹。外壁镶嵌三道弦纹，其间镶嵌卷草纹，腹部为等距排列5朵荔枝纹，近足处镶嵌5朵黑叶白花菊花纹。²⁵⁾

1981年沈阳市和平区砂山街2号墓(81M2)出土了1组高丽镶嵌青瓷酒盏及盏托。²⁶⁾

青瓷镶嵌菊花纹花形盏及盏托(81M2:1)。盏为花形口，十瓣，深直腹，高圈足外撇，足端向上翘起。高6.2，口径6.8(图11)，圈足直径3.8厘米。胎呈灰白色，淡青色釉。盏内壁素面，内底刻划圆圈纹。外壁口沿镶嵌弦纹，其间镶嵌白色卷草纹。腹部每瓣镶嵌上下两朵黑叶白花菊花纹，下腹镶嵌白色如意云纹。足部素面。托高6，口径4.1，盘径13.1厘米，足径8厘米，托台为六瓣覆莲形，托台中心等距阴刻四个“土”字。托盘为10瓣花形，托盘每瓣各镶嵌黑叶白花菊花纹。²⁷⁾

1981年沈阳市大东区望花街汽车驾驶室厂院内2号墓出土一件高丽青瓷碟，在其西侧5米处为1号墓，两者关系为夫妻。1号墓出土的钧瓷碗的外底墨书“朴五(玉)”、“朴口”(图12)，推测这是一处高丽人的墓葬²⁸⁾。

青瓷碟高3.5，口径12，足径7.6厘米，敞口，斜直腹，近足处内折，圈足，外底有三处烧痕(图13)。灰胎，青釉发灰。内壁等距镶嵌四朵白色折枝花，内底镶嵌一朵双圈纹包围的白色折枝菊花，双圈纹外镶嵌九朵如意纹。外壁镶嵌4朵团菊纹。²⁹⁾

在朝阳市建平县小塘乡苏子沟村出土一件高丽青瓷尖底杯，³⁰⁾是目前国内考古出土高丽青瓷尖底杯仅有的一件。

杯高8.2，口径6.6，最大腹径7.5厘米，深腹内收，尖底(图14)。外壁口沿镶嵌三道白色弦纹，其间镶嵌卷草纹，腹部等距镶嵌四朵双圈纹包围的白色折枝菊花，其下饰两道弦纹，弦纹以下至底部镶嵌8道白色射线。³¹⁾

2.1.4 内蒙古敖汉

内蒙古出土高丽青瓷的地点有两处：1.内蒙古敖汉旗玛尼罕乡五十家子宁昌路古城遗址；2.内蒙古乌兰察布盟右前旗巴音塔拉乡土城村集宁路古城遗址。在地理位置

25) 同注52

26) 同注48

27) 赵晓刚：《沈阳城区的元代墓葬》，《边疆考古研究》第13辑，2013年，第71页，345页图版二1。

28) 赵晓刚：《沈阳城区的元代墓葬》，《边疆考古研究》第13辑，2013年，第87页。

29) 赵晓刚：《沈阳城区的元代墓葬》，《边疆考古研究》第13辑，2013年，第61，62页，344页图版一4。

30) 彭善国：《中国出土高丽青瓷论述》，《边疆考古研究》第14辑，2014年，第182页，第183页图二10。

31) 朝阳市文化局：《朝阳馆藏文物精华》，长春：吉林文史出版社，2009年，第224页。

上，前者在地理上靠近辽宁省朝阳市，故归于东北地区，后者归于华北地区。

镶嵌菊花纹青瓷高足碗（图15）。高8.6，口径11.2，足径5.2厘米。高足杯上部为碗形，敞口，胎呈淡灰色，青色釉，深弧腹。高足外撇。碗外壁口沿镶嵌卷草纹，外腹等距镶嵌四朵双圈纹包围的黑叶白花折枝菊花纹，碗底镶嵌黑色莲瓣纹。内壁等距镶嵌4只仙鹤，其余部分为白色雨点状镶嵌，内底镶嵌一朵团菊纹，其外镶嵌11朵如意纹。足部外壁等距镶嵌4朵黑叶白花团菊纹，并用线条分隔。³²⁾

2.2 华北地区

2.2.1 内蒙古乌兰察布

高丽青瓷螯形砚滴，出土于集宁路古城城内。³³⁾ 2003年集宁路第22号房址第26号窖藏中出土。窖藏位于集宁路古城中心集市和居住区域内，该窖藏还一同出土了钧窑蓝釉碗、龙泉窑四方形贯耳钏，瓷器都放置于龙泉窑荷叶纹盖罐内。

螯形砚滴通高7.2，长10.6，宽8.2厘米（图16），龙首，龟身。龙首口部为砚滴出水口。背部龟甲每片阴刻“王”字，背正中一片莲叶。底部有支烧痕迹，施青釉。³⁴⁾

2.2.2 北京

共计两处，一为元大都居住遗址内出土的高丽镶嵌青瓷碗；另一处为丰台区乌古论窝论墓出土的葫芦形青瓷执壶。

元大都居住遗址在上世纪60年代后期发现了2件高丽青瓷镶嵌碗残片。但至今未在考古报告图录等内出现³⁵⁾，只记载相关文字描述记载，其中的一片描述为镶嵌云鹤纹

32) 内蒙古敖汉旗博物馆：《敖汉文物精华》，呼和浩特：内蒙古文化出版社，2004年，第193页。

33) 陈永志：《内蒙古集宁路古城遗址出土瓷器》，北京：文物出版社，2004年；陈永志：《集宁路古城发掘集市窖藏几千件瓷器囊括元代九大名窑》，《文物天地》，2003年第11期，第16-25页；陈永志：《发掘集宁路元代城址及第三批窖藏》，《文物天地》，2004年第3期，第22-33页；张郁：《元代集宁路遗址清理记》，《文物》，1961年第9期，第52-58页；王霞：《元代集宁路古城遗址出土瓷器解读》，《北方文物》2008年第3期，第54-56页。

34) 陆明华：《对元集宁路窖藏出土瓷器的初步认识》，《中国古陶瓷研究》第十一辑，北京：紫禁城出版社，2005年，第53-70页；刘毅：《元集宁路窖藏出土的螯形砚滴与高丽青瓷断代》《中国古陶瓷研究》第十一辑，北京：紫禁城出版社，2005年，第81-93页；陈永志：《内蒙古集宁路古城遗址出土瓷器》，北京：文物出版社，2004年，第88，89页图版58；苏东：《元代高丽青瓷龟形砚滴》，《收藏》，2005年第2期总146号，第65页；张柏：《中国出土瓷器全集4 内蒙古》，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144页。

35) 北京元大都遗址和居住遗址报告内均无高丽青瓷的记载，只记载了磁州窑、龙泉窑青瓷、钧窑蓝釉、白瓷、景德镇青白瓷等，且元大都遗址考古报告内也无彩色图片资料可以判断。北京元大都遗址内出土有瓷器的有西绦胡同库房遗址、旧鼓楼大街豁口东瓷器窖藏外，后英房胡同居住遗址。参加：徐萃芳：《元代的城址和窖藏》，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新中国的考古发现和研究》，北京：文物出版社，1984年，第609-611页。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元大都的勘查和发掘》，《考古》，1972年第1期，第12-19页。

图案的碗。36)

高丽青瓷执壶于上世纪80年代出土于丰台区王佐乡金代乌大定二十四年(1184年)入葬的乌古论窝论墓内(图17)。通高28.3,口径3.1,底径9.8,最大腹径17厘米,通体呈葫芦形。带盖,盖顶部系圆形钮,曲形柄,曲流,平底,底部未施釉,外底有三处支烧痕。整体施淡青釉,全器素面。37)

2.2.3 河北

河北省史氏家族墓1号墓出土了1件高丽青瓷镶嵌云鹤纹梅瓶。38)这件梅瓶为目前国内发现的高丽青瓷中体积最大的一例。39)

高丽镶嵌云鹤纹梅瓶通高46,口径6.7,最大腹径23,最小腹径13,足径17.2厘米(图18)。发掘时已残损,后经拼接修复。直口,短颈,丰肩,腹较长,足底粘砂。肩部最上层镶嵌白线弦纹两道,其下镶嵌白色双重覆莲瓣纹一圈。腹壁从上往下共镶嵌黑叶白花折枝38朵,可分为5层,上三层每层折枝花8朵,下两层每层折枝花7朵,折枝花都用白色双圈纹包围。折枝花外镶嵌云鹤纹图案,云朵大多呈反“之”字状,下腹镶嵌白色重瓣仰莲纹一周,叶片内装饰4个白色圆圈,近底为一圈白色回纹,40)

2.2.4 山东

山东省蓬莱市北部的古港登州水城小海沉船遗址3号船舱于2005年共出土高丽青瓷碗2件。41)

高丽青瓷镶嵌水波连珠纹碗(采:14)出土于3号船第4舱。通高8.7,口径18.5,底径5.6厘米(图19)。露胎处呈深灰色,胎有杂质,釉色呈深青色,釉面密布冰裂纹。敞口外翻,深弧腹,高圈足。外底粘满白色的窑沙,碗内底有三处支烧痕。外壁口沿下近腹处镶嵌白色弦纹五道,内壁口沿下镶嵌三道弦纹,内壁镶嵌波浪形水波纹、弦

36) 小林仁:《中国出土高丽青瓷考》,《中国古陶瓷研究》第14辑,北京:紫禁城出版社,2008年,第580页编号10。

37) 北京市文物事业管理局:《北京文物》,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0年,第75页图版113;张柏:《中国出土瓷器全集1 北京》,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67页。

38)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石家庄后太保村史氏家族墓发掘报告》,河北省文物研究所:《河北省考古文集》,北京:东方出版社,1998年,第344-369页;王会民,张春长:《石家庄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发掘简报》,《文物》,1996年第9期,第49-59页。

39) 同注81

40)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石家庄后太保村史氏家族墓发掘报告》,河北省文物研究所:《河北省考古文集》,北京:东方出版社,1998年,第359页,彩版三5;河北博物院,河北省文物研究所,河北省文物保护中心:《名窑名瓷》,北京:文物出版社,2014年,第258页图版119;张柏:《中国出土瓷器全集3 河北卷》,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202页。

41) 佟佩华,王锡平,滕建英,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烟台市博物馆,蓬莱市文物局:《蓬莱古船》,北京:文物出版社,2006年,第53-54,63-64页。其中第53-54页为三号船6号舱板出土标本20:20,莲瓣纹小碗;第63-64页为三号船西侧采:14,水波连珠纹大碗。

纹和连珠纹。⁴²⁾

高丽青瓷镶嵌菊花莲瓣纹碗(标本20:20)出土于3号船第6舱北侧舱壁板下,通高3.7,口径10.3,底径4.5厘米(图20)。直口微侈,上腹部较直,外腹与内腹有一道凸起,圈足较高,外底粘黑色窑渣,外壁口沿下镶嵌白色弦纹四道。内壁口沿下可见2朵白色花草纹,完整的应为等距镶嵌的3朵花草纹,内底中心镶嵌12瓣菊花纹,其外包围双圈纹,双圈纹外围绕18瓣莲瓣纹,莲瓣纹内竖向饰2个实心圆,莲瓣纹外包围双圈纹。⁴³⁾

2.3 华东地区

主要集中的地区为江苏、浙江两地,同时还有安徽一处,有的学者将其划分在南方地区,但目前除了浙江、江苏、安徽外,其他省份暂时未发现高丽青瓷,其分布范围仅限上述几处,故本文将划分为华东地区。

2.3.1 江苏

江苏省扬州市出土的高丽青瓷集中在城内,其中有1983年三元路工地出土的镶嵌黑白纹饰的青瓷残片10余件,目前已发布的资料有碗残片2件,城郊自80年代以来出土镶嵌青瓷碗、高足杯残片共3件。⁴⁴⁾

高丽青瓷为镶嵌青瓷碗残片,现存2件(图21)。小片为口沿部分,外壁口沿下为三道白色弦纹,其间镶嵌白色卷草纹。大片为弧腹形碗,外壁正中镶嵌白色双圈纹包围黑叶白花折枝菊花纹一朵,其外为白色卷草纹,下部镶嵌白色双重仰莲纹带,每瓣莲花内饰三颗实心白点,呈三角形布局。⁴⁵⁾

扬州城郊出土3件高丽青瓷残片,其中2片为青瓷镶嵌碗标本,另1片为高足杯标本。⁴⁶⁾高丽青瓷碗标本2件,一大一小。大件保留口沿至底部部分(图22),露胎处呈灰白色,釉层较厚浑浊,镶嵌纹样不清。敛口,弧腹,圈足,足底釉层较薄露出灰色胎,内底有支烧痕。外壁口沿下镶嵌三道白色弦纹,腹部镶嵌双圈纹包围的黑叶白花的折枝菊花,近足处镶嵌白色弦纹三道。小片的碗标本只保留口沿和腹部,整体施翡色釉,釉层较透明,露胎处呈灰白色。侈口外翻,斜直腹。外壁口沿下镶嵌回纹一周,腹部镶嵌白色双圈纹包围的黑叶白花折枝菊花纹,下腹为白色仰莲纹,其内镶嵌白色实心点。高足杯标本1件,为杯高圈足残件。露胎处呈灰白色,淡绿色透明釉。圈

42) 同注92

43) 同注92

44) 扬州博物馆,扬州文物商店:《扬州古陶瓷》,北京:文物出版社,1996年,第19,21页附图三5。

45) 冯先铭:《中国出土朝鲜、伊朗古代陶瓷》,李毅华:《冯先铭中国古陶瓷论文集》,北京:紫禁城出版社,两木出版社,1987年,第345页图版拾壹3。

46) 同注104

足外撇，足底沾窑渣。圈足被弦纹分隔为四部分，各镶嵌黑叶白花折枝菊花一朵，近底镶嵌回纹一周。

1951年在南京南郊牛首山出土一件高丽镶嵌莲花柳树纹青瓷梅瓶（图23）。⁴⁷⁾

瓶高30.5，口径5，足径11，最大腹径18厘米。唇口外翻，束颈，溜肩，上腹部呈球形，下腹缓慢内收，近底处外撇，平底内凹呈浅圈足。灰胎，釉色呈淡青色。肩部为黑白镶嵌双重覆莲纹一周，莲瓣纹上、下镶嵌白色弦纹，腹部镶嵌莲花和柳树。

同里镇曾出土一件高丽青瓷镶嵌梅瓶。

瓶高28.5，口径3.5，足径11.8厘米（图24）。小口，卷唇，束颈，溜肩，上腹呈球形，下腹内收，近底处外撇，底内凹呈圈足。釉呈淡青色。肩部镶嵌长方形莲瓣纹，其内为竖排白色圆圈纹，其下镶嵌饰弦纹和连珠纹带。腹部镶嵌间隔排列的竹子、柳树，柳树与竹子间镶嵌三瓣形花。近足部镶嵌两道白色弦纹，足部为白色双层莲瓣纹。⁴⁸⁾

在江苏省太仓樊河泾遗址中出土了两片高丽青瓷残片。樊河泾的这处遗址发现大量的瓷器标本，被认为是当时储存瓷器的地点，同时此地因靠近海岸港口（刘家港），这些瓷器也被认为是运输至海外的贸易瓷。

碗残片（TW05S09东隔梁），长14.3，底径6.1厘米（图25）。平底，折腹。内底中心镶嵌白色双圈纹，内壁镶嵌双凤纹，卷云纹。

壶口沿残片（TW11S13K51），长6.6厘米（图26）。子母口，丰肩，腹部内收。肩部镶嵌两道白色的弦纹和连珠纹，腹部为白色镶嵌双圈包围的折枝花纹。

2.3.2 安徽

镶嵌龙纹的青瓷大罐（编号2：933）（图27），20世纪50年代出土于滁县一墓葬

47) 关于这件高丽青瓷梅瓶的来源，另一种说法是“1945年抗日战争之后，国民政府还都南京，当时中央博物院接受了一批来自汪精卫政权时期的上海和平博物馆的藏品（1946年），其中就有两件高丽青瓷瓶”，一件为镶嵌荷花柳叶纹梅瓶，大小尺寸和本文中的牛首山梅瓶一致，另一件为镶嵌花卉纹玉壶春瓶。见：程晓中，周文仪：《两件高丽青瓷》，《文物天地》1989年第3期，第27页（附图）。和平博物馆抗战胜利后由汤恩伯创办，主要集中保管了日侨上缴的文物。见：史勇：《中国近代文物事业简史》，兰州：甘肃人民出版社，2009年，第204页；梁吉生：《中国近代博物馆事业纪年》，《中国博物馆》，1991年第2期，第68-76页。目前的研究者都采纳了这件梅瓶1951年出土于南京市南郊牛首山。从1951年南京地区的考古报告看，牛首山地区进行了南唐二陵的发掘，而这件梅瓶的具体考古信息还待公布。

48) 张柏：《中国出土瓷器全集7 江苏、上海》，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145页；方炳善：『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传入中国的高丽青瓷及陶瓷史的影响》），讲座美术史，第40号，2013年，第21页图14。

中。通高23，口径9.5，腹最大径27.3，足径9.3厘米。直口，短颈，溜肩，上腹部呈球形，下腹部迅速内收，圈足。足部露胎处呈灰白色，釉色青中发黄，略有开片。肩部镶嵌莲花荷叶纹一周。腹部镶嵌两条龙纹。近足处镶嵌三重仰莲纹。⁴⁹⁾

2.3.3 浙江

浙江地区出土的高丽青瓷数量虽然较多，遗憾的是绝大多数为非科学考古发掘的资料，考古出土的主要是杭州恭圣仁烈皇后宅出土的高丽青瓷残片。

2001年在恭圣仁烈皇后宅遗址的水池底部出土了高丽青瓷残片，共计14片。已公布的标本有9件。

标本SC：97（图28）：盘口沿残片，长3.6，宽2.6厘米。敞口，圆唇，浅曲腹。

标本SC：98（图29）：盘口沿残片，残高0.5厘米。敞口，圆唇，折腹。灰色胎，青绿色釉。

标本SC：99（图30）：香炉口沿部残片，宽2.8，高2.7厘米。直口，圆唇，直腹。釉呈粉青色。外壁口沿下有一道凸起得弦纹。

标本SC：100（图31）：瓶肩部残片，最宽处5.5，高1.1厘米，残片有一定的圆弧度。胎呈灰色，釉呈淡青色，镶嵌一朵黑叶白花菊花纹。

标本SC：156（图32）：瓶残片，长4.2，高0.8厘米。胎呈灰色，釉呈翡色，外壁镶嵌一朵黑叶白花菊花纹。

标本SC：157（图33）：罐口沿残片，宽3.6，残高2.4厘米。敛口，圆唇，胎呈淡灰色。淡青色釉，上端刻划花纹，似莲瓣纹。

标本SC：158（图34）：不明器物口沿残片，长4.2，残高1.9厘米。刻划连体变形回纹带一圈。

标本SC：160（图35）：不明器物口沿部残片，长2.9，宽2.6厘米。敞口，口沿向外翻折。淡灰色胎。翡色釉，有冰裂纹。口沿下镶嵌白色卷草纹。

标本SC：165（图36）：长条形残片，长7.1，宽4.2厘米。青绿色釉，素面。

恭圣仁烈皇后杨氏崩于绍定五年（1232年）十二月，⁵⁰⁾在第4地层水池堆积层中同时还出土了铜钱，时代最晚的为“绍定元宝”（1228-1233年），上述资料可以帮助断定高丽青瓷的制作时间。

1967年杭州半山钢铁厂发掘的夫妇合葬墓中出土了“绍兴十九年（1149年），建宁军节度使之印，文恩院铸”铜印，同时出土两件高丽青瓷花口碗。⁵¹⁾

49) 冯先铭：《中国出土朝鲜、伊朗古代陶瓷》，李毅华编：《冯先铭中国古陶瓷论文集》，北京：紫禁城出版社，两木出版社，1987年，第330，344页图版拾2；马起来：《高丽青瓷龙纹罐》，《收藏界》2006年第11期，第74页；[14] 张柏主编：《中国出土瓷器全集8安徽》，北京：科学出版社，2008年，第181页图版181。

50) 《宋史》卷一百二十三礼志第七十六 礼二十六载“宁宗恭圣仁烈皇后杨氏绍定五年十二月崩，附葬茂陵”；《宋史》卷二百四十三列传第二后妃下恭圣仁烈皇太后条。

高丽青瓷碗(图37),口径19.5,高6厘米,敞口,微内敛,口沿作六瓣葵口,腹壁斜直,内外施青色釉,内壁为刻划折枝牡丹纹,内底阴刻圆圈,外底有三处支钉痕。⁵²⁾根据对出土“绍兴十九年建宁节度使”铜印的考释,可知该墓的墓主为宋高宗生母韦皇后的侄子,建宁军节度使韦谦与其夫人⁵³⁾,根据《建炎以来系年要录》记载“绍兴二十有六年(1156年)……太尉建宁军节度使提举万寿观韦谦薨”,故这件高丽青瓷碗的时代应为12世纪中期之前。

杭州出土的高丽青瓷残片数量虽多,但因非科学考古出土,出土地点、同伴物不明,本文暂不予统计。

宁波月湖景区明州高丽使馆遗址曾出土高丽青瓷残片,目前图片资料还未公开。⁵⁴⁾宁波市内还出土了大量高丽青瓷,但也因非考古发掘品,本文暂不统计入内。

2.4 中国出土高丽青瓷的年代

本文将中国出土高丽青瓷的年代大致分为三个时期:1.宋、金时期(12世纪至13世纪中期);2.元代早中期,(13世纪中期至14世纪后期);3.元代末期至明初(14世纪晚期)。⁵⁵⁾

2.4.1 宋金时期(12世纪中期至13世纪中期)

中国出土的高丽青瓷年代在12世纪中期至13世纪中期的,主要是翡色青瓷,多无纹饰,或仅有阴线刻划。

宁波月湖景区明州高丽使馆遗址内出土的越窑青瓷都为北宋时期产品,遗址内伴出政和通宝钱(约1111年)。可推测遗址出土的高丽青瓷,其时代不应晚于南宋,为12世纪中期前后。

杭州恭圣仁烈皇后宅出土的高丽青瓷残片集中于水池内,应为南宋建立的园林,水池内伴出有南宋官窑和定窑,高丽青瓷残片以翡色青瓷为主,其中刻划回纹的残片(SC:158)与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的残片(图38)接近,应为12世纪产品。镶嵌青瓷残片(SC:100)与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的一件菊花纹残片(图39)相接近,后者为13世纪产品。在水池堆积层中出土的铜钱中时代最晚的为“绍定元宝”(1228-1233年),这与杨皇后卒于1232年相互印证,所以青瓷残片的年代不会晚于

51) 冯先铭:《中国出土朝鲜、伊朗古代陶瓷》,李毅华:《冯先铭中国古陶瓷论文集》,北京:紫禁城出版社,两木出版社,1987年,第330页。

52) 沈琼华:《高丽青瓷探源》,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学刊第五辑 2002越窑国际学术讨论会专辑》,杭州:杭州出版社,2002年,第241-247页。

53) 马争鸣:《杭州出土的高丽青瓷》,《东方博物》,2008年第4期,第109页。

54) 林士民,褚晓波:《浙江宁波月湖历史文化景区考古发掘简报》,《浙东文化》1999年第1期,第131-133页。

55) 同注29

1232年，即这批高丽青瓷的年代应在12世纪至13世纪中期。

与杭州半山钢铁厂出土的高丽青瓷同墓出土的一件铜印上刻有“绍兴九年文思院铸建宁军节度使”铭文，铜印的使用者即墓主人为南宋时期建宁军节度使韦谦，韦氏卒于绍兴二十六年（1157年）⁵⁶。该碗外底有呈三角形排列的三个支烧痕，相同的支烧方式多见于12世纪（图40），故推测这件碗的生产年代为12世纪中期。

北京乌古论窝论墓的墓志虽没有记其生卒时间，但其死亡时间应晚于其子元忠的出生年，即1138年之后，且丰台区大兴良乡的这座墓为大定二十四年的迁葬墓，即这件青瓷执壶的年代约在1138至1184年之间。

德惠揽头窝堡金代遗址出土的是翡色釉阴线刻划花纹碗，通过其支烧方式可判断为高丽青瓷产品。从已公开的资料看，遗址内出土的瓷器、铁器都为金代，无元代遗物，故该碗的年代也属于金代，即13世纪中期以前。

内蒙古出土螭形砚滴的制作年代相对较早，在康津窑址内曾出土相似的螭形香炉残片（图41），属于12世纪的产品。但从窖藏中一同出土的龙泉窑荷叶纹盖罐和该遗址内其他地点出土有元釉里红瓷器，可见该遗址的整体年代为元代，窖藏的龙泉窑盖罐与新安号出水的龙泉窑荷叶罐一致，故其窖藏的时代应在14世纪早中期。砚滴进入中国的时间应该在元代，生产时间或为12-13世纪。

2.4.2元代早中期（13世纪中期至14世纪中期）

中国出土高丽青瓷中的镶嵌青瓷大多集中在13世纪中期至14世纪中期，镶嵌瓷器的纹样特征也较容易判定年代。

哈尔滨水田村窖藏出土的镶嵌青瓷碗与钧窑蓝釉瓷器共出，钧窑属于典型的元代风格，同时康津沙堂里窑址出土的一件13世纪残片上的黑色长条形叶片白色花蕊的纹饰与其相似（图42），可推测此碗的年代应属于元代早中期，即13世纪中期以后。

吉林塔虎城、辽阳北园6号墓出土的两件盏，在器形都为敛口盏，纹样上都在口沿上镶嵌白色回纹带，腹身镶嵌花卉纹，应为同一时期的产品。辽阳北园村5、6号墓的墓室形制属于元代墓葬的构造，出土的钧窑蓝釉、酱釉碗、盘都具有元代的风格，故年代应属于13世纪中后期至14世纪中期。

辽阳兰家乡出土的高丽镶嵌菊花纹青瓷枕与新安号（14世纪中期以前）出土的高丽青瓷枕形制相同，其上镶嵌卷草纹和团花组合纹饰，是镶嵌青瓷中成熟工艺的体现，这件高丽青瓷枕的年代应在13世纪中期至14世纪中期。

辽阳庞家河1号墓与沈阳小南门出土的三件青瓷碗形制相同，镶嵌荔枝纹接近，应属于同一个时期的产品。其中庞家河1号墓的青瓷碗与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的13世纪碗（图43）几乎一样，小南门高丽青瓷碗内镶嵌的荔枝纹及其布局与高丽明宗智

56) 马争鸣：《杭州出土的高丽青瓷》，《东方博物》，2008年第4期，第109页。

陵出土的青瓷碗(图44)接近。结合同伴出土的其他文物,时代应在13世纪中期。

沈阳望花街出土的青瓷碟,内底与内壁镶嵌白色花卉纹与如意纹,也与上述康津沙堂里23号窑址中出土的青瓷碗(图45)纹饰布局类似,时代约为13世纪中期。

沈阳砂山出土的高丽青瓷盏托保留几乎完整,其形制和纹饰都体现了其是镶嵌青瓷鼎盛期的产品。盏每瓣镶嵌两朵菊花纹,在康津沙堂里23号窑址(图46)、扶安柳川里中也出土了相同纹饰的残件(图47),其生产时期在13世纪后期。

宁昌路出土的镶嵌高足杯出土于元代城址中,这种形制因受到蒙古贵族对饮酒喜好的影响,也称为马上杯,中国元代中期开始较为流行。而其上镶嵌云纹缩小、简化,说明镶嵌青瓷开始走向衰落,其生产年代较晚,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的盖(图48)的云鹤纹,以及另一件盖内的云鹤纹(图49)与其较为接近,应为13世纪中期至14世纪前期产品。

石家庄出土的青瓷镶嵌云鹤纹梅瓶其墓主人根据考古学家的判断,推测为元初大臣史天泽之墓,史天泽卒于1275年,葬于延祐三年即1316年,墓室内的文物大都被盗于元末明初时期,其下葬年代可以帮助确认其生产和进入中国的时间,在全州的全州初中内出土的云鹤纹梅瓶(图50)与史氏墓梅瓶相似,后者被认为是扶安柳川里的产品,结合这件高丽镶嵌云鹤纹青瓷梅瓶的造型和纹饰工艺看,应为高丽镶嵌青瓷鼎盛时期的产物,推测为13世纪中后期。

南京牛首山出土的梅瓶和吴江同里镇出土的梅瓶都为镶嵌青瓷,且在形制上相似,镶嵌风格与史氏家族墓出土的高丽青瓷纹饰密布,制作工艺复杂不同,整体镶嵌图案为自然的写实植物图案,画面布局较为疏朗,有山水画的风格。这种装饰风格的梅瓶,在密阳莹源寺遗址梅瓶(图51)上可见到相似之处,时代约为14世纪中后期。

扬州出土的高丽青瓷残件,釉层较乳浊,生产时间应晚于镶嵌青瓷鼎盛期,且结合中国元代才出现高足杯,其时代或13世纪中期至14世纪。

2.4.3元末明初(14世纪晚期)

高丽灭亡于公元1392年,当时中国正处于明初时期,14世纪中期以后的高丽青瓷产品已经远远不及从前,多数为印花后填化妆土烧制的制品,胎和釉中带有许多杂质,釉色发黄。中国境内出土的高丽晚期,即14世纪晚期瓷器较少。

山东蓬莱登州小海沉船3号船内出土的两件高丽青瓷碗,大碗的釉色呈深青色,小碗的釉色青中发黄,胎色也为深黑色,胎内杂质较多,纹饰全为白色化妆土镶嵌,内容为水波纹和莲瓣纹,装饰纹样简单。在3号船第6舱内离高丽青瓷碗较近处也发现了一件酱釉瓶,出土层位都为第20层,这件酱釉瓶的年代被定为元代,在第20层中发现其他青、白瓷瓷器,时代最下限不晚于明初,⁵⁷⁾结合高丽镶嵌菊瓣纹青瓷碗的制作纹

57) 佟佩华,王锡平,滕建英,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烟台市博物馆,蓬莱市文物局:《蓬莱古船》,北京:文物出版社,2006年,第58页“发掘出土器物表一览表”。20层出土的瓷器

样和胎釉特征看，这件青瓷碗的年代为元朝末期。

安徽滁州墓出土的高丽青瓷龙纹罐，腹部镶嵌龙纹自然生动，张牙舞爪。釉色青中泛黄。与此相似的纹样在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的龙纹梅瓶（图52），全罗南道康津的梅瓶上出现（图53），时代为14世纪晚期。

三、小结

本文对国内目前出土的高丽青瓷资料进行了系统性的梳理，并对高丽青瓷的地域分布与时代进行了分类。第一，中国出土高丽青瓷的遗迹，可分为东北、华北、华东三个区域。第二，其时代则可以划分为：宋金时期（12世纪中期至13世纪中期）、元代早中期（13世纪中期至14世纪中期）、元末明初（14世纪晚期）。

通过上述基础性研究可以引申出以下四个问题：1.高丽青瓷进入中国的原因；2.高丽青瓷进入中国的路线；3.中国境内高丽青瓷的使用阶层；4.当时中国人对于高丽青瓷的评价。限于篇幅，笔者将另撰文讨论。同时，本文也仍有许多不足之处。

首先，对中国出土的高丽青瓷实物资料的收集仍有限。目前为止，我国考古报告和简报公布的高丽青瓷材料有限，尽管从上世纪60年代开始，考古学家和陶瓷研究者已经认识到了我国境内存在着高丽青瓷遗物，但有许多高丽青瓷标本没有被准确地认定。如早期高丽青瓷，由于在制作工艺上与越窑相似，在胎和釉色上也很接近，不易区分。

第二，中国出土的高丽青瓷资料较大部分被民间收藏者所有，而非考古发掘的产物。这对研究高丽青瓷的学者而言是一个问题。这些未经科学考古出土的高丽青瓷由于大部分没有发掘时间、发掘地点、地层的准确信息，在研究中无法将其作为研究的对象加以归纳和分析。同时更多科学出土的资料，也帮助研究者深入的探明中国出土高丽的实际情况。

第四，由于论文篇幅等原因，有一些更为深层次的问题仍待讨论，即中国出土的高丽青瓷和日本博多出土的高丽青瓷的异同。中国出土的高丽青瓷在东北、华北、华东三大区域之间是否存着因宋、辽、元与高丽的不同关系而导致产品品质不同，以及三个不同政权对高丽青瓷喜好程度等问题。这些更深层次的问题有待之后再加以研究。

如白瓷碗为元末明初磁州窑，青瓷碗底为明代，青瓷罐为明初，由此看20层位的年代应该元末明初，青瓷碗为朝鲜时代初期生产的粉青沙器的可能性小。

图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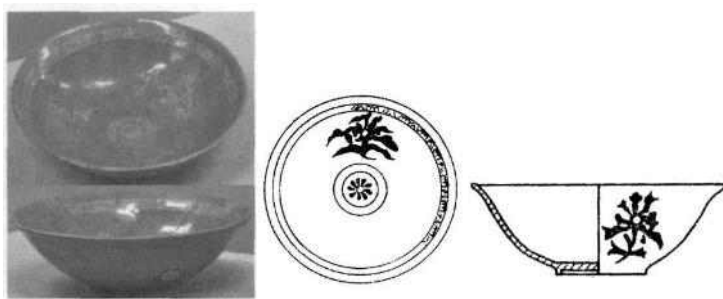


图1 哈尔滨市水田村窖藏高丽青瓷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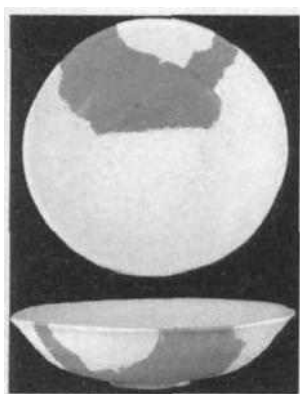


图2 吉林德惠揽头窝堡遗址高丽青瓷碗



图3塔虎城遗址高丽青瓷盏



图4 兰家乡石灰窑村高丽青瓷枕



图5 北园5号墓高丽青瓷粉盒



图6 北园6号墓高丽青瓷碗



图7 庞家河1号墓高丽青瓷碗



图8 沈阳小南边门八角形高丽青瓷碗



图9 沈阳小南边门高丽青瓷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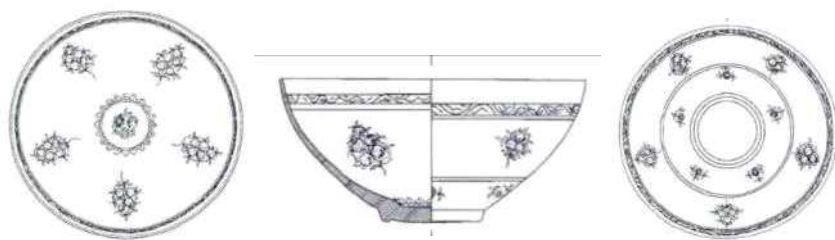


图10 沈阳小南门高丽青瓷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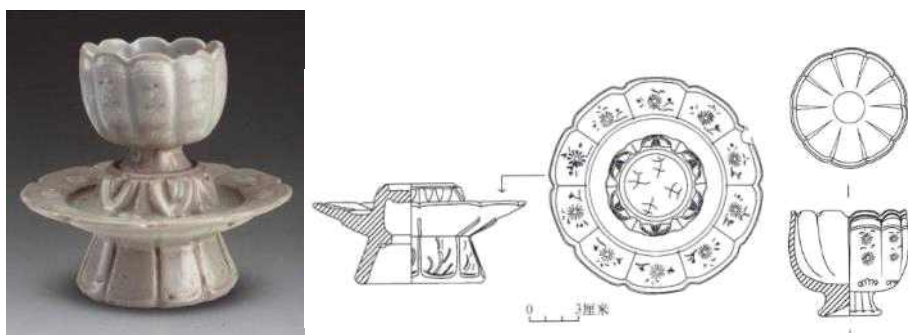


图11 沈阳砂山2号墓高丽青瓷盏托



图12 沈阳望花街钧窑墨书“朴五”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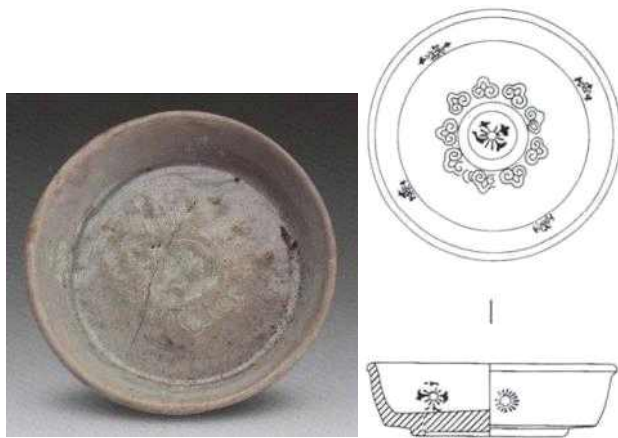


图13 沈阳望花街高丽青瓷碗



图14 建平县高丽青瓷尖底杯



图15 宁昌路遗址高丽青瓷高足杯



图16 集宁路遗址窖藏高丽青瓷砚滴



图17 乌古论窝论墓高丽青瓷执壶



图18 石家庄史氏家族1号墓高丽青瓷梅瓶



图19 登州小海沉船高丽青瓷碗



图20登州小海沉船高丽青瓷碗



图21 扬州三元路工地高丽青瓷碗残片



图22 扬州城郊高丽青瓷残片



图23 南京牛首山高丽青瓷梅瓶



图24 同里镇高丽青瓷梅瓶



图25 太仓出土碗残片



图26 太仓出土壶残片



图27 安徽滁县高丽青瓷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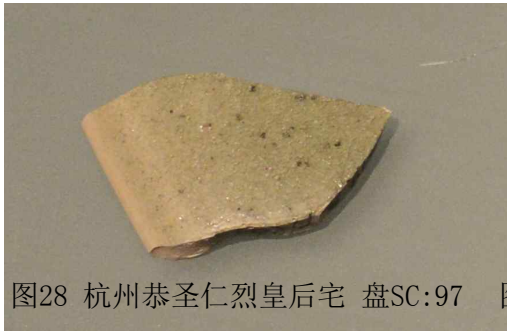


图28 杭州恭圣仁烈皇后宅 盘SC:97



图29 杭州恭圣仁烈皇后宅 盘 SC:98



图30 杭州恭圣仁烈皇后宅 炉 SC:99



图31 杭州恭圣仁烈皇后宅 瓶 SC: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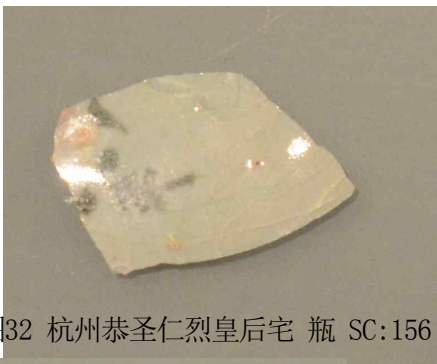


图32 杭州恭圣仁烈皇后宅 瓶 SC:156



图33 杭州恭圣仁烈皇后宅 罐 SC:157



图34
杭州恭圣仁烈皇后宅
不明器形 SC:158



图35
杭州恭圣仁烈皇后宅
不明器物 SC: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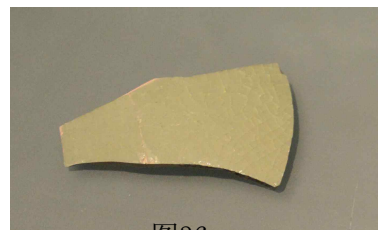


图36
杭州恭圣仁烈皇后宅
不明器形 SC:165



图37 杭州半山宋墓高丽青瓷



图38 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
左图：口沿部刻回纹 右图：回纹瓦当



图39 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菊花纹盖



图40 康津沙堂里23号窑址出土瓷碗 外底支烧痕



图41 康津沙堂里窑址出土螭形香炉盖



图42 康津沙堂里窑址出土镶嵌花卉纹碗



图43 康津沙堂里窑址出土镶嵌荔枝纹碗



图44 高丽明宗智陵出土镶嵌荔枝纹碗



图45 康津沙堂里出土镶嵌如意纹花口碗



图46 康津沙堂里出土镶嵌双菊纹盏



图47 扶安柳川里出土镶嵌双菊纹花口盏



图48 康津沙堂里出土云鹤纹盖



图49 康津沙堂里出土盖内面镶嵌云鹤纹



图50 全州全州初中出土镶嵌云鹤纹梅瓶



图51 密阳莹源寺遗址出土梅瓶



图52 康津沙堂里窑址出土龙纹梅瓶



图53 全罗南道康津郡出土梅瓶

번역문

中國 出土 高麗靑瓷의 地域別 分布와 時代的 特徵

董千里(杭州博物館)

<p>I. 연구사</p> <p>II.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p> <p>III. 결론</p>

<개요>

고려청자는 왕씨가 고려를 통치한 시기, 즉 918년부터 1392년 사이에 한반도에 출현한 회백색 태토에 비색 유약을 입힌 것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태토에 상감기법이 가해진 청유자기도 발명되었다. 고려청자 제작은 중국 당말~오대 월요 자기의 제작 기술과 심미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고려와 중국 간에 이루어졌던 문화와 요업의 교류에 따라, 고려청자에는 중국 남·북방 요장의 자기 제작 기술이 끊임 없이 모방되었다. 고려청자는 고려 왕실과 상류층이 애호했을 뿐 아니라, 육로나 해로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기도 했다. 다년간 이루어진 과학적인 고고학 조사를 통해 중국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심지어 당시 중국 황실도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이 글은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두 방향으로 기초적인 작업을 시도했는데, 첫째는,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유적을 東北, 華北, 華東 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둘째는, 宋·金時代(12세기 중기~13세기 중기), 元代 초중기(13세기 중기~14세기 중기), 元末明初(14세기 만기)로 시기를 분류했다.

상술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이하 네 가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고려청자가 중국에 유입된 원인, 둘째, 고려청자가 중국에 유입된 경로, 셋째, 중국에서 고려청자의 사용 계층, 넷째, 당시 중국인의 고려청자에 대한 평가다.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현황을 정리하여, 향후 고려청자 연구에 자료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고려청자, 자기, 고려

I. 연구사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대상으로 했다. 한반도 청자 요지에서 생산되어 해로나 육로를 통해 중국에 유입되고 사용된 것을 말한다. 현재 발굴된 고려청자의 연대는 송대부터 원대, 명대 초기까지로 12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초반까지를 아우른다. 1950년대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고려청자가 끊임없이 출토되었으며, 일부 완전한 것도 있지만 잔편이 훨씬 많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지층 연대를 알 수 있거나 동반 출토 유물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고려청자는 약 50점에 불과하다. 이 50여 점이 이 글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1970년대부터 중국의 도자사학자 馮先銘과¹⁾ 耿寶昌을²⁾ 시작으로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가 소개되었다.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통계는 한국의 金載悅이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청자」에서³⁾ 출토지에 따라 정리했다. 일본의 小林仁은 「中國出土高麗靑瓷考」에서⁴⁾ 중국 출토품과 박물관 소장품을 정리했다. 출토지는 대략적으로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었는데, 북방은 동북의 內蒙古, 河北, 山東 등이며, 남방은 江蘇, 安輝, 浙江 등이다. 아울러 당시 고려인이 한반도에서 중국에 들어갔던 남과 북 두 가지 경로를 제기하였다.

중국 학자도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계통을 연구하였다. 馬爭鳴은 「杭州出土的高麗靑瓷」에서⁵⁾ 小林仁의 통계에 설명을 덧붙이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였다. 또한, 항주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표본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 彭善國이 2013년 발표한 「中國出土高麗靑瓷述論」을⁶⁾ 들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발견된 24점의 고려청자 표본을 정리한 것으로, 고고학의 유

1) 馮先銘은 「中國出土朝鮮, 伊朗古代陶瓷」에서 중국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된 6곳을 소개했다. 李毅華編, 『馮先銘中國古陶瓷論文集』, 北京:紫禁城出版社·兩木出版社(1987), 329-330·345-346쪽 참고.

2) 耿寶昌, 「閑話朝鮮高麗靑瓷」, 『博物館研究』(1985.2), 91쪽; 劉東瑞等, 『文物鑒賞叢錄 陶瓷1』, 北京:文物出版社(1995), 157-165쪽.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된 5곳을 소개했다.

3) 金載悅,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청자」,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제4호(1999), 15-36쪽.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정리하였으나 표본의 편년은 시도하지 않았다. 자료가 한정적이고 발표된 자료 중 사진 자료는 불완전하며 착오가 있다.

4) 小林仁, 「中國出土高麗靑瓷考」, 『中國古陶瓷研究』 第14輯, 北京:紫禁城出版社(2008), 563-588쪽.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모아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크기와 출토지점, 연대, 문헌 출처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이후 연구자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하였다.

5) 馬爭鳴, 「杭州出土的高麗靑瓷」, 『東方博物』(2008.4), 109-115쪽. 馬爭鳴은 항주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小林仁의 연구 성과 가운데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고려청자와 여요 등 자기의 태도와 유약의 과학 분석도 시도하였다. 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려청자와 기타 청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논하고 있다.

6) 彭善國, 「中國出土高麗靑瓷論述」, 『邊疆考古研究』 第14輯(2014), 181-191쪽.

형학에 근거해 기형과 장식을 3종류로 분류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분포 특징을 논했다.

이외에 한국의 方炳善은「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에서⁷⁾ 중국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였는데, 출토된 고려청자를 華北과 華南 두 지역으로 분류하고 臺灣에서 발견된 고려청자도 참고로 추가하였다.⁸⁾

이상 연구사 정리를 통해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실물 표본 수량이 한정적이지만 연구 성과가 일정 부분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고려청자를 통계하여 중국 출토 고려청자의 지역과 시대에 대해 다시 주목한 것으로, 고려청자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이 글에서는 정식으로 출토된 고려청자만을 통계했다. 이미 발표된 고고학 발굴 조사 보고서와 약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에 집중된 정도에 따라 분포 지역을 東北地域과 華北地域, 華東地域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1. 東北地域

동북지역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육로를 통해 한반도와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는 당시 고려와 중국 동북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1) 黑龍江

흑룡강성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표본은 중국 최북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고려청자의 중국 분포 범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

1989년 5월 黑龍江省 哈爾濱市 市郊香坊區 幸福鄉 水田村의 화력발전소 배관 공사 중 자기 窖藏이 발견되었다.⁹⁾ 이 窖藏에서 자기 88점이 출토되었으며, 고려

7) 方炳善, 「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 『講座美術史』 第40號(2013), 13-38쪽. 臺灣 동부섬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자료를 추가하였다.

8) 徐韶諤, 「蘭嶼椰油村Rusasol遺址調查報告」, 『南島研究學報』 第二卷 第一期, 臺灣縣:臺灣史前文化博物館(2008), 55-84쪽. 70쪽 중 “도자편은 중국 도자편 이외에 고려청자도 발견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고려청자 7점이 확인되었으며, 1점은 고려청자로 추정된다. 7점 가운데 碗 2점과 罐 1점, 盤 3점이 확인되며, 연대는 거론되지 않았다. 같은 쪽 도판 2는 고려청자 사진 자료인데, 대부분 청자 저부 잔편이며 태토가 비교적 두텁고 유면은 짙은 녹색이다. 내저에 받침 흔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월요와 유사하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완 내저에 원각 흔적이 있는데, 강진에서 생산된 12세기 중기의 비색청자로 보인다. 그리고 얇이 흑상감된 것은 12세기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

청자완 1점이 포함되어 있다(考古編號 J:23).

완의 높이는 6.8cm, 구경은 19.2cm, 저경은 6.6cm이다(도 1). 구연이 벌어지고, 동체가 둥글게 퍼졌으며, 굽은 비교적 낮다. 외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절지화 4송이가 흑백상감되었다. 내벽에도 같은 간격으로 절지화 4송이가 흑백상감되었으며, 내저에 이중 원권 안에 국화 1송이가 흑백상감되었다. 굽 안쪽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2) 吉林

길림성에서는 2곳에서 발견되었다. 한 곳은 德惠市 攬頭窩堡遺址의 제4구역 제4담방 2층으로 청자무문완 1점이 출토되었다(잔편, 복원됨).¹⁰⁾ 다른 한 곳은 前郭塔虎城으로 청자상감국화문잔(잔편, 복원됨)이 출토되었다.¹¹⁾

청자무문완(도 2)은 구연이 외반되고 동체가 얇으며 벌어졌다. 저부가 꺾였으며 굽이 있고 저부에는 받침 흔적이 있다. 외벽은 무문이며 청유를 시유하였다. 내벽에 화문이 양각되었다.¹²⁾

청자상감국화문잔(도 3)은 1/4 정도만 남았다. 구연이 내만한 형태로 동체가 깊고 둥글다. 저부 쪽은 오목하며 굽이 있다. 전면을 시유했으며 받침 구웠다. 내벽에 청유가 시유되었는데 무문으로 상감 장식이 없다. 외벽에는 절지국화가 흑백상감되었으며,¹³⁾ 구연에는 회문 한 줄이 백상감되었다.

(3) 遼寧

1964년 遼陽市(당시 遼陽縣)의 蘭家鄉石灰窯村에서 청자상감베개 1점이 출토되었다. 청자상감베개(도 4)는 길이 17.4cm, 너비 11.4cm, 높이 10cm로, 장방형의 束腰한 형태다. 노태된 부분은 회색을 띠며, 기면은 청색 유약으로 시유되었다. 베개 한 곳에 4개의 받침 흔적이 있다. 상하 2면에 7엽의 절지국화가 상감되었다. 앞뒤 2면에는 절지당초문이 역상감되었다. 좌우 2면의 투공 주변에는 백상감된 이중 원권이 돌렸다. 4모서리에는 국화문이 흑백상감되었다.¹⁴⁾

1971년 遼陽 北園 5호 묘지에서 청자상감합 1점이 출토되었다. 1972년 같은 곳

9) 田華·胡秀傑等, 「黑龍江哈爾濱市郊發現元代瓷器窖藏」, 『考古』(1999.5), 93-96쪽.

10) 宋玉彬, 「攬頭窩堡遺址」, 『田野考古集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成立二十五周年紀念』, 北京文物出版社(2008), 86-89쪽; 趙德讓, 『長春市誌 文物誌』, 長春:吉林人民出版社(1995), 41쪽.

11) 吉林省地方誌編纂委員會, 『吉林省誌 卷四十三 文物誌』, 長春:吉林人民出版社(1991), 254쪽.

12) 彭善國, 「中國出土高麗青瓷論述」, 『邊疆考古研究』第14輯(2014), 181쪽 도2·182쪽.

13) 彭善國, 위의 글, 183쪽 도 6.

14) 邢愛文,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沈陽:遼寧大學出版社(2009), 55쪽.

北園 6호 묘에서도 청자상감완이 1점 출토되었다.

청자합(도 5)은 총 높이 3.5cm, 구경 8.3cm, 저경 5cm다. 자합과 모합의 구연이 맞물리며, 전체적인 형태는 편평한 원형이다.¹⁵⁾ 내저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뚜껑 표면에는 국화문이 상감되었으며, 중심의 이중 원권 내에 국화가 삼각 형태로 장식되었다. 이 가운데 원권 밖에는 14송이의 작은 국화가 있으며, 주변 가장자리는 백색의 연주문이 있다. 합신 구연에 백색 번개문이 한 줄 돌려져 있다.¹⁶⁾

청자소완(도 6)은 높이 5.5cm, 구경 8.6cm, 저경 4cm다. 구연에 노태된 곳은 회색을 띤다. 유색은 누런빛의 청색이며 유면 전체에 빙렬이 나있다. 구연이 내만하며 외벽 구연에 백색 번개문이 한 줄 돌려져 있다. 동체에 국화문 3개가 흑백 상감되었으며, 내벽에는 문양이 없다. 저부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¹⁷⁾

1976년 遼陽 龐夾河 1호묘에서 청자상감완 1점이 출토되었다.¹⁸⁾ 청자완(도 7)은¹⁹⁾ 높이 9cm, 구경 19cm, 저경 6.9cm다. 구연은 직립하다 약간 내만한 형태이며 측면은 사선으로 살짝 둥글게 올라간다. 내저에 원권문이 음각되었으며, 저부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외벽 구연 아래에 당초문이 백상감되었다. 내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여지문 4개가 백상감되었으며, 내저 중심에는 국화문이 백상감되었다. 외벽 동체에 당초문이 백상감되었는데, 그 안에 다시 같은 간격으로 4곳에 이중 원권 내 절지국화문이 흑백상감되었으며, 저부 쪽에도 같은 간격으로 절지국화문이 흑백상감되었다.²⁰⁾

沈陽市 小南邊門에서 元代 墓葬 2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가운데 2호 묘에서 청자상감단국문팔각형완(M2:2)과 청자상감여지문완 2점이 출토되었다(M2:3, M2:4).

청자상감국화문팔각형완(M2:2)은 높이 4.3cm, 구경 11.2cm, 저경 7.4cm, 두께 0.5cm(도 8)다. 태토는 담회색이며 청색유가 시유되었다. 구연이 벌어졌으며 측면은 사선으로 뻗었다. 동체는 팔각형으로 저부에서 꺾인 형태다. 굽이 있으며 외면 저부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외벽 모든 면에 상감으로 이중 윤곽선이 둘러졌으며 그 안에는 2개의 국화문이 흑백상감되었다. 내저에는 여지문이 새겨졌다.²¹⁾

청자상감여지문완(M2:3)은²²⁾ 높이 6.8cm, 구경 19.6cm, 저경 7cm이며, 구연이 내만하며 동체는 둥근 사선을 그린다. 굽이 낮은 편으로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태

15) 丁麗, 「遼陽出土的高麗靑瓷」, 『遼海文物學刊』 50, (1994.2), 102-103쪽; 楊瑤, 「遼陽博物館藏古朝鮮瓷器鑒賞」, 『東方收藏』(2014.4), 64-67쪽.

16) 邢愛文, 위의 글, 57쪽.

17) 주석 15와 같음; 邢愛文, 『遼陽博物館館藏精品圖集』, 沈陽:遼寧大學出版社(2009), 56쪽.

18) 주석 15와 같음.

19) 주석 15와 같음.

20) 주석 15와 같음; 邢愛文, 위의 글(2009), 54쪽.

21) 趙曉剛, 「沈陽城區的元代墓葬」, 『邊疆考古研究』第13輯(2013), 77, 78쪽, 345쪽 도 2.

22) 趙曉剛, 위의 글, M2:3완은 345쪽 도판 3.

토는 회색이며 청색유가 시유되었다(도 9).²³⁾ 내벽 구연 아래 1cm 지점에 당초문이 백상감되었다. 내벽에 같은 간격으로 4곳에 여지문, 내저에 여의두문, 중심에 1개의 국화문이 백상감되었다. 외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4곳에 이중 원권 안에 절지국화문이 흑백상감 되었으며, 저부 쪽에는 절지국화문이 4개 흑백상감되었다.²⁴⁾

청자상감여지문완(M2:4)(도 10)을 살펴보겠다. 높이 9.2cm, 구경 19.8~20.4cm, 저경 6.5cm다. 구연이 벌어졌으며 동체는 사선으로 둥글게 뻗었다. 동체가 비교적 깊으며 저부 쪽은 오므라들었다. 굽이 높으며 외면 저부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태토는 옅은 회색이며 유면은 어두운 청색을 띤다. 내벽 아래 1cm 지점에 백색의 현문이 3줄 상감되었으며 그 사이에 당초문이 상감되었고, 내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여지문 5개가 백상감되었다. 내저 중심에 국화문 3개가 백상감되었는데, 삼각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 주변은 여의두문이 상감되었다. 외벽에 현문 3줄이, 그 사이에는 당초문이 상감되었으며, 동체에 같은 간격으로 여지문 5개가 있다. 저부 쪽에는 국화문이 5개 흑백상감되었다.²⁵⁾

1981년 沈陽市 和平區 砂山街 2호묘(81M2)에서 청자상감주잔과 잔탁이 조합을 이루어 출토되었다.²⁶⁾ 청자상감국화문화형잔과 잔탁(81M2:1)을 살펴보겠다. 잔은 10판의 화형 구연이며, 동체가 깊고 수직으로 뻗었다. 굽은 높으며 밖으로 뻗었고 저부는 위를 향한다. 높이 6.2cm, 구경 6.8cm(도 11)이며, 굽의 지름은 3.8cm다. 태토는 회백색을 띠며 유면은 담청색이다. 잔 내벽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저에는 원권문이 음각되었다. 외벽 구연에 현문이 상감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당초문이 백상감되었다. 동체부의 매 화판마다 위 아래 2개의 국화문이 백상감되었고, 동체 아랫부분에는 여의문문이 백상감되었다. 저부에는 문양이 없다. 잔탁의 높이는 6cm, 구경은 4.1cm이며, 반의 지름은 13.1cm, 저경은 8cm다. 탁대는 6판으로 구성된 복련형이며 탁대의 중앙에는 같은 간격으로 4곳에 ‘土’자가 음각되었다. 탁반은 10판의 화형인데, 탁반의 매 화판에 국화문이 흑백상감되었다.²⁷⁾

1981년 沈陽市 大東區 望花街 汽車駕駛室廠院 2호 묘에서 고려청자 접시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묘의 서측 5m 지점에 1호 묘가 있는데, 양자는 부부묘로 보인다. 1호 묘에서 출토된 균요 자기완의 외벽 저부에 “朴五(玉)”, “朴口”(도 12)라는 목서가 있어, 이는 고려인의 墓誌으로 추정된다.²⁸⁾

청자접시는 높이 3.5cm, 구경 12cm, 저경 7.6cm이며, 구연이 벌어졌고 측선이 사선으로 직립하였다. 저부는 약간 내만하며 굽이 있고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도

23)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2 天津遼寧吉林黑龍江』, 北京:科學出版社(2008), 145쪽.

24) 趙曉剛, 앞의 글(2013), 77·78쪽.

25) 주석 24와 같음.

26) 趙曉剛, 앞의 글(2013), 53-88, 344-345쪽.

27) 趙曉剛, 앞의 글(2013), 71쪽, 345쪽 도판 1.

28) 趙曉剛, 앞의 글(2013), 87쪽.

13). 태토색은 회색이며 청색 유면에는 회색빛이 띤다. 내벽 4곳에 같은 간격으로 절지화가 백상감되었으며, 내저에는 이중 원권 내에 절지국화가 백상감되었다. 이중 원권 주변에는 9개의 여의두문이 상감되었다. 외벽에는 4개의 국화문이 상감되었다.²⁹⁾

朝陽市 建平縣 小塘鄉蘇子溝村에서 청자침저배 1점이 출토되었는데³⁰⁾ 현재 중국내에서 출토된 유일한 고려청자 침저배다. 배는 높이 8.2cm, 구경 6.6cm, 최대 동체경 7.5cm이며, 동체가 깊고 내만하며 저부는 뾰족하다(도 14). 외벽 구연에 3줄의 현문이 백상감되었으며 그 사이에 당초문이 상감되었다. 동체부에는 같은 간격으로 4개의 절지국화가 이중 원권 안에 백상감되었다. 그 아래에는 현문 2줄이 장식되었으며 현문 아래부터 저부까지 8개의 방사형 선이 백상감되었다.³¹⁾

(4) 內蒙古 敖漢

내몽고 2곳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다. 첫째, 內蒙古 敖漢旗瑪尼罕鄉五十家子 寧昌路古城遺址이며, 둘째, 內蒙古 烏蘭察布盟右前旗巴音塔拉鄉土城村 集寧路古城遺址이다. 전자는 遼寧省 朝陽市 부근으로 동북지역에 속하며, 후자는 화북지역에 속한다.

청자상감국화문고족완(도 15)를 살펴보겠다. 높이 8.6cm, 구경 11.2cm, 저경 5.2cm이며, 고족배 상부는 완형이다. 구연은 벌어졌으며 태토는 옅은 회백색을 띠고 청색 유약이 입혀졌다. 동체가 깊고 둥글며 고족은 바깥으로 뻗었다. 완 외벽 구연에 당초문이 상감되었으며 외벽 동체에 같은 간격으로 4곳에 절지국화문이 이중 원권에 둘러 채 흑백상감되었다. 완 저부에는 연판문이 흑상감되었다. 내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4마리의 학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우점문이 백상감되었다. 내저에는 국화문이 하나 시문되었으며 그 주변에는 11개의 여의두문이 상감되었다. 저부 외벽에는 같은 간격으로 4개의 국화문이 백상감되었으며, 이는 선으로 간격을 두었다.³²⁾

2. 華北地域

(1) 內蒙古 烏蘭察布

集寧路古城에서 청자거북형연적이 출토되었다.³³⁾ 2003년 集寧路 제22호 건물지

29) 趙曉剛, 앞의 글(2013), 61, 62쪽, 344쪽 도판 4.

30) 彭善國, 앞의 글(2014), 182쪽, 183쪽 도판 10.

31) 朝陽市文化局, 『朝陽館藏文物精華』, 長春:吉林文史出版社(2009), 224쪽.

32) 內蒙古敖漢旗博物館, 『敖漢文物精華』, 呼和浩特:內蒙古文化出版社(2004), 193쪽.

33) 陳永誌, 『內蒙古集寧路古城遺址出土瓷器』, 北京:文物出版社(2004); 陳永誌, 「集寧路古城發掘集市窖藏幾千件瓷器囊括元代九大名窯」, 『文物天地』(2003.11), 16-25쪽; 陳永誌,

와 제26호 窰藏에서 출토된 것이다. 窰藏은 集寧路古城 중심의 시장과 주거지역 안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鈞窯藍釉碗과 龍泉窯四方形貫耳鉢도 출토되었다. 자기는 모두 龍泉窯荷葉文蓋罐 안에 있었다. 거북형연적은 총 높이 7.2cm, 길이 10.6cm, 너비 8.2cm(도 16)이며, 머리는 용이고 몸은 거북 형태이다. 용형 머리의 입부분은 연적의 출수구다. 등에는 매 귀갑 안에 ‘王’자가 음각되었으며 등 중앙에는 연잎이 하나있다. 저부에 받침 흔적이 있으며 청유를 시유하였다.³⁴⁾

(2) 北京

모두 2곳에서 발견되었다. 元大都居住遺址에서 청자상감완, 豐臺區 烏古論窩論墓에서 청자 葫芦形執壺가 출토되었다. 元大都居住遺址에서 1960년대 후반 청자상감완편 2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서나 도록 등에 모습이 실리지 않았으며³⁵⁾ 단지 문자로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 중 1점은 운학문 도안이 상감된 완이라고 묘사되었다.³⁶⁾

청자집호는 豐臺區 王佐鄉에서 金代 大定 24년(1184)에 매장된 烏古論窩論墓에서 출토되었다(도 17). 총 높이 28.3cm, 구경 3.1cm, 저경 9.8cm, 최대 동체경 17cm이며 葫芦形이다. 뚜껑이 있고 뚜껑 상부에는 원형의 손잡이가 있다. 손잡이와 주구는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휘어진 형태다. 저부는 편평하며 시유되지 않았고 3곳에 받침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담청색을 띠며 무문이다.³⁷⁾

(3) 河北

河北省 史氏家族墓 1호 묘에서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 1점 출토되었다.³⁸⁾ 이 때

「發掘集寧路元代城址及第三批窰藏」, 『文物天地』(2004.3), 22-33쪽; 張郁, 「元代集寧路遺址清理記」, 『文物』(1961.9), 52-58쪽; 王霞, 「元代集寧路古城遺址出土瓷器解讀」, 『北方文物』(2008.3), 54-56쪽.

34) 陸明華, 「對元集寧路窰藏出土瓷器的初步認識」, 『中國古陶瓷研究』第十一輯, 北京:紫禁城出版社(2005), 53-70쪽; 劉毅, 「元集寧路窰藏出土的鬲形硯滴與高麗青瓷斷代」, 『中國古陶瓷研究』第十一輯, 北京:紫禁城出版社(2005), 81-93쪽; 陳永誌, 앞의 책(2004), 88, 89쪽 도58; 蘇東, 「元代高麗青瓷龜形硯滴」, 『收藏』146(2005.2), 65쪽;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4 內蒙古』, 北京:科學出版社(2008), 144쪽.

35) 북경 元大都遺蹟과 주거유적 보고서에는 고려청자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자주요와 용천요 청자, 균요남유, 백자, 경덕진 청백자 등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元大都遺蹟의 발굴보고서는 흑백의 도판 자료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북경 元大都遺蹟에서 출토된 자기는 西絳胡同庫房遺址와 舊鼓樓大街豁口東瓷器窰藏 외에 後英房胡同居住遺址에서도 발견되었다. 徐蘋芳, 「元代的城址和窰藏」, 『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 北京:文物出版社(1984), 609-611쪽;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元大都的勘查和發掘」, 『考古』(1972.1), 12-19쪽 참고.

36) 小林仁, 앞의 글(2008), 580쪽 10번.

37)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 『北京文物』, 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0), 75쪽 도 113;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1 北京』, 北京:科學出版社(2008), 67쪽.

병은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중 크기가 가장 큰 사례다.³⁹⁾ 청자상감운학 문매병의 총 높이는 46cm, 구경 6.7cm, 동체 최대경 23cm, 최소경 13cm, 저경 17.2cm다(도 18). 발굴조사 당시 이미 손상되었으며 이후 복원되었다. 구연이 직립하며 목이 짧고 어깨는 둥글게 퍼졌다. 동체는 비교적 길고 저부에 모래가 붙어있다. 견부 최상층에 현문이 2줄 백상감되었으며 그 아래 이종의 뒤집힌 연판문이 1줄 상감되었다. 동체에는 위를 향하는 절지화문이 38개 상감되었는데 5개 층으로 나뉘었다. 상부 3층에는 매 층에 절지화 8송이가, 하부 2층에는 매 층에 절지화 7송이가 장식되었다. 절지화는 모두 백색의 이중 원권 안에 장식되었다. 절지화 바깥쪽에는 운학문 도안이 상감되었는데 운두는 대부분 ‘之’자 형태를 띤다. 동체 하부에는 이종의 앙련문이 1줄 상감되었으며 앞 안에 4개의 백색 원권이 장식되었다. 저부쪽에는 백색 회문이 1줄 돌렸다.⁴⁰⁾

(4) 山東

2005년 山東省 蓬萊市 북부의 오래된 항구인 登州의 水城小海沈船遺址 3호 침몰선에서 청자완 2점이 출토되었다.⁴¹⁾

청자상감수파연주문완(采:14)은 3호선 제4선창에서 출토되었다. 총 높이 8.7cm, 구경 18.5cm, 저경 5.6cm다(도 19). 노태된 곳은 짙은 회색을 띠며 불순물이 있다. 유색은 짙은 청색을 띠며 유면에는 빙렬문이 밀집되었다. 구연은 벌어져 바깥쪽으로 뻗었다. 동체는 길고 둥글며 굽이 높다. 외면 저부에 백색의 모래가 붙어있으며 완 내저 3곳에는 받침 흔적이 있다. 외벽 구연 아래 동체쪽에 현문이 5줄 백상감되었고, 내벽 구연 아래에는 현문이 3줄 상감되었다. 내벽에는 물결 형태로 수파문과 현문, 연주문이 상감되었다.⁴²⁾

청자상감국화연주문완(표본20:20)은 3호선 제6선창 북측의 선창 칸막이 벽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총 높이 3.7cm, 구경 10.3cm, 저경 4.5cm다(도 20). 구연이 직립하는데 살짝 바깥쪽으로 뻗었으며, 동체 상부는 비교적 직립하였다. 동체 바깥과

38)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石家莊後太保村史氏家族墓發掘報告」, 『河北省考古文集』, 北京:東方出版社(1998), 344-369쪽; 王會民·張春長, 「石家莊市後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文物』(1996.9), 49-59쪽.

39) 王會民·張春長, 위의 글(1996.9), 49-59쪽.

40)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石家莊後太保村史氏家族墓發掘報告」, 『河北省考古文集』, 北京:東方出版社(1998), 359쪽 채색도판 5; 河北博物院, 『河北省文物研究所·河北省文物保護中心·『名窯名瓷』, 北京:文物出版社(2014), 258쪽 도판 119;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3 河北卷』, 北京:科學出版社(2008), 202쪽.

41) 佟佩華·王錫平·滕建英·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煙臺市博物館·蓬萊市文物局, 『蓬萊古船』, 北京:文物出版社(2006), 53-54·63-64쪽. 이 중 53-34쪽 3호선 6호 갑판에서 표본20:20 <蓮瓣紋小碗>, 63-64쪽 3호선 서측 采:14 <水波連珠紋大碗>을 말함.

42) 주석 41과 같음.

안쪽에 도드라진 부분이 있으며 굽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면 저부에 검은 모래가 붙어있다. 외벽 구연 아래 현문 4줄이 백상감되었다. 내벽 구연 아래에 백색 초화문 2개가 있는데, 완전하다면 같은 간격으로 초문 3개가 상감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저 중심에 12판의 국화문이 상감되었고, 그 주변에는 이중 원권문이 둘러졌다. 이중 원권문 밖에는 18판의 연판문이 둘러졌는데 연판문 안에는 세로로 속이 짝 찬 원이 2개 장식되었다. 연판문 바깥에는 이중 원권이 둘러져있다.⁴³⁾

3. 華東地域

주로 江蘇와 浙江 두 지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安徽 1곳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일부 학자는 이를 남방지역이라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절강, 강소, 안휘 이외에 다른 성에서는 고려청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분포 범위는 상술한 몇 곳일 뿐이라, 본문에서는 華東地域으로 구분하겠다.

(1) 江蘇

江蘇省 揚州市의 경우 城 안에서 고려청자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1983년 二元路 공사 현장에서 흑백상감이 장식된 청자편 10여점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는 완편 2점과 교외지역에서 1980년대 이래 출토된 청자완과 고족배 파편 모두 3점이 있다.⁴⁴⁾

청자상감완편은 현재 2점 잔존한다(도 21). 작은 편은 구연 부분이며 외벽 구연 아래 현문 3줄이 백상감되었고 그 사이에는 당초문이 백상감되었다. 큰 자편은 동체가 둥근 형태의 완으로, 외벽 중앙에 백색 쌍권문에 둘러진 절지국화문이 흑백상감되었다. 이외에는 백색 당초문이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백색으로 이중 양련문이 백상감되었다. 매 연화 안에는 3개의 하얀 점이 장식되었는데 삼각 형태로 배치되었다.⁴⁵⁾

그리고 양주성 교외에서 고려청자 파편 3점이 출토되었다. 청자상감완 2점과 청자고족배 1점이다.⁴⁶⁾ 청자 완은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 씩 있다. 큰 것은 구연부터 저부까지 남아있다(도 22). 노태된 곳은 회백색을 띠며 유층은 두꺼워 상감문양이 분명하지 않다. 구연이 내만하며 동체는 둥글고 굽이 있다. 굽 접지면의 유층은 비교적 얇아 회색 태토가 노출되었으며 받침 흔적이 있다. 외벽 구연 아래에 현문이 3줄 백상감되었으며 동체부에는 이중 원권 안에 절지국화가 흑백상감되었다.

43) 주석 41과 같음.

44) 揚州博物館·揚州文物商店, 『揚州古陶瓷』, 北京:文物出版社(1996), 19, 21쪽 도5.

45) 馮先銘, 앞의 글(1987), 345쪽 도판拾壹3.

46) 馮先銘, 앞의 글(1987), 330쪽. “현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백색의 양련문이 있으며, 그 안에 흰색의 점이 장식되었다. 청자고족 배는 굽이 높은 잔편이다. 노태된 곳은 회백색을 띠며 담록색의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굽은 바깥으로 뺐었으며 굽 접지부에 모래가 붙어있다. 굽에 현문으로 4개의 공간이 분리되었는데 각 공간에 절지국화가 한 송이씩 흑백상감되었다. 저부쪽에는 번개문이 1줄 백상감되었다.

1951년 南京 南郊牛首山에서 청자상감유노연화문매병이 출토되었다(도 23). 높이 30.5cm, 구경 5cm, 저경 11cm, 동체 최대경 18cm다. 구연이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졌으며 목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갔고, 어깨는 둥글게 내려오며, 동체 상부는 구형과 같다. 동체 아랫부분은 점차 내만한다. 저부 아래쪽은 바깥으로 뺐었으며, 평편한 저부 안쪽에 굽이 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회색 태토에 유면은 담청색이다. 견부에는 이중 복련문 1줄이 흑백상감되었다. 연판문 위와 아래에 백색 현문이 상감되었으며 동체부에는 연화와 버드나무가 상감되었다.

同里鎮에서 청자상감매병이 1점 출토되었다. 높이 28.5cm, 구경 3.5cm, 저경 11.8cm(도 24)다. 입구는 작으며 구연이 말렸다. 목 부분은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깨는 둥글게 내려오고 동체 상부는 구형이다. 동체 하부는 내만하며 저부쪽은 바깥으로 뺐었다. 저부 안쪽에는 굽이 오목하게 들어가 보인다. 유색은 담청색을 띤다. 견부에는 장방형의 연판문이 상감되었고 그 안에는 백색의 원권문이 세로로 배열되었다. 그 아래에는 현문과 연주문대가 장식되었다. 동체의 상감 사이에는 대나무와 버드나무가 배열되어 있으며 버드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꽃잎이 3장인 꽃이 상감되었다. 저부에는 현문 2줄이 백상감되었고 저부에는 흰색의 2층 연판문이 장식되었다.⁴⁷⁾

江蘇省 太倉樊河涇遺址에서 고려청자 상감편이 2점 발견되었다. 樊河涇 유적에서는 자기 표본이 대량 발견되었는데, 당시 수출용 자기를 보관했던 지점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곳은 해안 항구 근처이므로(劉家港) 이 자기들은 해외로 운송하려는 무역 자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완 파편(TW05S09東隔梁)은 길이 14.3cm, 저경 6.1cm(도 25)다. 평저이며 동체가

47) 이 <고려청자매병>의 연원에 대한 또 하나의 설은 다음과 같다. “1945년 항일전쟁 이후, 국민정부가 南京으로 환도했을 때 중앙박물관이 汪精衛 정권시기에 上海 和平博物館의 소장품을 받았다(1946년). 그 중에 고려청자병 2점이 있었다”. 한 점은 <청자상감화유염문매병>인데 크기가 이 글에서 언급한 牛首山 매병과 일치한다. 또 다른 한 점은 <청자상감화뢰문호추병>이다. 程曉中·周文儀, 「兩件高麗靑瓷」, 『文物天地』(1989.3), 27쪽(附圖)을 참고할 수 있다. 和平博物館은 항일전쟁 승리 이후에 湯恩伯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주로 재일교포가 상납한 유물이다. 史勇, 『中國近代文物事業簡史』, 蘭州:甘肅人民出版社(2009), 204쪽; 梁吉生, 「中國近代博物館事業紀年」, 『中國博物館』(1991.2), 68-76쪽 참고. 근래 연구자들은 이 매병이 1951년 南京 南郊 牛首山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았다. 1951년 남경지역의 발굴보고서를 살펴보면, 牛首山 일대 南君二陵을 발굴했는데, 이 매병의 구체적인 고고학적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꺾인 형태다. 내저 중심에 백색의 이중 원권이 상감되었으며, 내벽에 쌍봉문과 권운문이 상감되었다. 호 구연 파편(TW11S13K51)은 길이 6.6cm(도 26). 어깨가 풍만하며 동체는 내만했다. 견부에는 2줄의 백색 현문과 연주문이 상감되었고, 동체에는 이중 원권에 둘러 절지화문이 백상감되었다.

(2) 安徽

청자상감용문관(일련번호2:933)(도 27)을 살펴보겠다. 1950년대 滁縣의 墓葬에서 출토되었다. 높이 23cm, 구경 9.5cm, 동체 최대경 27.3cm, 저경 9.3cm다. 구연이 직립했으며, 목이 짧고 어깨는 둥글게 내려오고, 동체 상부는 구형을 띤다. 동체 아래는 빠르게 내만한다. 굽이 있으며, 굽 접지면에 노태된 곳은 회백색을 띤다. 유색은 누런 청색을 띤다. 빙열이 약간 있다. 견부에 蓮花荷葉文 한 줄이 상감되었다. 동체부에는 용문이 2줄 상감되었다. 저부 근처에는 삼중 양련문이 상감되었다.⁴⁸⁾

(3) 浙江

절강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다. 杭州 恭聖仁烈皇后宅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파편은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발견된 것이다. 2001년 恭聖仁烈皇后宅遺址의 못 아래에서 고려청자 파편 14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9점이 공개되었다.

표본 SC:97(도 28)은 盤의 구연편이다. 길이 3.6cm, 너비 2.6cm이며, 구연이 벌어지며 둥글게 말렸다. 동체에는 얇은 굴곡이 있다.

표본 SC:98(도 29)은 盤의 구연편이다. 잔존 높이 0.5cm이며, 구연이 벌어지며 둥글게 말렸으며 동체가 꺾인 형태다. 태토는 회색이며 청록색 유약이 입혀졌다.

표본 SC:100(도 30)은 향로의 구연편이다. 너비 2.8cm, 높이 2.7cm이다. 구연이 직립하며 그 끝은 둥근 형태이고, 동체는 직립하였다. 외벽 구연 아래 돌기된 현문 1줄이 있다.

표본 SC:156(도32)은 병 파편이다. 길이 4.2cm, 높이0.8cm이다. 태토는 회색을 띠며 유면은 비취색이다. 외벽에 국화문 1개가 흑백상감되었다.

표본 SC:157(도 33)은 罐의 구연 파편이다. 너비 3.6cm, 잔존 높이 2.4cm이다. 구연이 내만하며 둥글다. 태토는 담회색을 띠며 담청색 유약이 입혀졌다. 상단에는 화문이 음각되었는데 연판문으로 보인다.

표본 SC:158(도34)은 기형을 알 수 없는 구연 파편이다. 길이 4.2cm, 잔존 높이

48) 馮先銘, 앞의 글(1987), 330, 344쪽 도판 12; 馬起來, 「高麗青瓷龍紋罐」, 『收藏界』(2006.11), 74쪽; 張柏, 『中國出土瓷器全集8 安徽』, 北京:科學出版社(2008), 181쪽 도판 181.

1.9cm이다. 연속되는 회문이 1줄 음각되었다.

표본 SC:160(도35)은 기형을 알 수 없는 구연편이다. 길이 2.9cm, 너비 2.6cm이다. 구연이 바깥을 향해 벌어졌다. 담회색 태토에 비취색 유면을 띠는데 빙열이 나 있다. 구연 아래에 당초문이 백상감되었다.

표본 SC:165(도36)은 장방형의 잔편이다. 길이 7.1cm, 너비 4.2cm이다. 유면은 청록색을 띠며 장식이 없다.

恭聖仁烈皇后 楊氏는 紹定 5년(1232) 12월 붕어했다.⁴⁹⁾ 제4층 못 퇴적층에서 동전이 출토되었는데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이 ‘紹定元寶’(1228-1233)로, 상술한 자료는 고려청자의 제작시기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1967년 杭州 半山鋼鐵廠 발굴로 부부 합장묘가 발견되었는데 ‘紹興 19年(1149), 建寧軍節度使之印, 文思院鑄’가 새겨진 銅印이 발견되었으며, 청자화형완 2점이 함께 출토되었다.⁵⁰⁾ 청자완(도 37)은 구경 19.5cm, 높이 6cm이며, 구연이 살짝 내만했다. 구연은 6잎의 규화형상을 하였으며, 동체 벽은 사선으로 직립하였다. 내벽에는 절지모란문을 음각하였으며, 내저에는 원권을 양각하였다. 내외면에 청색유를 시유했으며, 외면 저부 3곳에 지정 받침 흔적이 있다.⁵¹⁾ 출토된 ‘紹興十九年建寧節度使’ 銅印에 근거하면, 이 묘의 주인은 宋 高宗 생모인 偉皇后의 조카이며, 建寧軍節度使 韋謙과 그 부인이다.⁵²⁾ 『建炎以來系年要錄』가운데 “紹興二十有六年(1156)…太尉建寧軍節度使提舉萬壽觀韋謙薨” 기록에 근거해, 이 고려청자완의 연대는 12세기 중기 이전으로 보인다.

항주에서 출토된 고려청자편의 수량이 많지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굴조사되었기에 출토 지점과 동반 유물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계하지 않았다. 寧波月湖景區 明州의 高麗使館에서 고려청자편이 출토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사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⁵³⁾ 寧波市에서는 대량의 고려청자가 출토되었으나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굴조사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통계하지 않았다.

4. 중국 출토 고려청자의 연대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연대를 3시기로 구분했다. 첫째, 宋·金

49) 『宋史』卷一百二十三禮誌第七十六禮二十六, “寧宗恭聖仁烈皇后楊氏紹定五年十二月崩, 附葬茂陵”; 『宋史』卷二百四十三列傳第二後妃下恭聖仁烈皇太後條.

50) 馮先銘, 앞의 글(1987), 330쪽.

51) 沈瓊華, 「高麗靑瓷探源」,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第五輯 2002越窯國際學術討論會專輯』, 杭州:杭州出版社(2002), 241-247쪽.

52) 馬爭鳴, 앞의 글(2008.4), 109쪽.

53) 林士民·褚曉波, 「浙江寧波月湖歷史文化景區考古發掘簡報」, 『浙東文化』(1999.1), 131-133쪽.

時期(12세기부터 13세기 중기까지), 둘째, 元代 초·중기(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 후기까지), 셋째, 元代 말기부터 明代 초기까지(14세기 만기)다.⁵⁴⁾

(1) 宋·金時期(12세기 중기부터 13세기 중기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가운데 12세기 중기부터 13세기 중기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비취색의 청자로 대부분 무문이거나 음각되었다.

寧波 月湖景區 明州의 高麗使館에서 출토된 월요청자는 모두 북송시기 생산품인데, 유적에서 政和通寶(약 1111년)이 동반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시기는 남송 보다 늦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12세기 중기 전후로 보인다.

杭州 恭聖仁烈皇后宅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파편은 못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남송 때 건립된 園林으로 못에서는 남송 관요와 定窯 자기가 동반 출토되었다. 고려청자 파편은 비색 청자 위주로 그 가운데 번개문이 음각된 파편(SC:158)은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출토된 파편(도 38)과 유사하다. 따라서 12세기 생산품으로 보인다. 청자상감 파편(SC:100)은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출토된 국화문 파편(도 39)과 유사하여 13세기 생산품으로 보인다. 못 지층에서 출토된 동전의 시기는 가장 늦은 것이 ‘紹定元寶’(1228-1233)인데, 이는 楊皇后의 졸년이 1232년인 것과 부합한다. 따라서 청자 파편의 연대는 1232년보다 늦지 않을 것이다. 즉, 이들 고려청자는 12세기부터 13세기 중반인 것으로 판단된다.

杭州 半山銅鐵廠에서 발견된 고려청자는 동일 墓葬에서 출토된 ‘紹興九年文思院鑄建寧軍節度使’銘 銅印에 근거해 볼 수 있다. 銅印의 사용자로 墓主人 남송시기 寧軍節度使 韋謙의 졸년이 紹興 26년(1157)이며,⁵⁵⁾ 이 완의 저부에 삼각형 배열의 지정 흔적이 3개 있는데, 동일한 받침 방법이 12세기 생산품 중 많이 보이므로(도 40), 이 완의 생산연대는 12세기 중기로 여겨진다.

北京 烏古論 墓의 묘지에는 묘주의 생졸연대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망 시기가 그의 아들인 元忠의 출생년인 1138년 이후 일 것이다. 豐臺區 大興朗鄉의 이 묘는 大定 24년 옮긴 것으로 靑瓷執壺의 연대는 1138년부터 1184년 사이로 판단된다.

德惠攢頭堡金代遺趾에서 출토된 비색유의 번개문이 음각된 완은 받침 방법을 보아 고려청자임을 알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보건대,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와 철기가 모두 金代 것이며 元代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완의 연대 역시 金代에 속할

54) 주석 29와 같음.

55) 彭善國교수는 고려청자의 시대 편년을 다음 세 시기로 나눴다. 첫째는 南宋~金代로, 12세기 중엽경부터 13세기 중기경이다. 둘째는 蒙元時期로 13세기 중기경부터 14세기 중기다. 셋째는 元末明初로 14세기 후기부터 15세기 초기다. 彭善國, 「中國出土高麗靑瓷論述」, 『邊疆考古研究』 第14輯(2014), 185쪽. 본문에서도 彭善國 교수의 판단에 근거해 3개의 시기로 나눴다. 그러나 일부 출토품의 시기는 다른데 보충된 신자료의 편년에 판단을 더하여, 중국 출토 고려청자의 시기를 도출하였다.

것이다. 즉, 13세기 중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內蒙古에서 출토된 거북형연적의 제작연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른데, 강진요지에서 출토된 거북형향로 파편(도 41)과 유사하여, 12세기 생산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窰藏에서 출토된 龍泉窯 荷葉文蓋罐과 이 유적의 다른 지점에서 출토된 元代 유리홍자기를 통해 이 유적이 元代 유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窰藏에서 출토된 <龍泉窯蓋罐>과 신안 침몰선에서 출수된 <龍泉窯荷葉罐>이 일치하여, 이 窰藏의 연대는 14세기 초중기로 편년된다. 고려청자 연적이 중국에 유입된 시기는 元代이지만, 생산 시기는 12~13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2) 元代 초·중기(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 중기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가운데 상감청자의 경우 대부분 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 중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상감자기의 문양 특징이 비교적 쉽게 연대를 판단하게 한다.

하얼빈 水田村 窰藏에서 청자상감완과 함께 출토된 鈞窯藍釉瓷器는 전형적인 元代 양식이다. 또한,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출토된 13세기의 흑백상감화훼문완 파편(도 42)과도 유사하여, 이 완의 연대는 元代 초·중기인 13세기 중·후기 이후로 판단된다.

吉林塔虎城과 遼陽 北園 6호 묘에서 잔 2점이 출토되었는데, 2점 모두 구연은 내만하며 구연에는 백색의 번개문대가 상감되었다. 또한, 동체에는 화훼문이 상감되었는데, 모두 같은 시기의 생산품으로 보인다. 遼陽 北園村 5·6호 묘의 형태는 元代 墓葬의 구조이며, 출토된 鈞窯 藍釉瓷器, 醬釉碗, 盤이 모두 元代 유형이므로, 잔의 제작 연대가 13세기 중·후기에서 14세기 중기로 여겨진다.

遼陽 藍家鄉에서 출토된 청자상감국화문베개와 신안선(14세기 중기 이전)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베개의 형태가 유사하다. 당초문과 번개문이 함께 상감된 것이 성숙된 공예 수준을 보여준다. 이 고려청자 베개의 연대는 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 중기로 판단된다.

遼陽 龐家河 1호 묘와 瀋陽 小南門에서 출토된 청자완 3점의 기형이 유사하며, 상감된 여지문도 유사하여 같은 시기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龐家河 1호 묘의 청자완과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출토된 13세기 완(도 43)은 거의 같다. 小南門의 고려청자완에 상감된 여지문과 구조는 고려 明宗 智陵 출토의 청자완(도 33)과도 유사하다. 동반 출토된 다른 유물과 함께 봤을 때 청자완은 13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瀋陽 望花家에서 출토된 청자접시는 내저와 내벽에 화훼와 여의문이 백상감되었다. 상술한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완(도 45)의 문양 구조와 유사하여, 그 시기는 13세기 중기로 판단된다.

瀋陽砂山에서 출토된 청자잔탁은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는데, 기형과 문양이 전성기 상감청자와 같다. 잔의 모든 화판에 2개의 국화문이 시문되었는데,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도 46)와 부안 유천리에서 같은 문양의 잔편이 출토되었다(도 47). 따라서 13세기 후기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寧昌路에서 출토된 상감고족배는 元代城址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몽고 귀족이 음주를 애호했던 풍습에 따라 생산된 기형으로 馬上杯라고도 부르며, 元代 중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상감고족배에 상감 장식된 운문은 간략화되었는데, 상감청자가 쇠락하기 시작한 것임을 설명한다. 생산연대는 비교적 늦은 편이며,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에서 출토된 뚜껑(도 48)의 운학문과 또 다른 운학문이 시문된 뚜껑(도 49)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 초기에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石家庄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 墓主는 고고학적 판단에 근거하면, 元代 大臣 史天澤의 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史天澤은 1275년 사망하고, 延祐 3년(1316) 매장되었다. 묘실 안의 유물은 대부분 元末明初에 도굴되었지만, 매장 연대는 매병의 생산과 중국 유입 시기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奎州의 전주초등학교에서 출토된 운학문매병(도 50)은 史氏墓 출토 매병과 유사하며, 흑자는 부안 유천리 생산품으로 보고 있다. 이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 조형과 문양을 종합해 보면, 고려 상감청자의 전성기 산물로 13세기 중·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南京 牛首山에서 출토된 매병과 吳江 同里鎮에서 출토된 매병은 모두 상감청자이며, 그 기형이 유사하다. 상감 圖案이 史氏 가족묘에서 출토된 치밀한 문양의 상감청자와는 다르게 제작되었는데, 전체적인 상감 도안을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식물 도안으로 표현하였다. 화면 구성은 시원스러운 편이며 산수화풍이다. 이러한 장식 유형의 매병은 밀양 영원사 유적에서 출토된 매병(도 51)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4세기 중·후반기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揚州에서 출토된 청자 파편은 유층이 탁한 편이다. 상감청자 전성기 보다 늦은 시기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元代에 출현한 高足杯와 결부해 보면, 13세기 중기부터 14세기경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3) 元末明初(14세기 만기)

고려는 1392년 멸망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明初에 해당한다. 14세기 중기 이후 제작된 고려청자는 이전 시기에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가 印畫한 다음 화장토를 넣어 구운 것이었다. 태토와 유약에는 불순물이 많으며, 유색은 누런빛을 띤다.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 후기의 것, 즉 14세기 만기의 자기는 비교적 적다.

山東 蓬萊 登州小海沈船 3호선에서 출토된 청자완 2점 가운데 대완의 유색은 짙은 청색을 띠며, 소완의 유색은 약간 누런 청색을 띤다. 태토 역시 짙은 흑색이

며, 태토 내에는 불순물이 비교적 많다. 문양은 모두 백색 화장토로 상감하였는데 수파문과 연화문을 간단하게 장식하였다. 3호선 제6선창의 고려청자가 발견된 곳과 비교적 가까운 지점에서 醬釉瓶 1점이 발견되었다. 모두 제20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醬釉瓶은 元代의 것으로 추정된다. 제20층에서 이외에 청자와 백자가 출토되었다. 청자완의 하한은 明初보다 늦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⁵⁶⁾ 고려의 청자상감 국판문완의 제작 문양과 태토, 유약의 특징과 비교하건대, 元代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安徽 滁洲墓에서 출토된 靑瓷龍文罐은 동체에 자연스럽게 생동하는 용 문양이 상감되었다. 유색은 누런빛을 띠는 청색이다. 이는 강진 사당리 23호 묘지에서 출토된 용문매병(도 52)과 유사하며, 강진에서 출토된 매병(도 53)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14세기 만기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자료를 바탕으로 계통을 정리하고, 고려청자의 지역적 분포 현황과 시대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유적은 東北과 華北, 華東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둘째, 제작 시기는 宋·金時期(12세기 중기~13세기 중기), 元代 초중기(13세기 중기~14세기 중기), 元末明初(14세기 만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필자는 상술한 기초 연구로 이하 4가지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고려청자가 중국에 유입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고려청자가 중국에 유입된 경로는 무엇인가. 셋째,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사용 계층은 누구인가. 넷째, 당시 중국인의 고려청자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이다. 지면상 관계로 필자는 향후에 이를 토론하고자 하며, 이 글 역시 보충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실물 자료 수집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최근까지 중국의 발굴조사 보고서와 간략 보고서에 발표된 고려청자 자료에는 한계가 있는데, 1960년대부터 고고학자와 도자사학자들이 중국에 고려청자 유물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고려청자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고려 초기청자는 제작 공예가 월요 자기와 유사한데, 태토와 유색도 유사하여 쉽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56) 佟佩華·王錫平·滕建英·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煙臺市博物館·蓬萊市文物局, 앞의 책(2006), 58쪽, “發掘出土器物表一覽表”. 제20층에서 출토된 백자완의 경우 元末明初 磁州窯 생산품이며, 청자완은 明代, 靑瓷罐은 明初의 것이다. 이를 보면 제20층은 元末明初 층위로 청자완은 조선 초기 생산된 분청사기일 가능성이 적다.

둘째,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자료는 대부분 민간 소장품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된 것이 아니다. 이 점은 고려청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당연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식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은 고려청자는 발굴 시기와 발굴 지점, 층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분석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출토된 자료가 많아진다면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실제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면 등의 원인으로 일부 심화된 문제는 향후 토론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와 일본 하카다(博多)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할 수 있겠다. 또한, 고려청자가 출토된 東北과 華北, 華東 세 지역은 宋, 遼, 元과 고려 간에 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유입된 생산품의 품질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정권의 고려청자에 대한 애호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토론해 볼 만하다. 이러한 심층적인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3부 토론문

韓盛旭(民族文化遺産研究院)

유적에서 출토된 고고 자료를 통해 고려의 해상활동과 대외교류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하고 있어 고려 사회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판단된다. 알찬 발표들로 큰 이견은 없으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먼저 정의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考古 資料로 본 高麗의 海上活動」은 고려의 해상활동을 문헌 자료에서 벗어나 해저유적에서 출수된 선박을 비롯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고려의 활발하였던 해상활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羅末麗初에서 고려로 변화되면서 선박의 구조와 나무못의 결구 양상이 전혀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고려의 다른 선박에 보이지 않은 격벽이 확인되는 蓬萊船의 경우 격벽이 확인되는 요인은 무엇인지요?

3. 현재 출수된 고려 선박에서 造船의 지역성을 확인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초마선과 평저선, 잉박선 등의 조운 담당 선박의 종류가 다양한데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요?

4. 진도 용장성과 항파두리성의 축조에 선박을 이용한 상황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요?

5. 완도 청해진 유적의 일부인 장도 유적은 일반적으로 제사 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군진으로 정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끝으로 “고려 청자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명성이 높았으며 그 수요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문헌은 매우 한정적이며 출토 사례도 일정 지역에 머물고 있어 이를 입증하려면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董千里 선생님께서는 「中國 出土 高麗靑瓷의 地域別 分布와 時代的 特徵」을 통해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를 지역별·시기별로 정리 연구하여 고려와 중국의 교류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

문은 발표자께서 결론에 제시하신 4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먼저 듣고 하나만 추가하고자 합니다.

1. 즉, “첫째, 고려 청자가 중국에 유입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유입 경로는 무엇인가. 셋째, 사용 계층은 누구인가. 넷째, 당시 중국인의 고려 청자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그리고 중국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는 교역품도 있으나 사신 왕래에 의한 선물 성격의 고려 청자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교역품과 이외의 성격을 갖는 청자의 구분이 가능한지요?

降矢哲男 선생님께서는 「日本 出土 高麗 青磁」을 통해 오래 시기 일본과 다양한 교류를 실시한 고려의 對日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 제시하여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중국의 董千里 선생님께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1. “첫째, 고려 청자가 중국에 유입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유입 경로는 무엇인가. 셋째, 사용 계층은 누구인가. 넷째, 당시 중국인의 고려 청자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있다면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일본에서는 소비의 중심인 首都였던 京都의 경우 고려 청자가 매우 소량 확인되고 있으나 對馬島와 博多 등 九州地域의 출토 수량은 매우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近畿地域에서 고려 청자가 소량 확인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3. 또한, 시기적으로 鎌倉時代に 전국적으로 고려 청자가 확산되는데, 鎌倉幕府가 고려 청자를 선호한 이유와 鎌倉時代 고려 청자의 國內 流通 構造와 經路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